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Analytical Survey on the Condition of Visual Artists

김달진미술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Analytical Survey on the Condition of Visual Artists



김달진미술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 달 진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발 행 처 : 김달진미술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T.02)730-6214 F.02)730-9217
홈페이지 www.daljin.com
발 행 인 : 최명자
발 행 일 : 2007년 8월
편집제작 : 포아트커뮤니케이션
인 쇄 처 : (주)상경커뮤니케이션즈
ⓒ 김달진미술연구소, 2007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시각예술인들의 생활수준, 소득수준과 창작활동 및 지원 수혜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2.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시각예술인 6,65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이중 답변이 충실한 1,389명의 설문지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3. 분야별로는 창작분야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서예, 영상설치, 비창작분야로 큐레이터, 미술사가, 미술평론가가 포함되었습니다.

4. 수록된 설문내용의 기준 시점은 2006년 12월 31일 입니다.

5.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 』: 도서나 보고서, 연구자료 등의 제목
   「 」: 논문 제목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 〉: 미술작품의 제목
   ‘ ’: 고유 의미를 가리키는 인용구나 구절
   “ ”: 직접 인용문

6.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의 내용은 달진닷컴 홈페이지 (http://www.daljin.com) 미술자료실 –〉 자료창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책임연구자 :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 공동연구자 :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서진수 (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박준헌 (Art Management Union 대표)
◎ 연 구 원 : 김미령 (베이징아트싸이드 큐레이터)
: 김창조 (문화네트워크 시월 전시기획팀장)
: 한수진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 한진희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7
1. 연구 배경 ····· 27
2. 연구 목적 ····· 2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0
1. 모집단의 범위 및 대상 ····· 30
2. 조사표본의 선정 및 추출방법 ····· 30
1) 표본의 선정 ····· 30
2) 표본의 추출과정 ····· 31
3. 조사방법 및 시점 ····· 32
1) 예비 설문 ····· 33
2) 1차 우편 조사 ····· 33
3) 2차 온라인 조사 ····· 33
4) 3차 현장 조사 ····· 34
5) 4차 현장 조사 ····· 34
6) 5차 우편 조사 ····· 34
7) 자료 분석 ····· 3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5

제2장 시각예술의 개념 및 특성

제1절 시각예술의 개념 ····· 39
1. 시각예술의 정의 ····· 39
2. 시각예술의 범위 ····· 40
3. 본 조사에서의 시각예술인의 범위 ····· 40
제2절 시각예술의 특성 ····· 42
1. 시각예술의 특성 ····· 42
2. 시각예술의 가치 ····· 45

제3장 유사연구 사례 분석

제1절 유사연구 사례 ····· 51
1. 연구 개요 ····· 53

목 차

1) 2003 ·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53
2)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53
3) 200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 54
4) 2005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 54
5)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 55
6)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55
2. 연구 내용 ····· 59
1) 재정 실태 ····· 59
2) 예술 지원정책 실태 ····· 63
3)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 ····· 66
4)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실태 ····· 70
제2절 유사연구 사례 분석 ····· 73

제4장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창작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 79
1. 응답자 특성 ····· 79
1) 성별 ····· 79
2) 장르 ····· 80
3) 활동기간 ····· 81
4) 연령 ····· 82
5) 월소득 ····· 82
6) 학력 ····· 84
7)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가족 구성 ····· 84
8) 지역별 분포 ····· 85
9) 직업 보유 여부 ····· 86
2. 창작활동 ····· 87
1) 첫 작품 발표 시기 ····· 87
2) 첫 작품 발표 방식 ····· 88
3)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 91
4) 첫 개인전 소요비용 ····· 94
5) 최근 3년간 발표 경험 ····· 94

Contents

6) 작품 발표에 대한 주목도 ····· 100
7) 시각예술관련 단체 활동 ····· 103
3. 수입과 지출 ····· 108
1)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08
2)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11
3) 월평균 지출 ····· 115
4. 작품판매 ····· 117
1) 지난 3년간 작품 판매여부 ····· 117
2) 판매 대상 ····· 119
3) 판매 경로 ····· 120
4)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1
5) 판매가격에 대한 만족도 ····· 123
5. 지원 실태 ····· 125
1) 지원정보의 입수 경로 ····· 125
2) 지난 3년간 지원받은 경험 ····· 127
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144
4)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 146
5)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점 ····· 149
6. 정보 활용도 ····· 152
1)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경로 ····· 152
2) 작품발표의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 154
3) 온라인 매체 ····· 156
4) 인쇄 매체 ····· 162
7. 사회적 위치 ····· 165
1) 직업 실태 ····· 165
2) 복지 실태 ····· 167

제2절 비창작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 169
1. 응답자 특성 ····· 169
1) 성별 ····· 169
2) 장르 ····· 169

목 차

3) 활동기간 ····· 170
4) 연령 ····· 170
5) 월소득 ····· 171
6) 학력 ····· 172
7)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가족 구성 ····· 173
8) 지역별 분포 ····· 173
9) 현 소속 영역 ····· 174
2. 활동실태 ····· 175
1) 첫 활동 방식 ····· 175
2)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 177
3) 첫 활동 시 장애요인 ····· 178
4)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활동 ····· 180
5) 비평 및 저서 활동 ····· 182
6) 시각예술관련 단체활동 ····· 184
3. 수입과 지출 ····· 187
1)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87
2)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88
3) 월평균 지출 ····· 189
4)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수입 ····· 189
4. 지원 실태 ····· 191
1) 지원정보에 대한 관심도 ····· 191
2) 지난 3년간 지원받은 경험 ····· 191
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199
4)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 200
5)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만족도 ····· 202
5. 정보 활용도 ····· 203
1)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경로 ····· 203
2) 기획 및 비평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 204
3) 온라인 매체 ····· 205
4) 인쇄 매체 ····· 208
6. 사회적 위치 ····· 211

Contents

1) 직업 실태 ····· 211
2) 복지 실태 ····· 212

제5장 시각예술인 실태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시각예술인 실태분석 ····· 218
1.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분석 ····· 219
2. 작품 판매 및 경로에 대한 분석 ····· 222
3. 학력 수준에 대한 분석 ····· 223
4. 지역별 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 ····· 224
5. 시각예술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 225

제2절 시각예술 지원에 관한 제언 ····· 227
1. 문화예술진흥기금 ····· 228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 231
3. 미술은행제도 ····· 234
4. 미술창작스튜디오 ····· 238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순수시각예술분야 국내 정책의 실태 ····· 251
1. 문화예술진흥기금 ····· 251
2.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 252
3. 미술은행제도 ····· 253
4.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 253
5. 미술창작스튜디오 ····· 254
6. 복권기금 ····· 254
7. 메세나 ····· 255
8. 아트페어 지원정책 ····· 255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 ····· 256
10. 공공미술프로젝트 ····· 256
11. 조세지원제도 ····· 257
12. 책임운영기관 ····· 258
13. 문화중심도시 ····· 258

목 차

제2절 해외 시각예술 분야 지원정책의 실태 ····· 260
1. 예술인 창작활동 재정 지원 ····· 260
2. 신진 예술인 지원 ····· 262
3. 예술인 복지정책 ····· 264
4. 창작 공간 지원 ····· 265
5. 아트뱅크 ····· 267
제3절 지원의 보완 및 방법 ····· 268
1. 기관과 기금 ····· 269
2. 공간과 레지던시 혹은 창작스튜디오 ····· 270
제4절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 271

참고문헌

부록
1.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 279
2.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 307

표 목 차

[표 1-1] 조사설계표 ····· 31
[표 1-2] 조사내용 ····· 32
[표 2-1] 유사사례 연구 조사설계표 ····· 56
[표 2-2] 유사사례 연구 설문 조사 세부내용구분 ····· 57
[표 2-3] 유사사례 연구의 목적 및 결과 ····· 58
[표 2-4]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한 소득 수준 ····· 60
[표 2-5]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의한 소득 수준 ····· 60
[표 2-6] 2005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실태조사 및 분석에 의한 소득 수준 (전문종사자) ····· 60
[표 2-7] 각 연구별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 ····· 61
[표 2-8]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 64
[표 2-9] 창작활동관련 기관별 지원금 수혜비율 : 2003 · 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65
[표 2-10] 대한민국 국민 학력별 인구구성 ····· 67
[표 2-11] 캐나다 예술인 교육수준 ····· 68
[표 2-12] 미술행사 관람율 추이 ····· 70
[표 2-13] 미술행사 연평균 관람 횟수 ····· 70
[표 2-14] 국내 박물관 · 미술관 현황 ····· 71
[표 3-1] 미술 · 조형분야 대학원 학생 수 : 2006 교육통계연보 ····· 80
[표 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소득 수준 ····· 83
[표 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연령 ····· 88
[표 3-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 90
[표 3-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 93
[표 3-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성별, 장르별 발표 경험 ····· 96
[표 3-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경험 ····· 102
[표 3-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률 ····· 105
[표 3-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의 목적 ····· 106
[표 3-1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11
[표 3-1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14
[표 3-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여부 ····· 118
[표 3-1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대상 ····· 120
[표 3-1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가격 결정요인 ····· 122
[표 3-1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정보 검색율 ····· 126

표 목 차

[표 3-16]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1
[표 3-17]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4
[표 3-18]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5
[표 3-19] 개인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8
[표 3-20]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40
[표 3-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43
[표 3-22] 복권기금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43
[표 3-2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146
[표 3-2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 148
[표 3-25]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151
[표 3-2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입수 경로 ····· 154
[표 3-2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접속 경험 ····· 157
[표 3-2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 ····· 158
[표 3-2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 ····· 160
[표 3-3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개인 홈페이지 제작/운영 의향 ····· 162
[표 3-3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인쇄 매체 정기구독 여부 ····· 163
[표 3-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 166
[표 3-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 ····· 168
[표 4-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 ····· 172
[표 4-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 176
[표 4-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 177
[표 4-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시 장애요인 ····· 179
[표 4-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비평 발표 시 장애요인 ····· 180
[표 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프로젝트 기획 및 언론소개 여부 ····· 181
[표 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 현황 ····· 185
[표 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87
[표 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89
[표 4-10] 중앙정부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2
[표 4-11]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3
[표 4-12]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4
[표 4-13]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6

표 목 차

[표 4-14]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7
[표 4-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8
[표 4-16] 복권기금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9
[표 4-1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200
[표 4-1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 201
[표 4-1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꼽은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202
[표 4-2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203
[표 4-2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발표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 204
[표 4-2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접속 경험 ····· 205
[표 4-2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 ····· 206
[표 4-2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 ····· 208
[표 4-2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 ····· 213
[표 5-1] 직업별 근로자와 시각예술인의 응답자 특성 비교 ····· 219
[표 5-2] 학력별 직업별 월평균 임금 비교 ····· 221
[표 5-3]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 231
[표 5-4]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 ····· 233
[표 5-5] 해외 미술은행 운영 현황 ····· 235
[표 5-6] 연도별 미술은행 예산 현황 ····· 237
[표 5-7] 연도별 작품구입 연령대별 현황 ····· 237
[표 5-8] 전국 국 · 공 ·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 240
[표 5-9] 국내 주요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 239
[표 5-10] 해외 주요 아트스튜디오 현황 ····· 241

그 림 목 차

[그림 1-1] 조사진행 흐름도 ····· 33
[그림 2-1] 각 분야별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보유율 ····· 62
[그림 2-2] 시각예술인의 비예술관련 직업 보유의 이유 ····· 63
[그림 2-3] 연구별 학력 수준 ····· 66
[그림 2-4] 제조업 종사자 학력 추이 ····· 67
[그림 2-5]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2003 · 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69
[그림 2-6] 해외 주요국가와의 박물관 수 비교 ····· 71
[그림 3-1]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성별 비율 ····· 79
[그림 3-2]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장르별 비율 ····· 81
[그림 3-3]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활동기간 ····· 82
[그림 3-4]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연령 비율 ····· 82
[그림 3-5]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소득 비율 ····· 83
[그림 3-6]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학력 비율 ····· 84
[그림 3-7] 창작시각예술인 결혼 여부 ····· 85
[그림 3-8] 창작시각예술인 자녀 유무 ····· 85
[그림 3-9] 창작시각예술인 가족 구성 ····· 85
[그림 3-10]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지역별 비율 ····· 86
[그림 3-11] 창작시각예술인 비예술관련 직업 유무 ····· 86
[그림 3-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첫 작품 발표 시기 ····· 87
[그림 3-1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대별 첫 작품 발표 시기 ····· 87
[그림 3-1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 88
[그림 3-1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대별 첫 작품 발표 방식 ····· 89
[그림 3-1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첫 작품 발표 방식 ····· 89
[그림 3-1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 91
[그림 3-1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성별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 92
[그림 3-1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 92
[그림 3-2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개인전 소요 비용 ····· 94
[그림 3-2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발표 경험 ····· 95
[그림 3-2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장르별 발표작품 수 ····· 96
[그림 3-2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발표작품 수 ····· 97
[그림 3-2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지역별 발표작품 수 ····· 97

그 림 목 차

[그림 3-2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 연령별 최근 3년간 개인전 개최 수 ····· 98
[그림 3-2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 연령별 최근 3년간 단체전 개최 수 ····· 98
[그림 3-2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월소득별 단체전 개최 수 ····· 99
[그림 3-2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해외 개인전 경험 ····· 99
[그림 3-2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해외 단체전 경험 ····· 100
[그림 3-3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경험 ····· 101
[그림 3-3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횟수 ····· 101
[그림 3-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피 비평발표매체 및 피 비평선호매체 ····· 103
[그림 3-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여부 ····· 104
[그림 3-3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률 ····· 104
[그림 3-3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가입단체 수 ····· 105
[그림 3-3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활동에 드는 비용 ····· 107
[그림 3-3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08
[그림 3-3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성별 월평균 수입 ····· 109
[그림 3-3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 109
[그림 3-4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활동기간별 월평균 수입 ····· 110
[그림 3-4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지역별 월평균 수입 ····· 110
[그림 3-4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12
[그림 3-4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성별 월평균 수입 ····· 112
[그림 3-4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 113
[그림 3-4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활동기간별 월평균 수입 ····· 113
[그림 3-4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대비 지출 ····· 115
[그림 3-4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소 생활 영위를 위한 월평균 수입 대비 실제 월평균 수입 ··· 116
[그림 3-4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작품 판매여부 ····· 117
[그림 3-4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작품 판매여부 ····· 117
[그림 3-5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역별 작품 판매여부 ····· 119
[그림 3-5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대상 ····· 119
[그림 3-5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작품 판매경로 ····· 121
[그림 3-5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작품 판매경로 ····· 121
[그림 3-5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가격 결정요인 ····· 122
[그림 3-5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판매 가격만족도 ····· 123

그 림 목 차

[그림 3-56] 일반인의 미술품 구입 경험 ····· 124
[그림 3-57] 작품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 ····· 124
[그림 3-5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정보 입수 경로 ····· 125
[그림 3-5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지원정보 검색율 ····· 125
[그림 3-6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지원정보 검색율 ····· 126
[그림 3-61]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 128
[그림 3-62]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28
[그림 3-63]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액 ····· 129
[그림 3-64]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 129
[그림 3-65]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 130
[그림 3-66]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공간지원 현황 ····· 131
[그림 3-67]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1
[그림 3-68]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32
[그림 3-69]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 132
[그림 3-70]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 133
[그림 3-71]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공간지원 현황 ····· 133
[그림 3-72]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4
[그림 3-73]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34
[그림 3-74]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학력별 평균 지원액 ····· 135
[그림 3-75]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6
[그림 3-76]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36
[그림 3-77]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지원 현황 ····· 137
[그림 3-78]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 137
[그림 3-79]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38
[그림 3-80]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38
[그림 3-81]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액 ····· 139
[그림 3-82]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 139
[그림 3-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40
[그림 3-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41
[그림 3-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지원액 ····· 141
[그림 3-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학력별 재정지원액 ····· 142

그 림 목 차

[그림 3-8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 142
[그림 3-88] 기타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44
[그림 3-89] 기타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44
[그림 3-9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145
[그림 3-9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 145
[그림 3-9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 147
[그림 3-9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활동기간별 만족도 ····· 147
[그림 3-9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대비 만족도 ····· 149
[그림 3-95]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150
[그림 3-9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입수 경로 ····· 152
[그림 3-9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장르별 정보 입수 경로 ····· 153
[그림 3-9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연령별 정보 입수 경로 ····· 153
[그림 3-9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발표의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 155
[그림 3-10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대중지와 온라인 매체의 연령별 선호도 비교 ····· 155
[그림 3-10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인터넷 접속 경험 ····· 156
[그림 3-10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 ····· 158
[그림 3-10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창작소개 홈페이지 보유 여부 ····· 159
[그림 3-10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시의 장애요소 ····· 160
[그림 3-10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개인 홈페이지 제작/운영 의향 ····· 161
[그림 3-10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 정기구독 여부 ····· 163
[그림 3-10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인쇄 매체 정기구독 이유 ····· 164
[그림 3-10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 165
[그림 3-10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소득 별 직업 유무 ····· 165
[그림 3-11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의 종류 ····· 167
[그림 3-11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 ····· 167
[그림 3-1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타 사회보험 가입률 ····· 168
[그림 4-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성별 비율 ····· 169
[그림 4-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 비율 ····· 170
[그림 4-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 기간 ····· 170
[그림 4-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 분포 ····· 171
[그림 4-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연령 분포 ····· 171

그 림 목 차

[그림 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 ····· 172
[그림 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 ····· 172
[그림 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결혼 여부 ····· 173
[그림 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자녀 유무 ····· 173
[그림 4-1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가족 구성 ····· 173
[그림 4-11] 비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지역별 비율 ····· 174
[그림 4-12] 비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장르별 현 소속 영역 비율 ····· 174
[그림 4-1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 175
[그림 4-1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첫 작품 발표 방식 ····· 175
[그림 4-1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첫 작품 발표 방식 ····· 176
[그림 4-1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 177
[그림 4-1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시 장애요인 ····· 178
[그림 4-1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비평 발표 시 장애요인 ····· 179
[그림 4-1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활동 시 주로 수록되는 매체 ····· 182
[그림 4-2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 기간별 전시평 발표 횟수 ····· 182
[그림 4-2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평 발표 시 주로 수록되는 매체 ····· 183
[그림 4-2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저서 발표 편수 ····· 183
[그림 4-2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저서 발표 편수 ····· 184
[그림 4-2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단체 가입 여부 ····· 184
[그림 4-2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단체 가입 여부 ····· 185
[그림 4-2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 목적 ····· 186
[그림 4-2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186
[그림 4-2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 187
[그림 4-2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 188
[그림 4-3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수입 비교 ····· 188
[그림 4-3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수입 ····· 190
[그림 4-3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정보 입수 경로 ····· 191
[그림 4-33] 중앙정부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2
[그림 4-34]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3
[그림 4-35]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93
[그림 4-36]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4

그 림 목 차

[그림 4-37]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94
[그림 4-38]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5
[그림 4-39]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95
[그림 4-40]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6
[그림 4-41]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96
[그림 4-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 197
[그림 4-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 197
[그림 4-44] 복권기금의 연도별 비창작시각예술인 지원 현황 ····· 198
[그림 4-45] 복권기금의 연도별 비창작시각예술인 지원액 ····· 198
[그림 4-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 199
[그림 4-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 ····· 200
[그림 4-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꼽은 만족스러운 정책 ····· 201
[그림 4-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203
[그림 4-5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발표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 204
[그림 4-5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사이트 접속 이유 ····· 205
[그림 4-5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획 및 비평 발표 여부 ····· 206
[그림 4-5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개인 사이트 보유율 ····· 207
[그림 4-5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 ····· 207
[그림 4-5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개인 사이트 운영 의사 ····· 208
[그림 4-5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쇄매체 정기구독 여부 ····· 209
[그림 4-5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인쇄 매체 정기구독 여부 ····· 209
[그림 4-5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쇄매체 정기구독 이유 ····· 210
[그림 4-5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 211
[그림 4-6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 종류 ····· 211
[그림 4-6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 ····· 212
[그림 4-6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타 사회보험 가입률 ····· 213
[그림 5-1] 대한민국 근로자와 시각예술인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비교 ····· 220
[그림 5-2] 작품판매 경로 ····· 222
[그림 5-3] 작품판매 대상 ····· 223
[그림 5-4] 시각예술인 대비 근로자 학력수준 비교 ····· 224
[그림 5-5] 연령별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대비 수혜율 ····· 226

1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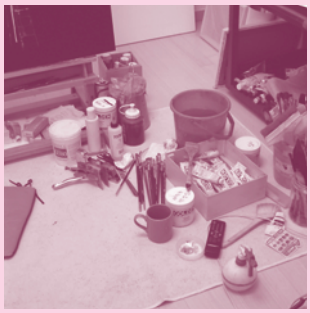





사진 : 김최은영, 『잉여의 시간』, 더갤러리, 200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05년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도모하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우리 문화가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함양할 것을 기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아래서 예술분야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표현과 진취적 실험적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예술을 통한 사회발전의 동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술 생산자인 작가와 소비자인 관람자 그리고 이 두 진영을 매개하는 예술행정가들의 상호 협력과 합리적인 지원 및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예술 생산자로서의 시각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각예술인의 사회문화적 위상이나 활동 및 창작 여건을 파악하

고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각예술의 발전과 시각예술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구축해보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시각예술인의 창작활동은 경제적, 사회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는 다년간 실시해 온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예술인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계를 위해 자활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도 다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실상이다.

시각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작품 활동 보조금, 전시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1차적인 지원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각예술인들이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마련, 예술 창작자와 향유자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표 공간의 확충, 작품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가격과 거래가 형성되는 건전한 시장의 조성,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향유할 줄 아는 폭넓은 예술 소비자층의 형성, 예술인의 능력과 가치를 개인의 욕구 충족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식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시각예술인의 사회적 위상 뿐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경쟁력 또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조사는 시각예술인 개인의 재정 현황과 더불어 교육, 창작 및 발표, 작품 판매, 지원 수혜 현황 등을 조사하고, 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각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연구자들은 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둘러싼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시각예술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현재 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하는데 기초를 이루는 생활수준, 소득수준과 창작활동 및 지원 수혜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시각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나 정보가 충분하게 축척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예술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모집단이 200명 내외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만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해 1988년부터 시작되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 이러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창작활동과 비창작활동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고, 문화예술인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극과 영화의 경우에는 제작/기획, 기술스태프 등도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각 장르별로 평론/이론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는 각 분야별로 조사대상이 200명씩 할당되어 있는데, 200명 안에 창작활동과 비창작활동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문화예술인의 전반적인 실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통계수치가 미술, 사진, 건축 등 시각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척도라고 보기에는 조사대상 집단의 규모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는 조사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구성을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시각예술분야 통계와 함께 국내 시각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 조사 또한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를 거듭할수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통계수치의 제공이 목적이었다면, 본 연구는 시각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둘러싼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가속화되는 문화예술의 산업화,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예술 또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더 높은 가치창출을 시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예술 지원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조와 철학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한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은 시각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시각예술인에게 문화 창조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당하게 부여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 제언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모집단의 범위 및 대상

본 조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시각예술인을 기초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시각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시각예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구분에는 미술, 건축, 사진,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미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순수성과 응용성의 구분이 어려운 건축, 사진, 디자인을 제외한 순수 미술 분야만을 시각예술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서 다룬 시각예술인의 범위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집단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한국미술협회 회원 23,146명(2006년 8월 기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산하 민족미술인협회 회원 700여명, 미술인회의 회원 600여 명 중 창작시각예술인 220여명 등 국내에서 조직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3개 단체의 협력을 받아 각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였으며, 추가로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00여명의 미술인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작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은 크게 창작분야와 비창작분야로 나누었다. 세부적으로 창작분야는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공예 · 서예 · 판화 · 영상설치로, 비창작분야는 큐레이터 · 미술사가 · 미술평론가로 구분하였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구분한 전시미술행정은 본 조사에서 기획 및 비평으로 포함되었으며 문인화는 한국화로, 미디어아트는 영상설치로, 수채화는 서양화분과로 포함되었으며, 디자인분과는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 조사표본의 선정 및 추출방법

1) 표본의 선정

시각예술인의 활동인구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선행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장르별 비례에 맞는 표본을 정확하게 할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장르의 표본 선

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영상설치 · 판화 · 공예 장르와 비 창작분야의 활동인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장르들과 동일한 비율로 표본을 수집할 수 없었다. 활동인원이 적은 장르 안에서 응답한 극소수 인원의 결과가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인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한국미술협회 회원 23,146명 중 장르별 · 지역별 · 연령별로 안배한 20%의 회원을 표본으로 선정했고, 표본수가 아주 적은 장르와 단체는 최대한 해당 인원 모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표본이 마련되었다.

[표 1-1] 조사설계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13">내 용</th></tr>
<tr><td>연 구 명</td><td colspan="13">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td></tr>
<tr><td>조사 대상</td><td colspan="13">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시각예술인</td></tr>
<tr><td rowspan="2">시각예술분야의 구 분</td><td>창작분야</td><td colspan="12">1. 한국화 (문인화 포함)
2. 서양화 (수채화 포함)
3. 조 각
4. 공 예
5. 판 화
6. 서 예
7. 영상설치</td></tr>
<tr><td>비창작분야</td><td colspan="12">1. 큐레이터
2. 미술사가
3. 미술평론가</td></tr>
<tr><td rowspan="4">조사 표본</td><td>총 표본 수</td><td colspan="12">1,389 명</td></tr>
<tr><td>성별 분류</td><td colspan="8">남성 876 명</td><td colspan="4">여성 436 명</td></tr>
<tr><td>활동분야별 분류</td><td colspan="9">창작분야 1,325명</td><td colspan="3">비창작분야 64명</td></tr>
<tr><td>장르별 분류
(전체 1,389명)</td><td>한국화</td><td>서양화</td><td>조각</td><td>공예</td><td>서예</td><td>판화</td><td>영상설치</td><td>기타</td><td>큐레이터</td><td>미술사가</td><td>미술평론가</td><td>기타</td></tr>
<tr><td></td><td>332</td><td>520</td><td>174</td><td>92</td><td>90</td><td>39</td><td>54</td><td>24</td><td>32</td><td>5</td><td>26</td><td>1</td></tr>
<tr><td rowspan="6">조사 방법</td><td>구분</td><td colspan="4">발송 설문</td><td colspan="4">회수 설문</td><td colspan="4">유효 설문</td></tr>
<tr><td>계</td><td colspan="4">6,650 부</td><td colspan="4">1,621 부</td><td colspan="4">1,389 부 (100%)</td></tr>
<tr><td>예비설문</td><td colspan="4">50 부</td><td colspan="4">35 부</td><td colspan="4">35 부 (2.5%)</td></tr>
<tr><td>우편조사</td><td colspan="4">4,100 부</td><td colspan="4">707 부</td><td colspan="4">475 부 (34.2%)</td></tr>
<tr><td>현장면접 설문</td><td colspan="4">1,000 부</td><td colspan="4">406 부</td><td colspan="4">406 부 (29.3%)</td></tr>
<tr><td>온라인 설문</td><td colspan="4">1,500 부</td><td colspan="4">473 부</td><td colspan="4">473 부 (34.0%)</td></tr>
</table>

2) 표본의 추출과정

구체적인 표본의 추출과정은 우선 장르별로 1,389명의 표본 수를 할당하여 이것을 다시 지역

별 · 연령별로 구분하였다. 표본이 추출된 지역은 14개 지역으로, 서울과 6개의 광역시(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외에 6개의 도(강원도 ·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외로 선정하였다. 조사의 장르 표본을 선정하면서 지역별 ·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시점

설문의 내용은 성별 · 연령 · 활동기간 · 가족 구성원 등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과 창작 및 발표활동 · 소득 · 정보 이용력 · 지원 수혜 · 정책만족도 등 예술활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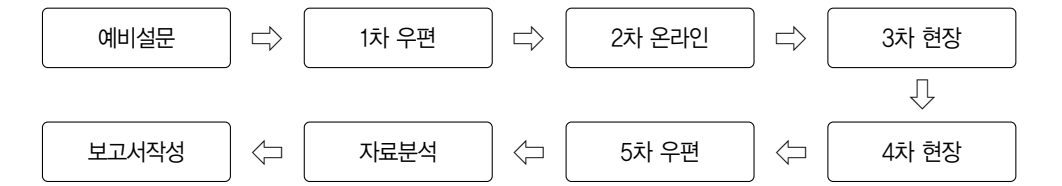
구 분	설문내용
창작활동 현황	첫 작품 발표 방식 첫 작품 발표 시기 첫 작품 발표 장애요소 개인전 소요 비용 지난 3년간 발표량 피비평 경험 피비평 매체 단체활동의 여부 및 목적
재정 현황	예술활동 관련 수입 비예술활동 포함 수입 비예술활동 포함 지출 최소생활 영위를 위한 수입
지원 현황	지원정보 관심여부 지난 3년간 지원여부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인지도와 만족도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개선점
작품판매 현황	판매유무 판매대상 판매경로 판매가격의 선정 및 만족도
예술정보의 활용도	시각예술관련 정보입수 경로 및 목적 작품홍보 시 주 이용매체 인쇄매체 · 온라인 매체 활용도
개인적 특성	활동기간 지역 학력 결혼여부, 가족구성 직업유무, 직업의 종류 사회보험 가입 여부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 내용을 확정하여 우편조사 · 현장조사 ·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우편조사와 현장조사는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조사원들이 우편발송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온라인조사는 ㈜엠브레인에서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를 이메일로 배포하여 응답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이 자발적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에서 선정한 응답 대상자 가운데 총 6,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621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그 중 응답이 충실한 1,389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했다.

[그림 1-1] 조사진행 흐름도



1) 예비 설문

2006년 11월 20일부터 예비 설문을 시행했다. 창작분야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50명을 선정, 발송하여 35부를 회수하였다. 예비 설문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본 설문에서 수정 · 보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 1차 우편 조사

2006년 12월 12일 1차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그 방식은 우편을 이용하였다. 발송대상은 미술협회 회원 중 무작위로 선발한 약 20%의 회원 3,500여명이었다. 우편 발송 후 설문 참여 및 회신을 위한 유도 전화 작업이 있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425부를 회수하였다.

3) 2차 온라인 조사

2006년 12월 30일 온라인 설문지를 미술인회의 회원과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보유한 미술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작가들 중 이메일 주소가 있는 1,50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메일 발송 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미술정보사이트 달진닷컴(www.daljin.com)과 한국미술협회 사이트(www.kfaa.or.kr)에서 바로 접속해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배너를 제작,

우편과 이메일을 받지 못한 작가들도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온라인 조사 또한 회신 유도를 위한 전화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473부를 회수하였다.

4) 3차 현장 조사

2006년 12월 21일 인사동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을 실시하여 5부를 회수하였다. 같은 달 29일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을 실시하여 13부를 회수하였다.

5) 4차 현장 조사

2007년 1월 7일 한국미술협회장 선거 현장에 투입된 조사연구원들이 현장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 · 광주 · 대구 · 부산 등 4곳으로 파견되어 총 388부를 회수(서울 61, 광주 148, 대구 56, 부산 123)하였다.

6) 5차 우편 조사

2007년 1월 12일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보유한 미술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작가들 중 6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여 282부가 회수되었다.

7)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응답된 설문지들은 연구소 연구원들의 수작업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주)엠브레인에 의해 데이터코딩, 편집과정을 거쳐 SPSS WIN 12.0[1]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3%다. 장르 · 성별 · 연령 · 지역 · 학력 · 활동기간 · 월평균소득을 독립변인으로 이용하였다.

1) 사회과학 통계분석 패키지(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시각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로서는 처음으로 6,500명이 넘는 가장 큰 규모의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621명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는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하여 고른 분포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시각예술인들의 의견과 그들이 처한 실태에 가능한 한 가까이 근접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우편이나 온라인 설문과 같은 간접적인 조사방법 뿐 아니라 시각예술인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굴절 없이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문자료 분석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유사 선행연구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시사점에도 유의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분석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 중립적 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연구자의 연구부분에 대한 상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각예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자인 시각예술인들의 기본적인 통계적 현황 파악에 부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시각예술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창작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국의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시각예술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정책 제안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시각예술인들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그 어떤 선행 연구결과 보다도 우리나라의 시각예술 정책을 펴나가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충실한 기본 데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1차적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각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후속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2장 시각예술의 개념 및 특성






제2장 시각예술의 개념 및 특성

제1절 시각예술의 개념

본 시각예술인 실태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시각예술에 대한 정의와 시각예술인에 대한 범위 설정이다. 분명한 정의와 명확한 대상이 설정된 후에 조사 설계를 해야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각예술인은 시각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예술은 무엇인가.

1. 시각예술의 정의

시각예술이란, 일반적으로 문자언어에 의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해 소통되고 이루어지는 예술을 말한다. 시각(視覺)이란 명사의 사전적 정의는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을 말한다. 시각예술(視覺藝術)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회화, 조각 등 시각만으로 감상하는 예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된다. 흔히 영어로는 visual arts라고 표기되는데 이때의 visual은 시각의(에 의한, 에 호소하는)라는 의미의 형용사다. 그렇다면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 정도로 해석되는 시각예술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미술, 공예, 디자인, 사진,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패션, 텔레비전, 컴퓨터그래픽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문화의 특성은 그래픽이나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의 영상에 따른 시각 세계의 확대이며, 오늘날 이들은 음성과 문자의 보정을 통해 의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와 병행하여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텔레비

전 등은 단지 시각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촉각, 청각 등과 함께 보여 지는 예술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의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의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2. 시각예술의 범위

한국문화예술진흥법(2000년 개정)에서 명시한 정책영역으로서의 미술의 일반적인 범위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부분으로 구분한다.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에 발표한 『새 예술정책』[2]의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순수미술과 더불어 건축, 사진, 디자인, 공예 등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응용미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서는 2006년부터 미술이라는 표기대신 시각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르는 미술이라고 표기했던 2005년과 2006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공예 · 디자인 · 사진 · 영상 · 설치 등을 2005년 이전부터 포함하고 있어 이미 미술이라는 구분은 순수미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점차 다양해지고 탈장르화의 현상을 보이는 미술 분야의 변화는 시각예술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보다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책적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예술의 범위에는 순수미술 · 공예 · 건축 · 사진 · 디자인 · 영상 · 설치 등이 포함되며 순수미술에는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서예 · 판화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본 조사에서의 시각예술인의 범위

본 조사는 순수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계하였고 순수 시각예술인의 대상을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서예 · 판화 · 공예 · 영상설치 · 기획/비평 분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공예 분과는 그 쓰임새와 실용성으로 본다면 응용미술에 속하겠지만 시각예술의 역사를 되짚어 볼

2) 『새 예술정책』, 2004. 2. 2 발표, 문화관광부(예술국)에서 예술정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자율 참여 분권〉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고, 예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9월말부터 예술분야 전문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련기관, 문화관광부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새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주요 장르별로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워크숍개최 등을 통하여 중장기예술정책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때 순수미술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미술이라 할 수 있어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새롭게 등장한 개념미술과 영상, 디지털 등을 매체로 한 뉴미디어아트의 경우 기존의 순수미술의 범주 안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현대미술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장르이므로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그 수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많지 않아 영상/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포괄하기로 했다. 기획/비평분과는 예술품을 창작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예술품에 관련된 기록 및 이론 등을 창작하고 있는 그들의 실태를 파악해 창작시각예술가의 실태와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사에 포함했다.

시각예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각자의 시각과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 차이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구분법이 이견을 낳을 수도 있으나 조사의 기간이나 인력, 재정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앞에서 논의한 범위 내에서 시각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가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첫 번째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응용미술들을 포함하기에는 본 조사의 방향과 내용이 산만해질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들이 후속 연구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시각예술인들과 시각예술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제2절 시각예술의 특성

1. 시각예술의 특성

시각예술은 분명히 타 직업군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우선 고용관계에 있어서 타직업군과 확연히 다른 고용형태를 들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80년 권장한 '예술인지위에 관한 권고'를 보면 예술인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한다" 라고 하고 있다.[3] 이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예술인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고용 및 피고용과는 무관하며, 타 직업군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각예술인 또한 위의 예술인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들이 작품 창작활동 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국가 및 공공기관, 기업에 예술작품을 납품하거나, 혹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교직이나 언론, 사무 등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각예술인들은 기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창작활동을 수행하며 시각예술가로 인정 받기위해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는 조소, 회화, 공예, 서예, 디자인, 도화, 만화창작, 조각 및 기타 관련기법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작, 제작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형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다고 하겠다.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다. 2003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故 구본주(具本柱, 1967~2003)씨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예술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이었다. 유족 측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와 1년 반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 끝에 2005년 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원심 판결은 예술 경력 5~9년, 정년 65세, 피해자 과실 25%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

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2003

지는 과정에서 보험사측은 조각가를 육체노동자로 간주해 예술경력 불인정, 정년 60세, 피해자 과실 70%를 주장하며 '도시일용노임' 인 월 115만원을 적용해 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산정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예술가들이 크게 반발하여 '조각가 故구본주씨의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대책위원회' 를 조직해 보험사와 조정한 결과 2005년 11월 보험사가 항소심을 취하하고 유족들은 1심 법원 선고대로 3억 5,000여 만 원을 보상받게 됐다.

이러한 사례는 예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지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정년 65세가 인정되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유직업인 예술인의 특성이 조금이나마 감안된 것은 예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권익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 하겠다.

시각예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전업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인노조결성을 둘러싼 시각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2007년 3월 일부 시각예술인들이 '한국미술인노동조합' 을 결성해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시각예술인의 타 직업군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 의 가입자격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창작으로만 생계를 잇는 전업미술인들로 한정되며 이들은 "작가들이 엄연히 노동자인데도, 그동안 인식이 미약했다"며 "전업미술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설립필증이 나오려면 전업 미술작가들이 근로자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얼마나 종속성(사업장, 출퇴근 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4] 이처럼 미술창작이라는 활동을 생업으로 해 온 전업미술가들이 그동안 노동법상 근로자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노동활동과 다르게 사용자와의 분명한 종속관계나 자율적 활동의 보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각예술의 특성을 인정하여 그들의 작업행위를 일방적으로 도시근로자로 분류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예술인의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 시각예술과 시각예술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한겨레신문, 2007. 3. 17

또 다른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시각예술인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은 타 산업구조에서 생산되는 재화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평가의 대상이 된다. 산업 생산물은 그 재화의 원재료비, 인건비, 유통비, 홍보비 등이 주된 가격결정 요인이며 실용성 및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그 재화의 선호도와 품질이 보장되는 반면에 시각예술인들이 생산해내는 작품 중의 상당수는 원재료비, 인건비, 유통비의 개념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작품들은 경매시장을 통해 이러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례로 2007년 5월 22일 서울옥션 경매에서 박수근 화백(1914~1965)의 「빨래터」는 국내 경매 최고가인 45억 2000만원에 팔렸고, 3월 7일 K옥션 경매에서 박수근의 유화 「시장의 여인들」이 25억 원에 낙찰됐다. 4월 7일에는 중국 근대화가 쉬베이훙(徐悲鴻, 1895~1953)의 그림 「너의 채찍을 내려 놓아라」가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중국 유화 사상 세계 최고가인 7,200만 홍콩달러(약 86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

작년 해외 사례를 보면 2월 8일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걸작품 8점이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000만 달러 (약 300억 원)에 낙찰 됐고, 1904년 작품인 「여름 낮」은 610만 달러에, 폴 고갱의 「두 여자 친구」는 1,230만 파운드(약 207억 원 상당)에 낙찰됐다. 4월 6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영국의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Giudecca, La Donna Della Salute and San Giorgio」(1841년)이 3,580만 달러 (약 350억원)에 낙찰돼 영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5월 2일에는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초상화 「마담 지누」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030만 달러 (약 430억 원)에 팔렸다.

하지만 이들처럼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받는 작품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미술가의 전 생애에 걸친 땀과 노력은 필수다. 이들 작품들은 사회적인 흐름과 예술 사조의 변화, 희소성, 후대의 마케팅 방법 등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어 그 평가기준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모호한 편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은 시각예술 전체를 고려해 볼 때 극소수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시각예술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자들의 노동활동과 같이 시각예술인들의 노동활동의 결과이면서도 그 결과물이 일반 생활용품이나 생활정보가 아니라 예술품이자 문화적, 정신적

컨텐츠가 생산된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특수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각예술인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활동과는 다른 창작활동을 하는 전문직업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각예술인들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법규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며, 그저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제도와 정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억대의 미술품 경매낙찰률, 아트펀드, 아트 재테크 등 연일 신문지상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해보일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수입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기 쉬운 대다수의 시각예술인의 권익과 창작활동의 기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제도 및 법규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2. 시각예술의 가치

예술의 가치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술에 있어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 예술작품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총체로서의 예술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예술품이나 각각의 예술 장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예술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예술품은 인지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 종교적 가치, 경제적 가치, 치료적 가치 등 여러 종류의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평가될 수 있는 여러 관점들만큼이나 많은 가치가 있으므로 그러한 예술품을 창조해내는 작가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치 평가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평가의 주체가 가진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종교기관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술의 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고, 교육기관에서는 예술에 내포된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역사적 가치와 함께 현재의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나 사회 발전을 촉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력을 좌지우지 할 중요한 요소로 '문화예술'을

꼽는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에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핵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 전반의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사회서비스의 공급과 매개인력을 통한 전문인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 예술활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예술가의 활동 지역이나 시기가 동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예술의 직 · 간접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인 것이다.

국가는 예술의 창의성을 모태로 문화 개념이 제안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남북 교류의 효과, 여성예술을 통한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 한류를 통한 한 · 일 교류의 효과, 청소년 예술 교육으로 가능한 청소년 정책의 효과, 미술치료 등을 통한 예술치유의 가능성, 소수자 문화의 이해를 위한 행동주의 예술의 효과, 도시 및 지역문화 공동체 수립을 위한 공공미술의 효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술경영의 효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예술은 사회를 순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술을 삶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실천은 그 새로운 결합 중 하나이다.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일,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극장과 각종 문화기반시설 속에서 새로운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람객과 함께 나누는 일, 철거민촌으로, 농촌으로, 폐광촌으로, 산간으로, 교도소로 예술이 찾아가 함께 사회적 질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일,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하나의 실험이자 모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일깨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어렵지 않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문화 분야의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대비 1%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문화예산은 기초예술 영역보다는 문화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의 시대, 시장개방의 시대에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문화산업의 기저가 되는 기초예술보다는 문화산업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화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초예술을 튼튼히 뿌리내리지 못한 문화산업은 쉽게 말라버리는 잎이나 꽃과 같은 존재임을 감안할 때 좀 더 기초예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 산업의 생산과 소비 현상이 다양해지고 첨단화 될수록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 기초예술의 중요성이다. 기초예술은 누구에게나 잠재한 창의성을 일깨우는 일이 될 것이며, 각자가 회복한 창의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고와 활동을 통해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시각예술은 이미 기초예술의 대표 영역으로 자리 잡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전의 순수미술 개념을 넘어서서 시각예술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있다. 시각예술은 과거에도 그러했었겠지만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나 학습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경제적이고 기초적인 영역 뿐 아니라 경제, 통신, 국방 등 우리 생활의 중요한 영역에서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예술연대가 2007년 2월 주최한 '심포지엄 : 한국사회와 문화예술의 미래'에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준모가 발표한 「시각예술의 가치와 미래」라는 발제문을 통해 시각예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각예술은 시각적 소통에 의해 보편성을 획득하는 언어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소통과 교류라는 것이 상호간 주고받음을 의미한다면 시각적인 교류야 말로 그 규모에서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장 두드러진 항목이 되는 것이다. 한 민족 혹은 국가의 시각적 문화 및 이미지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며 또한 구성원에게 일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예술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각예술도 변화하면서 시각예술의 표현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시각예술은 정보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개성을 반영한다. 즉 동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포착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또 다른 동인으로 작동하는 지식생산의 영역인 것이다. 특히 그 시대상은 예술가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동일한 사상이나 미감을 실천함으로써 움직이는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예술은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모든 인간의 사유와 감성을 표현하는 매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20세기 말부터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였고 이런 환경의 변모는 우리의 시각문화 또한 변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느 것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었다기보다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성취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사회적 자기정당화 과정이 공존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시각예술은 더 이상 재현적 기능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사회현상의 하나로 개량된 시각언어의 일종으로 수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각예술은 예술언어의 소통이자 동시에 보편적인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계속 진화하면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변화시켜나가는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게 된다."

시각예술은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을 매개로 해서 예술적 소통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분명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가치가 더욱 유용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 동안 근대적 가치 기준에 의한 계량화와 도식화를 척도로 삼아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을 사회발전의 부차적 산물로 취급해왔다. 예술을 삶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부가적 요소, 심지어는 사치나 낭비의 차원으로 이해해 온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세기를 맞으며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은 나날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제3장 유사연구 사례 분석






제3장 유사연구 사례 분석

예술인들의 창작여건 개선은 예술 진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예술인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본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각예술인(순수기초예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기초연구는 이번 기회가 처음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시각예술' 이란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관련 정책의 변화, 창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등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현 사회 내에서 시각예술의 위치와 변화의 추이 파악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을 시행하기에 앞서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문화예술 분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7개의 유사 선행연구에 관한 분석을 통해 좁게는 시각예술에 대한 위치를 점검하고, 넓게는 국내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현재 국내의 문화예술에 대한 통계 및 실태조사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공연, 연극,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 범위가 광대하여 각 예술장르가 가지는 창작여건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지만, 이를 통해 우선 문화예술계 전반의 각 장르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변화하고 있는 예술인 정책의 추이와 창작환경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각예술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계기로 시각예술인의 후속 연구 수립에 하나의 초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유사 선행연구 대상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었던 다음 7개의 연구로 한정했다.

-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200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 2005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제1절 유사연구 사례

1. 연구 개요

『2003 ·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200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등 5개의 연구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 및 연구이며,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부문 공공시설 및 기관을 상대로 현재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2005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는 예술인 대상 사회복지 시스템과, 문화예술분야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통계자료, 외국의 관련 자료와 논문을 연구한 조사이다. 각 유사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상과 연구 방법,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 마련의 시발점을 제공하려는 각 유사연구의 최종 도달점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각 연구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3 ·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본 조사는 국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어 선행조사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2006년의 실태조사는 2003년의 조사와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목적이 시계열 데이터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설문의 경우 200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연극,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여 각 예술 장르가 갖는 속성 및 창작여건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술분야별 표본크기가 작고 시각예술의 경우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표본 추출과 신뢰도가 미약하다.

2)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본 연구는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및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 · 경제적 현황 및 사회복지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 욕구를 차

례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 대상 사회보장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설문조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및 연극 네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총 40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3) 200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에서 순수전업미술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이다. '전업미술가'란 작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미술가란 뜻으로 전업 작가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창작활동만으로 기본적인 생계와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이중자활 활동을 하며 시간을 틈내어 창작하는 부업작가들과 구별 된다. 본 조사의 목적은 순수 전업미술가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에서 전업미술가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사의 정확한 표본 수가 나타나있지 않으며, 조사대상을 한국화, 서양화, 조각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는 등 미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조사라고 하기엔 미약한 부분이 많다.

4) 2005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영리 예술단체 ·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구현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는 국가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를 발전시켜온 수정자본주의[5]의 핵심 개념이다.

우선적으로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의 복지 국가적 관점에서 예술지원의 발전과정과 특성, 예술지원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역사는 서구 발전 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었고, 이 문제의 극복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현재 서구에서 크게 구별하고 있는 국가 주도형 지원과 민간 위원회형 지원의 두 관점에서 제시되었으며, 현재의 위원회가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지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5)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 그것에 수정을 가하여 모순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하려는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 ≒ 신자본주의

이와 같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영국 예술위원회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지원에 관련된 정책과 토론 그리고 논쟁의 핵심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민간 지원 부분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듯이 본 연구의 범위도 국가의 지원 영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지원금의 성격, 지원금의 규모, 지원금의 분배의 주체 그리고 분배의 방식 등은 한 나라의 예술적 토양과, 그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예술'의 의미는 '비영리 예술'로 한정한다.

5)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문화관광부의 용역을 의뢰받아 2005년 수행한 것이며, 기존에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행되어 온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여성문화정책포럼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문화예술인 활동 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물들을 검토하였고, 설문조사는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과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조사가 전문종사자 중심의 조사인 것에 반해 본 조사는 미래의 전문종사자가 될 잠재적 종사자의 인식과 위상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타 조사와 차별된다. 또한 기존의 장르 구분과 더불어 활동분야별로 구분하여 여성 문화예술인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과 관련된 정책연구 포럼을 2회 개최했다.

6)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일반 국민들의 문화부문 참여 실태와 문화부문의 사회서비스 정책현황 두 가지로 나누어 우선 살펴보고, 문화부문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문화부문 사회서비스와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문화 부문뿐만 아니라 관광, 체육부문의 사회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병행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공공시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황과 신규로 도입하고 싶은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제공의 일선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 서비스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유사사례 연구 조사설계표

구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 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여성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 조사 및 분석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연구 기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사)한국 전업미술가협회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조사 대상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문학 미술 음악 무용/연극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설문미실시)	문학 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영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시도관광담당자 관광공사 지방 관광공사 체육부문 국민체육센터
전체 표본 크기	2,000명	400명	1,500여명	–	2,000명	250개처
시각예술 표본크기	200명	100명	1,500여명	–	549명	–
조사 기간	2003. 8.11~10.20 2006. 9.25~11.17	2003. 6. 9~6.18	2004년	–	2005년	2006년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팩스 이메일	우편조사	–	면접조사 팩스 e-Survey	개별면접 이메일 팩스

[표 2-2] 유사사례 연구 설문 조사 세부내용구분

구 분	설문내용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활동 실태(연간 · 통산 창작활동) –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 예술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 예술인의 교육과 직업 – 예술인의 의식과 예술정책의 평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직업활동과 취업상태 – 직업소득과 창작활동에 의한 소득 – 4대 사회보험의 집단별 가입유무 및 형태 –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 작가의 분포 (연령 · 성 · 학력별 분포) – 창작 환경과 활동 실태 – 창작소득 – 작품의 평가 – 전업미술가의 사회적 위상 – 미술인 대상 정책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설문 미실시)
여성문화예술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 – 최종학교 전공과 현재 활동영역의 일치여부 – 생활수준 – 소득 · 지출 수준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매체 활용 실태 –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보 활용 실태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요인 – 문화예술분야 활동 시 장애 경험 – 성 차이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활동 시 장애유형 – 문화예술활동 시 남녀 간 차이에 대한 인식 – 여성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 – 여성문화예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시설부문 : 공급/매개/수요실태 – 인력부문 : 공급/매개/수요실태 – 프로그램 : 공급/매개/수요실태

[표 2-3] 유사사례 연구의 목적 및 결과

구 분	연구의 목적 및 결과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예술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이다.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다른 연구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의 기초자료가 된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지, 또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설문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복지제도 가입정도와 욕구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추출하고 검토할 운영사항과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와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전업미술가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부업 작가들과 구분 지은 순수 전업미술인들의 창작환경을 통계로 나타내고 있다.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화예술 지원금, 즉 재정 분배의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한 문화예술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고 및 기금에 관한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원의 당위성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지원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설정 및 위원회와 현장 문화 예술계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여성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행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한국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현황을 남성과 비교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향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문화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문화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예술부문 사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2. 연구 내용

1) 재정 실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예술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인 만큼 예술인들의 소득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사사례 연구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이러한 의미로 예술인 소득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각예술인의 실태를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사회 집단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느꼈던 작가들의 생활여건을 수치로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작가들이 심각한 저소득 생활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근로자 1인의 평균소득이 166.6만원[6] 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시각예술인의 주 소득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판매를 통한 수입은 조사대상자의 58.0%가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4%는 판매를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어야 하는 창작활동을 통한 소득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연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시각예술인의 분포가 전체의 69%에 이르렀고, 그 중 10만 원 이하의 분포가 37.0%, 수입 없음이 4.0%로 나타나고 있었다. 3년 후인 2006년에 시행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39.0%로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는 응답은 7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에서 창작활동을 통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6.3%에 달하였고, 100만 원 이하가 69.5%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0만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90% 가까이 나타남으로써 창작활동에 의한 소득이 저조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2004 전업미술가 실태조사』의 설문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의 원로작가가 표본의 24.0%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96.0%가 창작수입 만으로는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겨우 4.0%만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생활형편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높았지만

6)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 Job Map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 2006 : 2005년 전국 5만 가구의 7만 여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거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92.0%)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작가들 중 89.0%의 월평균 소득액이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105만원(2004년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2005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실태조사/분석』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응답이 34.5%로 보여지고 있고, 이 중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한 소득 수준 (단위: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 만원 이하	11-20 만원	21-50 만원	51-100 만원	101-200 만원	201 만원 이상	계
미술 (200)	4.0	37.0	4.5	8.5	15.0	11.5	19.5	100.0
건축 (200)	28.0	25.0	4.0	7.5	5.5	6.0	24.0	100.0
음악 (200)	31.0	14.2	3.7	13.7	7.9	19.5	10.0	100.0
국악 (200)	6.0	5.5	2.0	9.5	18.5	34.0	24.5	100.0

[표 2-5]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의한 소득 수준 (단위: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무응답	계
미술 (100)	14.0	68.8	5.0	6.0	1.0	6.0	100.0
문학 (100)	13.0	76.0	5.0	3.0	–	3.0	100.0
음악 (100)	33.0	57.0	3.0	3.0	1.0	3.0	100.0
무용/연극 (100)	5.0	77.0	7.0	4.0	1.0	6.0	100.0

[표 2-6] 2005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실태조사 및 분석에 의한 소득 수준 (전문종사자[7]) (단위: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무응답	계
시각예술 (281)	5.3	29.2	37.4	15.7	5.7	1.8	5.0	100.0
공연예술 (226)	0.9	30.5	44.2	10.2	4.9	1.3	8.0	100.0
음악예술 (240)	–	15.4	40.0	20.8	9.6	7.1	7.1	100.0
문학 (197)	16.2	26.9	26.9	14.7	4.1	0.5	10.7	100.0

7) 『2005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에 대한 명칭은 전문종사자와 잠재적 종사자로 정하여 수행하였다.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시각예술인의 수치가 각 유사사례 연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구의 방향에 따른 설문대상자의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 또한 시각예술분야의 조사표본수가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549명)을 제외하고는 20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로 시각예술인의 전반적인 수입실태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가 시행된 시기의 차이로, 연도별 정책의 변화와 미술시장의 활성화의 추이 변화에 따른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7] 각 연구별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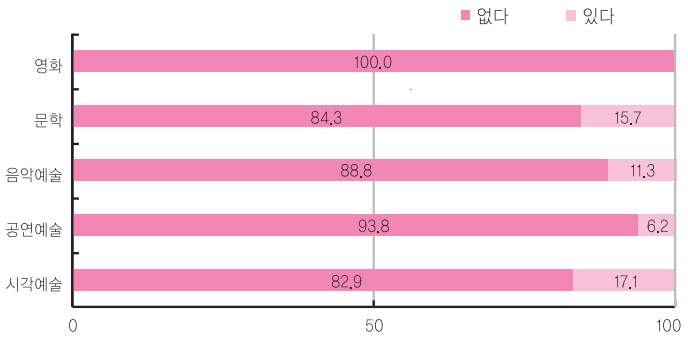
구분	유사사례 연구	100만 원 이하	(수입 없음)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69.0	(4.0)
2003	예술인사회보장제도연구	69.5	(16.3)
2004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	88.0	(0.0)
2005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	34.5	(5.3)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75.5	(39.0)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58.0	(30.4)

2006년에 시행된 본 연구에서도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29만 원인 반면,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이 235만 원인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9.3%인데, 이것은 예술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 등 사적인 보호 체계에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겠다. 문화예술활동의 장애경험에 대한 물음에 대해 유사사례 연구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 부족이라고 응답한 시각예술인 들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연관을 가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작품활동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고, 창작활동의 저조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결국 창작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예술인들이 생업을 위해 창작활동 외에 직업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 시각예술인 중 67.1%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유사사례 연구에서는 평균 72%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전업으로 활동 중

인 시각예술인의 분포는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가장 활발한 예술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되는 30~50대의 경우는 전업예술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예술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 각 분야별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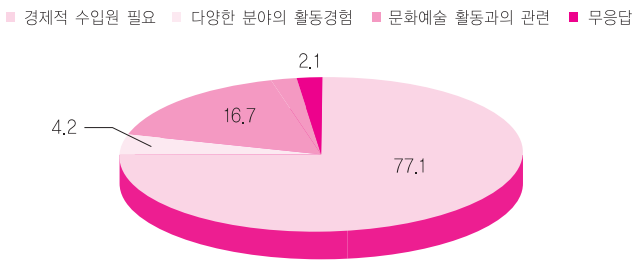
(문화관광부,『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 실태조사 · 분석』, 2005)

또한『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에 의하면, 시각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문학이나 다른 공연예술분야, 영화보다 예술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작활동 이외에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전업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비예술 관련 직업 보유 이유는 경제적 수입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가까운 수치로 조사되었다.

시각예술인들 가운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전업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앞선 예술인 관련연구 결과나 외국의 관련 입법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물론 문화예술계 전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직장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나 임시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노동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인 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은 전업예술인이라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 없이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영역에 속하는 시각 예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업 보유 여부 및 분야를 살펴보았다.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 역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창작활동 외에 직업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창작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는다면 굳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창작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 생계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 만큼 수치에서 나타난 소득액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2] 시각예술인의 비예술관련 직업 보유의 이유 (단위: %)



(문화관광부,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 실태조사 · 분석』, 2005)

2) 예술 지원정책 실태

예술은 그 자체의 순수한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해왔다. 특히 순수예술분야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보를 통한 노동력 절감 혜택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다른 분야만큼 얻을 수가 없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1980)』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사회의 진보 혹은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 있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하에 제도적인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① 예술가의 신분상의 취약성, ② 예술창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가 지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조사된 예술가 지위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예술의 순기능은 예술가를 위한 개별적, 집단적 복지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신분상 많은 제약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를 보호해야 할 지원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8)]

8)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와 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6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0년 우리 문화예술 부분 예산이 국민의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최초로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으며, 2001년에는 문화예술 부분 국가 예산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2006년까지 7년 연속 1%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문화부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예술 지원금의 전체 규모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의 국공립/민간 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9]과 복권기금에 의한 민간 예술영역 지원금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금관리비와 자체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최근의 순수기금사업비 총액이 2000년 44,558백만 원, 2001년 38,110백만 원, 2002년 28,242백만 원, 2003년에는 28,167백만 원으로 매년 감소되다가, 복권기금 전입과 기금의 증액 편성에 힘입어 2004년 81,480백만 원에서 2006년에는 111,236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정부예산	문화관광부			문화부문			비고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2000	949,199	11,707	36.7	1.23	9,639	45.0	1.02	–
2001	1,060,963	12,431	6.2	1.17	10,458	8.5	0.99	추경전 1.04%
2002	1,161,198	13,985	12.5	1.20	12,115	16.2	1.05	추경전 1.09%
2003	1,151,323	14,864	6.3	1.29	13,182	8.4	1.14	추경전 1.18%
2004	1,201,394	15,675	5.5	1.30	14,342	8.8	1.19	추경전 1.21%
2005	1,343,704	15,856	1.2	1.18	14,252	0.6	1.06	청소년국, 독립기념관 이체
2006	1,448,076	17,385	13.9	1.20	15,899	12.5	1.10	–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예진흥기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던 시각예술인들의 수는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작지원 부문에서 미술지원 규모가 연간 10억 원 선으로 전국의 미술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에 부족하고 시각예술분야의 다양한 장르 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최근

9)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 설치한 공공재원이다.

3년간 지원받은 적이 있었던 시각예술인이 전체 응답자의 3.5%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재정적 문제가 창작활동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한 시각예술인의 약 96.5%가 지원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3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금 수혜 비율은 중앙정부 2.4%, 지방정부 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 기타 공공기관 1.9%, 기업 2.3%, 그리고 개인후원자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수혜비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10.7%, 공공영역 16.0%, 민간영역 5.0%, 전체 18.5%였다. 2006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기관별 지원금 수혜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1.8%, 지방정부 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6%, 기타 공공기관 2.6%, 기업 1.9%, 개인후원자 4.1%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2003)에서 19.2%(2006)로 소폭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시각예술분야는 15.0%(2003)에서 34.5%(2006)로 증가하여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2-9] 창작활동관련 기관별 지원금 수혜비율 : 2003 · 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단위: %)

구분	2003년 조사	2006년 조사
중앙정부	2.4	1.8
지방정부	9.2	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	6.6
기타 공공기관	1.9	2.6
기업	2.3	1.9
개인 후원자	3.2	4.1

『2004년 전업미술가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0%만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미술정책 추진 중심이 미술계 특정인 위주라는 응답(55.0%)도 의미 있다. 이는 작가들이 정부의 지원금 분배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미술정책을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응답자의 80%는 정부의 전업 작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해서 미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작업실 지원(7.0%), 작품제작 지원(16.0%), 상설전시장 운영 또는 전시회 비용 지원(37.0%), 미술품 공동판매 시스템 구축(36.0%)등을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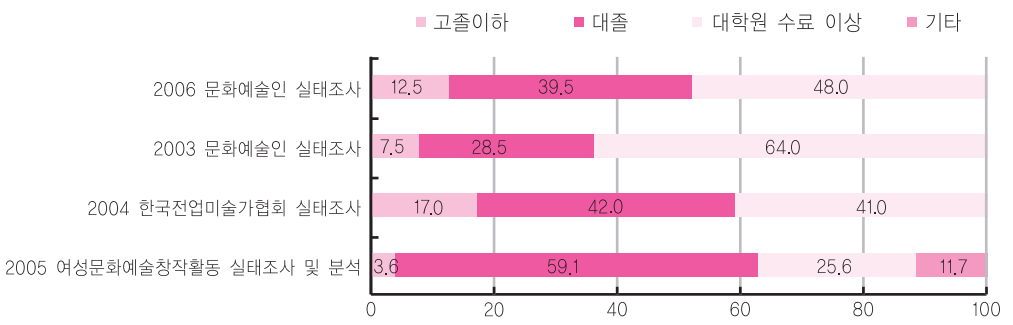
국공립예술기관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는 수천 개의 민간 예술단체/개인에 지원되는 기금의 규모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는 이들 국공립예술기관의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원금 분배에 대한 불만족 응답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지원금 분배의 불균형으로 예술 다양성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000년과 2003년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지원금 수혜현황을 보면, 지원금 수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재정지원 금액은 소폭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지원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우리나라 예술정책에 관해서 67.7%가 '불만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 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또한 61.1%가 자신들의 의견이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으며, '반영된다' 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예술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엇보다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31.1%)' 과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20.5%)' 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여전히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예술정책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은 7.3%에 불과한 반면 '불만이다' 는 응답이 49.4%에 달해서 예술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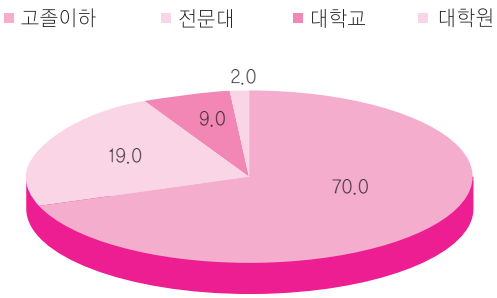
우선 유사연구사례들을 토대로 시각 예술인들의 학력별 추이를 조사하였다. 2003년에 시행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45.9%, 대학원 재학 이상이 35.3%, 중졸/고졸이 17.9%, 초졸 이하가 0.9%로 나타났다. 대학이상의 고학력자들이 80%가 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연구별 학력 수준 (단위: %)



2003년도에 실시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200명의 시각예술인 중 128명(64.0%)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후인 2006년에 시행된 조사에서 200명 중 87.5%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업미술가 실태조사』에서도 대졸 이상이 83.0%이며, 이중 석사이상이 41.0%나 되는 고학력 집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을 연구한 『2005년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에 따르면 전문예술종사자의 학력별 분포가 대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 제조업 종사자 학력 추이 (단위: %)



(중앙고용정보원 OES data, 2003)[10]

[표 2-10] 대한민국 국민 학력별 인구구성

최종학력	구성원 수 (명)	분포 (%)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13,088	14.80
중졸	2,720,464	12.15
고졸	8,837,367	39.47
2-3년제 대졸	1,962,254	8.76
4년제 대졸	4,794,477	21.41
석사이상	762,014	3.40
Total	22,389,664	100.00

(중앙고용정보원 OES data, 2003)

10) OES data의 모든 표본 수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data를 사용하였다.

유사사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 예술인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과의 평균 학력 추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03년 『고용구조공사(OES)』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들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7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대(19.0%), 대학교(9.0%), 대학원(2.0%)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에 시행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나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석사이상의 분포가 각각 35.3%, 64.0%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2000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시각 예술인들의 89.2%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6년에 시행된 본 연구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각 예술인들이 93.8%인 것으로 보아 시각예술인의 학력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미술계의 특성상 이러한 고학력 현상은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창작과 학위과정, 그리고 생업을 위한 기타수익 활동을 병행하면서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갖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전문교육을 받은 비율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것은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보다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각예술분야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술인의 고학력 현상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예술인 정책 체계와 방안 연구'[11]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예술인의 59.0%(2001년 기준)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40%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1] 캐나다 예술인 교육수준[12]

구분	예술인(명)	백분율(%)	전체노동자(명)	백분율(%)
고졸 미만	15,260	12.0	3,529,905	22.0
고졸 이상	29,905	23.0	4,395,975	27.0
직업학교 수료 또는 졸업	8,090	6.0	2,003,675	12.0
전문대학 수료 또는 졸업	23,960	18.0	2,938,975	18.0
대학 수료 또는 졸업 및 학위	53,230	41.0	3,547,250	22.0
전체	130,695	100.0	16,415,7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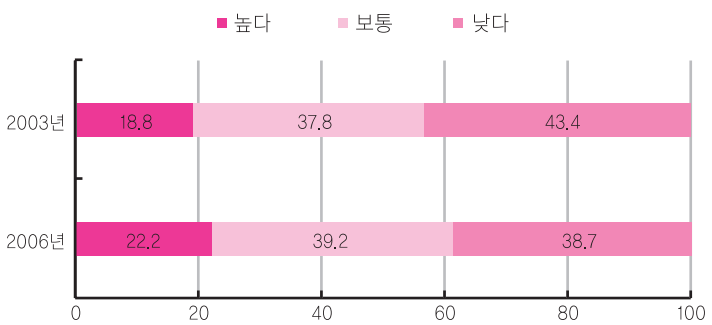
11)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와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6
12)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A Statistical Profile of Artists in Canad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Ontario Arts Council, 2004.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에 의하면 시각예술인들의 주 활동기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다른 예술군과 비교해 본 결과, 활동기간이 길수록 시각예술, 음악예술, 문학의 비율은 증가하고 공연예술과 영화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공연예술, 영화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도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각예술분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의미로는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보다 더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가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견해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 지고 있듯 예술인의 대다수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예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사회적 인식도 다른 직업 집단에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시장 중심적 사회에서 낮은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지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예술인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평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사회적 평가가 높다는 응답은 18.8%인데 반해, '낮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의 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도, 그리고 예술 활동의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림 2-5]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2003 ·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단위 %)



4)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실태

문화관광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시설들을 늘려왔으며 계층별, 지역별 특히 지역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화 관람을 제외한 문화예술 소비 및 향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술 전시회의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는 199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연도별 미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27.3%('97), 23.3%('98), 11.6%('00), 10.4%('03), 6.8%('06)의 추이를 보인다. 왜 미술 분야의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 각종 문화관련 시설들은 확충되고 있으나 예산, 인력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 예상된다.

[표 2-12] 미술행사 관람률 추이 (단위 %)

구분	1997	1998	2000	2003	2006
미술전시회	27.3	23.3	11.6	10.4	6.8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표 2-13] 미술행사 연평균 관람 횟수 (단위: 회)

구분	연평균 관람 횟수					관람자 대상 관람 횟수				
	1997	1998	2000	2003	2006	1997	1998	2000	2003	2006
미술 전시	0.6	0.5	0.3	0.2	0.2	2.3	2.1	2.4	2.2	2.1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2005년 기준으로 문화예술부문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박물관은 358개, 미술관은 80개이며, 1997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원하여 최근 8년간 등록박물관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여 1997년 180개소에서 2005년 358개소로 증가하였다. 미술관 역시 199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는 2010년까지 참여정부 미술부문 공약인 '1시도 1미술관 건립'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서관/박물관 등 타 문화시설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수준으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물관의 경우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미국(4,609관), 독일(4,034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관 당 국민 57,496명이,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관 당 국민 36,589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박물관 1관 당 134,078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1관 당 603,678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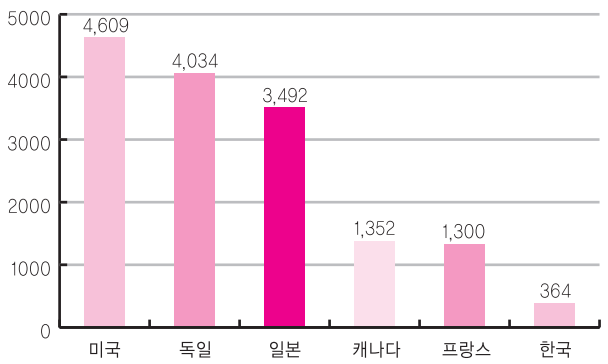
[표 2-14] 국내 박물관 · 미술관 현황

구분		1997	2002	2003	2004	2005
박물관	계 (관)	180	276	287	306	358
	1관당 인구 (명)	255,298	172,519	166,722	157,131	134,078
	국립 (관)	23	30	30	30	31
	공립 (관)	25	19	56	64	108
	사립 (관)	52	113	116	126	155
	대학 (관)	80	84	85	86	64
미술관	계 (관)	33	64	67	67	80
	1관당 인구 (명)	1,392,534	755,797	714,167	717,643	603,678
	국립 (관)	1	1	1	1	1
	공립 (관)	5	9	10	13	17
	사립 (관)	26	52	54	52	60
	대학 (관)	1	2	2	1	2

(박물관운용실태조사 · 미술관운용실태조사, 문화관광부)

[그림 2-6] 해외 주요국가와의 박물관 수 비교

(단위: 관)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06)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의하면 박물관/미술관의 공간(37.3%)과 재정(42.4%)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는 있지만, 인력충원(50.8%)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전문직종의 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필요성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술관의 인력 현황을 보면 학예사가 없는 곳이 31곳이나 되었으며, 관장 1인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전시업무까지 관장하는 지역 미술관이 많았다. 문화관련 일자리 수요는 6만여 명에 반해 실제 공급은 7,500여 명으로 문화부문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다.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전문직 인원 특히 학예연구직 큐레이터의 충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시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교육 및 홍보직의 보충은 박물관/미술관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서비스 실태는 정부의 주도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민간시설은 영세성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 미흡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문예회관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운영 상태는 부실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여 예술 소비시장을 확대시켜야 할 때이며, 예술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예술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창작과 소비활동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시급하다.

한국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 · 공립 미술관 건립, 경영전문가, 기획, 행정전문가 지원, 미술품 감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위감정, 시가감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민간 미술시장에서는 미술시장 투명성, 신용거래의 관행 구축, 미술시장의 전문성 구축과 국내 컬렉터의 적극수용, 시장의 투명화, 정보공개, 객관적 자료 제공, 전문서적 발간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술시장 확장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 경매회사와 화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관람객들의 증가는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시각예술인들의 작품에 대한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부추기고, 이는 시각예술분야의 생산과 매개, 소비의 흐름에 순환적 발전 구조를 가져온다.

제2절 유사연구 사례 분석

이상 7개의 유사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술인 전반 뿐 아니라 전업작가들이나 여성작가들과 같은 시각예술인들에 대하여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느꼈던 그들의 창작환경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읽을 수 있었다. 시각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지만 이 밖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시각예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부족, 시각예술인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흡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예술창작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중심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낮은 경제적 지위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예술인 스스로 느끼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예술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예술과 문화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7개의 유사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각예술인의 주 소득이 되어야 할 창작활동을 통한 소득은 각 유사사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절반 이상의 시각예술인들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저소득층(최저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자신의 본업인 창작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각예술 뿐 아니라 연극, 문학 등이 포함되어 본 조사와 조금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은 다를 바가 없다. 시각예술의 특성상 본 조사에서는 30.4%가 전혀 작품판매를 하지 못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에 다른 분야의 예술활동에서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출연료나 원고료 등의 수입이 발생하여 수입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본 조사와 조금 다르게 파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예술인의 경우에는 장르의 특성상 작품을 팔지 못하는 경우 출연료나 원고료 등의 소액 수입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작품의 창작에 투입되는 작가의 노동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작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액인데 작품을 둘러싼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작품판매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각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각예술인들의 수입이 낮은 까닭에 가장 활발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30대~50대 연령의 시각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창작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예술인들의 창작 외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계를 위한 기능 전수 위주였으며, 저소득층 예술인의 예술 기능적 활동과 연계된 자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등 이 사회에서 시각예술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드러났다. 미술인들 가운데 직업이 있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3.5%만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이나 보조금의 지원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각예술인들 96.5%가 지원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시각예술을 포함한 예술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은 아직도 우리의 실정에 맞춘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규모나 지원의 성격 면에서도 공정성이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의 자활을 돕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자활 후견사업을 확장하여 빈곤예술인의 문화 복지 도우미 제도의 도입과, 자활후견기간 중 일정부분 수입창출 활동을 병행하여 기간 종료 후 사회적 기업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소년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전업예술인들에게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서비스 증진 및 전업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 지역 내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등이 협력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시각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측면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문화부분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원금 분배의 불균형으로 예술 다양성에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국내의 거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공공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순수예술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 차원으로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기부금법 제정을 통한 지원과, 경제의 분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범국민적으로 문화 환경개선운동을 벌여 나가는 등 좀 더 효율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각예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주로 개별적 작가의 작품발표 활동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쳤으나 몇 년 전부터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창작 공간 제공, 미술은행 제도를 통한 작품 구입과 활용, 그리고 대안 공간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각예술의 향수자 차원에서의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을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교육전문가 육성과 그들의 교육활동도 증진시키고 있어서 간접적이나마 시각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시각예술계 전반으로 파급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이것은 『2006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의 예술정책에 관한 불만족도가 56.4%(매우 불만 21.2%, 다소 불만 35.2%)에 이르는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예술인들의 창작 결과를 발표하는 공간의 확보 면에서 볼 때, 수도권역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문예시설 위주의 수요/공급과 인력운영으로 소규모 시설과 전업예술인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1개의 시나 도에 1개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건물 건립사업에 치중되어 시각예술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각예술 창작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병행되지 않으므로 행정 위주의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시각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각예술인의 창작과 발표에 있어서 전시행정 위주의 성과주의에서 탈피하고 그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계층간 문화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성격의 사회서비스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함께 시각예술인 스스로도 자신들의 활동의 공익적 의미를 더욱 국민과 사회의 문화적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일부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미주의적 창작 태도나 우리 예술계에 비교적 널리 퍼져있는 패배주의적 사고와 정책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과 냉소적인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창작행위에 대한 사회적 의무나 기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순수 시각예술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설문 조사에 담지 못한 우리나라 시각예술인인 규모 통계나 미술계의 외부환경 문제 조사도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4

제4장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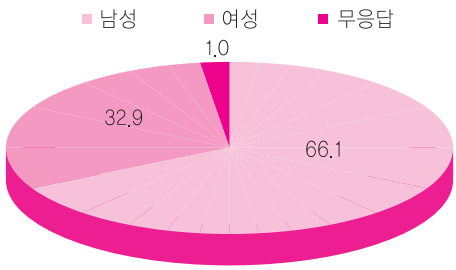
제1절 창작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1) 성별

본 설문에 응답한 시각예술인 1,325명 중 남성은 66.1%(876명), 여성은 32.9%(436명), 무응답 1.0%(13명)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그림 3-1]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성별 비율 (단위: %)



2003년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200명 중 남성 60.5%, 여성 39.5%의 비율로 나타나 설문조사 시행 시 여성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 미술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고 미술단체 중 가장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의 비율을 보면 전체회원 23,146명(2006년 8월 기준) 중 여성미술인의 분포가 약 12,300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서도 순수미술 분야의 석사과정에 있는 총 학생 수 2,065명 중 여성이 1,533명, 박사과정 중에 있는 191명 중 여성이 10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학력성취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설문조사 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1/3 수준에 머무는 것일까?

[표 3-1] 미술 · 조형분야 대학원 학생 수[13)]

(단위: 명)

구분	재적 학생 수						학위 취득생 수			
	합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미술/조형〉	3,127	2,191	2,817	2,030	310	161	736	525	25	17
순수미술	2,256	1,634	2,065	1,533	191	101	555	394	13	9
응용미술	158	109	124	91	34	18	45	32	8	6
조 형	713	448	628	406	85	42	136	99	4	2

유선을 통해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는 도중에 활동 중지 등으로 설문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여성미술인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활동 중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유사연구 사례로 다룬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에 의하면 남성 중심의 제도적 기반 및 가사와 양육문제가 여성의 문화 활동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어 본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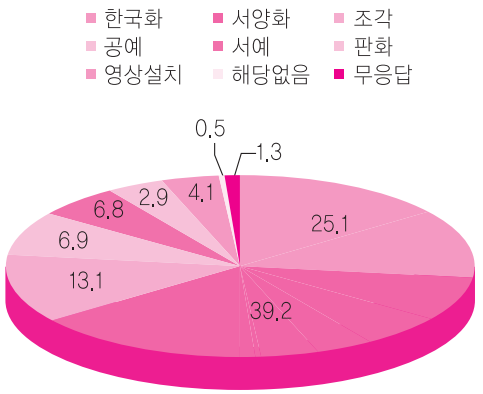
다음 항에서 다룰 조사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활동 및 경제적 여건 차이, 지원 수혜 여건 등의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 장르

2장에서 다룬 시각예술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창작시각예술인의 구분을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로 나누었다.

1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통계연보』, 2006

[그림 3-2]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장르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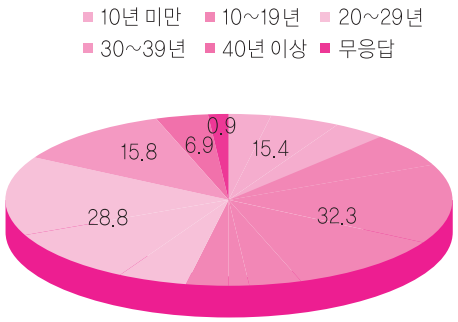
이 중 한국화는 25.1%, 서양화는 39.2%, 조각 13.1%, 공예 6.9%, 서예 6.8%, 판화 2.9%, 영상설치 4.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없음 (0.5%)과 무응답 (1.3%)의 비율도 적은 수치이지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전통적인 장르구분법인 한국화, 서양화 등으로 나누었지만 시각예술인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한국화, 서양화 등의 장르 구분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미술인에 대한 정책마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염두 해 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장르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순수 시각예술인에 대한 실태와 정책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3) 활동기간

조사에 참여한 1,325명 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분포는 10년 미만이 15.4%, 20년 미만이 32.3%, 30년 미만이 28.8%, 40년 미만이 15.8%, 40년 이상이 6.9%로 나타났고, 평균 활동기간은 19.8년이었다. 상대적으로 10~20년 경력의 시각예술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0년 이상의 경력자도 6.9%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의 시각예술인들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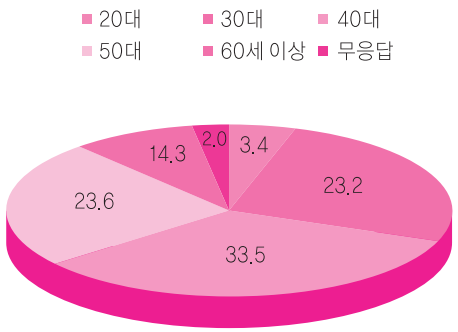
[그림 3-3]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활동기간 (단위: %)



4) 연령

연령분포는 20대가 45명(3.4%), 30대가 308명(23.2%), 40대가 444명(33.5%), 50대가 313명(23.6%), 60대 이상은 189명(14.3%)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3-4]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연령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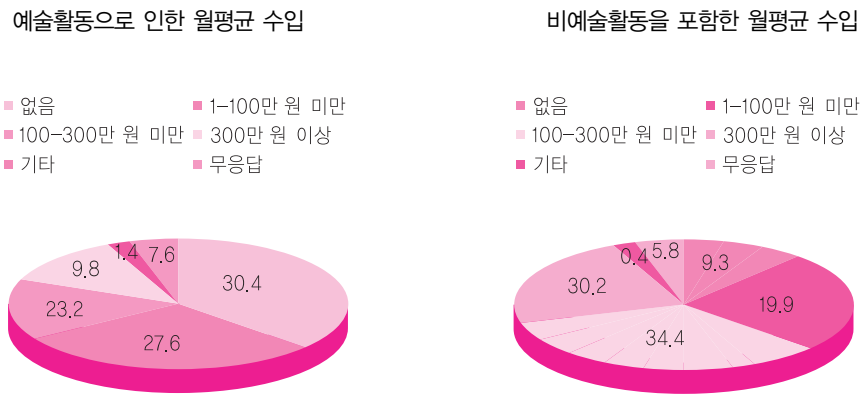
표본의 연령 비율로 보아 50대 이상의 시각예술인들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활동기간에서도 나타나듯 시각예술인의 활동 시 연령이나 정년에 대한 제약이 타 직업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5) 월소득

창작활동만으로 인한 소득수준은 월평균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평균 급여가 2,122,179원으

로 나타나 시각예술인과의 소득과 큰 격차를 보여준다.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일반적인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각예술인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235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인들도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술활동 이외의 다른 소득 활동을 병행하여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5]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소득 비율 (단위: %)



[표 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소득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평균	129	235
한국화	96	222
서양화	132	231
조각	186	249
공예	116	267
서예	143	246
판화	103	271
영상설치	118	194

노동부의 『2005년도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근로자의 생계비는 평균 1,176,695원으로 나타났는데, 생계비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식료품, 주거, 수도, 가구 및 가사용품, 피복 · 신발, 보건 · 의료, 교육 · 교양 · 오락, 교통 · 통신, 기타 소비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미혼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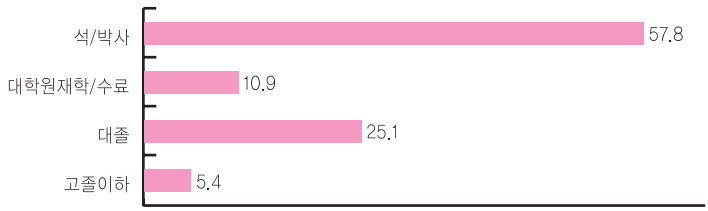
근로자들은 생계비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관련 소득 129만 원은 간신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창작활동으로 인한 소득수준은 성별 · 연령별 ·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낮은 소득수준의 원인은 무엇인지, 시각예술인들의 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해결방안으로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5장' 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6) 학력

시각예술인들의 학력수준을 조사한 결과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의 분포는 10.9%, 대졸 25.1%를 합한다면 총 93.8%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보유자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학력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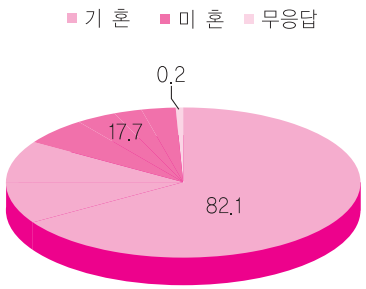


위의 월소득 부분과 연계해서 시각예술 분야의 구성원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이유, 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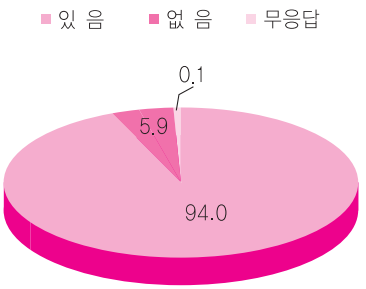
7)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가족 구성

응답자 1,325명의 82.1%가 기혼자이며, 절반 이상인 54.7%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혼자 1,088명 중 94.0%는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평균적으로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응답자 1,325명 중 1,000명 이상이 대체적으로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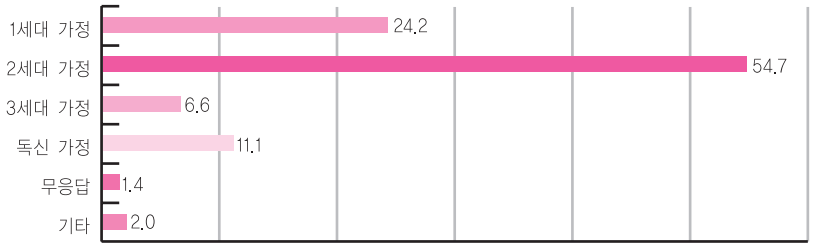
[그림 3-7] 창작시각예술인 결혼 여부 (단위: %)



[그림 3-8] 창작시각예술인 자녀 유무 (단위: %)



[그림 3-9] 창작시각예술인 가족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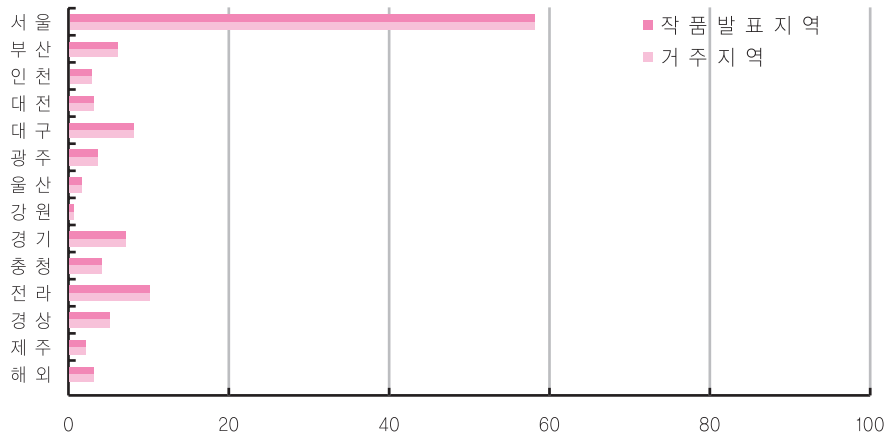


8) 지역별 분포

응답자 1,325명 중 과반 수 이상인 59.4%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단위 거주자가 17.0%, 도 단위 거주자는 14.9%, 해외거주자도 1.5%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는 65.9%에 달한다.

응답자의 작품 주 발표 수행 지역을 질문하여 거주지역과 발표지역과의 연관성을 밝히려 하였으나 지역별 시각예술인들의 활동장소와 발표장소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역별 분포는 지역의 시각예술 기반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만큼 수도권에 시각예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3-10] 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지역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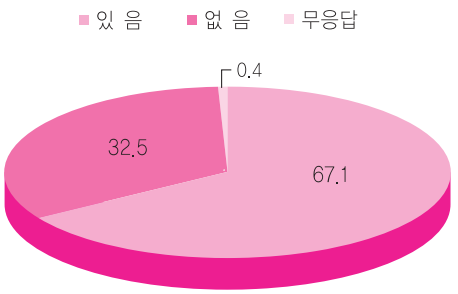


9) 직업 보유 여부

시각예술인 1325명 중 67.1%가 예술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시각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응답자의 58.0%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30.4%는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위의 7) 가족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1,325명 중 77.0%가 4인 가족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시각예술인들이 생계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시각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나 소득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그림 3-11] 창작시각예술인 비예술관련 직업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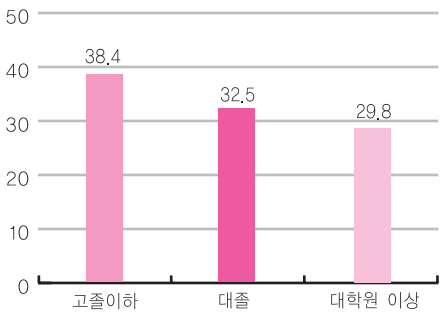


2. 창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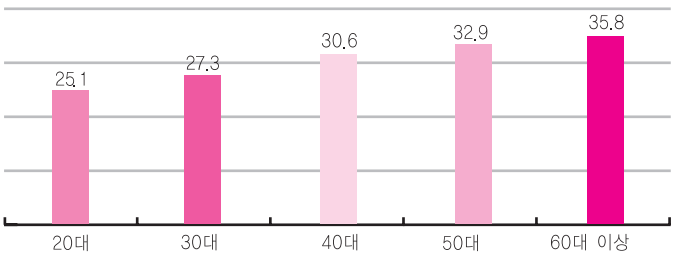
1) 첫 작품 발표 시기

시각예술인의 첫 작품발표의 시기는 평균 30.9세로 조사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1.1세, 여성이 30.5세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 추이를 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보유자는 29.8세, 대졸학력 보유자는 32.5세, 고졸 이하는 38.4세인 것으로 보아 전문교육을 받은 시각예술인일수록 데뷔시기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 첫 발표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전시공간의 다변화와 발표 여건의 다양화로, 그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첫 작품 발표 시기 (단위: 세)



[그림 3-1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대별 첫 작품 발표 시기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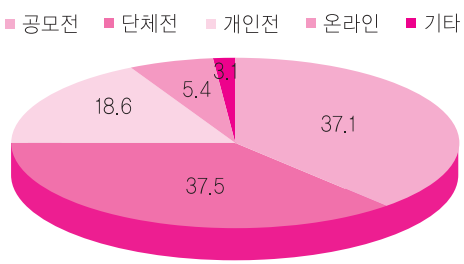
[표 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연령 (단위: 세)

구분		표본수	첫 작품발표 평균 연령
전체		1,308	30.9
성별	남성	870	31.1
	여성	425	30.5
	무응답	13	32.4
장르별	한국화	330	31.2
	서양화	512	31.2
	조각	174	29.7
	공예	90	30.7
	서예	86	34.2
	판화	39	26.8
	영상설치	53	27.0
	해당없음	7	34.1
	무응답	17	35.2
연령대별	20대	44	25.1
	30대	304	27.3
	40대	437	30.6
	50대	310	32.9
	60대 이상	188	35.8
	무응답	25	30.1

2) 첫 작품 발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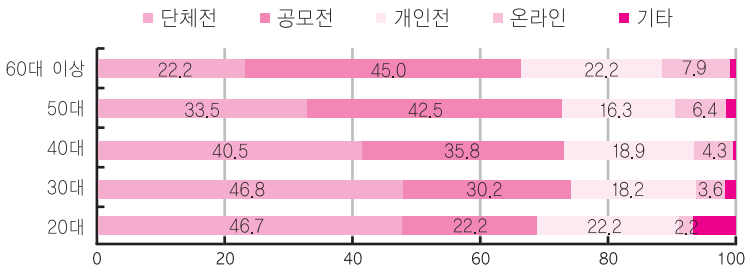
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 1,325명의 37.5%가 단체전으로, 37.1%는 공모전 출품, 18.6%는 개인전 개최, 5.4%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림 3-1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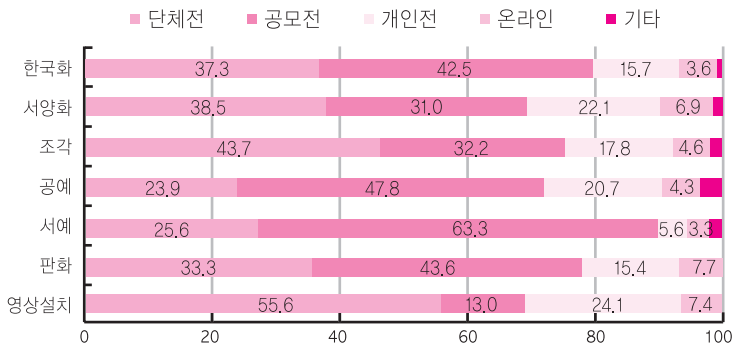
연령별 수치를 비교해보면 세대별 발표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20대는 46.7%가 단체전을 통해 첫 발표를 시작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공모전을 통한 데뷔방식이 각각 42.5%와 45.0%로 나타났다.

[그림 3-1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대별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장르별로는 서예 분과의 63.6%가 공모전 출품으로 첫 작품 발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분야의 연령대가 주로 40~60대(68.9%)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연령별 발표방식의 차이가 장르별 특성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한편 서예 분과의 '개인전 발표' 응답은 5.6%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개인전 발표 여건이나 작가의 인식, 혹은 낮은 주목도, 저조한 판매율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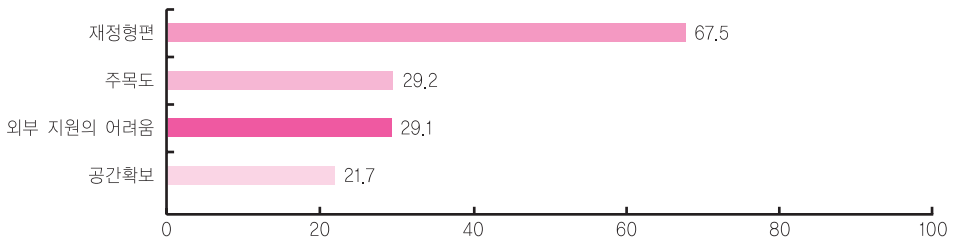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단체전 출품	공모전 출품	개인전 발표	온라인 전시	기타
전체 (1325)		37.5	37.1	18.6	5.4	1.4
성별	남성 (876)	35.8	39.4	18.6	5.3	2.9
	여성 (436)	41.3	32.3	18.8	5.0	2.6
	무응답 (13)	23.1	38.5	7.7	23.1	7.6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44.1	27.0	20.1	6.4	2.4
	20년 미만 (428)	45.3	31.5	18.7	3.5	1.0
	30년 미만 (381)	37.8	38.6	18.1	4.5	1.0
	40년 미만 (209)	24.9	49.3	14.8	9.1	1.9
	40년 이상 (91)	16.5	48.4	26.4	7.7	1.0
	무응답 (12)	16.7	58.3	8.3	–	16.7
장르별	한국화 (332)	37.3	42.5	15.7	3.6	0.9
	서양화 (520)	38.5	31.0	22.1	6.9	1.5
	조각 (174)	43.7	32.2	17.8	4.6	1.7
	공예 (92)	23.9	47.8	20.7	4.3	3.3
	서예 (90)	25.6	63.3	5.6	3.3	2.2
	판화 (39)	33.3	43.6	15.4	7.7	–
	영상설치 (54)	55.6	13.0	24.1	7.4	–
	해당없음 (7)	57.1	28.6	14.3	–	–
	무응답 (17)	29.4	35.3	23.5	5.9	5.9
지역별	서울 (787)	35.6	37.9	20.5	4.6	1.2
	부산 (58)	32.8	36.2	22.4	6.9	1.7
	인천 (23)	52.2	30.4	8.7	8.7	–
	대전 (29)	48.3	34.5	10.3	6.9	–
	대구 (85)	35.3	40.0	18.8	5.9	–
	광주 (37)	35.1	35.1	21.6	2.7	5.4
	울산 (16)	37.5	18.8	6.3	37.5	–
	강원 (7)	57.1	42.9	–	–	–
	경기 (64)	51.6	34.4	12.5	–	1.6
	충청 (20)	45.0	40.0	15.0	–	–
	전라 (110)	36.4	39.1	19.1	4.5	0.9
	경상 (53)	39.6	34.0	11.3	5.1	–
	제주 (8)	50.0	25.0	12.5	12.5	–
	해외 (20)	55.0	25.0	15.0	–	5.0
	무응답 (8)	12.5	50.0	–	12.5	25.0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전으로 출품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구지역의 응답자 85명 중 단체전 출품 비율이 35.3%, 공모전 출품 비율이 40.0%로 나타났고, 전라도도 36.4%와 39.1%로 공모전 출품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개인전 발표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지역은 각각 20.5%, 22.4%, 21.5%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6.3%(울산)부터 19.1%(전라)대로 나타나 응답자의 20% 미만의 작가들만이 첫 작품 발표 방식으로 개인전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

첫 작품 발표 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7.5%가 재정형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성별, 장르, 연령, 소득, 학력, 지역 등 모든 독립변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목도 29.2%, 외부지원의 어려움 29.1%, 공간확보 21.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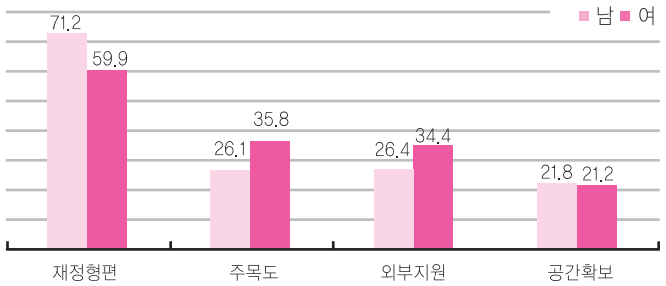
[그림 3-1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외부지원과 공간확보의 문제는 비용, 지원 정책, 공간의 크기 및 접근성 등의 여건 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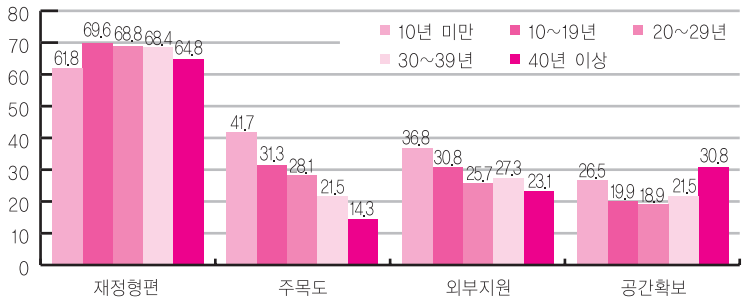
비율로는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기타 의견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 '작품의 질과 평가', '자신만의 갈등', '스스로의 작품성 만족도', '타인들의 평가의 심리적 부담감', '일반인의 호응 필요'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도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1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성별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작품 발표에 대한 장애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은 재정형편 71.2%, 주목도 26.1%, 외부지원의 어려움 26.4%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재정형편을 59.9%, 주목도 35.8%, 외부지원의 어려움을 34.4%로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생계와 작품활동을 동시에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주목도나 외부지원의 어려움을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여성이 창작활동에 있어 비교적 낮은 기회 여건에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활동기간과 나이에 따른 추이를 보면 재정 문제는 모든 변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목도의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점차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지역에서 재정형편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도를 장애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전체적으로 20~30%대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42.9%가, 제주도의 62.5%가 주목도를 장애요인으로 꼽아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거주 작가의 분포가 적은 지역으로 이는 작품 발표 장소의 부족,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부족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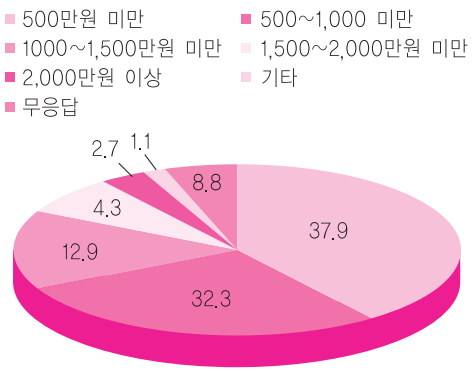
[표 3-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재정형편	주목도	외부지원의 어려움	공간확보
전체 (1325)		67.5	29.2	29.1	21.7
성별	남성 (876)	71.2	26.1	26.4	21.8
	여성 (436)	59.9	35.8	34.4	21.1
	무응답 (13)	69.2	15.4	30.8	30.8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61.8	41.7	36.8	26.5
	20년 미만 (428)	69.6	31.3	30.8	19.9
	30년 미만 (381)	68.8	28.1	25.7	18.9
	40년 미만 (209)	68.4	21.5	27.3	21.8
	40년 이상 (91)	64.8	14.3	23.1	30.8
	무응답 (12)	50.0	25.0	16.7	25.0
지역별	서울 (787)	67.7	30.4	29.2	25.3
	부산 (58)	60.3	27.6	34.5	19.0
	인천 (23)	69.6	39.1	34.8	26.1
	대전 (29)	69.0	31.0	27.6	6.9
	대구 (85)	70.6	31.8	25.9	8.2
	광주 (37)	81.1	21.6	24.3	18.9
	울산 (16)	43.8	25.0	37.5	18.8
	강원 (7)	42.9	42.9	28.6	28.6
	경기 (64)	70.3	32.8	39.1	21.9
	충청 (20)	80.0	15.0	35.0	25.0
	전라 (110)	65.5	22.7	24.5	11.8
	경상 (53)	69.8	26.4	18.9	22.6
	제주 (8)	75.0	62.5	37.5	25.0
	해외 (20)	60.0	20.0	35.0	15.0
	무응답 (8)	25.0	-	12.5	12.5

4) 첫 개인전 소요비용

첫 개인전 개최 시 소요비용에 대해 37.9%가 500만 원 미만, 32.3%가 500~1,0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7%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평균 소요 비용은 대략 69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개인전 소요 비용 (단위: %)



이 질문은 첫 작품 발표 시 가장 큰 장애요소로 느끼고 있는 '재정현황' 항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첫 작품발표 평균 나이가 30.9세이며, 이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이 월평균 약 80만 원인 시각예술인이 700여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개인전을 첫 작품 발표 방식으로 선택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회 개최 시 드는 비용은 전시장 대관, 홍보물 제작, 홍보, 오픈 행사 등에 사용되며 전시에 선보일 작품의 제작비는 제외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율의 시각예술인들이 단체전을 첫 발표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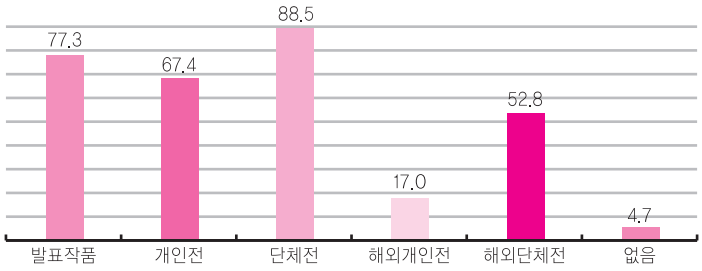
5) 최근 3년간 발표 경험

최근 3년간 시각예술인의 발표 경험, 발표 작품 총 수,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 개최 수를 통해 창작활동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① 발표 경험

발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1,325명 중 77.3%가 작품발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개인전은 67.4%, 단체전은 88.5%, 해외 개인전은 17.0%, 해외 단체전은 52.8%로 나타났다. 한편 3년간 발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7%나 되었다.

[그림 3-2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발표 경험-복수응답 (단위: %)



장르별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개인전 경험은 판화 분야가 87.2%로 가장 많고, 서예가 25.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해외 개인전의 경우도 판화가 평균치 17.0%를 훨씬 웃도는 25.6%, 서예가 가장 낮은 3.3%의 응답율을 보였다. 발표작품 수는 장르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전시회 개최 횟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항의 수입과 지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판화의 경우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이 넘어 조사대상 장르 중 가장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89.7%가 지난 3년간 작품판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판화장르의 비교적 높은 재정형편과 작품 판매율이 개인전 개최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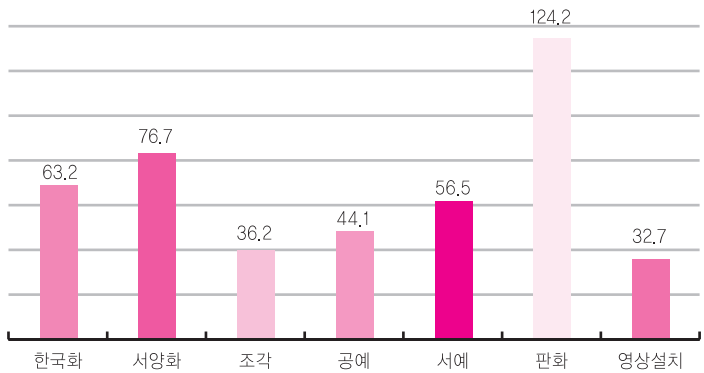
[표 3-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성별, 장르별 발표 경험 (단위: %)

구분 (응답자)		발표작품	개인전	단체전	해외 개인전	해외 단체전	없음
전체 (1325)		77.3	67.4	88.5	17.0	52.8	4.7
성별	남성 (876)	78.1	66.7	90.0	16.1	54.1	4.5
	여성 (436)	75.9	68.8	85.8	19.0	50.2	5.0
	무응답 (13)	69.2	69.2	76.9	7.7	46.2	7.7
장르별	한국화 (332)	76.2	70.2	88.0	19.9	56.6	4.8
	서양화 (520)	80.6	71.7	90.2	19.2	54.4	4.6
	조각 (174)	84.5	74.7	92.5	13.8	47.7	1.7
	공예 (92)	64.1	55.4	87.0	9.8	44.6	4.3
	서예 (90)	57.8	25.6	77.8	3.3	36.7	8.9
	판화 (39)	79.5	87.2	94.9	25.6	74.4	2.6
	영상설치 (54)	88.9	66.7	88.9	22.2	61.1	3.7
	해당없음 (7)	71.4	42.9	71.4	–	42.9	14.3
	무응답 (17)	58.8	58.8	58.8	5.9	35.3	17.6

② 발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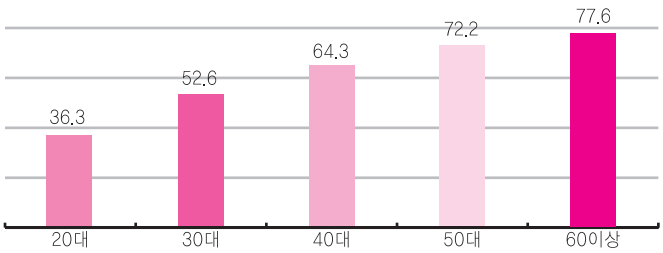
3년 동안의 평균 발표작품 수는 63.7점이며 연간평균은 21.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한국화 63.2점, 서양화 76.7점, 조각 36.2점, 공예 44.1점, 서예 56.5점, 판화 124.2점, 영상설치 32.7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장르별 발표작품 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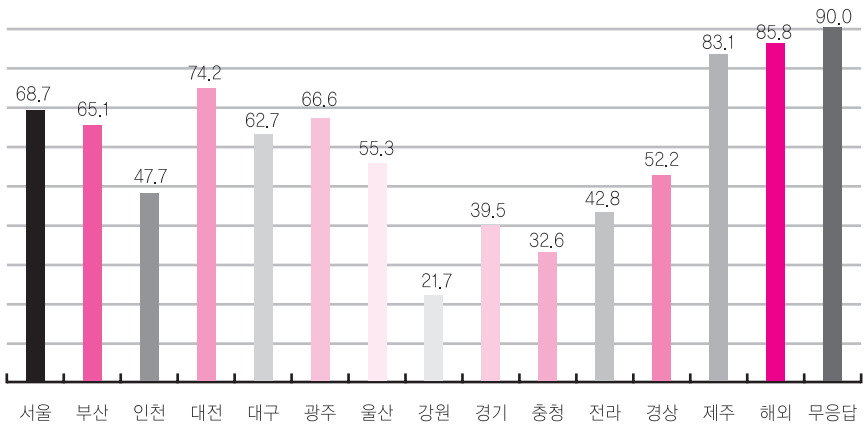
연령별 추이를 보면, 30세 미만의 경우 36.3점인 것에 반해 60세 이상은 77.6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발표작품 수 (단위: 점)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60점 이상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 39.5점, 충청 32.6점, 전라 42.8점 등으로 나타나 광역시에 비해 발표 작품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가장 적은 수의 시각예술인 분포를 보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강원도는 21.7점으로 가장 낮은 발표를 보였고, 제주도는 83.1점으로 나타나 국내 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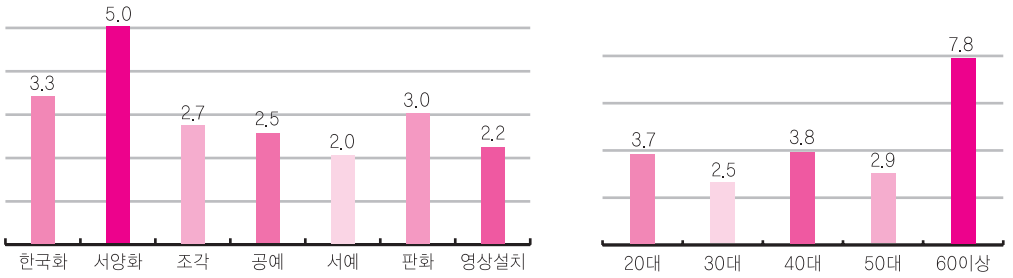
[그림 3-2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지역별 발표작품 수 (단위: 점)



③ 개인전

개인전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인은 1,325명 중 67.4%인 893명이 응답하였고, 지난 3년간 전시 횟수는 평균 3.8회, 연평균 1.2회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한국화, 서양화가 각각 3.3회, 5.0회로 조사된 반면, 조각, 공예, 서예, 영상설치 등은 평균 2회를 조금 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회, 30대가 2.5회, 40대는 3.8회, 50대는 2.9회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이 7.8회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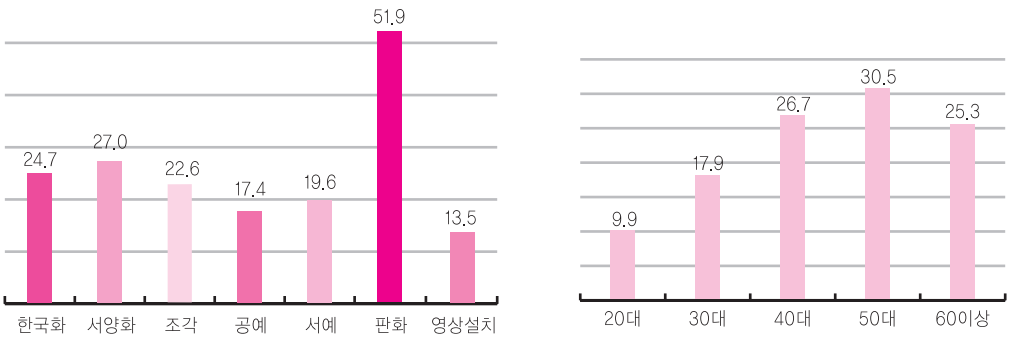
[그림 3-2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 연령별 최근 3년간 개인전 개최 수 (단위: 회)



④ 단체전

단체전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인은 전체응답자의 88.5%인 1,172명이었고 이들은 지난 3년간 평균 24.8회, 연평균 8.3회의 단체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전의 경우에는 판화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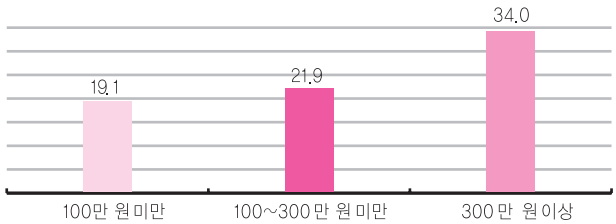
[그림 3-2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 연령별 최근 3년간 단체전 개최 수 (단위: 회)



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3년간 51.9회로 조사되었고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은 각각 24.7회, 27.0회, 22.6회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은 9.9회, 30대는 17.9회, 40대는 26.7회, 50대는 30.5회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체전의 경우에는 월소득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19.1회, 101~299만 원 미만의 소득자는 21.9회,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4.0회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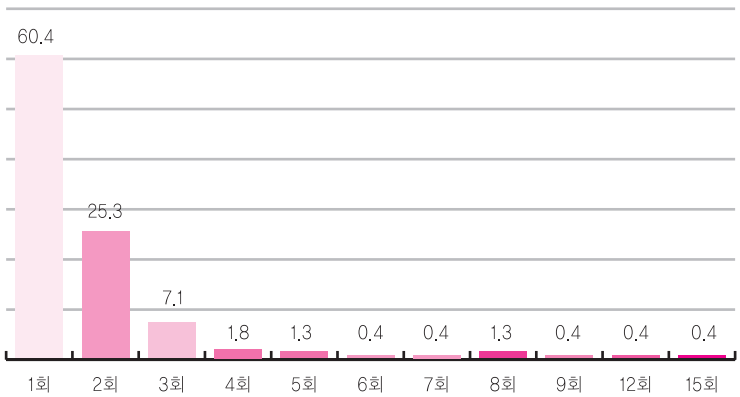
[그림 3-2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월소득별 단체전 개최 수 (단위: 회)



⑤ 해외 개인전

해외 개인전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인은 전체의 17.0%인 225명으로 이들의 최근 3년간의 해외 개인전 발표 횟수는 평균 3.5회(연평균 1.2회)로 나타났다. 5회 이상 개최한 사람이 5%가 채 되지 않은 반면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60.4%로 나타났다.

[그림 3-2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해외 개인전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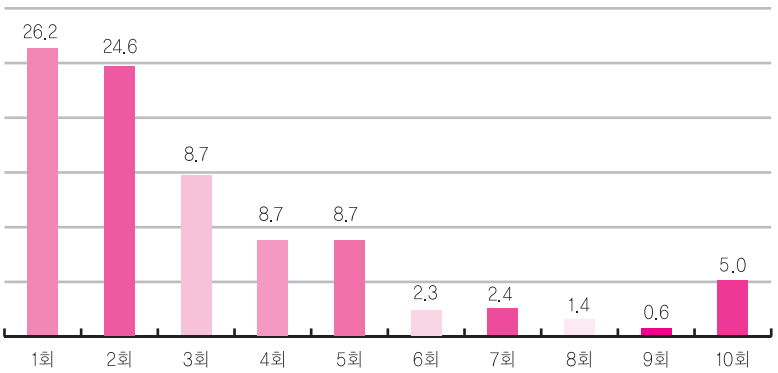


⑥ 해외 단체전

해외 단체전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인 699명(전체의 52.8%)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발표 횟수는 5.5회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5회 미만으로 응답한 자가 전체의 74.1%로 나타났고 일부 시각예술인들만이 1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해외 단체전 경험 (단위: %)



6) 작품 발표에 대한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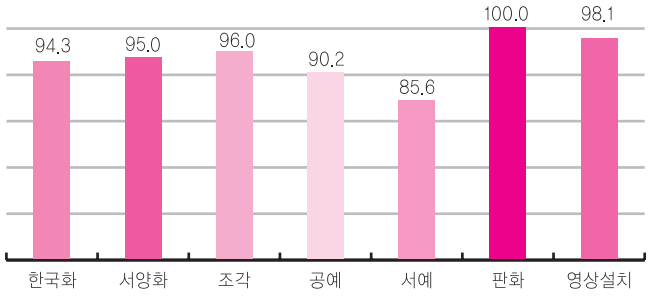
시각예술인들이 첫 작품발표 시 두 번째 장애요소로 꼽고 있는 주목도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문항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대해 비평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주로 비평이 수록되었던 매체는 무엇이었는지, 원하는 비평 수록 매체는 어떤 것인지를 질문했다.

예술정보의 매체 활용도와 비교하여 비평수록 매체의 선호도를 파악한다면 현재 발간 혹은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의 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난 3년간 피 비평 경험

지난 3년간 발표한 작품이나 전시에 대해 평가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했고 전체 1,325명 중 94.0%가 피 비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1,325명중 94.0%에 달하는 1,312명이 모두 전문 비평매체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들이 말하는 피 비평 경험이란 전시회 카탈로그에 실린 비평문, 미술관련 간행물에서 다뤄지는 프리뷰나 리뷰, 신문에서 소개되는 미술단신을 제외한 전시기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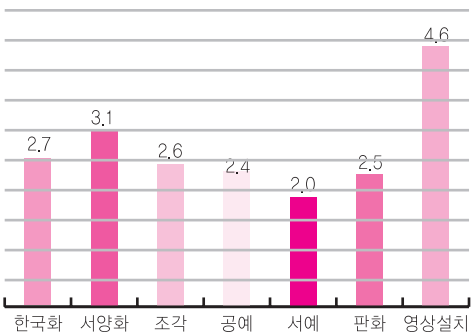
비평 경험에 대해 대부분의 장르가 9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서예 분과가 85.6%로 응답해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력의 경우에도 고졸이하가 84.5%, 대졸이 92.8%, 대학원 재학 이상이 95.3%의 비율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피 비평 경험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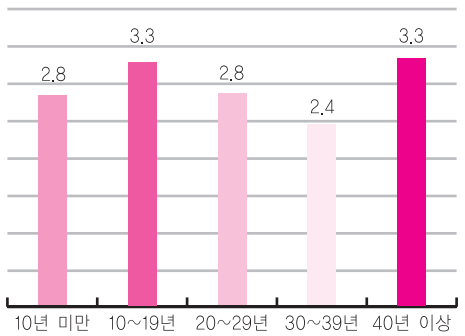
② 지난 3년간 피 비평 횟수

지난 3년간 피 비평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325명 모두가 응답을 했으나 그 중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47.3%인 627명만이 대답하였다.

이들의 피 비평 경험횟수는 평균 3회, 중간값은 2회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인 31.1%는 1회, 그 다음 29.7%는 2회, 16.3%는 3회라고 대답했다. 30회라고 응답한 사람도 0.2%를 기록했는데, 전라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시각예술인으로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장르는 해당 없음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림 3-3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횟수 (단위: 회)





장르별로 보면 영상설치가 4.6회로 가장 높았고 서양화 3.1회, 한국화 2.7회, 조각 2.6회 순으로 나타났고 서예가 2.0회로 가장 낮았다. 활동기간별로는 40년 이상 활동한 시각예술가의 피 비평 경험 수가 평균 3.3회로 가장 높았고, 20년 미만이 3.3회로, 10년 미만이 2.8회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2.3회, 대졸 2.9회, 대학원 재학 이상이 3.0회의 분포를 보였다.

[표 3-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 작품 및 전시에 관한 피 비평 경험

구분 (응답자)		있음(%)	없음(%)	평균 횟수(회)
전체 (1325)		94.0	6.0	3.0
성별	남성 (876)	93.9	6.1	3.1
	여성 (436)	94.5	5.5	2.6
	무응답 (13)	84.6	15.4	2.5
장르별	한국화 (332)	94.3	5.7	2.7
	서양화 (520)	95.0	5.0	3.1
	조각 (174)	96.0	4.0	2.6
	공예 (92)	90.2	9.8	2.4
	서예 (90)	85.6	14.1	2.0
	판화 (39)	100.0	–	2.5
	영상설치 (54)	98.1	1.9	4.6
	해당없음 (7)	71.4	28.6	20.0
	무응답 (17)	88.2	11.8	3.2
연령대별	20대 (45)	95.6	4.4	2.1
	30대 (308)	96.4	3.6	3.2
	40대 (444)	94.1	5.9	2.8
	50대 (313)	94.6	5.4	3.0
	60대 이상 (189)	89.4	10.6	2.8
	무응답 (26)	88.5	11.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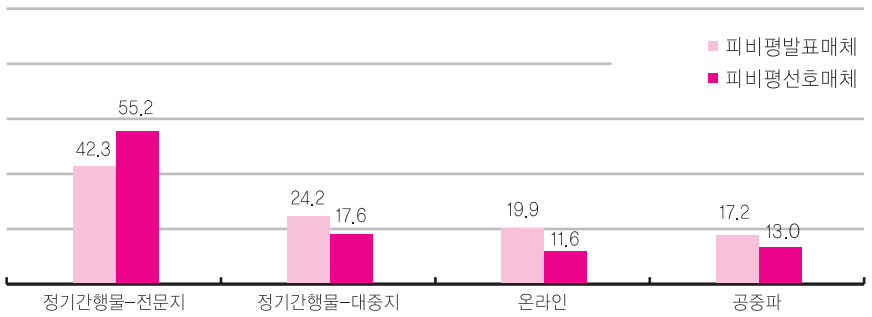
③ 피 비평 매체

위에 언급한 피 비평 시 수록되는 매체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도록 했고 전체 1,325명 중 94.0%인 1,246명이 대답하였다.

이 중 42.3%가 정기간행물-전문지에 비평이 게재됐고, 그 다음으로 정기간행물-대중지 24.2%, 온라인 매체 19.9%, 공중파 17.2% 순이었다. 온라인 매체의 활용도는 활동기간 10년 미만이 25.8%이며 30세 미만의 작가들이 32.6%로 타 연령대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선호하는 매체의 종류 또한 정기간행물-전문지가 55.2%로 가장 많고, 정기간행물-대중지 17.6%, TV방송/라디오 등 공중파가 13.0%, 온라인 매체가 1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피 비평발표 매체 및 선호하는 피 비평선호 매체 (단위: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평매체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도 인쇄매체가 비평의 장으로서 가장 큰 선호도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각예술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 또한 정기간행물-전문지로 조사되어 정보의 매체선호도와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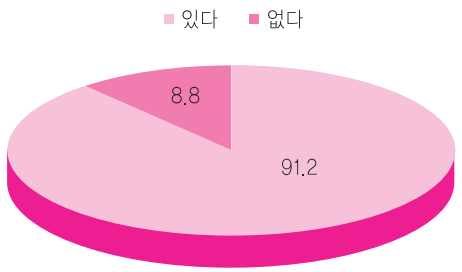
7) 시각예술관련 단체 활동

① 단체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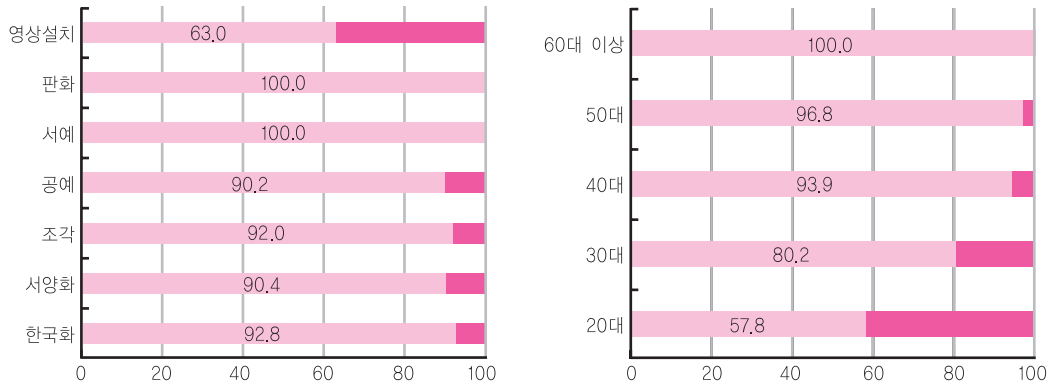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325명 중 91.2%가 정관 및 회칙이 있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3개 미술단체 회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것이 이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장르별로 보면 서예, 판화 장르는 100%,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장르는 90%이상의 가입율을 보였으나 영상설치 분야는 63.0%만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동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의 시각예술인의 가입률이 76.0%로 가장 낮았고, 점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률 또한 높아져 4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은 100.0%의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 30세 미만은 57.8%의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60세 이상은 100%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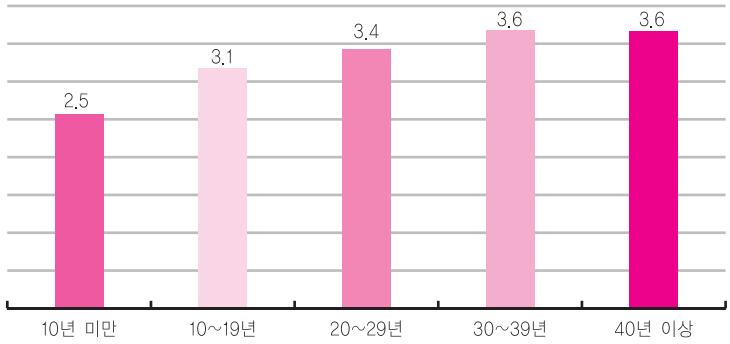
[그림 3-3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률 (단위: %)



참여단체 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3.0%인 1,111명만이 응답하였는데 평균 3.2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활동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된 단체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가입단체 수

(단위: 개)



[표 3-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률

구분 (응답자)		있음(%)	없음(%)	평균 참여 수 (개)
전체 (1325)		91.2	8.8	3.2
성별	남성 (876)	93.6	6.4	3.2
	여성 (436)	86.0	14.0	3.2
	무응답 (13)	100.0	–	3.1
장르별	한국화 (332)	92.8	7.2	3.3
	서양화 (520)	90.4	9.6	3.0
	조각 (174)	92.0	8.0	3.6
	공예 (92)	90.2	9.8	3.7
	서예 (90)	100.0	–	3.7
	판화 (39)	100.0	–	3.0
	영상설치 (54)	63.0	37.0	1.9
	해당없음 (7)	100.0	–	3.8
	무응답 (17)	100.0	–	2.5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76.0	24.0	2.5
	20년 미만 (428)	89.7	10.3	3.1
	30년 미만 (381)	95.0	5.0	3.4
	40년 미만 (209)	98.1	1.9	3.6
	40년 이상 (91)	100.0	–	3.6
	무응답 (12)	91.7	8.3	1.7

② 단체가입의 목적

위의 결과에서 보듯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체가입율과 가입단체의 수가 증가하는데 시각예술인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했다.

전체 1,325명 중 91.0%인 1,208명이 응답했다. 이 중 50.2%가 창작발표의 매개체라고 응답했고, 동일 장르 안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49.4%, 타 장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22.8%로 나타났다.

[표 3-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 가입의 목적 –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창작발표의 매개체	동일장르 안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타 장르와의 네트워크 형성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도움
전체 (1208)	50.2	49.4	22.8	11.3
한국화 (308)	49.0	45.5	26.0	9.7
서양화 (470)	53.8	48.5	21.2	12.8
조각 (160)	52.5	56.9	21.3	10.0
공예 (83)	53.0	43.4	28.9	8.4
서예 (90)	45.6	55.6	22.2	16.7
판화 (39)	41.0	71.8	15.4	7.7
영상설치 (34)	23.5	32.4	29.4	11.8
해당없음 (7)	14.3	57.1	14.3	–
무응답 (17)	47.1	52.9	5.9	11.8

기타 답변으로는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도움 11.3%, 발표기회 제공, 의욕 증진, 단체 지원금,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본인의 홍보 등을 단체 가입의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시각예술인들은 단체가입을 통해 전시회도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또한 예술정책에 대한 발언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하며, 본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더불어 평가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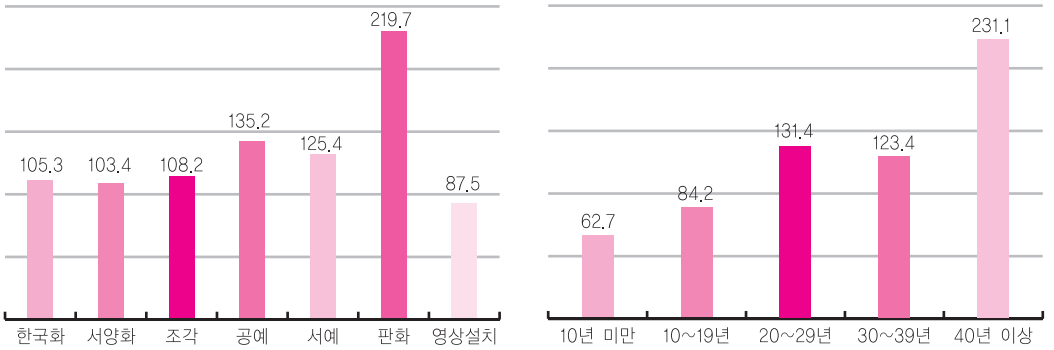
③ 단체활동에 드는 비용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가입한 단체활동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연평균 1,113,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중간값은 500,000원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 시 드는 비용은 연령별로, 활동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연간 1,624,000원을 쓰는 반면, 30세 미만의 연령층은 평균 349,200원을 지출하고 있다. 활동기간별로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10년 미만이 627,200원, 40년 이상이 2,131,000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체를 통한 활동이 연령대별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비례하여 활동비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단체활동에 드는 비용 (단위: 만 원)



3. 수입과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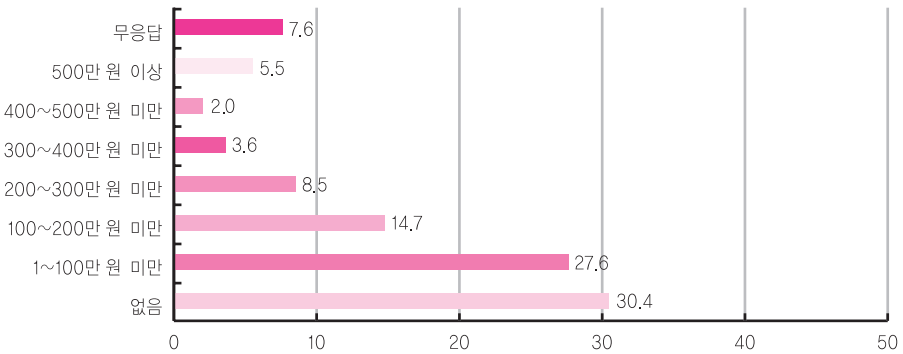
시각예술인들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수입은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과,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의 월평균액을 물어보았고 지출은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지출액을 질문했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예술활동 이외의 직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시각예술인에 대한 1차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예술활동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시장의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술활동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면 창의력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시각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서 중도에 하차하거나 다른 직업 활동 등으로 그들의 능력과 시간을 소진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12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1,325명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30.4%, 1~100만 원 미만이 27.6%로 총 58.0%에 해당하는 시각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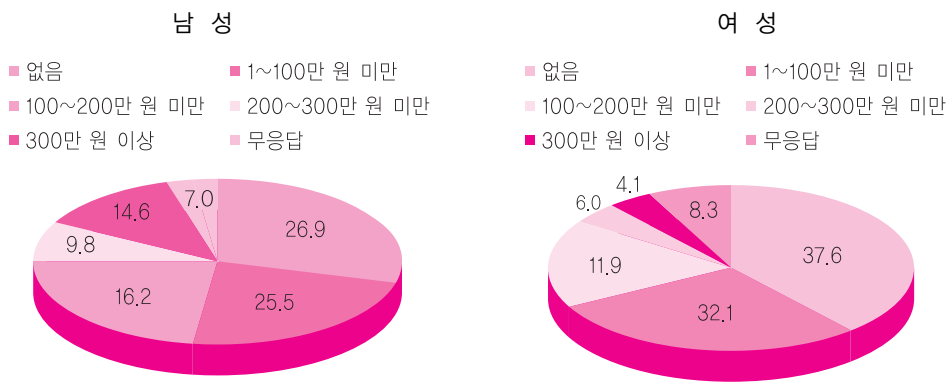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책정한 200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136,000원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시각예술인들의 80%이상이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8.0%에 해당하는 미술인들은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고,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각예술인 모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아니겠지만 응답자의 66.1%가 남성이며, 전체 응답자의 82.1%가 기혼자인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시각예술인의 수입이 가구의 수입,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보유한 시각예술인의 비율이 전체의 67.1%인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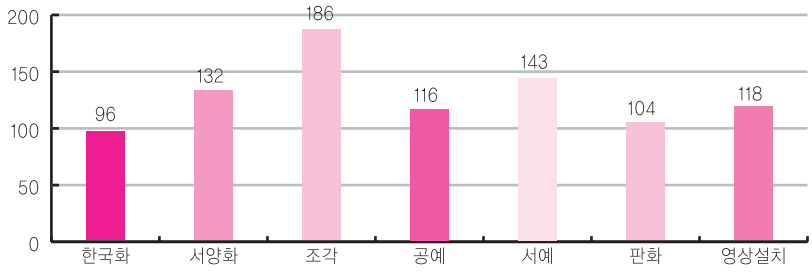
한편 예술활동으로 인한 남성의 월평균 수입은 159만 원인 것에 반해 여성의 월평균 수입은 69만 원으로 나타나 남성 수입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성별 월평균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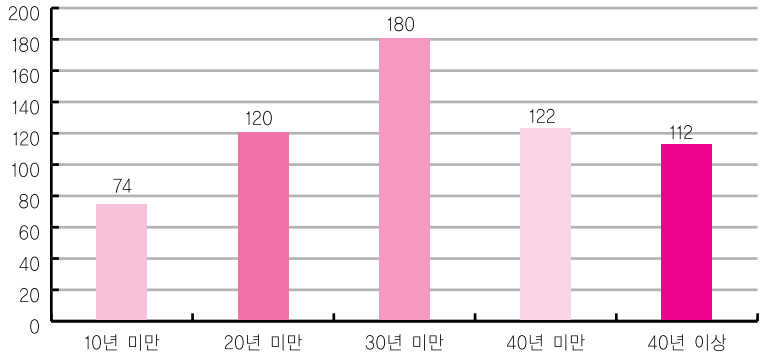
장르별로 살펴보면 한국화가 96만 원, 서양화 132만 원, 조각 186만 원, 공예 116만 원, 서예 143만 원, 판화 104만 원, 영상설치 118만 원으로 나타나 조각의 월평균 수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화의 경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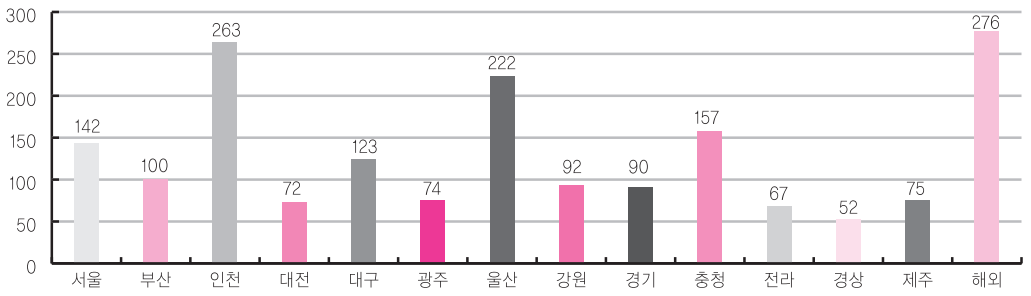
활동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74만 원, 20년 미만이 120만 원, 30년 미만이 180만 원, 40년 미만이 122만 원, 40년 이상이 11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활동기간별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42만 원, 부산 100만 원, 인천 263만 원, 대전 72만 원, 대구 123만 원, 광주 74만 원, 울산 222만 원, 강원 92만 원, 경기 90만 원, 충청 157만 원, 전라 67만 원, 경상 52만 원, 제주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크게 나누어 보아 광역시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입을 보였지만 광주와 대전은 70만 원대로 매우 적은 수입을 보였다. 의외로 경기지역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90만 원을 보였고, 가장 적은 시각예술인이 응답한 강원은 92만 원, 제주는 75만 원으로 나타나 시각예술인의 활동이 열악한 환경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한편 경남지역이 52만 원으로 조사되어 부산을 제외한 기타 경상도 지역의 미술시장 형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지역별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표 3-1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단위: %)

구분 (응답자)		수입없음	1-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무응답	평균(만원)
전체 (1325)		30.4	27.6	14.7	8.5	3.6	7.6	7.6	129
성별	남성 (876)	26.9	25.5	16.2	9.8	5.1	9.5	7.0	158
	여성 (436)	37.6	32.1	11.9	6.0	0.7	3.4	8.3	69
	무응답 (13)	23.1	23.1	7.7	7.7	–	7.6	30.8	68
장르별	한국화 (332)	33.4	28.3	13.9	7.8	3.0	4.3	9.3	96
	서양화 (520)	31.2	27.9	13.3	8.7	3.1	7.7	8.1	132
	조각 (174)	25.9	27.0	15.5	8.6	6.3	11.0	5.7	186
	공예 (92)	28.3	32.6	14.1	12.0	3.3	5.4	4.3	116
	서예 (90)	26.7	24.4	18.9	6.7	4.4	11.1	7.8	143
	판화 (39)	33.3	25.6	23.1	7.7	2.6	7.7	–	103
	영상설치 (54)	27.8	25.9	22.2	9.3	5.6	7.3	1.9	118
	해당없음 (7)	42.9	28.6	–	14.3	–	–	14.3	58
	무응답 (17)	23.5	11.8	11.8	5.9	–	17.6	29.4	190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42.2	31.4	13.2	7.4	1.0	0.9	3.9	74
	20년 미만 (428)	32.2	30.4	13.6	8.2	4.2	6.0	5.4	120
	30년 미만 (381)	22.3	28.3	13.6	9.7	3.4	13.8	8.9	180
	40년 미만 (209)	28.2	20.6	21.5	8.6	6.2	6.3	8.6	122
	40년 이상 (91)	33.0	20.9	14.3	8.8	2.2	6.5	14.3	112
	무응답 (12)	41.7	16.7	–	–	–	–	41.7	14
학력별	고졸이하 (71)	32.4	29.6	15.5	4.2	4.2	5.6	8.5	66
	대졸 (332)	31.3	24.1	15.4	9.6	3.9	7.3	8.4	125
	대학원이상 (911)	30.2	28.8	14.3	8.5	3.5	7.7	7.0	143
	무응답 (11)	9.1	27.3	27.3	9.1	–	–	27.3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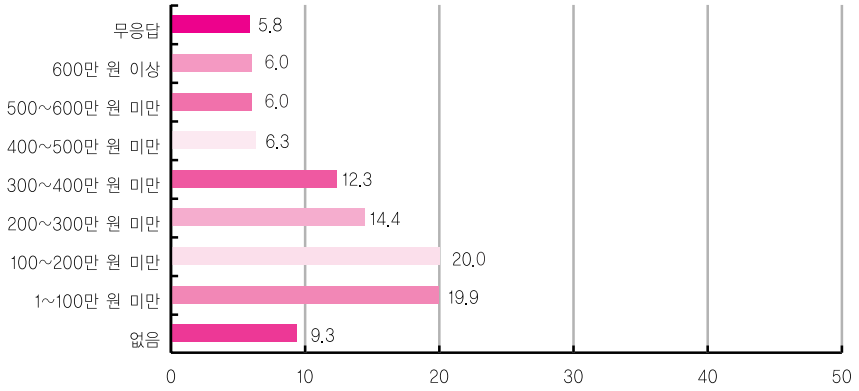
2)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시각예술가의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위와 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예술인들이 생계와 예술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67.1%의 시각예술인이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활동과 직업 활동에서 취득되는 총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했다.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즉, 기타 직업 활동을 포함한 수입은 평균 23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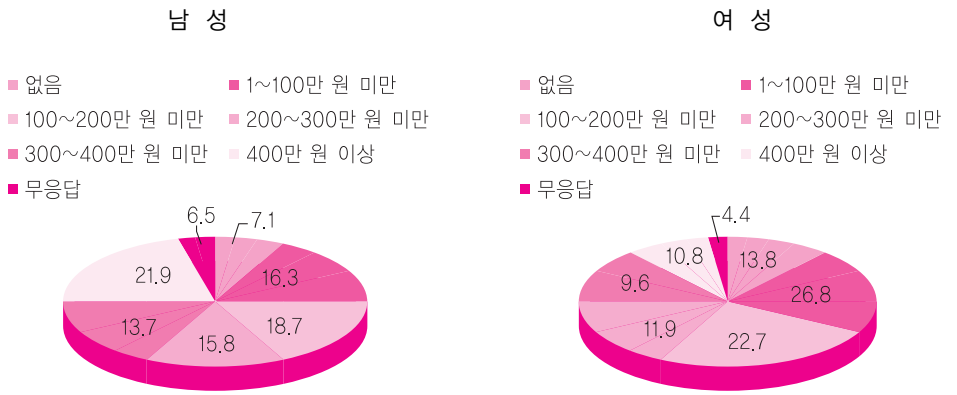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보다 약 100만 원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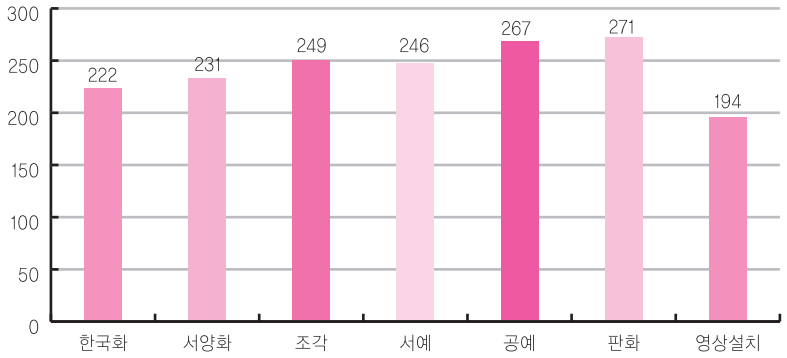
이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수입차이가 벌어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262만 원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181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성별 월평균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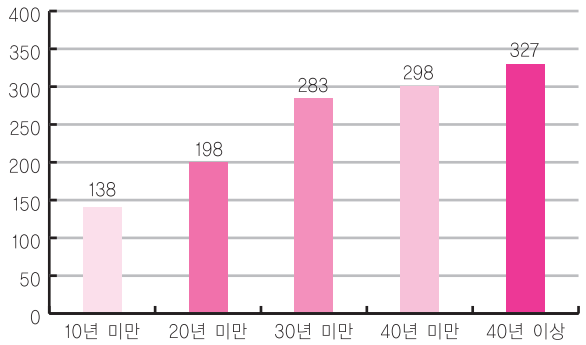
장르별로는 한국화 222만 원, 서양화 231만 원, 조각 249만 원, 서예 246만 원으로 나타났고 공예 267만 원, 판화 271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으로 조사되었다. 영상설치는 194만 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그림 3-4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활동기간별로 보면 4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의 소득이 327만 원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6만 원으로 조사되어 활동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활동기간별 월평균 수입 (단위 : 만 원)



활동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237만 원, 부산 278만 원, 대전 218만 원, 대구 276만 원대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수입이 가장 낮았던 경상도 역시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에서는 209만 원으로 나타났고 제주도는 250만 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비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역은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74만 원으로 낮게 조사되었고,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도 151만 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 80만 원 가량 낮게 조사되었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응답자는 16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222만 원,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도 346만 원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입을 보이고 있다.

예술활동 이외의 직업 보유자가 1,325명 중 67.1%에 달하는 889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직업의 종류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등을 포함한 교직(78.9%)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이란 주로 교직을 가리키며, 교직을 통한 수입으로 생계 및 예술활동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9.3%로 조사되고 있는데 남성 응답자 876명 중 7.1%와 여성 응답자 436명 중 13.8%가 아무 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단위: %)

구분 (응답자)		수입없음	1-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이상	무응답	평균(만원)
전체 (1325)		9.3	19.9	20.0	14.4	12.3	18.3	5.8	235
성별	남성 (876)	7.1	16.3	18.7	15.8	13.7	21.9	6.5	262
	여성 (436)	13.8	26.8	22.7	11.9	9.6	10.8	4.4	181
	무응답 (13)	7.7	30.8	15.4	7.7	7.7	23.0	7.7	279
장르별	한국화 (332)	10.2	18.4	22.0	12.3	12.0	16.7	8.4	222
	서양화 (520)	10.2	21.7	17.9	14.2	13.8	16.6	5.6	231
	조각 (174)	7.5	23.6	19.5	10.3	11.5	23.6	4.0	249
	공예 (92)	6.5	16.3	14.1	21.7	10.9	26.2	4.3	267
	서예 (90)	11.1	8.9	26.7	20.0	12.2	15.5	5.6	246
	판화 (39)	7.7	17.9	17.9	23.1	7.7	25.7	-	271
	영상설치 (54)	1.9	25.9	31.5	18.5	11.1	11.1	-	194
	해당없음 (7)	14.3	14.3	-	-	14.3	42.8	14.3	391
	무응답 (17)	11.8	23.5	23.5	5.9	-	17.7	17.6	228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12.3	39.2	21.1	13.7	8.3	4.4	1.0	137
	20년 미만 (428)	9.8	22.4	24.8	16.8	12.1	10.6	3.5	198
	30년 미만 (381)	7.6	13.4	18.6	14.4	13.1	26.1	6.8	282
	40년 미만 (209)	9.6	13.4	12.0	11.5	15.3	28.2	10.0	297
	40년 이상 (91)	5.5	9.9	17.6	13.2	12.1	30.7	11.0	326
	무응답 (12)	16.7	-	33.3	-	8.3	16.7	25.0	238
학력별	고졸이하 (71)	16.9	16.9	23.9	16.9	5.6	4.3	15.5	86
	대졸 (332)	11.7	21.5	18.7	14.8	13.3	10.7	9.3	136
	대학원이상 (911)	7.8	19.8	20.2	14.2	12.6	22.1	3.3	189
	무응답 (11)	9.1	9.1	18.2	9.1	-	9.0	45.5	276

3) 월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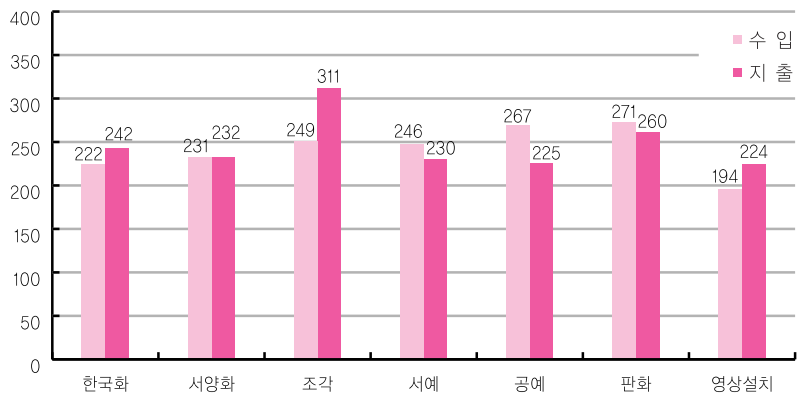
시각예술인들의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평균 24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술활동으로 인한 평균수입이 129만 원인 것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시각예술인들이 부수입을 통해 지출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출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금액차이는 크지 않았다. 남성은 267만 원, 여성 20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는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이 262만 원, 지출이 267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수입이 181만 원인데 비해 지출은 202만 원으로 나타나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르별로 수입대비 지출을 파악해보았더니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조각의 경우 수입은 249만 원인데 반해 지출은 311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영상설치도 수입은 194만 원, 지출은 224만 원으로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시각예술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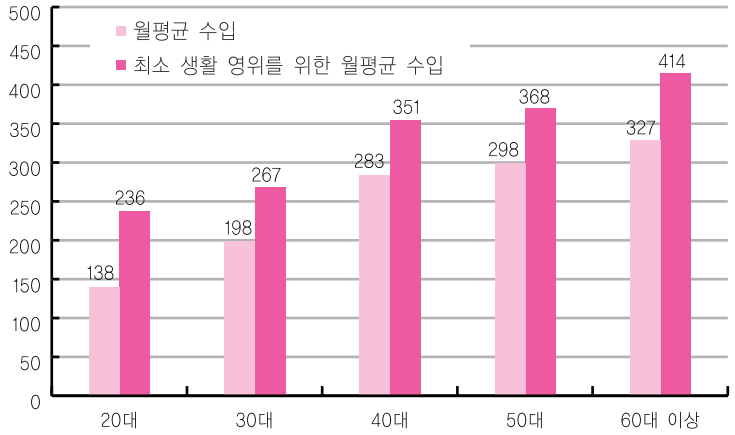
[그림 3-4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장르별 월평균 수입 대비 지출 (단위: 만 원)



그렇다면 시각예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을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시각예술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결과는 평균 3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64만 원, 여성은 292만 원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고 응답했고, 장르별로는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36만 원, 50대는 368만 원, 60대 이상은 414만 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최소 생활 영위를 위한 월평균 수입 대비 실제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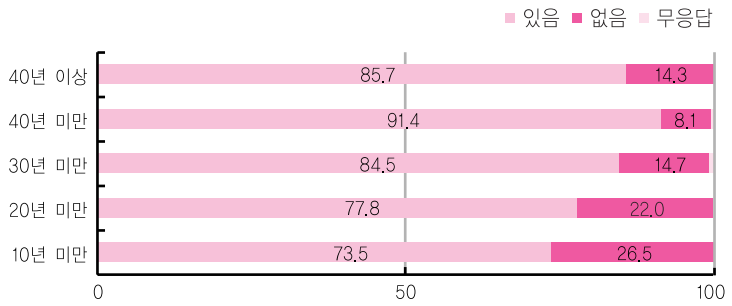
4. 작품판매

시각예술인들의 최근 3년간의 작품 판매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판매여부와, 판매대상, 판매경로, 가격의 결정방법, 가격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다.

1) 지난 3년간 작품 판매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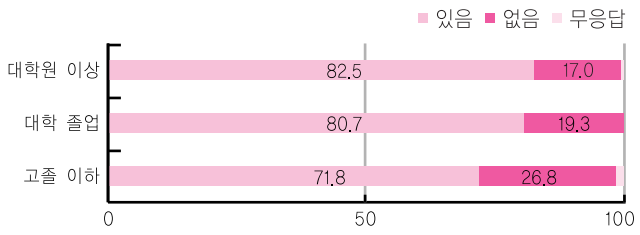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81.1%가 작품판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판화가 89.7%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서예가 71.1%로 가장 낮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활동기간이 늘어날수록 판매 수치가 높아져 활동기간 30~40년 정도인 응답자의 91.4%가 판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작품 판매여부 (단위: %)



학력별 비교도 의미 있는 결과로 추출되었는데 고졸이하가 71.8%, 대졸이 80.7%, 대학원이상이 82.5%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작품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작품 판매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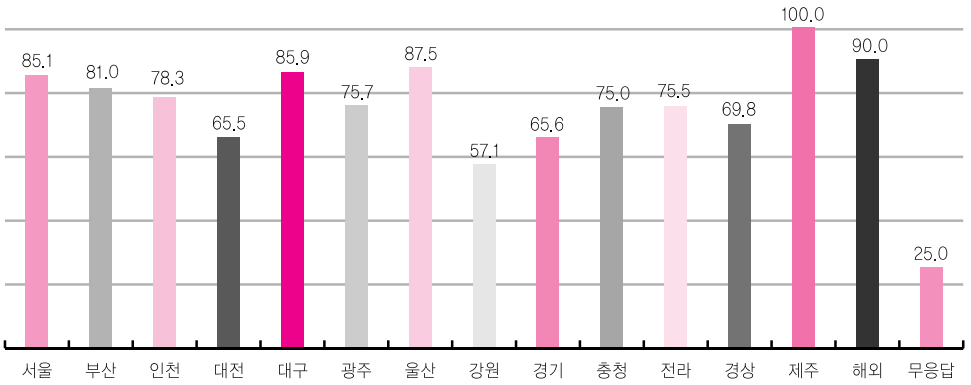
학력과 연령 등의 잣대가 작품의 가치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에 대한 검증 및 인지도에 있어서는 학력, 활동기간, 연령 등의 변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별로 작품 판매여부를 살펴보았더니 판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5.1%, 부산이 81%, 대구가 85.9%, 울산이 87.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57.1%, 경기는 65.6%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발표 작품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면에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작품 판매여부에서도 판매경험이 50%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였다.

[표 3-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판매경험 있음	판매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325)		81.4	18.0	0.6
성별	남성 (876)	83.3	16.1	0.6
	여성 (436)	77.5	22.0	0.5
	무응답 (13)	76.9	15.4	7.7
장르별	한국화 (332)	79.5	19.6	0.9
	서양화 (520)	85.4	14.4	0.2
	조각 (174)	82.8	16.7	0.6
	공예 (92)	83.7	16.3	–
	서예 (90)	71.1	27.8	1.1
	판화 (39)	89.7	10.3	–
	영상설치 (54)	61.1	38.9	–
	해당없음 (7)	71.4	28.6	–
	무응답 (17)	70.6	17.6	11.8
활동기간별	10년 미만 (204)	73.5	26.5	–
	20년 미만 (428)	77.8	22.0	0.2
	30년 미만 (381)	84.5	14.7	0.8
	40년 미만 (209)	91.4	8.1	0.5
	40년 이상 (91)	85.7	14.3	–
	무응답 (12)	33.3	41.7	25.0
학력별	고졸이하 (71)	71.8	26.8	1.4
	대졸 (332)	80.7	19.3	–
	대학원이상 (911)	82.5	17.0	0.4
	무응답 (11)	63.6	9.1	27.3

[그림 3-5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역별 작품 판매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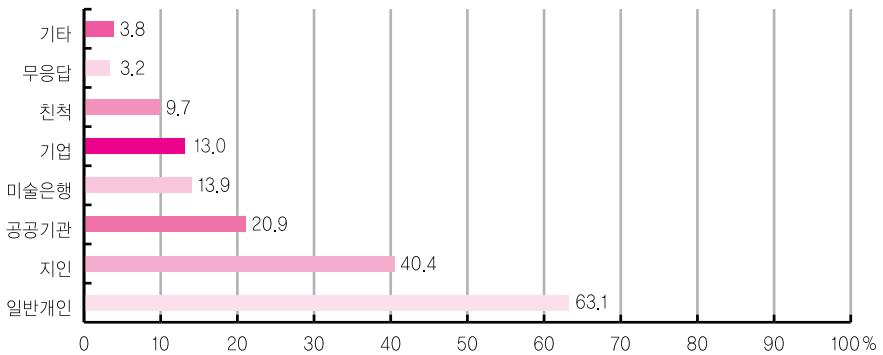


2) 판매 대상

뒤이어 작품판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78명을 대상으로 판매대상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63.1%가 일반 개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인 40.4%, 공공기관 20.9%, 미술은행 13.9%, 기업 13.0%, 친척 9.7%의 추이로 조사되었다. 국가 및 기업, 공공기관으로의 판매는 저조한 수치를 보이며 개인 및 지인에게 판매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 및 지인에는 화상 및 컬렉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랑은 판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투자 및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고 예상되어 판매경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림 3-5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대상-복수응답 (단위: %)



[표 3-1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판매대상-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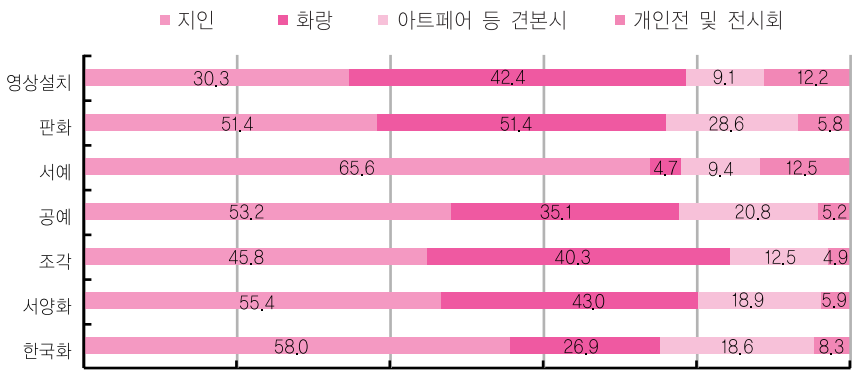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일반개인	지인	공공기관	미술은행	기업	친척	기타	무응답
전체 (1078)		63.1	40.4	20.9	13.9	13.0	9.7	3.8	3.2
장르별	한국화 (264)	60.2	41.7	24.2	17.4	10.2	14.0	4.0	3.0
	서양화 (444)	68.0	43.7	16.9	9.7	13.1	9.2	3.5	4.1
	조각 (144)	53.5	25.0	29.9	15.3	24.3	2.8	4.9	1.4
	공예 (77)	71.4	40.3	10.4	7.8	5.2	15.6	3.9	2.6
	서예 (64)	48.4	54.7	12.5	12.5	-	6.3	-	4.7
	판화 (35)	77.1	48.6	34.3	37.1	17.1	11.4	5.8	-
	영상설치 (33)	51.5	30.3	39.4	24.2	24.2	6.1	3.0	-
	해당없음 (5)	60.0	40.0	20.0	40.0	-	-	20.0	-
	무응답 (12)	75.0	-	8.3	16.7	16.7	8.3	-	8.3
연령별	20대 (31)	71.0	35.3	9.7	6.5	19.4	22.6	9.6	3.2
	30대 (224)	68.3	33.0	14.3	16.5	12.1	9.4	4.2	3.6
	40대 (376)	62.5	46.0	20.5	12.8	13.6	9.3	2.8	1.1
	50대 (273)	65.2	42.9	25.3	17.6	13.6	8.8	3.0	4.4
	60대 이상 (154)	50.6	36.4	26.6	8.4	11.1	10.4	6.0	4.5
	무응답 (20)	70.0	20.0	15.0	10.0	10.0	10.0	-	10.0

3) 판매 경로

판매 대상과 더불어 작품 판매 경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작품판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78명 중 54.2%가 지인이라고 대답했다. 35.6%는 화랑, 17.3%는 아트페어 등 견본시, 6.9%가 개인전 및 전시회를 통해 판매한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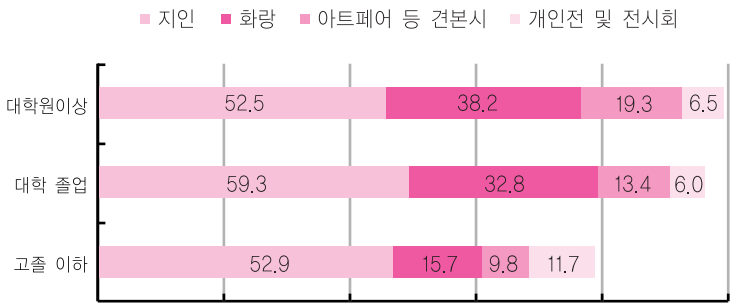
장르별로 독특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지인을 통해 판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장르의 공통된 특성이지만 특히 서예장르는 지인을 통한 판매가 65.6%, 화랑을 통한 판매가 4.7%로 나타나 화랑을 통한 판매가 조사 장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예장르의 작품 발표 및 판매 등 유통구조가 타 장르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림 3-5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작품 판매경로-복수응답 (단위: %)



지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고졸,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화랑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고졸이하 15.7%, 대졸 32.8%, 대학원 재학 이상 38.2%로 나타나 저학력자의 작품이 화랑에서 판매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별 작품 판매경로-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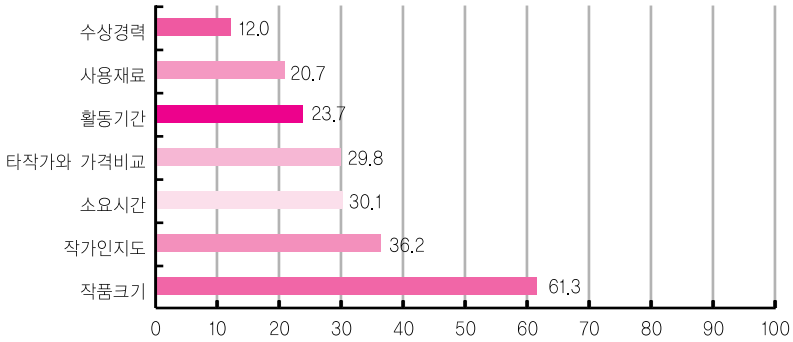


4)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문항에 응답한 시각예술인 1,078명의 가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품의 크기(61.3%)와 작가의 인지도(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완성에 걸린 시간은 30.1%, 다른 작가들과의 가격 비교가 29.8%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상경력(12.0%)내지 작품에 사용한 재료(20.7%)는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가격 결정요인-복수응답

(단위: %)



[표 3-1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 가격 결정요인-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응답자)		작품크기	작가 인지도	소요시간	타 작가와 가격비교	활동기간	사용재료	수상경력
전체 (1078)		61.3	36.2	30.1	29.8	23.7	20.7	12.0
장르별	한국화 (264)	61.0	35.2	20.8	26.5	26.1	10.2	14.4
	서양화 (444)	68.7	34.2	27.3	32.0	23.2	13.1	11.3
	조각 (144)	63.2	38.2	52.8	25.7	27.1	54.2	6.9
	공예 (77)	37.7	35.1	41.6	27.3	20.8	39.0	9.1
	서예 (64)	43.8	46.9	17.2	26.6	15.6	7.8	25.0
	판화 (35)	62.9	28.6	37.1	34.3	25.7	20.0	8.6
	영상설치 (33)	45.5	54.5	33.3	45.5	27.3	39.4	6.1
	해당없음 (5)	40.0	40.0	–	60.0	–	–	40.0
	무응답 (12)	66.7	25.0	41.7	33.3	8.3	41.7	8.3
연령별	20대 (31)	61.3	22.6	48.4	12.9	12.9	35.5	3.2
	30대 (224)	58.0	31.3	37.9	28.6	16.1	28.6	10.3
	40대 (376)	60.1	36.7	34.0	32.2	24.2	22.1	10.6
	50대 (273)	68.1	43.2	23.4	32.6	30.0	15.0	13.9
	60대 이상 (154)	59.7	33.1	16.2	22.1	25.3	12.3	14.9
	무응답 (20)	40.0	30.0	35.0	45.0	20.0	25.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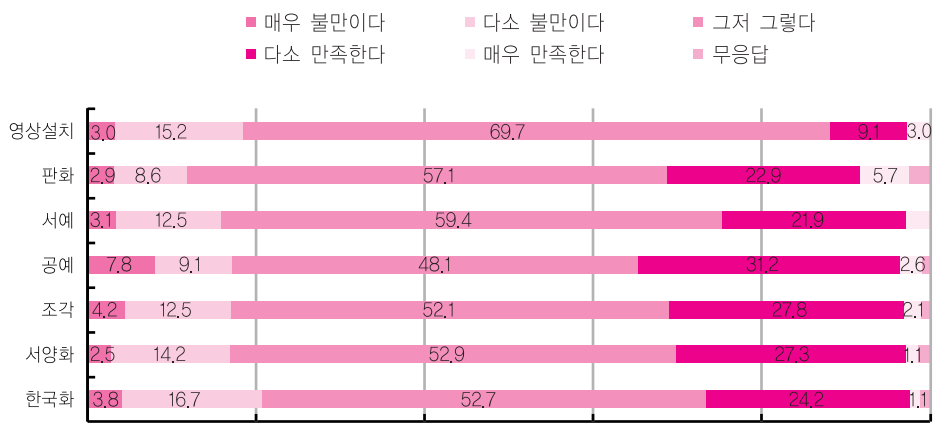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장르는 작품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예와 영상설치는 작가의 인지도가 작품의 크기보다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구매자의 형편과 원하는 가격을 고려한다',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미술시장의 가격은 작품 크기를 제외하고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과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판매가격에 대한 만족도

위와 같이 산정된 작품가격에 대해 과연 시각예술인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판매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해 보았다. '그저 그렇다' 라는 응답이 53.6%, '매우 만족 한다' 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으며, '매우 불만이다' 라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는 평균 3.0점으로 나타나 현재 작품가격에 대해 시각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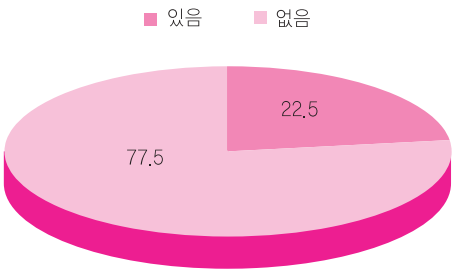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장르별로는 판화가 3.2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판화의 경우는 전시회 개최 수, 소득 수준, 작품 판매율, 가격의 만족도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시각예술분야 중 예술활동 여건이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5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판매 가격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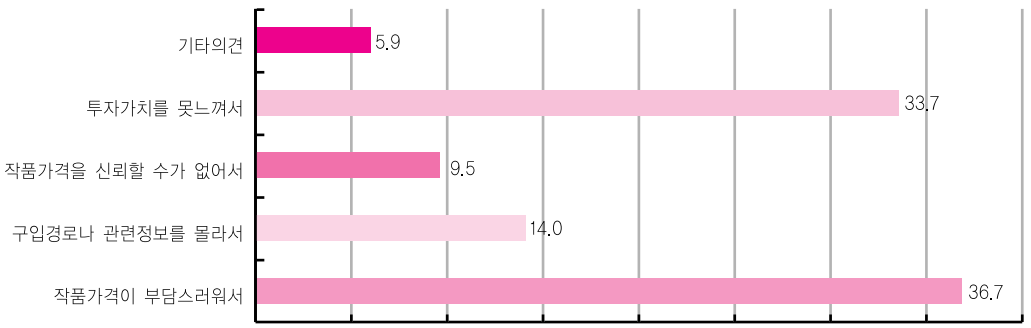
한편 2003년 월간 『아트프라이스』창간호에서 일반인들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2.5%가 미술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고, 미술작품을 구입한 적은 없지만 향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들이 36.2%였다. 이들을 합한 수치 58.7%는 잠재적 구매자로 상정할 수 있어, 앞으로 이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6] 일반인의 미술품 구입 경험 (단위: %)



반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36.7%가 '작품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라고 답했다. 작품가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미술시장이 형성된다면 잠재적 수요자를 적극적 구매자로 발전시키며,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잠재적 구매자로 흡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모든 작품을 100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의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랑의 마케팅 방법은 잠재적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그 성과가 일부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도 그 유사한 전시회 및 작품판매 통로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7] 작품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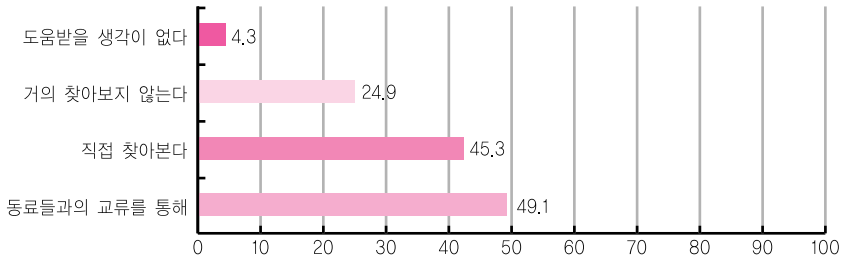
5. 지원 실태

1) 지원정보의 입수 경로

우선 2006년 현재 시각예술인들이 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관련 정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정보 입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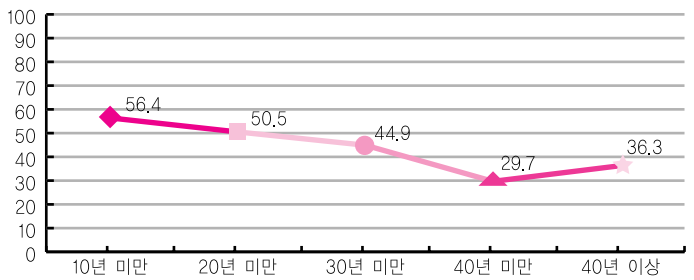
응답자 중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입수 한다' 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찾아본다' 는 응답도 45.3%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3-58] 창작시각예술인들 지원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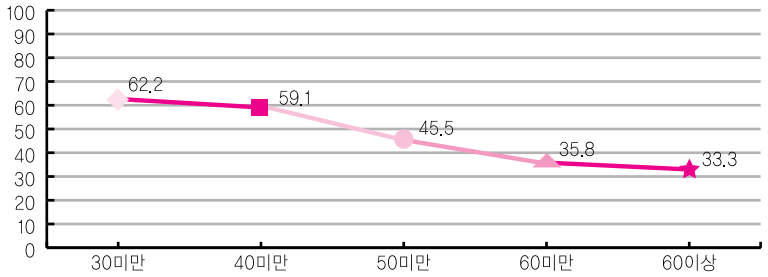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자는 활동기간 10년 미만이 56.4%, 20년 미만이 50.5%, 30년 미만이 44.9%, 40년 미만이 29.7%, 40년 이상이 36.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2.2%, 30대가 59.1%, 40대가 45.5%, 50대가 35.8%로 나타나 활동기간과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지원정보 검색율 (단위: %)



[그림 3-6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지원정보 검색율 (단위: %)



지역별로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자는 경기도가 62.5%, 강원도가 5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는 강원도가 71.4%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정보 검색율 (단위: %)

구분 (응답자)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직접 검색	거의 찾지 않는다
전체 (1325)		49.1	45.3	24.9
성별	남성 (876)	51.4	42.8	23.4
	여성 (436)	44.7	49.8	28.0
	무응답 (13)	38.5	61.5	23.1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48.5	56.4	23.0
	20년 미만 (428)	50.9	50.5	19.4
	30년 미만 (381)	48.3	44.9	25.2
	40년 미만 (209)	45.9	29.7	34.0
	40년 이상 (91)	53.8	36.3	33.0
	무응답 (12)	33.3	25.0	25.0
지역별	서울 (787)	47.1	47.4	26.7
	부산 (58)	34.5	39.7	34.5
	인천 (23)	56.5	47.8	8.7
	대전 (29)	44.8	31.0	24.1
	대구 (85)	50.6	40.0	28.2
	광주 (37)	59.5	40.5	21.6
	울산 (16)	43.8	56.3	6.3
	강원 (7)	71.4	57.1	–
	경기 (64)	46.9	62.5	20.3
	충청 (20)	65.0	35.0	20.0
	전라 (110)	60.9	30.9	20.9
	경상 (53)	52.8	43.4	18.9
	제주 (8)	50.0	37.5	37.5
	해외 (20)	45.0	60.0	20.0
	무응답 (8)	62.5	37.5	12.5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정보검색 루트를 모른다(0.6%)', '찾아보고 싶으나 지원에 실망이 커서 기대하지 않는다(0.3%)' 등의 기타 답변이 있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중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원주체의 지원대상이 낮은 연령대의 젊은 시각예술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는 높은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미비하므로 그 대안으로 지원정책이나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세대와는 달리 시각예술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경로가 다변화 되었고, 사회현상 또한 점차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창출, 사회공헌 등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항에서 지원의 주체 및 종류, 지원 수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어진다.

2) 지난 3년간 지원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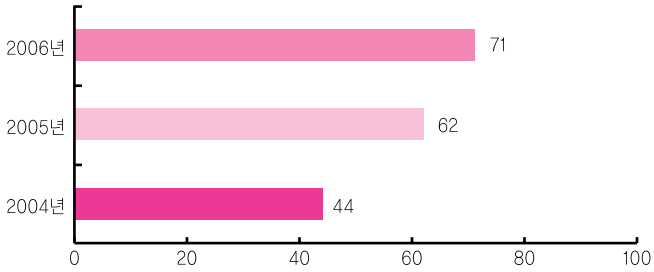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응답자 1,325명 중에서 약 2.6%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은 대학원 이상, 지역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예술인의 지원수혜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내용으로는 공간 및 작품의 재료 등 현물 지원 보다 재정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지원 수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를 중앙정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기업(메세나), 개인후원자,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등으로 나누어 각 기관에서 금액, 현물, 공간 등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① 중앙정부

1,325명의 응답자 중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 44명, 2005년 62명, 2006년에는 71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평균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4년 475만 원, 2005년 836만 원, 2006년 566만 원으로 지원받은 예술인과 금액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평균값으로 추이를 살피기에는 지원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답한 중간값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간값은 2004년 300만 원, 2005년 375만 원, 2006년 450만 원으로 대체적으로 지원금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1]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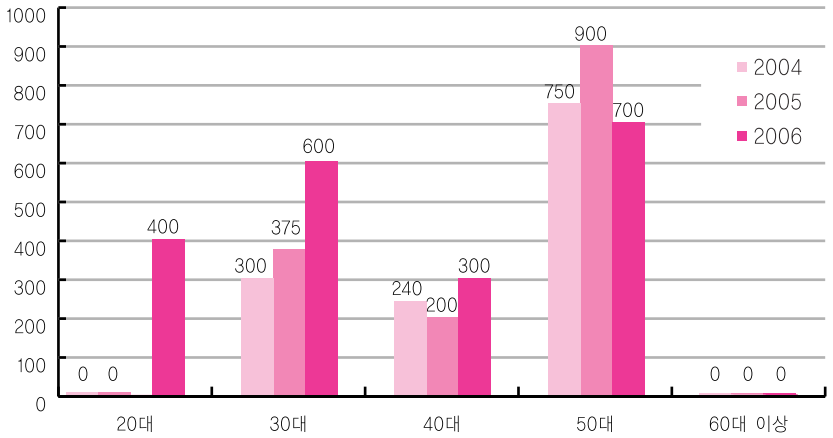
[그림 3-62]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재정지원의 현황을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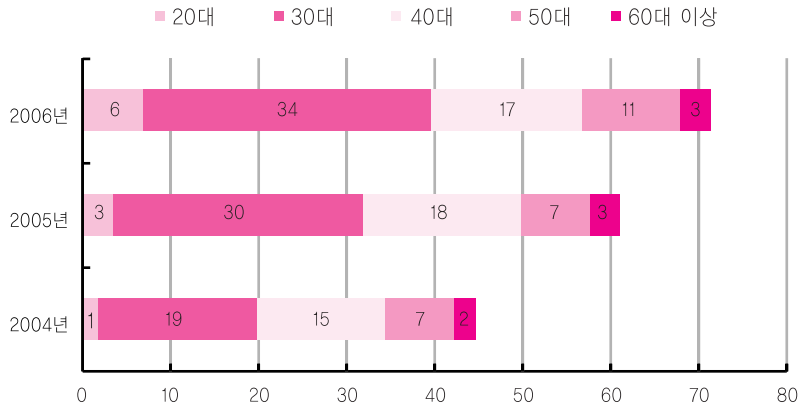
2004년에는 20대는 거의 지원경험이 없었고, 30대 300만 원, 40대 240만 원, 50대 75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도 20대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30대 375만 원, 40대 200만 원, 50대 900만 원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20대의 지원수혜금액이 높아져 400만 원, 30대는 600만 원, 40대는 300만 원, 50대는 700만 원으로 연령대별로 이전 해보다 비교적 고른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3]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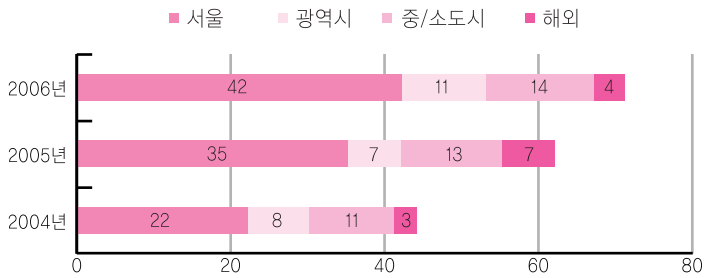
특이한 사항은 지난 3년 동안 40대의 지원 금액이 타 연령대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인원이 전체 인원의 20~30%대를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대의 수혜자 비율은 각 연도별 수혜자의 45%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4]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지역별로는 200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44명 중 22명이 서울지역, 8명은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은 1명~3명으로 조사되어 평균 지원금액을 통계수치로 나타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지역의 평균 지원금액은 579만 원,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48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도 62명 중 서울에 35명이 집중되었고, 2006년에도 71명 중 42명이 지원 받아 서울의 지원 수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5]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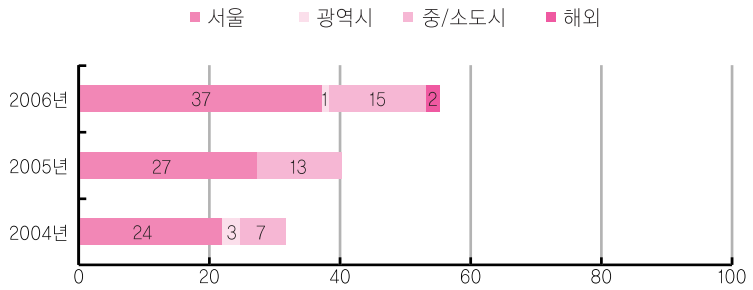
현물의 지원으로는 도록제작지원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는데, 2004년은 14명 중 50.0%, 2005년 19명 중 26.3%, 2006년은 15명 중 60.0%의 비율을 차지했다.

시각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작활동의 산실이 되는 작업실의 경우 타 직업의 종사자보다 규모가 큰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며 소음문제, 재료 및 작품의 이동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표할 공간의 마련도 비용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창작 및 발표공간의 지원은 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1,325명의 응답자 중 공간을 지원받은 이는 2004년 34명, 2005년은 40명, 2006년은 55명으로 파악되었다. 공간의 크기는 평균 132㎡ 내외,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중간값은 99㎡ 내외이다. 기간은 평균 10주를 조금 넘지만, 중간값은 2주로 동일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작품 발표의 공간을 지원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간혹 52주, 62주 등의 기간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이 창작스튜디오 등의 작업공간을 지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지원의 경우도 재정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4년 서울이 24명, 경기도가 4명, 전라도가 2명, 부산, 인천, 대구, 강원도가 각각 1명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시각예술인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도 40명 중 서울이 27명, 2006년에는 71명 중 서울지역 37명이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6]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공간지원 현황 (단위: 명)



[표 3-16] 중앙정부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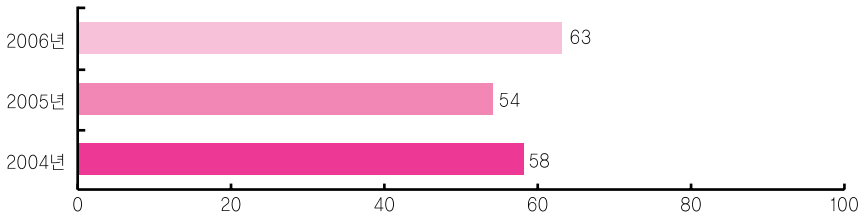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중앙정부	재정	(44명 응답) 4,757,000원	(62) 8,361,000원	(71) 5,663,000원
	현물	(14) 도록제작	(19) 도록제작	(15) 도록제작
	공간/기간	(34) 145.4㎡/ 10.2주	(40) 134.8㎡/ 12.5주	(55) 125.2㎡/ 14.2주
	기타	(12) 홍보 등	(14) 단체기금, 현수막 등	(11) 홍보, 장비 등

② 광역/기초 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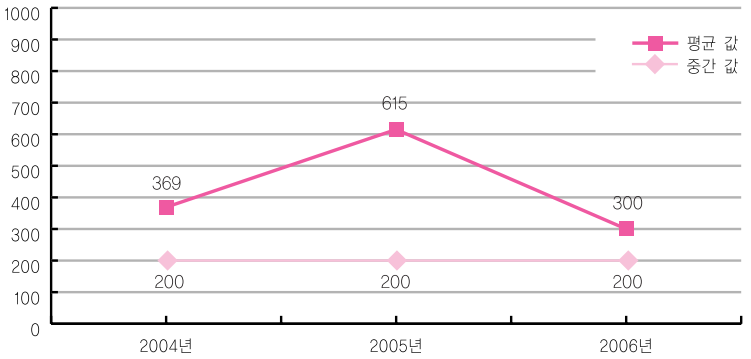
이 항목은 경기도, 강원도 등 도 단위의 문화재단이나 서울, 인천, 부천, 고양, 성남 등 시 단위의 문화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 수혜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 58명, 2005년 54명, 2006년 6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369만 원, 615만 원, 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응답자의 편차가 5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크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이들의 중간값을 보면 연도별로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3-67]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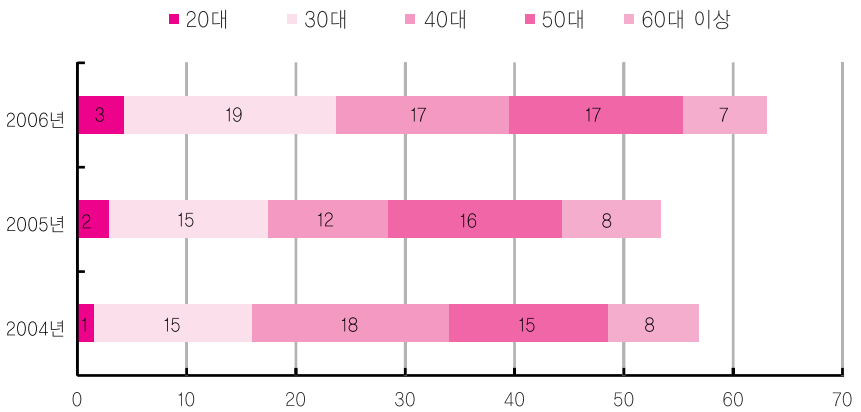


[그림 3-68]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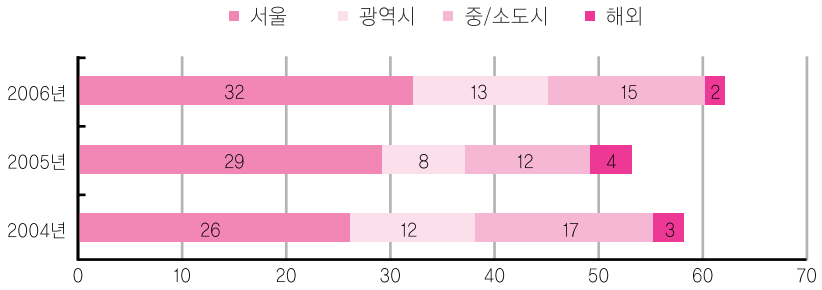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30대에 집중된 반면 광역/기초자치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대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3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20대 작가가 작품발표 혹은 전시회 개최 시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9]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지역별로 재정을 지원받은 수치 역시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4년 서울의 경우 26명, 경기도가 5명, 부산, 전라도가 4명, 나머지 지역은 1명에서 3명까지의 지원수혜율을 보여 서울의 집중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전체 응답자 54명 중 서울의 수혜자가 29명, 2006년에는 63명 중 32명이 서울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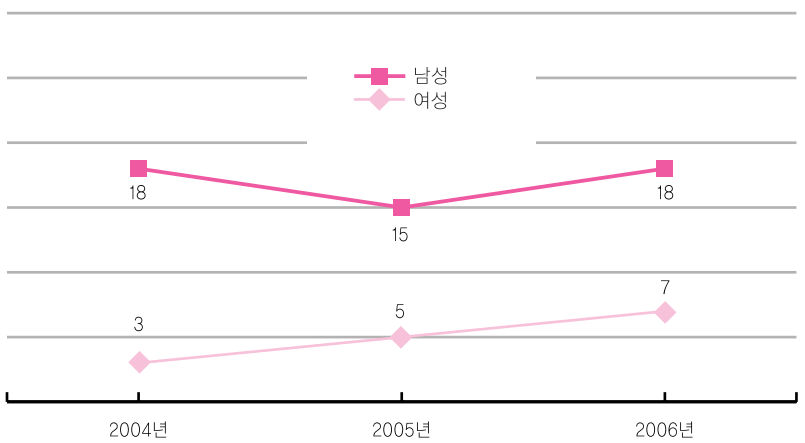
[그림 3-70]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0명 내외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현물의 내용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도록제작이 가장 많았다. 현물의 지원은 작품의 재료지원보다는 도록제작이나 도록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등의 대답이 많았다.

공간지원을 받은 시각예술인은 연간 20명 내외였고, 공간의 크기는 50평 내외로 조사되었다. 공간지원 기간은 1~2주 사이로 나타나 중앙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공간지원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2004년의 공간지원에서 남성은 18명, 여성은 3명, 2005년에는 남성 15명, 여성 5명, 2006년에는 남성 18명, 여성 7명 등으로 나타나 20명 내외의 적은 표본이지만 남성에 대한 공간지원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3-71]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공간지원 현황 (단위: 명)



[표 3-17]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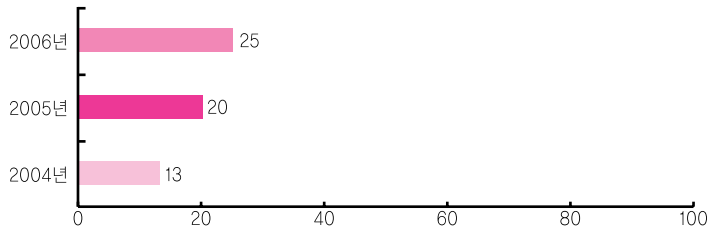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광역/기초 자치단체	재정	(58명 응답) 3,697,000원	(54) 6,151,000원	(63) 3,004,000원
	현물	(9) 도록제작	(9) 도록제작	(11) 도록, 엽서, 재료 등
	공간/기간	(21) 316.8㎡/ 13.3주	(20) 264.4㎡/ 9.4주	(25) 235.9㎡/ 9.4주
	기타	(10) 단체에게 지원 등	(11) 단체기금 수령 등	(11) 홍보, 장비 등

③ 기업(메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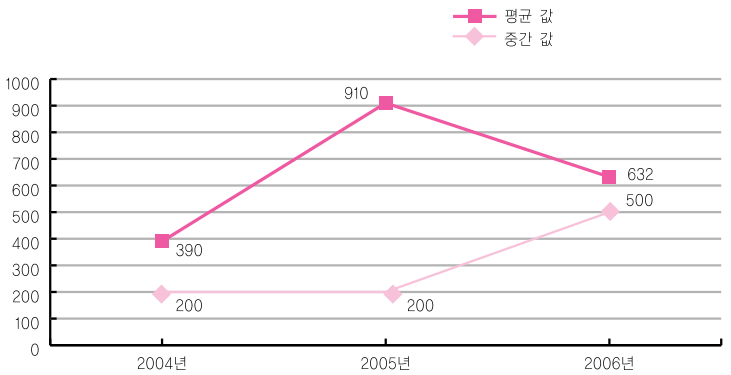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 13명, 2005년 20명, 2006년 25명으로 조사되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나 매년 지원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은 2004년 390만 원, 2005년 910만 원, 2006년 63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의 경우는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사람이 1명 포함되어 있어 평균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중간값을 보면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2]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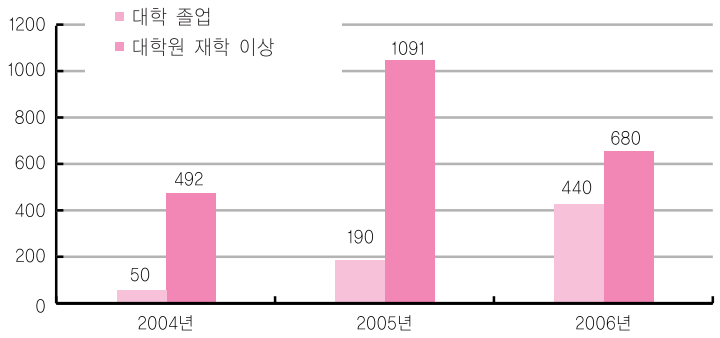
[그림 3-73]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기업지원금의 특이한 점은 학력에서 두드러진다. 고졸이하의 지원은 3년 동안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졸업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 보유자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지원금액의 차이는 중앙정부, 광역/기초단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고졸자와 비교하면 꼭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기업의 지원에서 단순비교를 한다면 2004년 대졸자의 지원액 평균은 50만 원, 대학원 재학 이상은 492만 원, 2005년 대졸자는 190만 원, 대학원 이상은 1091만 원, 2006년 대졸자는 440만 원, 대학원 재학 이상은 68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중간값으로 보아도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4] 기업(메세나)의 창작시각예술인 학력별 평균 지원액

(단위: 만 원)



현물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 5명, 2005년 5명, 2006년 10명으로 전체 응답자 1325명 중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항목으로는 도록제작과 더불어 작품의 재료, 작품 설치 장비 등을 꼽았다.

공간으로 지원받은 응답자는 2004~2006년 각각 15명, 17명, 1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평균 지원받은 공간 크기는 각 연도별로 185.1㎡, 204.9㎡, 198.3㎡ 순이었고, 기간은 평균 2~3주 사이였다. 기타 지원 내용으로는 웹사이트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작품 매입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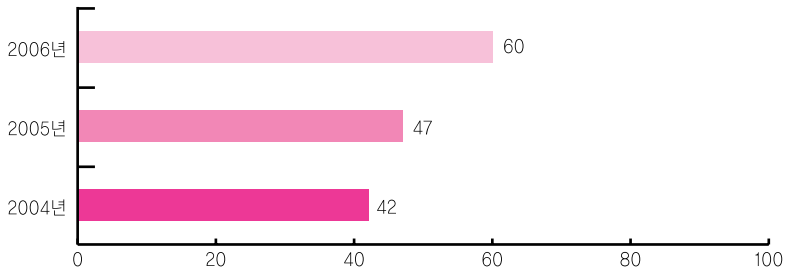
[표 3-1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업(메세나)의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기업(메세나)	재정	(13명 응답) 3,990,000원	(20) 9,105,000원	(25) 6,320,000원
	현물	(5) 재료, 도록, 쌀	(5) 재료, 쌀	(10) 장비, 도록 등
	공간/기간	(15) 185.1㎡/ 2.6주	(17) 204.9㎡/ 1.8주	(17) 198.3㎡/ 3.4주
	기타	(3) 도록제작, 후원전시참여	(3)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6) 장비, 후원전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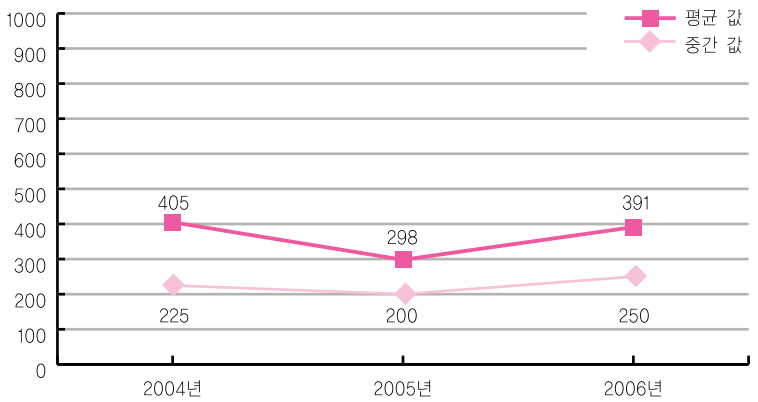
④ 개인 후원자

개인후원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각예술인의 수는 2004년에는 42명, 2005년에는 47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은 2004년 405만 원, 2005년 298만 원, 2006년 39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중간값은 225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5]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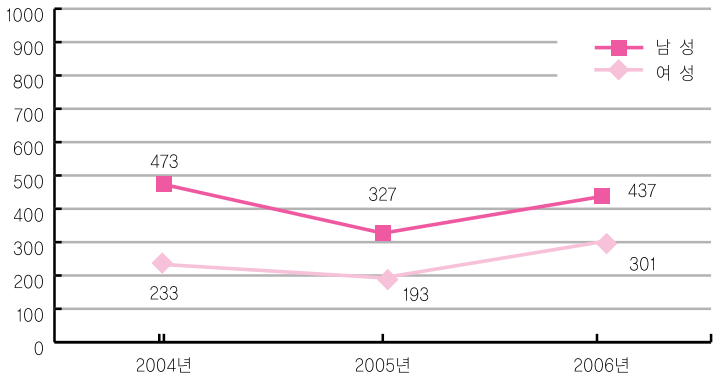
[그림 3-76]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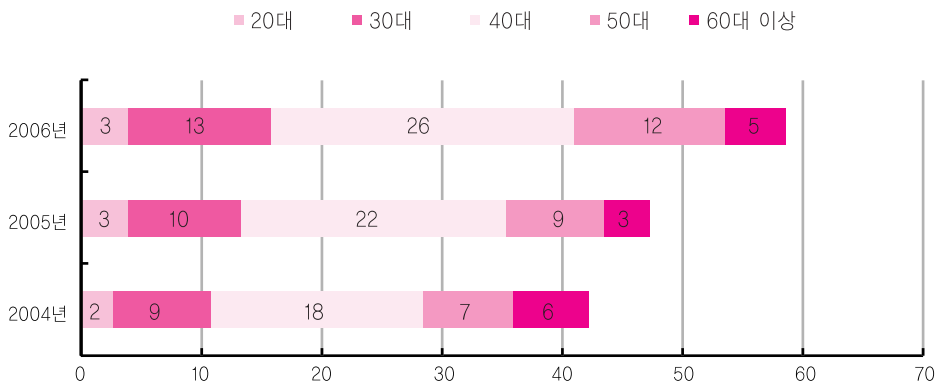
이들의 경우도 성별, 학력, 지역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남성은 평균 473만 원을, 여성은 233만 원, 2005년에는 남성 327만 원, 여성 193만 원, 2006년에는 남성 437만 원, 여성 30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지원을 받은 시각예술인들 중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연도별로 65%이상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항상 정비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단 40대의 지원수혜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타 지원 주체와 마찬가지로 20대와 60대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3-77]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3-78] 개인 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현물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3년 모두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 항목으로는 도록제작, 재료지원, 작품매입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공간으로 지원받은 경우 2004년 212.9㎡/9.9주, 2005년 219.8㎡/9주, 2006년 193.9㎡/7주로 나타났다. 중간값으로 본다면 165㎡ 내외의 공간을 2주 동안 제공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지원 항목으로는 광고 협찬금, 공간유지비용, 전시에 필요한 부대 업무 지원 등을 꼽았다.

[표 3-19] 개인후원자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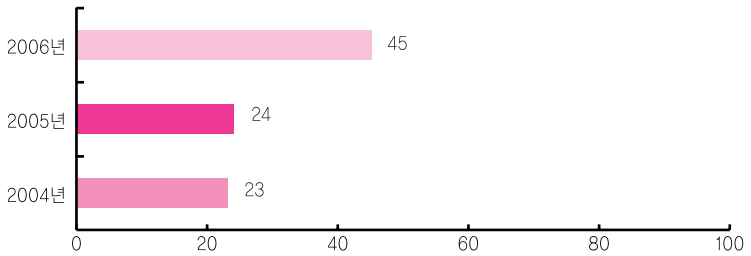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개인 후원자	재정	(42명 응답) 4,052,000원	(47) 2,987,000원	(60) 3,917,000원
	현물	(8) 재료 등	(9) 도록제작, 재료 등	(7) 재료, 작품매입 등
	공간/기간	(12) 212.9㎡/ 9.9주	(12) 219.8㎡/ 9.0주	(20) 193.9㎡/ 7.3주
	기타	(3) 광고협찬금 등	–	(4) 공간유지비용 등

⑤ 기업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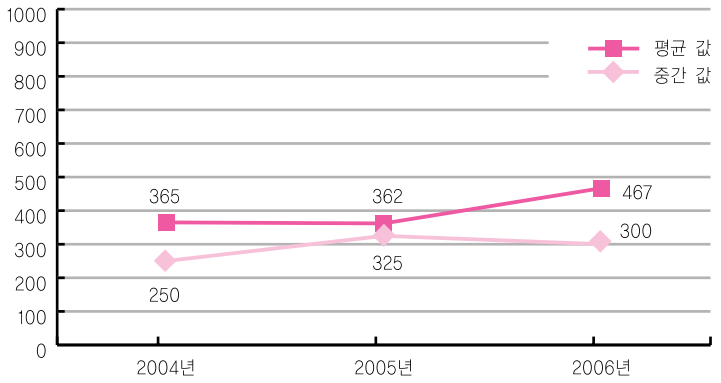
문화재단은 앞에서 언급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을 제외한, 기업이 설립모태가 된 문화재단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문화재단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에는 23명, 2005년 24명, 2006년에는 45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4년 365만

[그림 3-79]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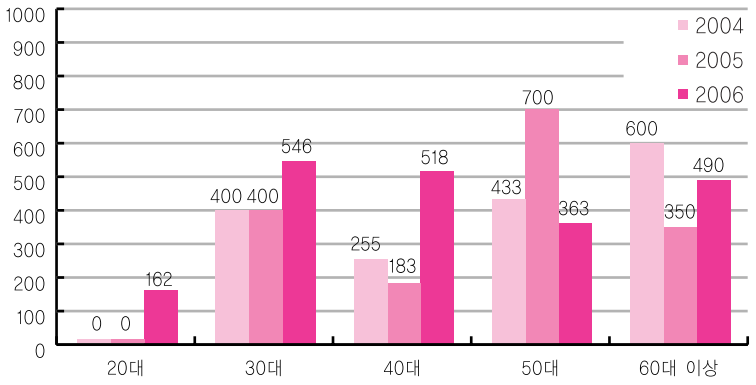
[그림 3-80]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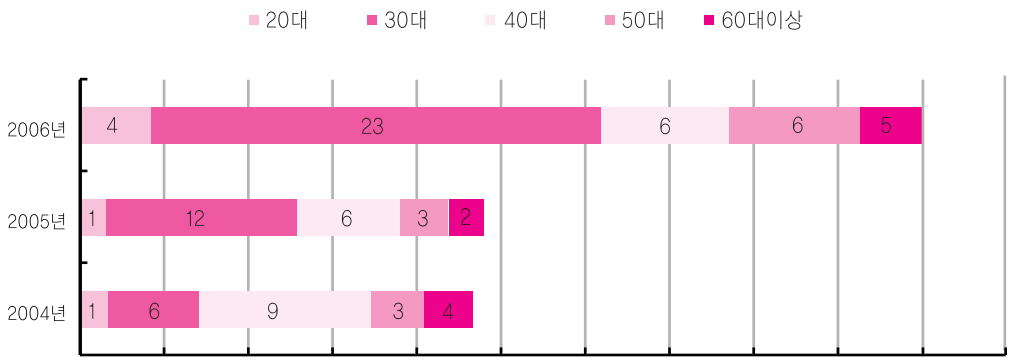
원, 2005년 362만 원, 2006년 46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중간값은 250만 원, 325만 원,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40대 작가의 수혜율이 23명 중 9명으로 제일 많았지만 금액으로 보면 30대 작가가 평균 400만 원, 50대 작가가 433만 원, 60대 이상이 600만 원으로 나타나 255만 원으로 조사된 40대 작가의 지원액이 타 연령대보다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05년에는 30대 작가가 24명중 12명으로 50%를 차지했고 평균금액도 400만 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때 50대 작가는 3명에 불과했지만 평균 7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지원받

[그림 3-81]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액 (단위: 만 원)



[그림 3-82]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령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았다. 2006년도에는 30대 작가의 지원율이 45명중 23명이었고 평균 지원액이 546만 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비록 3년간의 추이이긴 하지만 30대 작가에 대한 문화재단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물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의 내용으로는 재료지원, 작품매입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공간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들도 10명 내외였고 2004년 249.7㎡/3.9주 (9명), 2005년 163.2㎡/3.3주 (3명), 2006년 201.6㎡/1.9주 (13명)로 나타났다. 기타 지원 항목으로는 도록 제작지원, 단체전시 후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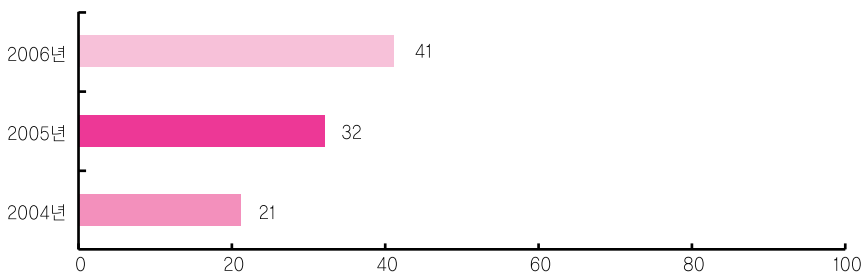
[표 3-20] 문화재단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문화재단	재정	(23명 응답) 3,652,000원	(24) 3,629,000원	(45) 4,678,000원
	현물	(4) 재료, 작품매입 등	-	(6) 작품매입 등
	공간/기간	(9) 249.7㎡/ 3.9주	(3) 163.2㎡/ 3.3주	(13) 201.6㎡/ 1.9주
	기타	(3) 도록, 후원전시참여	(3) 후원전시참여 등	(6) 후원전시참여, 레지던스

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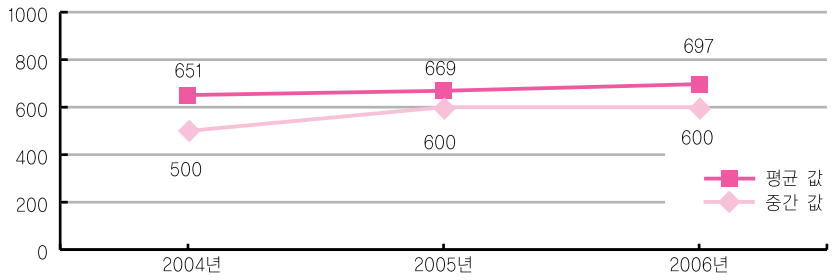
비교적 시각예술인들이 지원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은 2004년 21명, 2005년 32명, 2006년 41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다른 지원주체에 비해 지원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앙정부나 개인후원자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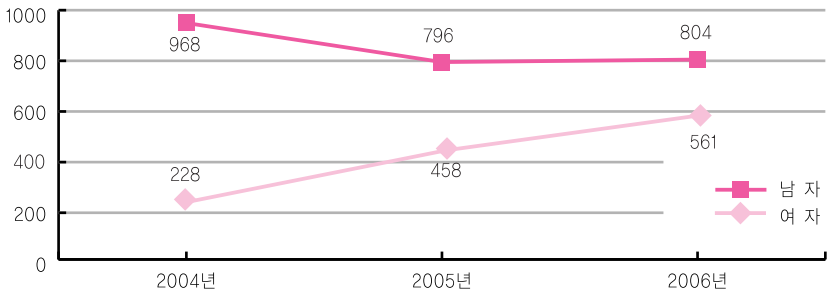
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은 2004년 651만 원, 2005년 669만 원, 2006년 69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또한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고 중간값은 5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순으로 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3-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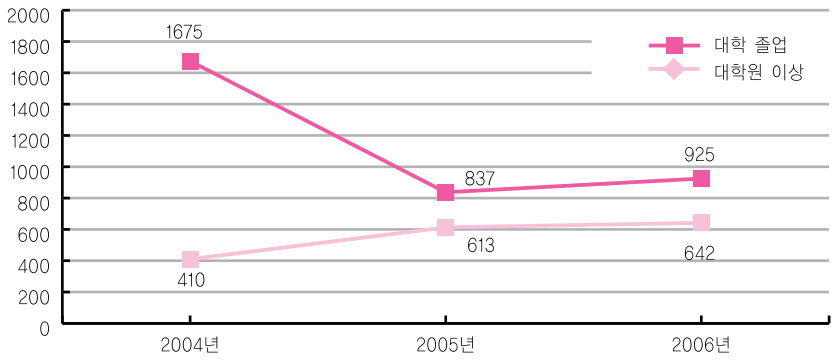
성별 차이를 보면 지원수혜대상자의 수는 타 주체에 비해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었다. 2004년은 12명(남)/9명(여), 2005년은 20명/12명, 2006년은 23명/18명으로 나타났으나 금액의 평균치를 살펴본다면 2004년 968만 원(남)/228만 원(여), 796만 원/458만 원, 2006년 804만 원/561만 원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성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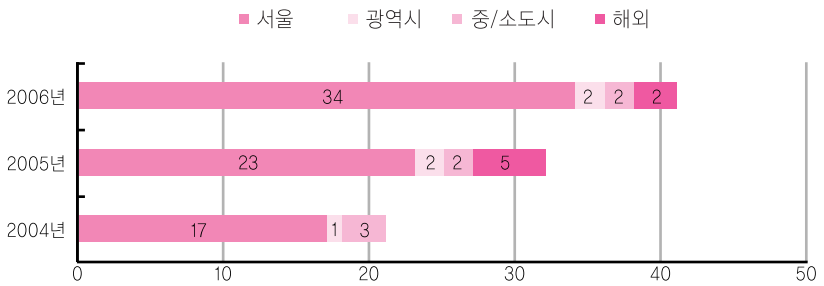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학력에 있어서는 다른 지원의 주체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대졸자의 평균 지원액이 대학원 재학 이상자의 평균 지원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수혜대상자는 적지만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학력별 재정지원액 (단위: 만 원)



지역별로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21명 중 서울이 17명, 제주는 1명, 해외는 3명, 2005년에는 전체 32명 중 서울이 23명, 제주가 2명, 부산 광주가 각 1명, 해외가 5명, 2006년에는 전체 41명 중 서울이 34명, 해외가 3명, 인천, 대전, 강원, 제주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나 서울의 지원 수혜현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지역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명)



현물 지원의 경우에는 3명이 채 안 되는 시각예술인이 지원을 받아 지난 3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전시 팜플렛의 일부이거나 작품 매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공간 지원의 경우도 매우 적은 수의 시각예술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2004년 225.8㎡/1.3주 (3명), 2005년 123.9㎡/4.5주 (4명), 2006년 165.2㎡/2주 (3명)로 지원되었다. 공간 지원의 기간

을 중간값으로 보면 연도별로 1주, 2.5주, 1주로 나타나 타 지원 주체보다 공간 지원이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정	(21명 응답) 6,510,000원	(32) 6,665,000원	(41) 6,977,000원
	현물	(3) 재료, 작품매입 등	(3) 도록,재료,작품매입	(1) 작품매입 등
	공간/기간	(3) 225.8㎡/ 1.3주	(4) 123.9㎡/ 4.5주	(3) 165.2㎡/ 2주
	기타	-	-	(1) 국제레지던스

⑦ 복권기금

복권기금의 수혜 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 25만원이 1명, 2억이 1명, 2005년에는 200만원이 1명, 2006년에는 500만원 1명, 600만원 1명, 4000만원 1명으로 응답했다. 공간지원의 경우도 1, 2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기금의 운용과 방향에 대한 설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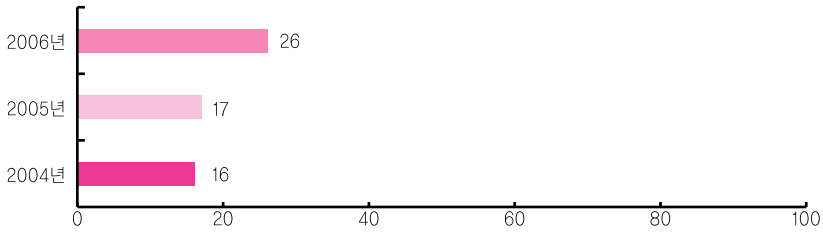
[표 3-22] 복권기금의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복권기금	재정	(4명 응답) 50,060,000원	(3) 666,700원	(6) 8,507,000원
	현물	-	(1) 전시도록	(1) 현물
	공간/기간	(1) 1322.3㎡/ 62주	(3) 28.6㎡/ 2주	(2) 18.1㎡/ 2.5주
	기타	-	(1) 스튜디오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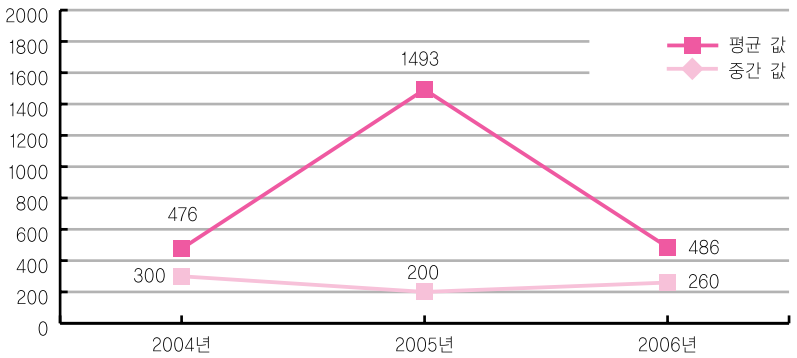
⑧ 기타

그 외 기타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정지원이 2004년에 16명, 2005년에 17명, 2006년에 26명으로 이뤄졌다. 금액은 평균 4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간값은 200~300만 원 사이였다.

[그림 3-88] 기타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3-89] 기타 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현물지원은 5명 내외로 내용으로는 도록 제작, 오픈 행사 지원, 작품 매입 등의 답변이 있었다. 공간지원은 약 165.2㎡ 내외의 공간을 1주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시장 대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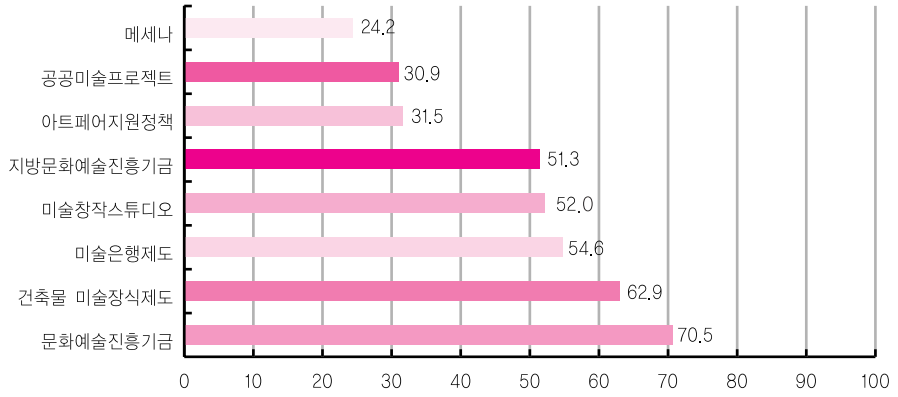
기타 지원으로는 연구비, 워크샵, 단체 후원 등의 답변이 있었다.

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객관식으로 나열하고 알고 있는 내용 모두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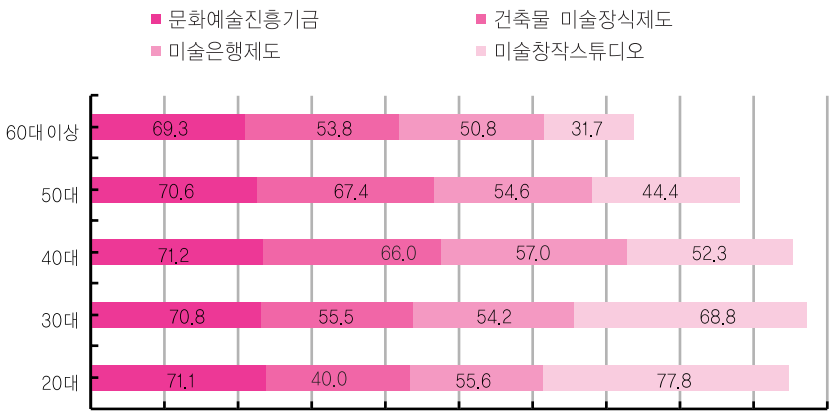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체응답자 1,325명 중 70.5%가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62.9%), 미술은행제도(54.6%), 미술창작스튜디오(52.0%),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51.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메세나, 문화중심도시, 복권기금 등의 정책은 30% 이하의 인지도를 보였다.

[그림 3-9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인지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예진흥기금은 장르 및 활동기간 등 독립변인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70% 내외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시각예술인들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원 경로로 파악되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가장 관련이 많은 조각 분과가 87.4%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미술은행 제도는 판화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판화가 76.9%, 영상설치가 88.9%로 나타났고 활동기간 10년 미만의 시각예술인이 69.1%, 30세 미만의 인지도가 7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신진 작가들의 관심도가 높고, 또 정책의 대상이 신진 작가인 위주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영상설치 분과가 66.7%, 활동기간 10년 미만이 41.7%, 20대의 42.2%로 조사되어 젊은 작가들에게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복수응답 (단위: %)



한편 무응답 3.4%, 모름 1.3%, 없음 0.8%, 관심없다 0.4%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각예술인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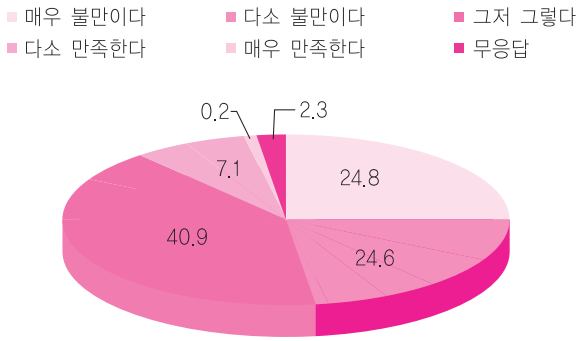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문화예술 진흥기금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미술은행 제도	미술창작 스튜디오	지방 문화예술 진흥기금	아트페어 지원정책	공공미술 프로젝트	메세나
전체 (1325)		70.5	62.9	54.6	52.0	51.3	31.5	30.9	24.2
장르별	한국화 (332)	69.3	59.0	60.8	50.0	49.4	32.2	22.0	23.5
	서양화 (520)	69.4	64.0	56.2	55.4	52.5	33.8	34.4	26.3
	조각 (174)	71.8	87.4	60.3	60.9	48.9	30.5	37.9	21.8
	공예 (92)	69.6	53.3	29.3	27.2	43.5	29.3	25.0	20.7
	서예 (90)	73.3	40.0	28.9	15.6	61.1	18.9	5.6	17.8
	판화 (39)	76.9	76.9	76.9	76.9	59.0	38.5	46.2	25.6
	영상설치 (54)	79.6	53.7	51.9	88.9	55.6	31.5	66.7	33.3
	해당없음 (7)	85.7	28.6	71.4	42.9	57.1	-	-	-
	무응답 (17)	52.9	35.3	47.1	52.9	35.3	29.4	52.9	29.4
연령별	20대 (45)	71.1	40.0	55.6	77.8	28.9	46.7	42.2	24.4
	30대 (308)	70.8	55.5	54.2	68.8	51.9	34.7	40.6	24.7
	40대 (444)	71.2	66.0	57.0	52.3	57.7	32.2	35.1	25.9
	50대 (313)	70.6	67.4	54.6	44.4	49.8	27.8	23.0	25.2
	60대 이상 (189)	69.3	66.7	50.8	31.7	43.4	27.0	15.3	21.2
	무응답 (26)	61.5	53.8	42.3	42.3	50.0	30.8	30.8	-

4)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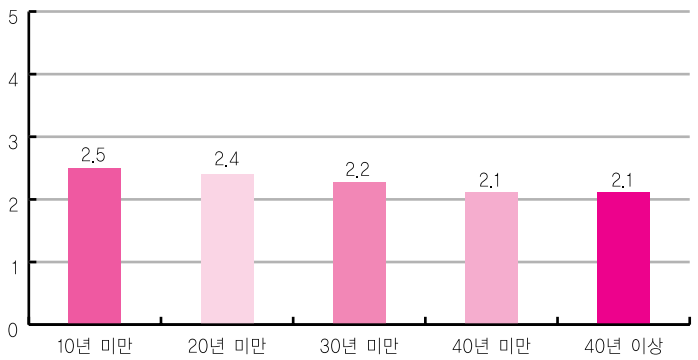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예술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 하는지에 대해 창작 예술인에게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한 반면 '불만이다'는 응답이 49.4%,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40.9%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2.32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르, 활동기간, 연령, 학력, 지역 등 독립변인 모두 만족도는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복수응답 (단위: %)



미세한 차이이지만 활동기간 40년 내외의 시각예술인들이 그보다 짧은 기간 활동한 작가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이 2.5점, 20년 미만이 2.4점, 30년 미만이 2.2점, 40년 미만이 2.1점, 40년 이상이 2.1점으로 조사되었는데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책의 대상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기 때문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 듯 최근 3년 사이 중앙정부 및 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집중적인 수혜를 받는 집단은 30대 시각예술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3-9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활동기간별 만족도 (5점 척도)



[표 3-2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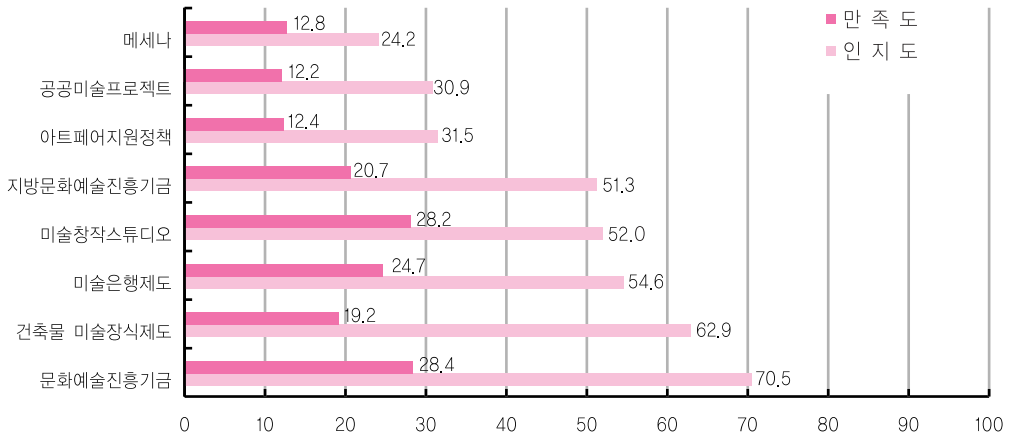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매우 불만	다소 불만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1325)		24.8	24.6	40.9	7.1	0.2	2.3
성별	남성 (876)	26.5	22.9	40.4	7.5	0.2	2.4
	여성 (436)	21.6	27.5	42.2	6.4	0.2	1.8
	무응답 (13)	23.1	38.5	23.1	–	–	15.4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16.2	27.0	46.1	9.8	–	1.0
	20년 미만 (428)	21.0	24.5	43.9	8.4	0.2	1.9
	30년 미만 (381)	25.7	27.3	38.1	6.3	0.5	2.1
	40년 미만 (209)	34.0	22.5	35.4	4.8	–	3.3
	40년 이상 (91)	38.5	13.2	41.8	4.4	–	2.2
	무응답 (12)	16.7	25.0	25.0	–	–	33.3
장르별	한국화 (332)	26.8	24.1	41.6	4.8	0.3	2.4
	서양화 (520)	26.3	24.2	39.8	8.1	0.2	1.3
	조각 (174)	23.0	28.2	40.8	5.7	0.6	1.7
	공예 (92)	25.0	23.9	40.2	6.5	–	4.3
	서예 (90)	18.9	30.0	37.8	10.0	–	3.3
	판화 (39)	28.2	17.9	43.6	5.1	–	5.1
	영상설치 (54)	22.2	20.4	48.1	7.4	–	1.9
	해당없음 (7)	–	–	71.4	28.6	–	–
	무응답 (17)	–	23.5	41.2	17.6	–	17.6

② 현 정책 중 만족스러운 정책

위에서 언급한 정책의 만족도는 2.5점 이하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책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였다. 문예진흥기금은 전체 1,325명 중 28.4%가 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미술창작스튜디오는 28.2%, 미술은행제도 24.7%,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20.7%,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19.2%로 조사되었다. 인지도 조사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정책들이 만족도에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문예진흥기금의 인지도는 70.5%였으나 만족도는 28.4%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책도 인지도 대비 50%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정이 다르지는 않다.

[그림 3-9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대비 만족도-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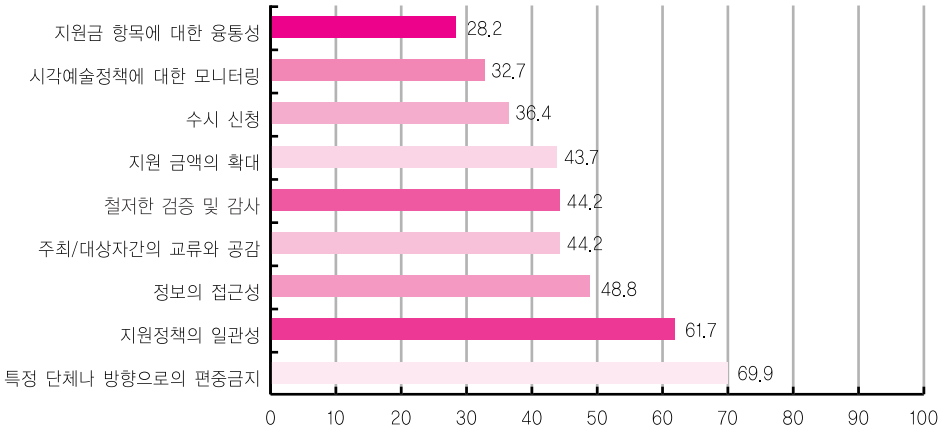
5)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점

위의 지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만과 개선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예상 답변을 객관식으로 나열해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선택하게 하고 기타의견을 주관식으로 서술하게 하였다.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점은 실제로 같은 맥락 아래 있는 질문이다. 조사결과 역시 불만사항과 개선사항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점을 중심으로 아래 결과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①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개선점

지원정책의 실행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으로는 지원이 특정 단체나 방향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69.6%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 중에 소수 몇 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0.2%), 공정하고 올바른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0.2%), 출신학교 등에 대해 편파적이다(0.1%), 학연에 따른 지원을 없애야 한다(0.1%), 담당자 · 정책자의 편중된 시선/학연 · 지연에 묶여 있다(0.1%) 등의 의견도 편중된 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의 주체들이 각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시각예술인들은 지원의 혜택이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에 지원이 편중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95]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복수응답 (단위: %)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61.7%가 응답했으며 이벤트성 전시가 아닌 좋은 작품에 지원을 희망한다(0.1%),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과를 장기적으로 봐야한다(0.1%) 등 유사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원 신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48.8%로 나타났다. 연중 지원 일정 공시(0.2%), 지원 신청 정보가 부족하다(0.1%)는 의견이 있어 지원정보로의 접근이 어려운 시각예술인의 비율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의 주체는 신문 공고, 웹사이트 등의 홍보를 통해 지원 내용을 공시하지만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매체를 사용해 본적이 없는 시각예술인들은 지원의 경로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각예술인들이 지원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로 동료와의 교류를 통한 것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부분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았더니 활동기간이 40년 이상, 연령은 50대의 시각예술인들이 50% 이상의 응답율을 보여 지원정보로의 접근방식이 연령과 무관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의견을 살펴보면 서류간소화, 주최/대상자간의 심도 있는 교류와 공감(44.2%), 선정자/지원금 사용에 철저한 검증/감사가 이뤄져야 한다(44.2%),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43.7%), 신청 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각예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32.7%), 지원금 항목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28.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편중지원 금지	지원정책의 일관성	정보의 접근성 용이	주최/대상자의 교류와 공감	철저한 검증과 감사	지원금의 확대
전체 (1325)		69.6	61.7	48.8	44.2	44.2	43.7
장르별	한국화 (332)	70.8	59.0	55.1	39.8	43.4	42.2
	서양화 (520)	70.6	63.7	48.3	46.7	47.9	47.1
	조각 (174)	77.6	62.6	52.9	43.7	48.3	41.4
	공예 (92)	56.5	62.0	51.1	48.9	38.0	38.0
	서예 (90)	65.6	54.4	34.4	36.7	32.2	42.2
	판화 (39)	71.8	59.0	38.5	56.4	46.2	51.3
	영상설치 (54)	66.7	64.8	38.9	50.0	37.0	37.0
	해당없음 (7)	28.6	71.4	14.3	-	-	42.9
	무응답 (17)	47.1	76.5	35.3	47.1	35.3	35.3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66.2	64.7	46.1	45.6	42.6	43.1
	20년 미만 (428)	67.8	61.0	48.1	40.9	45.6	37.4
	30년 미만 (381)	69.0	63.5	49.9	47.5	45.1	47.5
	40년 미만 (209)	73.2	55.5	49.3	44.5	39.2	47.8
	40년 이상 (91)	84.6	70.3	56.0	46.2	51.6	52.7
	무응답 (12)	33.3	25.0	25.0	16.7	16.7	16.7
학력별	고졸이하 (71)	60.6	69.0	40.8	36.6	26.8	59.2
	대졸 (332)	66.6	62.7	50.9	45.8	44.0	44.9
	대학원이상 (911)	71.7	61.3	49.0	44.3	45.6	42.2
	무응답 (11)	45.5	27.3	27.3	36.4	45.5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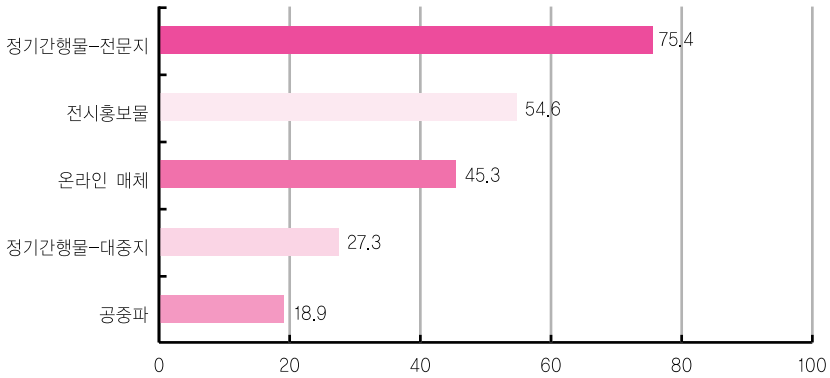
6. 정보 활용도

1)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경로

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정보의 입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쇄매체, 온라인, 공중파 방송 등을 세분화해서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정기간행물-전문지(75.4%)을 통해서였다. 다른 작가들의 전시 홍보물 54.6%, 온라인 매체 45.3%, 정기간행물-대중지 27.3%, TV방송 및 라디오 등 18.9%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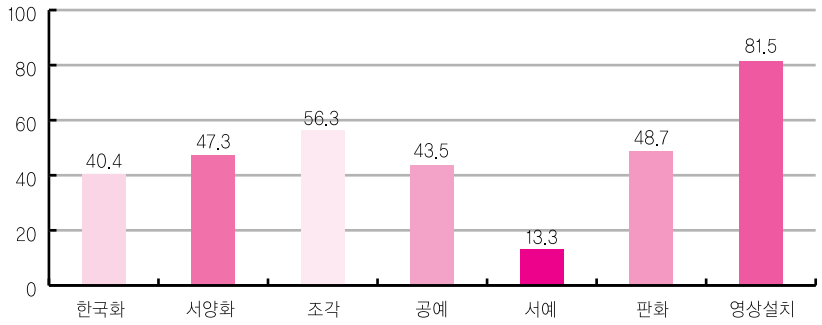


매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쇄 매체의 경우는 장르, 연령별로 큰 차이 없이 모든 변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나 활동기간 40년 이상의 시각예술인이 타 활동기간의 작가들 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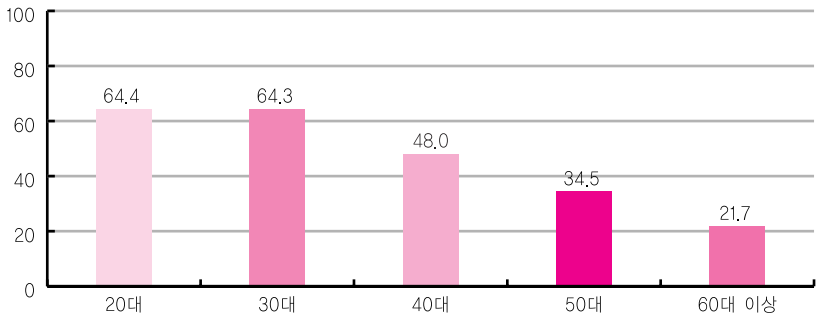
다른 작가의 전시 홍보물도 중요한 정보 입수 경로가 되고 있다. 시각예술인들은 본인의 작품과 전시를 가능한 여러 곳에 홍보해야하지만 되도록 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별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등의 발송이 비교적 높은 효과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매체의 경우는 장르별, 활동기간별,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장르별로는 영상/설치가 81.5%로 가장 높았고, 서예가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활동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60.8%, 연령대별로는 20대~30세가 64%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세 이상은 21.7%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9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장르별 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그림 3-9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연령별 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정기간행물-대중지의 경우는 신문 등의 일간지, 주간지 등이 해당된다. 타 장르에 비해 영상설치가 9.3%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활동기간 10년 미만의 작가는 18.1%만이, 연령 30세 미만의 작가는 17.8%만이 정기간행물-대중지로부터 정보입수를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 40년 이상의 작가는 38.5%, 60세 이상의 작가는 41.8%가 대중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문서적 구입, 중고서점에서 구입, 외국미술전문잡지, 전시장 관람, 입소문 등의 의견도 나타났다.

[표 3-2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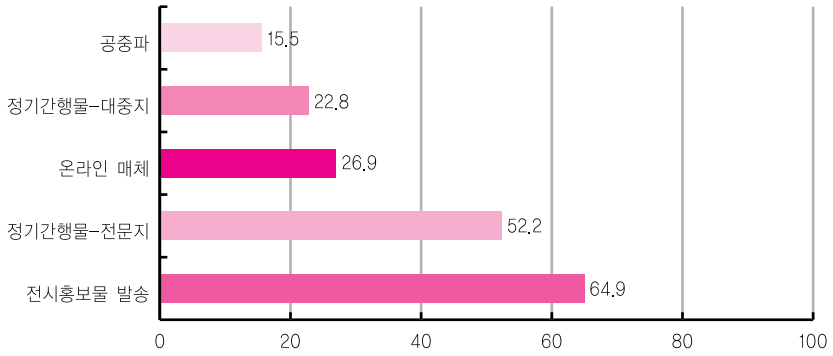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정기간행물 (전문지)	전시홍보물	온라인 매체	정기간행물 (대중지)	공중파
전체 (1325)		75.4	54.6	45.3	27.3	18.9
장르별	한국화 (332)	74.1	57.2	40.4	29.8	20.8
	서양화 (520)	76.7	55.6	47.3	30.0	20.2
	조각 (174)	74.1	56.3	56.3	22.4	14.4
	공예 (92)	81.5	56.5	43.5	18.5	19.6
	서예 (90)	74.4	46.7	13.3	31.1	14.4
	판화 (39)	74.4	64.1	48.7	33.3	17.9
	영상설치 (54)	66.7	38.9	81.5	9.3	20.4
	해당없음 (7)	71.4	14.3	28.6	14.3	14.3
	무응답 (17)	76.5	29.4	29.4	23.5	5.9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204)	76.5	52.0	60.8	18.1	13.2
	20년 미만 (428)	73.6	52.3	52.1	22.2	15.9
	30년 미만 (381)	78.7	57.7	45.7	32.0	22.0
	40년 미만 (209)	71.3	56.9	30.1	33.0	23.0
	40년 이상 (91)	82.4	52.7	15.4	38.5	25.3
	무응답 (12)	33.3	50.0	16.7	33.3	-
학력별	고졸이하 (71)	64.8	46.5	28.2	38.0	22.5
	대졸 (332)	72.0	55.1	36.1	27.1	19.6
	대학원이상 (911)	77.8	55.3	50.4	26.7	18.4
	무응답 (11)	48.5	27.3	9.1	18.2	9.1

2) 작품발표의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위에서는 시각예술인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시각예술인들이 본인의 작품발표 시 어떤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지 복수답변을 허용해 질문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시홍보물 발송이었다. 64.9%를 차지했고, 정기간행물-전문지는 52.2%, 온라인 매체 26.9%, 정기간행물-대중지 22.8%, TV방송 등 공중파는 15.5%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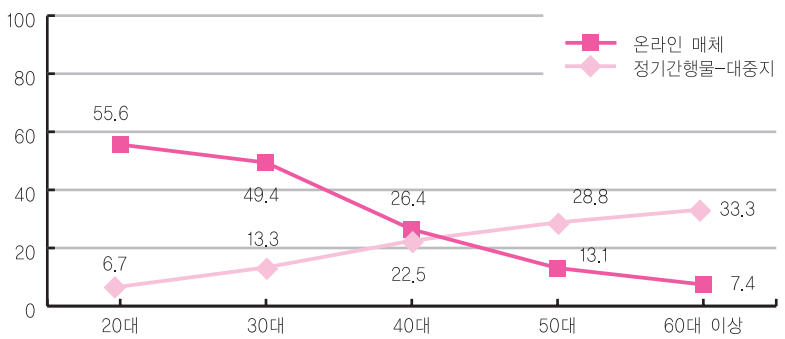
전시홍보물 발송이나 정기간행물-전문지의 경우는 장르, 활동기간, 연령 등의 독립변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홍보물 발송과 전문지 지면광고의 방식이 현재에도 가장 일반적인 홍

[그림 3-9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작품발표의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복수응답 (단위: %)



보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매체와 정기간행물-대중지의 경우는 활동기간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20대 55.6%, 30대 49.4%, 40대 26.4%, 50대 13.1%, 60세 이상은 7.4%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정기간행물-대중지의 경우에는 20대 6.7%, 30대 13.3%, 40대 22.5%, 50대 28.8%, 60대 이상은 33.3%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중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대중지와 온라인 매체의 연령별 선호도 비교 (단위: %)



장르별로 보았을 때 서예장르에서는 온라인 매체의 이용이 6.7%로 나타나 거의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예 분과의 비교적 높은 연령대가 매체 활용도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력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고졸이하는 11.3%, 대졸은 20.5%, 대학원 이상은

30.7%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온라인 매체의 활용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 소속된 조직체를 통하여 홍보, 전화나 구두연락,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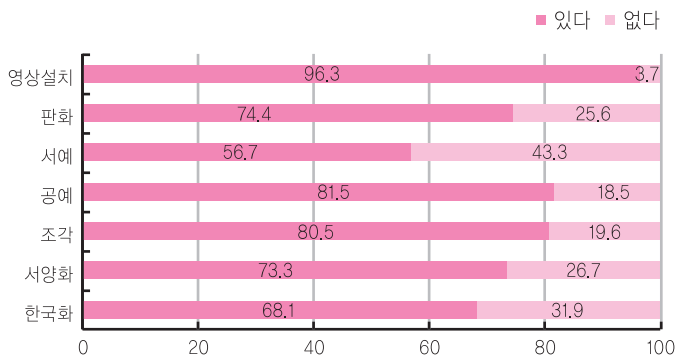
3) 온라인 매체

위에서 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매체 및 홍보 매체를 알아보았다. 그 중 주 온라인 매체와 인쇄 매체의 활용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질문을 해 보았다. 매체활용도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방안도 달라져야 할 것이며 시각예술인들이 작품 및 전시 홍보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든 시각예술인들이 열린 정보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실행방법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나타날 것이다.

① 접속 경험 및 주당 접속 시간

시각예술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는 미술인들은 응답자 1325명 중 73.4%로 나타났다. 위 정보입수 경로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게 장르별,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서예장르의 접속경험이 5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영상설치의 접속경험은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5.6%, 60세 이상이 40.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0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인터넷 접속 경험 (단위: %)



현재 문화예술관련 정책, 지원 정보 등은 각 지원추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시로 공시하고, 지원양식 등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인터넷 접속 경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고연령대의 시각예술인들이 정보로부터 멀어져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접속경험이 있는 902명의 주당 접속시간은 3.5시간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보면 영상설치가 5.2시간, 한국화가 4.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시각예술인이 4.2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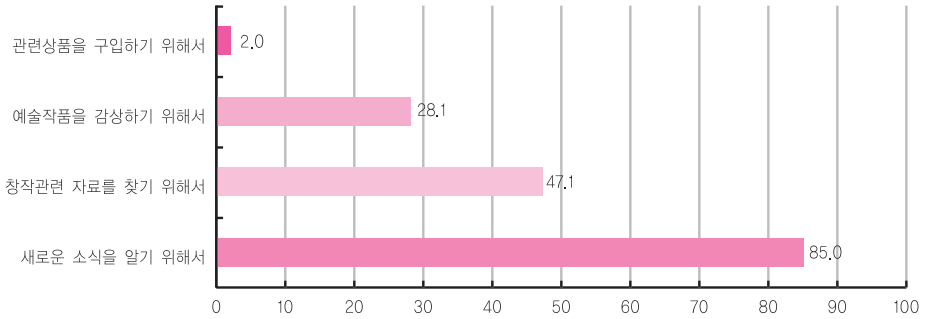
[표 3-2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접속 경험

구분 (응답자)		있음(%)	없음(%)	평균 접속 시간
전체 (1325)		73.4	26.6	3.5
성별	남성 (876)	71.2	28.8	3.6
	여성 (436)	78.4	21.6	3.3
	무응답 (13)	46.2	53.8	1.7
장르별	한국화 (332)	68.1	31.9	4.0
	서양화 (520)	73.3	26.7	3.2
	조각 (174)	80.5	19.5	3.5
	공예 (92)	81.5	18.5	3.6
	서예 (90)	56.7	43.3	2.1
	판화 (39)	74.4	25.6	2.0
	영상설치 (54)	96.3	3.7	5.2
	해당없음 (7)	71.4	28.6	4.6
	무응답 (17)	76.5	23.5	3.1
연령대별	20대 (45)	95.6	4.4	3.5
	30대 (308)	89.3	10.7	3.7
	40대 (444)	80.9	19.1	3.0
	50대 (313)	63.9	36.1	4.2
	60대 이상 (189)	40.7	59.3	3.2
	무응답 (26)	69.2	30.8	3.2

② 접속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유로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47.1%), 예술 감상을 위해서(28.1%) 순이었다.

[그림 3-10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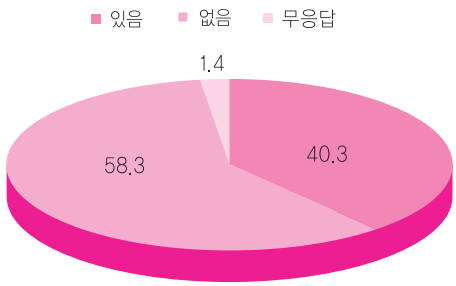
[표 3-2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위해서	창작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관련 상품구입을 위해서
전체 (972)		85.0	47.1	28.1	2.0
장르별	한국화 (226)	81.4	39.4	29.6	2.7
	서양화 (381)	86.1	47.8	31.5	1.6
	조각 (140)	89.3	42.9	19.3	-
	공예 (75)	77.3	64.0	32.0	1.3
	서예 (51)	78.4	64.7	31.4	5.9
	판화 (29)	89.7	34.5	13.8	6.9
	영상설치 (52)	94.2	53.8	19.2	-
	해당없음 (5)	100.0	40.0	60.0	20.0
	무응답 (13)	84.6	46.2	15.4	-
연령별	20대 (43)	86.0	55.8	32.6	7.0
	30대 (275)	89.1	49.8	24.0	1.5
	40대 (359)	86.4	47.6	28.7	1.7
	50대 (200)	82.5	40.5	28.5	2.5
	60대 이상 (77)	72.7	46.8	39.0	1.3
	무응답 (18)	72.2	50.0	16.7	-
학력별	고졸이하 (44)	72.7	56.8	38.6	2.3
	대졸 (214)	81.3	49.1	35.5	1.9
	대학원 이상 (711)	86.9	45.7	25.3	2.0
	무응답 (3)	66.7	100.0	-	-

③ 개인 사이트 보유율

1,325명의 응답자 중 자신의 창작물을 소개할 수 있는 개인 사이트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는데 40.3%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응답자의 49.5%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작품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들은 작품 발표나 전시개최 시 본인의 사이트와 타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0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창작소개 홈페이지 보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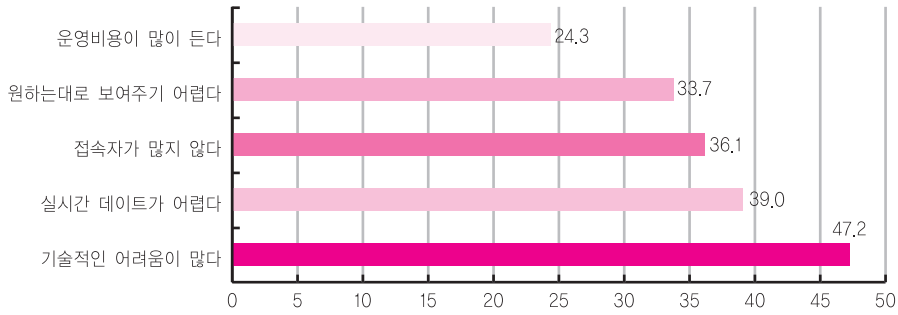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온라인 매체 활용도는 젊은 작가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 개인 사이트 보유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듯 고연령대의 시각예술인들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높은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사이트 구축 후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④ 사이트 운영시의 장애요소

개인 사이트 보유자 534명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해 질문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47.2%)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다(39.0%), 접속자가 많지 않다(36.1%), 작품 등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기가 어렵다(33.7%),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24.3%)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3-104]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시의 장애요소-복수응답

(단위: %)



[표 3-2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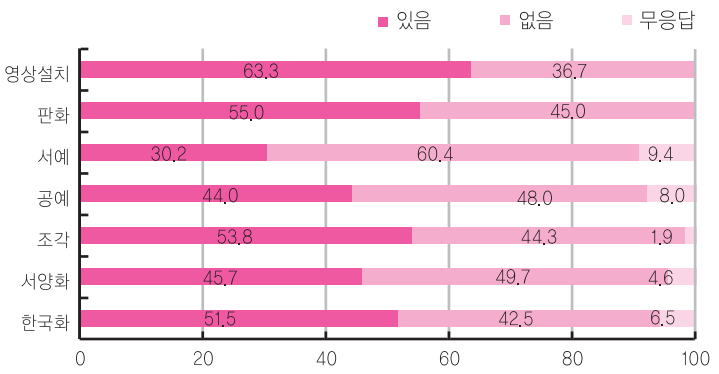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기술적인 어려움	실시간 업데이트의 어려움	접속자가 많지 않다	원하는 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부담스러운 운영비용
전체 (534)		47.2	39.0	36.1	33.7	24.3
장르별	한국화 (128)	35.2	33.6	40.6	36.7	22.7
	서양화 (215)	55.8	38.1	38.6	34.9	23.3
	조각 (66)	34.8	42.4	27.3	24.2	25.8
	공예 (40)	57.5	45.0	40.0	37.5	32.5
	서예 (32)	53.1	40.6	34.4	37.5	25.0
	판화 (19)	47.4	42.1	15.8	26.3	15.8
	영상설치 (24)	29.2	58.3	33.3	41.7	25.0
	해당없음 (3)	66.7	33.3	33.3	-	33.3
	무응답 (7)	85.7	14.3	14.3	-	42.9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63)	42.9	36.5	47.6	30.2	22.2
	20년 미만 (160)	42.5	41.9	36.3	37.5	27.5
	30년 미만 (165)	44.2	44.2	33.9	33.3	25.5
	40년 미만 (97)	54.6	27.8	34.0	30.9	18.6
	40년 이상 (45)	64.4	35.6	35.6	35.6	22.2
	무응답 (4)	50.0	50.0	-	-	50.0

기타 의견으로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렵다', '기관에서 운영을 잠시 해줬지만 도움이 안된다', '디자이너 지불금액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 업그레이드 한다', '인터넷이 낯설다',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개설 후 기간이 되어 폐쇄 되었다' 등이 있었다. 응답내용을 압축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온라인 매체의 장점이 빠른 정보의 공유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접근성인데 시각예술인에게는 그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일부 응답자는 '어렵게 창작된 작품을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⑤ 개인사이트 제작 의향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773명 중 48.1%는 사비를 들여 제작 및 운영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영상설치분야가 63.3%, 20대 미만이 61.8%로 나타나 젊은 시각예술인들의 관심도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5]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개인 홈페이지 제작/운영 의향 (단위: %)



[표 3-3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개인 홈페이지 제작/운영 의향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773)		48.1	46.6	5.3
장르별	한국화 (200)	51.5	42.0	6.5
	서양화 (302)	45.7	49.7	4.6
	조각 (106)	53.8	44.3	1.9
	공예 (50)	44.0	48.0	8.0
	서예 (53)	30.2	60.4	9.4
	판화 (20)	55.0	45.0	–
	영상설치 (30)	63.3	36.7	–
	해당없음 (4)	25.0	25.0	50.0
	무응답 (8)	62.5	25.0	12.5
연령별	20대 (34)	61.8	38.2	–
	30대 (199)	49.7	47.2	3.0
	40대 (253)	52.2	43.5	4.3
	50대 (171)	46.8	46.8	6.4
	60대 이상 (102)	31.4	56.9	11.8
	무응답 (14)	57.1	35.7	7.1
학력별	고졸이하 (37)	37.8	56.8	5.4
	대졸 (183)	41.5	50.3	8.2
	대학원이상 (547)	50.8	45.0	4.2
	무응답 (6)	66.7	16.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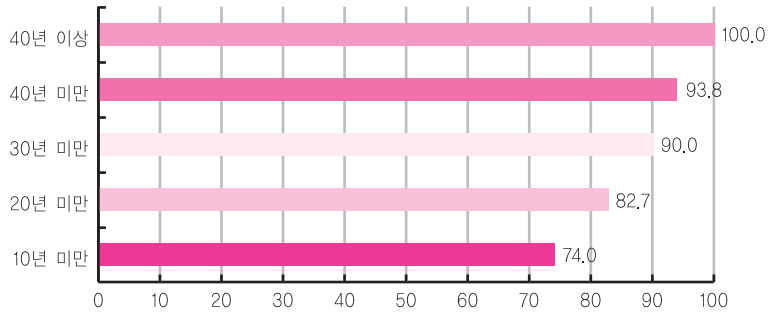
4) 인쇄 매체

① 정기구독여부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미술인은 응답자 1,325명 중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서예가 100%로 응답자 90명 모두 구독한다고 대답했다. 활동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74%, 20년 미만이 82.7%, 30년 미만이 90%, 40년 미만이 93.8%, 40년 이상은 100%로 나타나 기간이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독율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연평균 구독료는 14만 원으로 나타나 1~2종의 매체를 구독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간

[그림 3-106] 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 정기구독 여부 (단위: %)



혹 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미술인도 있었으나 이들의 경우는 여러 종의 매체를 구독하거나 해외매체를 구독하는 경우라고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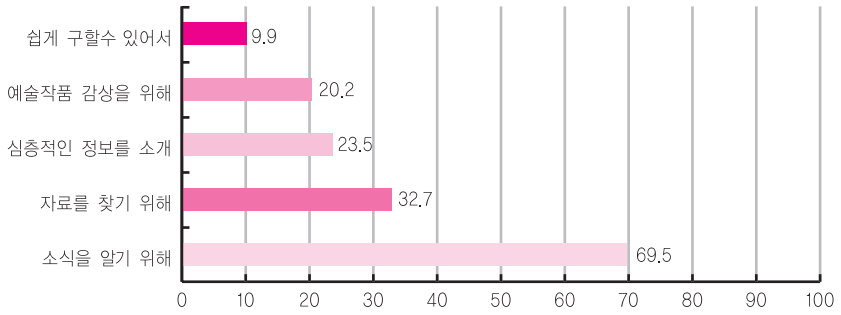
[표 3-3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 정기구독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전체 (1325)		86.5	13.5
장르별	한국화 (332)	90.4	9.6
	서양화 (520)	84.8	15.2
	조각 (174)	82.2	17.8
	공예 (92)	92.4	7.6
	서예 (90)	100.0	–
	판화 (39)	82.1	17.9
	영상설치 (54)	57.4	42.6
	해당없음 (7)	100.0	–
	무응답 (17)	100.0	–
연령별	20대 (45)	71.1	28.9
	30대 (308)	73.4	26.6
	40대 (444)	87.4	12.6
	50대 (313)	92.0	8.0
	60대 이상 (189)	98.4	1.6
	무응답 (26)	100.0	–
월소득별	저 (387)	76.2	23.6
	중 (456)	86.0	14.0
	고 (400)	94.3	5.8
	기타 (5)	100.0	–
	무응답 (77)	100.0	–

③ 정기구독의 이유

인쇄매체의 정기 구독의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69.5%),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32.7%), 타 매체에 비해 집중적/심층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서(23.5%),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20.2%),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서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7]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 정기구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기타 의견으로는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인쇄매체의 발전을 위해서, 잡지사에 도움이 되고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체이므로, 인쇄매체에 대한 운영지원 및 협조 등의 답변도 나타나 인쇄매체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잡지사의 권유, 인맥, 구독 부탁 등의 응답도 나타나 미술잡지 발간업체의 운영상의 어려움도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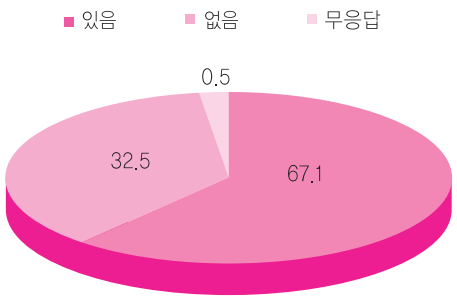
7. 사회적 위치

1) 직업실태

①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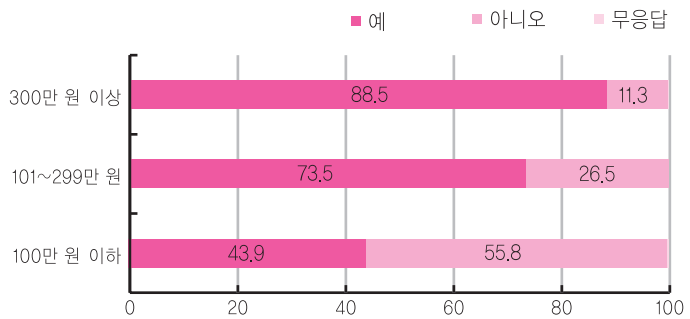
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각예술인들의 직업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7.1%가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67.1%)과 여성(67.4%)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08]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단위: %)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직업 보유율이 43.9%로 나타났고, 101만 원~299만 원의 소득자는 73.5%, 3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88.5%의 보유율을 보였다.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3-109]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소득별 직업 유무 (단위: %)



[표 3-3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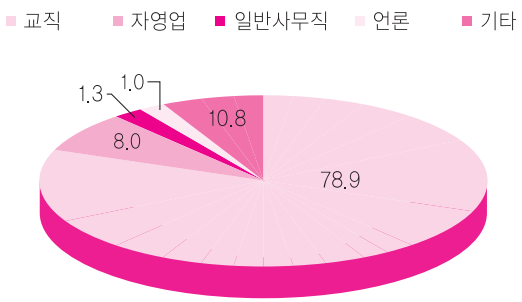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325)		67.1	32.5	0.5
성별	남성 (876)	67.1	32.4	0.5
	여성 (436)	67.4	32.3	0.2
	무응답 (13)	53.8	38.5	7.7
장르별	한국화 (332)	67.2	31.9	0.9
	서양화 (520)	67.9	32.1	–
	조각 (174)	58.6	41.4	–
	공예 (92)	77.2	21.7	1.1
	서예 (90)	67.8	31.3	1.1
	판화 (39)	71.8	28.2	–
	영상설치 (54)	68.5	31.5	–
	해당없음 (7)	57.1	42.9	–
	무응답 (17)	58.8	35.3	5.9
연령대별	20대 (45)	42.2	55.6	2.2
	30대 (308)	69.2	30.8	–
	40대 (444)	72.2	27.3	–
	50대 (313)	68.1	31.3	0.6
	60대 이상 (189)	54.0	45.0	1.1
	무응답 (26)	73.1	23.1	3.8
월소득별	저 (387)	43.9	55.8	0.3
	중 (456)	73.5	26.5	–
	고 (400)	88.5	11.3	0.3
	기타 (5)	20.0	80.0	–
	무응답 (77)	37.7	57.1	5.2
학력별	고졸이하 (71)	45.1	53.5	1.4
	대졸 (332)	57.8	42.2	–
	대학원 이상 (911)	72.6	27.2	0.2
	무응답 (11)	36.4	36.4	27.3

② 직업의 종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889명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교직(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종사자가 7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영업 8.0%, 일반 사무직 1.3%, 언론 1.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3-110]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의 종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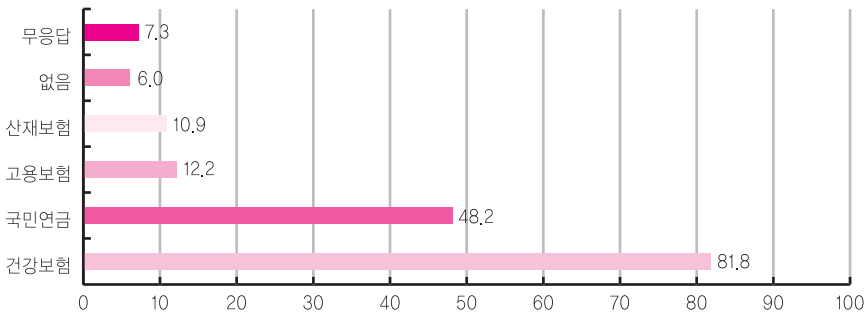
0.1% 이하의 기타응답으로는 미술관장, 갤러리운영, 큐레이터, 전시기획, 북 일러스트, 웹 디자이너, 화실운영, 도예공방 등 시각예술관련 직업도 일부 나타났고, 농업, 인터넷 쇼핑몰, 일용근로자, 식품제조업, 금융업, 도서관 사서, 베이비시터 등 시각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도 존재했다.

2) 복지 실태

① 4대 보험 가입률

시각예술인들의 복지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 유무를 질문해 본 결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81.8%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 48.2%, 고용보험 12.2%, 산재보험 10.9%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응답도 6.0%로 조사되었다.

[그림 3-111] 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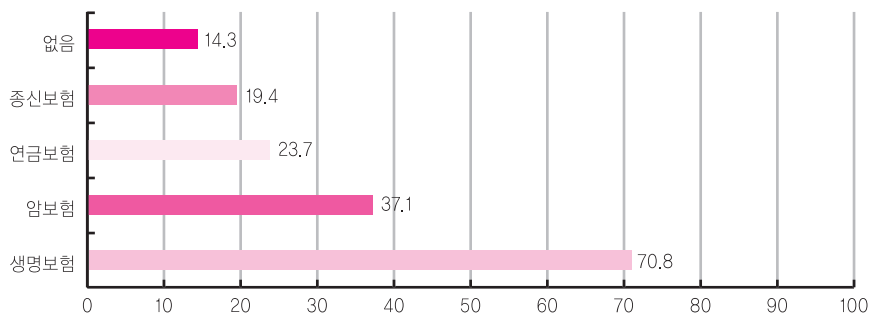
[표 3-33] 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음
전체 (1325)		81.8	48.2	12.2	10.9	6.0
연령별	20대 (45)	66.7	28.9	8.9	4.4	26.7
	30대 (308)	80.2	34.1	11.7	8.1	11.7
	40대 (444)	87.2	56.5	15.3	12.2	4.1
	50대 (313)	85.0	60.1	12.1	13.1	3.2
	60대 이상 (189)	71.4	37.0	6.9	9.5	2.1
	무응답 (26)	73.1	46.2	11.5	15.4	-
월소득별	저 (387)	77.0	32.6	3.4	3.6	13.7
	중 (456)	83.1	51.8	12.3	9.9	4.8
	고 (400)	86.3	58.8	22.8	19.8	1.0
	기타 (5)	60.0	40.0	-	-	-
	무응답 (77)	76.6	51.9	2.6	7.8	1.3
학력별	고졸이하 (71)	81.7	53.5	5.6	4.2	2.8
	대졸 (332)	79.8	46.4	6.6	7.2	6.3
	대학원 이상 (911)	83.0	48.6	14.8	12.7	6.3
	무응답 (11)	45.5	36.4	9.1	9.1	-

② 기타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외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생명보험 가입률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암보험(37.1%), 연금보험(23.7%), 종신보험(19.4%) 순이다. 가입 보험이 없다는 응답도 14.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12] 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타 사회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제2절 비창작시각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본 설문에 참여한 비창작시각예술인은 모두 64명으로, 앞에 1절에서 살펴본 시각예술인의 표본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표본이다.

설문의 대상이 된 한국미술협회에 소속된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수를 보면 평론 5명, 평론학술 59명, 전시미술행정 34명으로 98명이며,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수는 미술평론 67명, 큐레이터 81명, 미술사 100명, 학예연구원 5명으로 25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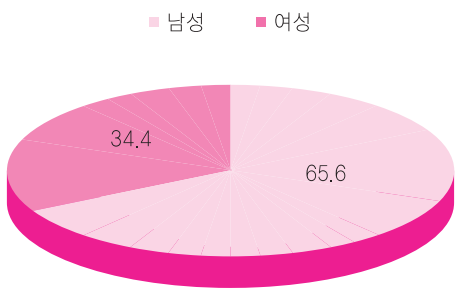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와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데이터를 합해 중복된 미술인을 조사해 재정리해보니 198명이라는 표본이 완성되었다. 이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했고 그 중 64명에게 답변이 돌아와 32.3%의 회수율을 보였다.

1. 응답자 특성

1) 성별

설문에 응답한 비창작시각예술인 64명 중 남성이 42명으로 65.6%, 여성은 22명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다. 1절의 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도 남성이 66.1%, 여성이 32.9%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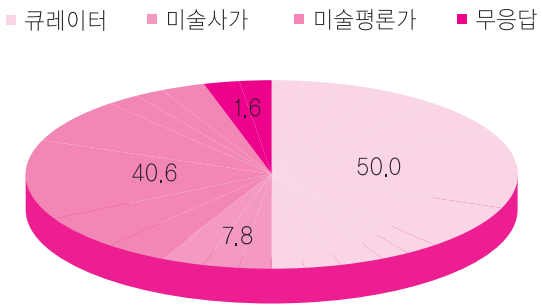
[그림 4-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성별 비율 (단위: %)



2) 장르

본 조사에서는 비창작시각예술인의 구분을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미술사가로 나누었다. 큐레이터가 32명으로 50.0%, 미술평론가가 26명으로 40.6%, 미술사가가 5명으로 7.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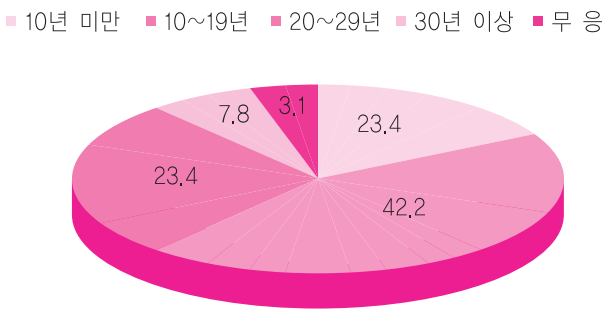


3) 활동기간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평균 활동기간은 15년으로 나타났고 활동기간 10~19 이하의 응답자가 42.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큐레이터가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짧은 12.5년, 미술사는 16.8년, 미술평론가는 18.2년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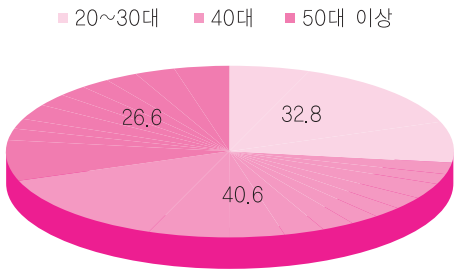
[그림 4-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 기간 (단위: %)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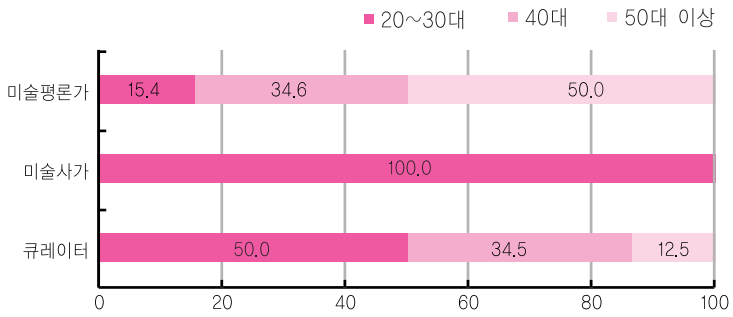
응답자 64명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며 20~30대가 21명(32.8%), 40대가 26명(40.6%), 50대 이상이 17명(26.6%)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림 4-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 비율 (단위: %)



큐레이터라고 응답한 32명 중 20~30대는 50%, 40대는 37.5%, 50대 이상은 12.5%로 나타났고, 미술사 5명은 모두 40대였다. 미술평론가는 큐레이터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20~30대는 15.4%, 40대는 34.6%, 50대 이상이 50%로 나타나 미술평론가의 연령대가 큐레이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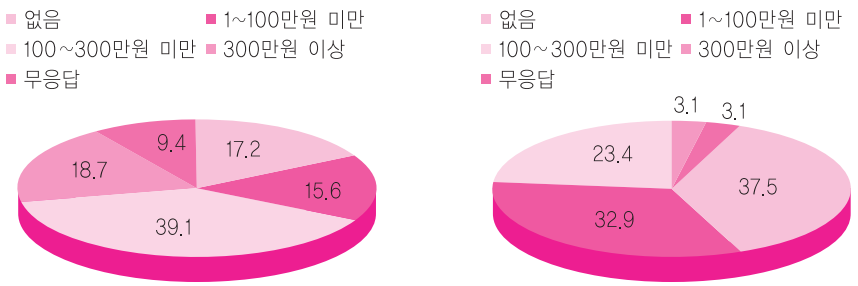
[그림 4-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연령 분포 (단위: %)



5) 월소득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은 220만 원으로 나타났고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소득은 34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 (단위: %)



[표 4-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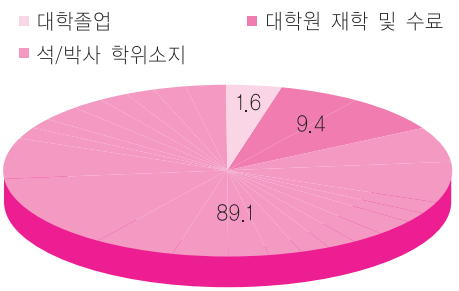
구분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평균	220 만 원	346 만 원

창작시각예술인과 비교해보면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소득이 모두 1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조사결과의 수입과 지출 항에서 연령별, 장르별 소득의 추이를 살펴보고 창작시각예술인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재정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6) 학력

응답자의 64명 중 63명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단 한 명만이 대학 졸업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89.1%, 대학원 재학 및 수료자가 9.4%, 대졸자가 1.6%로 조사되어 비율로만 따져본다면 창작시각예술인보다 고학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학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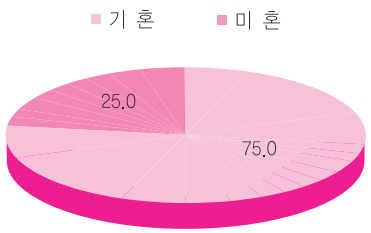


7)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가족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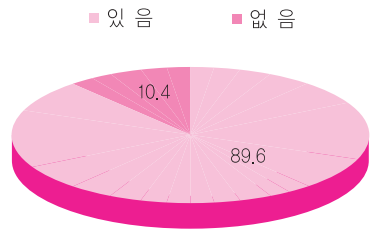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64명 중 75.0%인 48명이 기혼자이며, 전체의 29.7%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정도인 48.4%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한 가정 평균 1.77명의 자녀가 있다.

창작시각예술인과 비교해 볼 때 결혼율과 자녀의 수에서 수치가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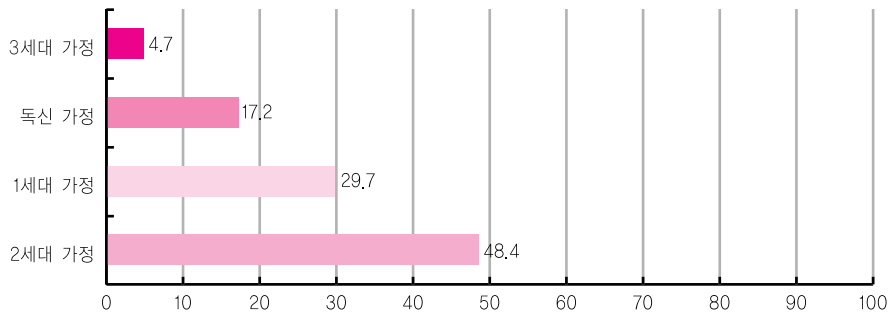
[그림 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결혼 여부 (단위: %)



[그림 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자녀 유무 (단위: %)



[그림 4-1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가족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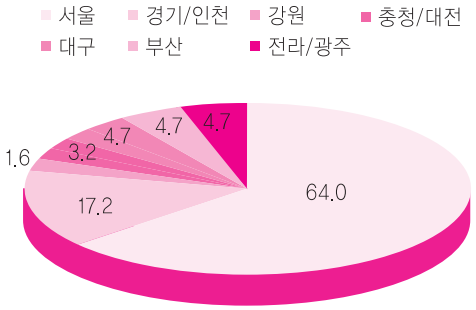
8) 지역별 분포

전체응답자의 64.0%인 41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경기에 15.6%인 1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은 각 도시별로 3명 미만이 조사에 응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아주 적은 인원이 설문에 참여해 지역별 집중도를 이야

기하기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창작시각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비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비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지역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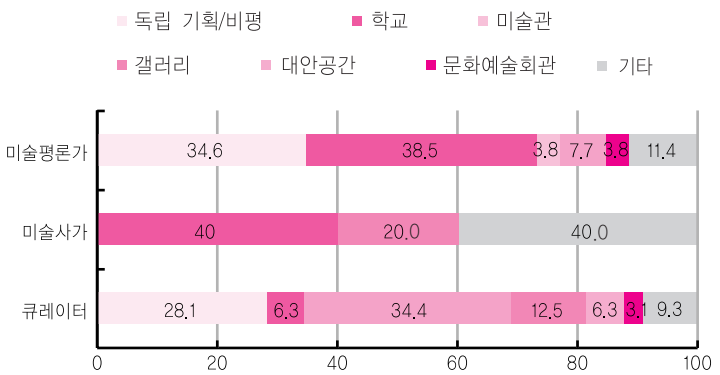


이들의 기획 및 비평 발표수행지역 역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체 64명 중 76.6%, 서울거주자 41명 중 97.6%, 경기거주자 10명 중 90.0%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9) 현 소속 영역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소속기관을 조사한 결과 독립 기획 및 비평가가 28.1%로 조사되었고 학교가 21.9%,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18.8%로 조사되었다. 큐레이터 32명 중 28.1%는 독립 기획/비평 활동을 하며,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는 큐레이터가 34.4%로 조사되었다. 미술평론가 26명중 독립 기획/비평 활동을 하는 자는 34.6%,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미술평론가는 38.5%로 나타났다. 미술사가 5명은 학교에 2명, 저술가 1명, 대학강사 및 신문사에 1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림 4-12] 비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 장르별 현 소속 영역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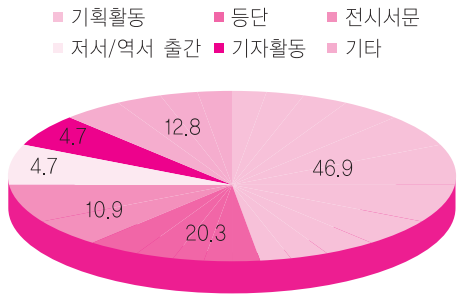
2. 활동실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장르인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미술사가를 비교할 때는 창작시각예술인의 비교방법처럼 각각 장르별로 따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첫 활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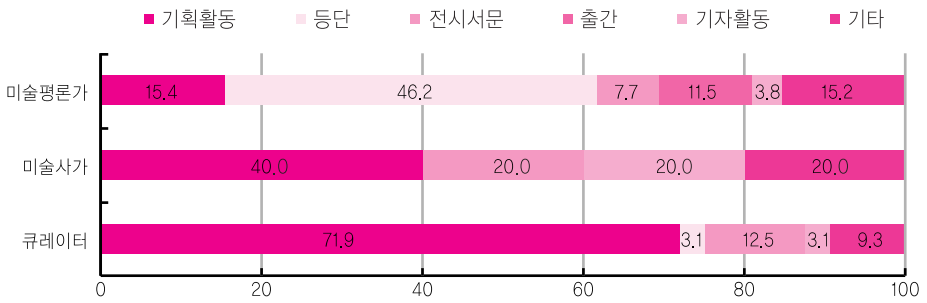
32명 큐레이터의 71.9%는 기획활동으로 첫 활동을 시작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12.5%는 전시 서문을 쓰면서 첫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26명의 미술평론가들은 신춘문예, 평론 공모 등에 당선으로 등단했다는 응답이 46.2%, 기획활동으로 첫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15.4%, 저서나 역서를 출간하면서 시작했다는 대답은 11.5%로 나타났다. 5명의 미술사가들은 기획활동, 전시서문 등으로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림 4-1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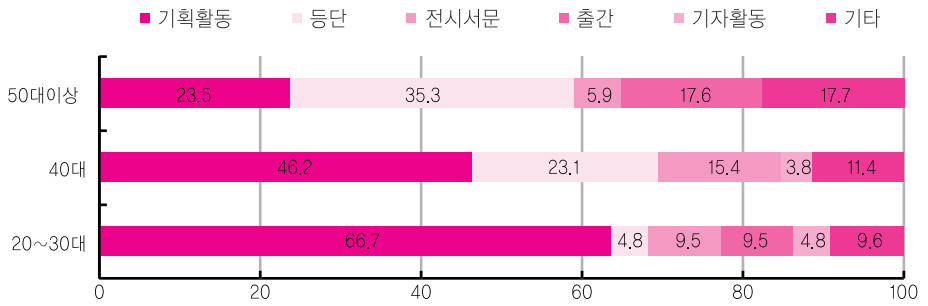
활동 경력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력 10년 미만 및 연령 2~30대의 응답자는 기획활동으로 인한 데뷔 비율이 높았고, 경력 30년 이상 및 50세 이상의 응답자는 신춘문예, 평론 공모 당선으로 데뷔한 경우가 많았다. 세대에 따른 첫 활동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시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공간의 형태 및 전시의 표현 방식 또한 다양화 되고 있어 젊은 기획자들의 기획무대가 확충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정형화된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굳이 명망 있는 작가가 아니어도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보여 줄 수 있는 있는 것이다.

한편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응답자 42명은 첫 활동 방식이 비교적 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편, 여성응답자는 22명은 기획활동 72.7%로 첫 활동 방식이 다소 편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63.6%가 큐레이터로 구성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구분 (응답자)		기획활동	등단	전시서문	저서/역서 출간	기자활동	기타
전체 (64)		46.9	20.3	10.9	4.7	4.7	12.8
성별	남성 (42)	33.3	26.2	14.3	7.1	4.8	14.3
	여성 (22)	72.7	9.1	4.5	–	4.5	9.2
장르별	큐레이터 (32)	71.9	3.1	12.5	–	3.1	9.4
	미술사가 (5)	40.0	–	20.0	–	20.0	20.0
	미술평론가 (26)	15.4	46.2	7.7	11.5	3.8	15.4
	무응답 (1)	100.0	–	–	–	–	–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15)	73.3	–	13.3	–	–	13.4
	20년 미만 (27)	44.4	25.9	11.1	–	7.4	11.2
	30년 미만 (15)	33.3	20.0	13.3	20.0	6.7	6.4
	30년 이상 (5)	–	60.0	–	–	–	40.0
	무응답 (2)	100.0	–	–	–	–	–

[그림 4-1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첫 작품 발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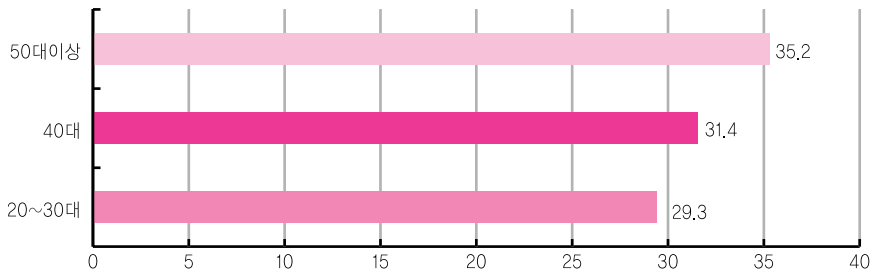


2)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63명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첫 활동 시기는 평균 31.8세로 남성 33.2세, 여성 29.2세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보면 큐레이터가 30.5세, 미술사가 32.4세, 미술평론가가 33.6세로 나타나 미술평론가의 첫 활동이 타 장르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첫 발표 시기를 살펴보면 20~30대는 29.3세, 40대는 31.4세, 50대 이상은 35.2세로 나타나 첫 작품 발표 시기가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도 첫 작품 발표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시각예술인의 데뷔 시기가 빨라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단위: 세)



[표 4-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기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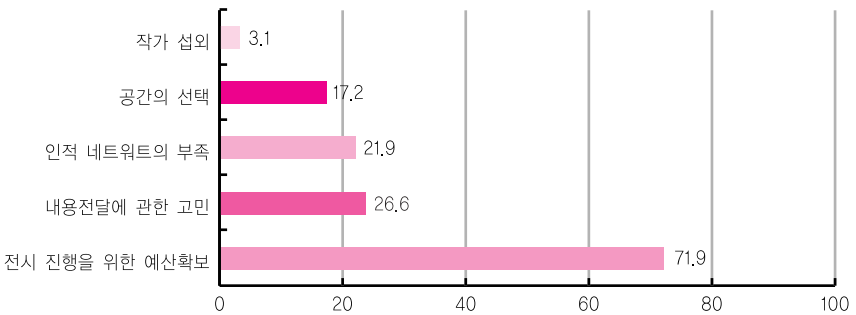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첫 기획 및 비평 발표 시 연령
전체 (63)		31.8
성별	남성 (41)	33.2
	여성 (22)	29.2
장르별	큐레이터 (32)	30.5
	미술사가 (5)	32.4
	미술평론가 (25)	33.6
	무응답 (1)	24.0
연령별	20-30대 (20)	29.3
	40대 (26)	31.4
	50대 이상 (17)	35.2

3) 첫 활동 시 장애요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큐레이터, 미술사가, 미술평론가들의 첫 활동 방식은 기획활동과 비평 발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들이 첫 발표 시 느끼는 장애요인은 어떤 것인지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들이 첫 전시기획 시에 느끼는 장애 요인으로는 전시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7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획자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26.6%,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이 21.9%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4-1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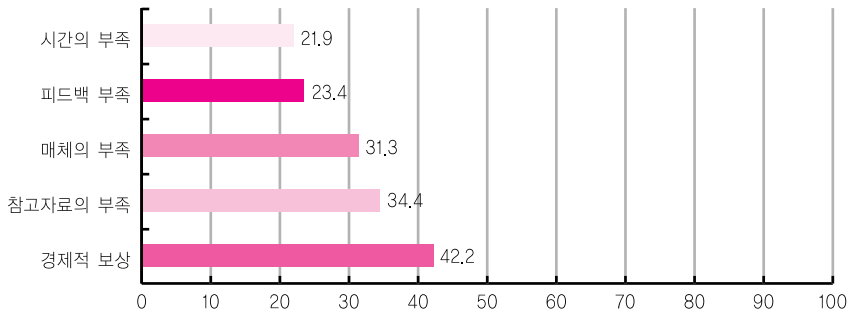


[표 4-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기획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예산확보	내용전달에 관한 고민	인적 네트워크 부족	공간 선택의 어려움	작가섭외의 어려움
전체 (64)		71.9	26.6	21.9	17.2	3.1
성별	남성 (42)	71.4	28.6	21.4	19.0	2.4
	여성 (22)	72.7	22.7	22.7	13.6	4.5
장르별	큐레이터 (32)	59.4	34.4	21.9	9.4	3.1
	미술사가 (5)	60.0	40.0	20.0	20.0	-
	미술평론가 (26)	88.5	15.4	23.1	26.9	3.8
	무응답 (1)	100.0	-	-	-	-
연령별	20-30대 (21)	76.2	28.6	14.3	14.3	4.8
	40대 (26)	57.7	34.6	26.9	23.1	-
	50대 이상 (17)	88.2	11.8	23.5	11.8	5.9
소득별	저 (12)	58.3	33.3	25.0	33.3	8.3
	중 (26)	69.2	34.6	15.4	19.2	3.8
	고 (11)	90.9	9.1	9.1	9.1	-
	무응답 (15)	73.3	20.0	40.0	9.7	-

첫 비평 발표 시의 장애요인 또한 비평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42.2%를 차지해 가장 큰 장애라고 느끼고 있다. 다음으로는 참고자료의 부족, 체계적인 연구기관의 부족(34.4%)을, 자유롭게 전시비평을 수록할 매체의 부족(31.3%), 비평에 대한 피드백 부족(23.4%)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그림 4-1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비평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표 4-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비평 발표 시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경제적 보상	참고자료의 부족	비평수록을 위한 매체의 부족	비평에 대한 피드백 부족	원고작성을 위한 시간부족
전체 (64)		42.2	34.4	31.3	23.4	21.9
성별	남성 (42)	45.2	38.1	35.7	28.6	21.4
	여성 (22)	36.4	27.3	22.7	13.6	22.7
장르별	큐레이터 (32)	28.1	34.4	25.0	25.0	18.8
	미술사가 (5)	40.0	40.0	20.0	20.0	60.0
	미술평론가 (26)	61.5	34.6	42.3	23.1	19.2
	무응답 (1)	-	-	-	-	-
연령별	20-30대 (21)	47.6	23.8	19.0	33.3	-
	40대 (26)	34.6	34.6	26.9	15.4	38.5
	50대 이상 (17)	47.1	47.1	52.9	23.5	23.5
소득별	저 (12)	41.7	41.7	16.7	25.0	8.3
	중 (26)	50.0	30.8	30.8	23.1	23.1
	고 (11)	36.4	45.5	36.4	27.3	27.3
	무응답 (15)	33.3	26.7	40.0	20.0	26.7

앞으로 수입 지출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비평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부언하자면, 미술평론가의 평균 연령이 50.5세인 것에 반해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월평균 12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평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원고 작성 시간의 부족이 21.9%, 비평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인식 부족 1.6%등이 있었다. 아주 적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이 작은 의견으로 평론가들의 활동 여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시간과 자료의 부족, 또 비평을 험담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 등은 평론가들의 자유로운 비평에 제약이 될 것이 분명하다.

비평에 대한 경제적 보상 기준마련과, 자유로운 비평을 개제할 수 있는 장의 마련, 활발한 피드백과 반론 및 토론의 활성화가 비평가들의 발전과 시각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4)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활동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전시기획활동에 대한 현황을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경험 여부와, 횟

수를 질문하였다.

①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진행 횟수

2004년에는 전체의 68.8%가 프로젝트 및 기획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횟수는 3.5회로 나타났다. 큐레이터가 4.3회로 가장 많았지만, 미술사가도 3회, 미술평론가도 2.5회로 나타나 미술사가나 미술평론가도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30대가 4회, 40대가 3.3회, 50대 이상이 3.1회로 나타나 젊은 층의 기획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전체의 75.0%가, 2006년에는 76.6%가 전시기획 경험이 있었다. 2005년의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평균 건수는 3.3회, 2006년도 3.5회로 나타나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약 70%가 연간 3회 정도의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20~30대의 기획활동이 4회 이상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프로젝트 기획 및 언론소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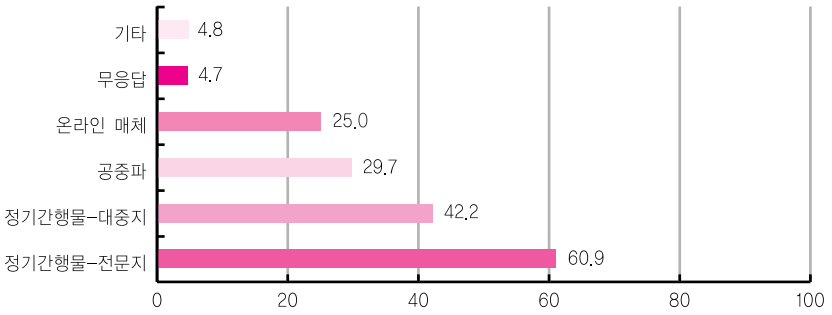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기획경험 (%)	기획횟수 (회)	언론매체 소개횟수 (건)
2004	64	68.8	3.5	14.7
2005	64	75.0	3.3	7.1
2006	64	76.6	3.5	6.7

②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시 주로 소개되는 매체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프로젝트나 전시를 기획했을 때 주로 소개되는 매체는 각 전문분야의 정기간행물(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는 일간지나 여성 월간지 등의 정기간행물(42.2%), TV방송/라디오 등 공중파(29.7%), 온라인 매체(25.0%)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는 4장 1절의 창작시각예술인의 피비평매체의 결과와 유사해 시각예술인들은 각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소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시각예술인들의 정기간행물-전문지 구독율이 86.5%,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전문지 구독율이 75%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4-1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활동 시 주로 소개되는 매체-복수응답 (단위: %)



5) 비평 및 저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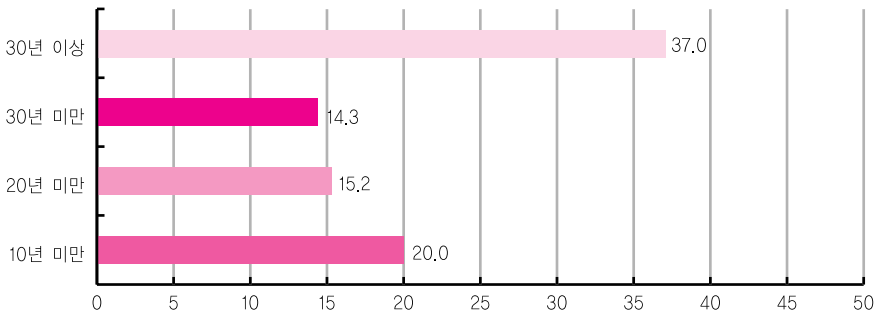
① 전시평 발표 횟수

최근 3년 동안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전시평 발표 횟수를 묻는 질문에 87.5%가 발표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들은 평균 17.3회의 전시평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명 중 7.8%의 응답자는 발표경험이 없었고, 4.7%는 무응답이었다.

큐레이터는 평균 13.5회, 미술사는 17.5회, 미술평론가는 22회로 나타나 미술평론가 이외의 큐레이터, 미술사의 경우도 전시평 발표에 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큐레이터와 미술사, 미술평론가의 구분이 명확치 않고 비슷한 활동 반경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활동기간에 따른 발표 횟수를 비교해 보면, 10년 미만 활동자는 20.0편, 10~20년 미만 활동자는 15.2편, 20~30년 미만 활동자는 14.3편, 30년 이상 활동자는 37편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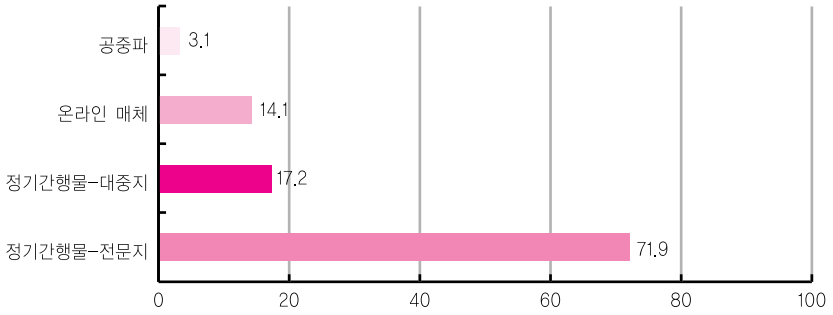
[그림 4-2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 기간별 전시평 발표 횟수 (단위: 편)



② 비평 발표 시 주로 수록되는 매체

비평 발표 시 수록되는 매체는 각 전문분야의 정기간행물이 71.9%로 나타났고, 일간지, 여성 월간지 등의 대중적인 정기간행물은 17.2%, 다음으로는 온라인매체가 14.1%로 조사되었다.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시 소개되는 매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예술인들의 피비평 수록 매체 선호도와 비평가들의 이용매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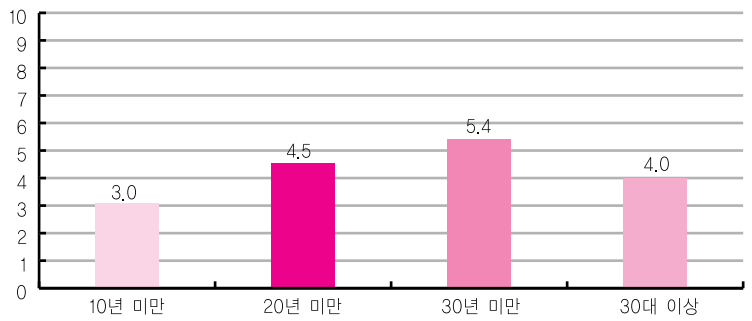
[그림 4-2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평 발표 시 주로 수록되는 매체-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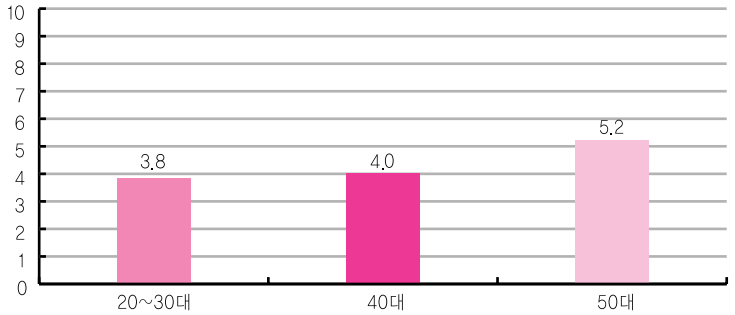
③ 논문/저서/역저 발표 편수

최근 3년간 논문/저서/역저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43명(67.2%)이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발표 편수는 4.3편으로 조사되었다. 활동기간에 따른 발표편수를 비교해 보면, 10년 미만 활동자는 3.0편, 10~20년 미만 활동자는 4.5편, 20~30년 미만 활동자는 5.43편, 30년 이상 활동자는 4편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발표편수를 보면 20~30대는 3.8편, 40대는 4편, 50대 이상은 5.2편으로 나타나 연령이나 활동기간의 길이는 저서 발표 편수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저서 발표 편수 (단위: 편)



[그림 4-2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연령별 저서 발표 편수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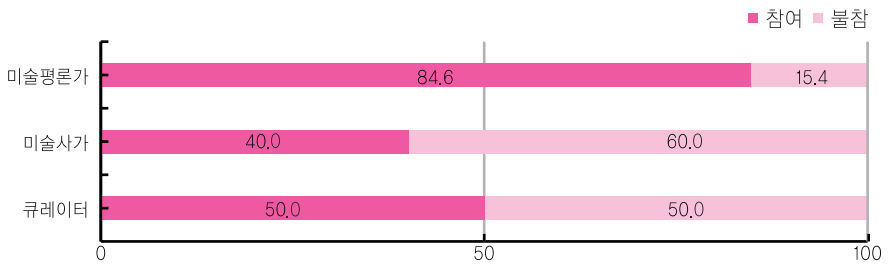


6) 시각예술관련 단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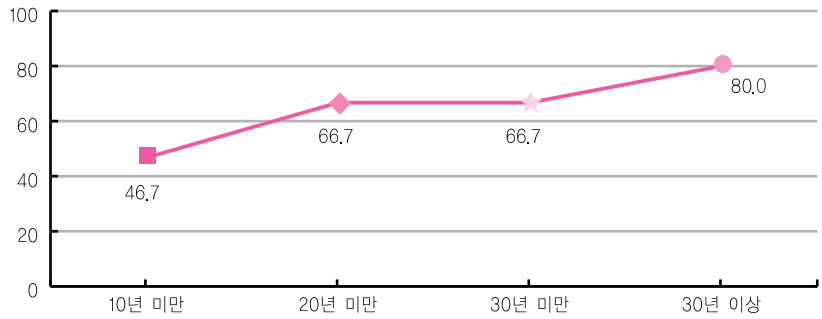
① 단체 가입 여부

응답자 64명 중 64.1%가 정관 및 회칙이 있는 법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입된 단체 없이 활동하고 있는 비율도 35.9%나 되었다. 창작시각예술인이 91.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큐레이터는 32명 중 50.0%가 가입되어 있지만, 미술평론가는 26명 중 84.6%가 가입되어 있어 평론가의 단체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그림 4-2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활동기간으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46.7%, 20년 미만은 66.7%, 30년 미만은 66.7%, 30년 이상은 80.0%로 나타나 점차 가입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41명은 평균 2.1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큐레이터는 1.8개, 미술사는 2개, 미술평론가는 2.3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큐레이터에 비해 미술평론가의 단체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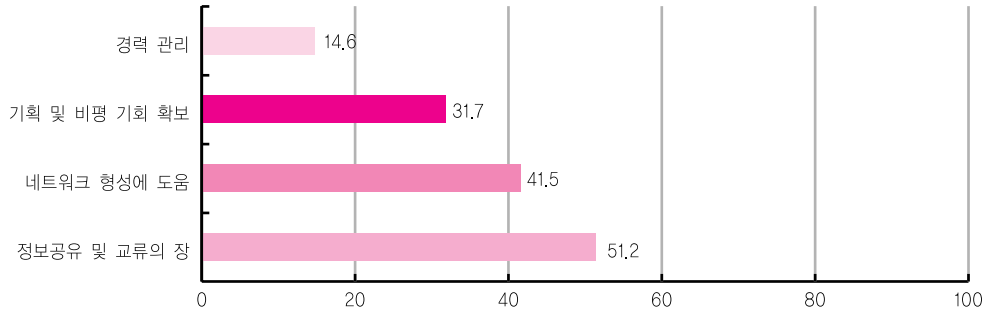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단체 가입 (%)	참여 단체 수 (개)
전체 (64)		64.1	2.1
성별	남성 (42)	69.0	2.0
	여성 (22)	54.5	2.3
장르별	큐레이터 (32)	50.0	1.8
	미술사가 (5)	40.0	2.0
	미술평론가 (26)	84.6	2.3
	무응답 (1)	100.0	1.0
연령별	20-30대 (21)	52.4	1.8
	40대 (26)	69.2	2.2
	50대 이상 (17)	70.6	2.0

② 단체 가입의 목적

이들의 단체 가입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이라고 응답하였고 41.5%는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어서, 31.7%는 기획 및 비평발표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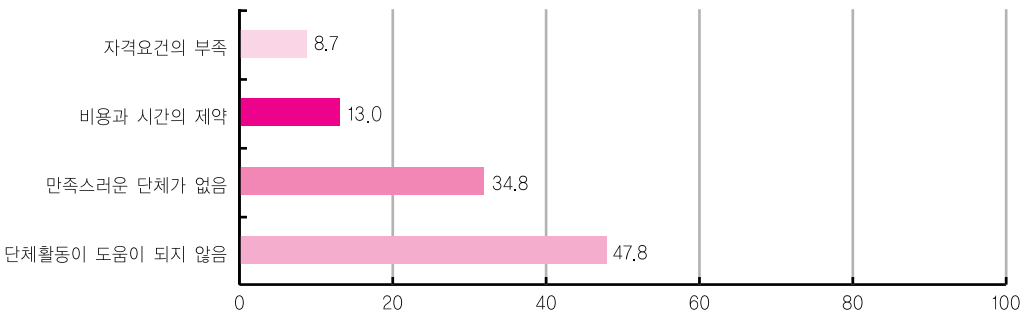
회 확보를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술적 이유가 2.4%, 전공과 관련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그림 4-2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 가입 목적-복수응답 (단위: %)



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23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단체활동이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47.8%, 활동하기에 만족스러운 단체가 없어서 34.8%,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가 13.0%로 나타났다. 23명 중 큐레이터가 16명, 미술사가 3명, 미술평론가가 4명이었다. 큐레이터의 단체 가입율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만족스러운 단체결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미술평론가들은 한국미술평론가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비평을 발표하고 미술평단이라는 인쇄매체도 발간하며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큐레이터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집단의 규모와 특성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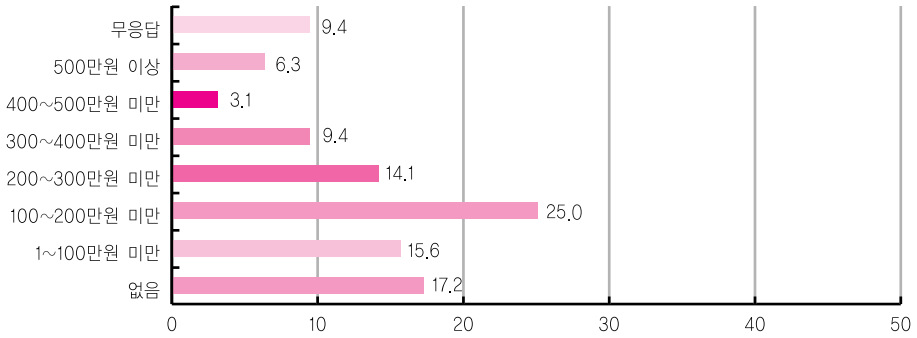


3. 수입과 지출

1) 예술 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비창작시각예술인 응답자 64명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액은 2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창작시각예술인의 월평균 수입액 129만 원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것이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7.2%, 1~100만 원 미만은 15.6%, 100~200만 원 미만은 25.0%의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4-2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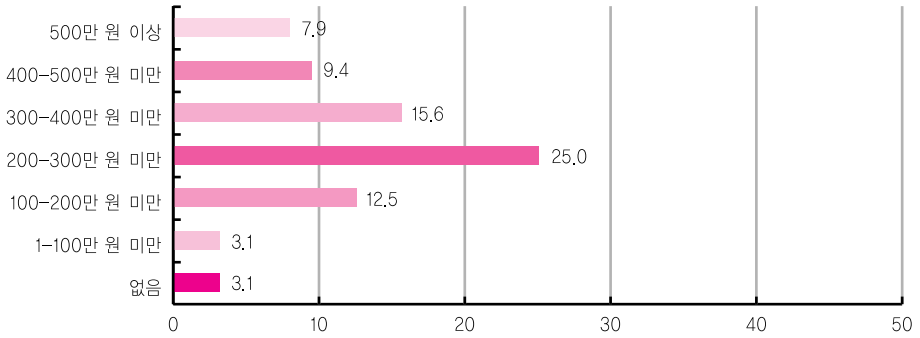
[표 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 (단위: %)

구분 (응답자)		수입없음	1~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전체 (64)		17.2	15.6	25.0	14.1	9.4	9.3	9.4	220
성별	남성 (42)	19.0	19.0	21.4	16.7	11.9	3.2	8.8	231
	여성 (22)	13.6	9.1	31.8	9.1	4.5	13.7	18.2	197
장르별	큐레이터 (32)	12.5	15.6	12.5	18.8	9.4	15.6	15.6	311
	미술사가 (5)	20.0	20.0	20.0	–	20.0	20.0	–	220
	미술평론가 (26)	23.1	15.4	38.5	11.5	7.7	–	3.8	126
	무응답 (1)	–	–	100.0	–	–	–	–	150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15)	13.3	20.0	26.7	13.3	6.7	6.7	13.3	165
	20년 미만 (27)	14.8	14.8	22.2	14.8	7.4	14.9	11.1	306
	30년 미만 (15)	20.0	6.7	33.3	13.3	20.0	6.7	–	186
	30년 이상 (5)	40.0	20.0	20.0	20.0	–	–	–	90
	무응답 (2)	–	50.0	–	–	–	–	50.0	50
학력별	대졸 (1)	–	–	–	100.0	–	–	–	250
	대학원이상 (63)	17.5	15.9	25.4	12.7	9.5	9.5	9.5	220

2)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346만 원으로 나타나 창작시각예술인 235만 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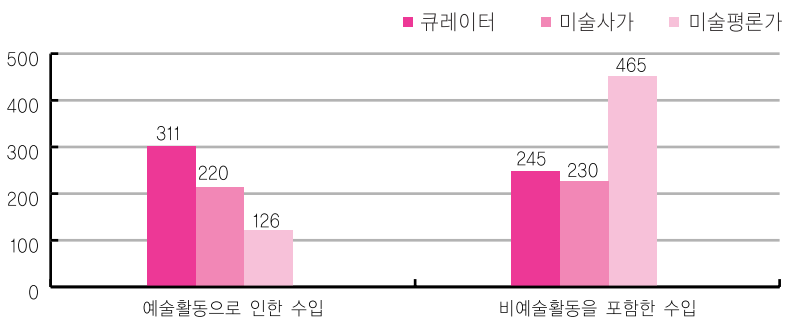
[그림 4-2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단위: %)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이 1~100만 원 사이는 3.1%, 100~200만 원 12.5%, 200~300만 원은 25%, 300~4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15.6%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5명 가량인 7.9%가 응답했다. 본인의 수입이 없다는 응답도 3.1%로 조사되었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월평균 수입액은 큐레이터가 311만 원, 미술사가 220만 원, 미술평론가가 126만 원으로 큐레이터가 훨씬 많았지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의 경우에는 큐레이터 245만 원, 미술사 230만 원, 미술평론가 465만 원으로 조사되어 미술평론가의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평론가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보유율은 96.2%로 나타나 이것이 미술평론가들의 수입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장르별 수입 비교 (단위: %)



[표 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구분 (응답자)		수입 없음	1-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전체 (64)		3.1	3.1	12.5	25.0	15.6	17.3	23.4	346
성별	남성 (42)	2.4	–	14.3	21.4	23.8	23.8	14.3	400
	여성 (22)	4.5	9.1	9.1	31.8	–	4.6	40.9	200
장르별	큐레이터 (32)	6.3	3.1	9.4	25.0	9.4	9.3	37.5	245
	미술사가 (5)	–	20.0	20.0	40.0	–	20.0	–	230
	미술평론가 (26)	–	–	15.4	19.2	26.9	27.0	11.5	465
	무응답 (1)	–	–	–	100.0	–	–	–	250
활동 기간별	10년 미만 (15)	6.7	6.7	20.0	20.0	6.7	13.2	26.7	236
	20년 미만 (27)	3.7	3.7	7.4	25.9	18.5	14.9	25.9	425
	30년 미만 (15)	–	–	13.3	40.0	13.3	20.1	13.3	311
	30년 이상 (5)	–	–	–	–	40.0	20.0	40.0	416
	무응답 (2)	–	–	50.0	–	–	50.0	–	300
학력별	대졸 (1)	–	–	–	–	–	–	100.0	–
	대학원이상 (63)	3.2	3.2	12.7	25.4	15.9	17.4	22.2	346

3) 월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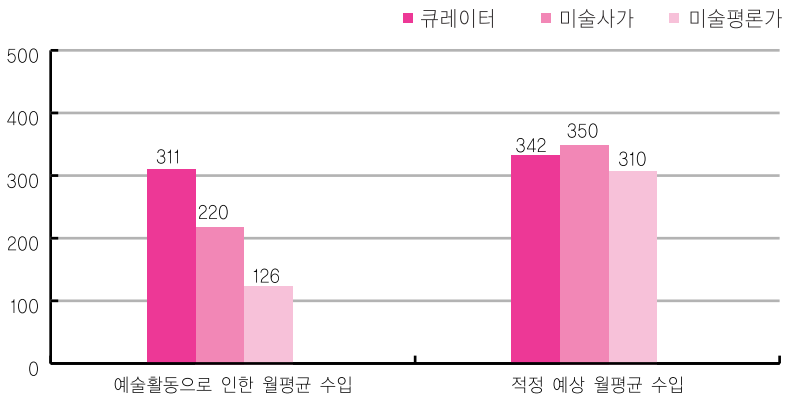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31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100~200만 원 미만 34.4%, 200~300만 원 미만 20.3%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이 346만 원인데 지출액이 31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월수입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수입

최소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질문했는데, 평균 327만 원이라고 응답해 현재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큐레이터는 342만 원, 미술사는 350만 원, 미술평론가는 310만 원으로 응답해 미술사 분야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큐레이터의 연령대가 평균 40.9세, 미술사가 45세, 미술평론가가 50세인 것을 감안하면 각 장르 모두 수입액과 최소생활영위 지출액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수입 (단위: 만 원)



4. 지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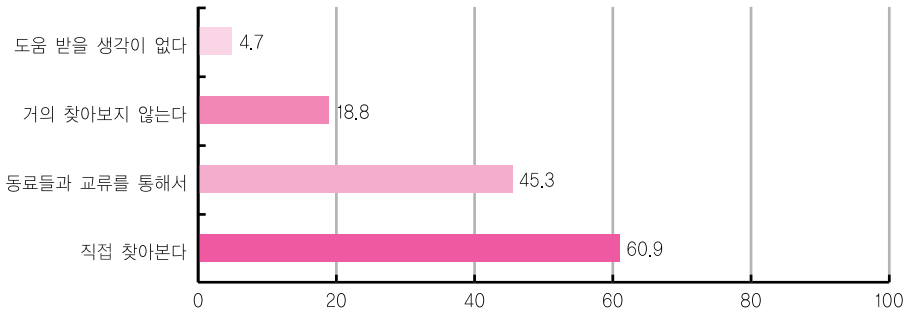
1) 지원정보에 대한 관심도

① 지원정보의 입수 경로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관련정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지원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 64명 중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찾아본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가 45.3%로 뒤를 잇고 있었다. 특히 큐레이터의 경우에는 71.9%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큐레이터가 지원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또 지원정보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1절에서 살펴본 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본다는 의견보다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 4-3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지원정보 입수 경로-복수 응답 (단위: %)



2) 지난 3년간 지원받은 경험

비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에는 주로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지원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지원수혜자가 10명이 넘지 않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① 중앙정부

지난 3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64명 중 2004년에는 3명, 2005년에는 1명, 2006년도 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명중 2명이 큐레이터였고 2005년, 2006년에는 모두 큐레이터가 지원을 받았다.

[그림 4-33] 중앙정부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이들의 지원금액은 2004년 평균 3억 원, 2005년 3억 원, 2006년 5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나타난 이유는 아트페어, 혹은 비엔날레의 국고보조금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획 및 비평가의 경우 지원금은 개인의 창작활동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국제적 규모 행사의 운영경비 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간지원으로는 2004년에 1명이 16주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큐레이터로 조사되어 대형전시의 공간지원인 것으로 추측된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재정지원 외에는 없었다.

[표 4-10] 중앙정부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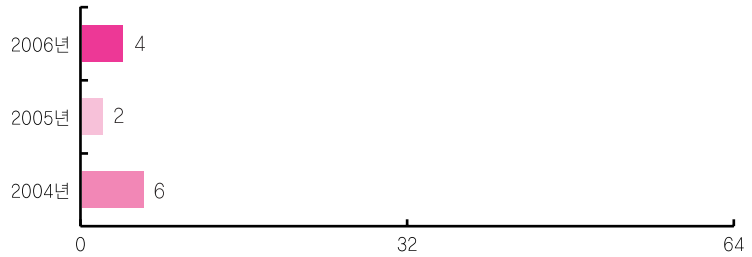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중앙정부	재정	(3명 응답) 300,000,000원	(1명 응답) 300,000,000원	(1명 응답) 500,000,000원
	현물	-	-	-
	공간/기간	(1명 응답) 16주	-	-
	기타	-	-	-

② 광역/기초 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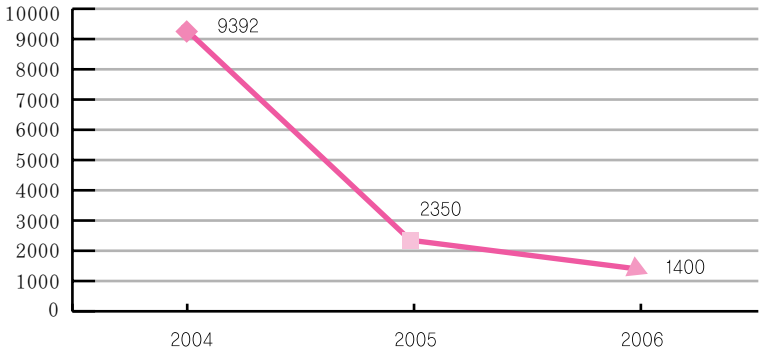
광역/기초 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은 비창작시각예술인은 2004년에는 6명, 2005년에는 2명, 2006년에는 4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역시 큐레이터의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4년 9392만 원, 2005년 2350만 원, 2006년 14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4]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35]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공간으로 지원받은 응답자는 1~2명에 불과했는데 2004년 661.1㎡/1주(1명), 2005년 661.1㎡/1주(1명), 2006년 537.1㎡/1.5주(2명)로 조사되었다.

[표 4-11]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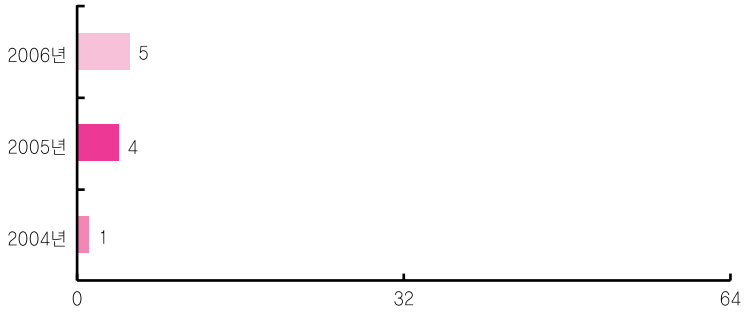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광역/기초 자치단체	재정	(6명 응답) 93,920,000원	(2) 23,500,000원	(4) 14,000,000원
	현물	-	-	(1) 도록제작
	공간/기간	(1) 661.1㎡/ 1주	(2) 661.1㎡/ 1주	(2) 537.1㎡/ 1.5주
	기타	-	-	-

③ 기업(메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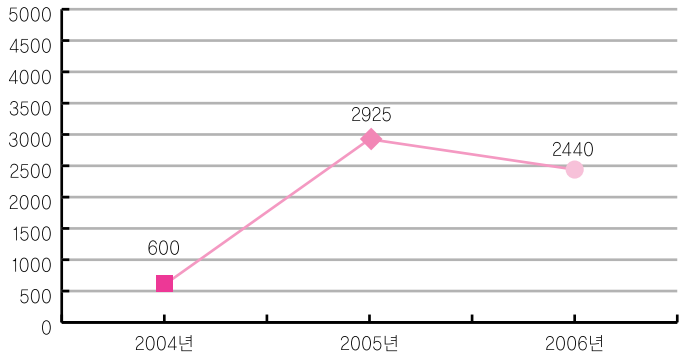
지난 3년간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4년에는 1명, 2005년에

는 4명, 2006년에는 5명으로 지원율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지원액은 2004년에 600만 원, 2005년 2925만 원, 2006년 244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6]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37]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공간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004년 413.2㎡/1주(1명), 2005년 272.7㎡/1주(2명), 2006년 264.4㎡/1주(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경우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공간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큐레이터의 기획에 대한 전시공간을 제공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2] 기업(메세나)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기업 (메세나)	재정	(1명 응답) 6,000,000원	(4) 29,250,000원	(5) 24,400,000원
	현물	(1) 기획	(1) 기획	(1) 기획
	공간/기간	(1) 413.2㎡/ 1주	(2) 272.7㎡/ 1주	(2) 264.4㎡/ 1주
	기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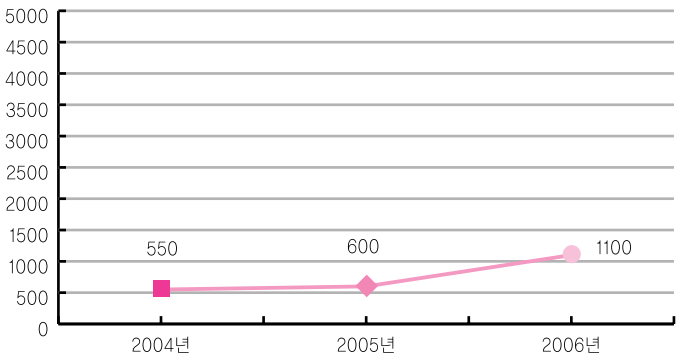
④ 개인 후원자

개인후원자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은 비창작시각예술인을 조사한 결과 2004년에는 2명, 2005년에는 2명, 2006년에는 2명으로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4년 550만 원, 2005년 600만 원, 2006년 11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8]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39]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지원받은 현물의 항목으로는 도록제작, 엽서, 현수막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 역시 지원수혜자가 1~2명에 불과했다. 공간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2004년 99.1㎡/2주(1명), 2005년 133.8㎡/1.5주(2명), 2006년 314.0㎡/2.7주(4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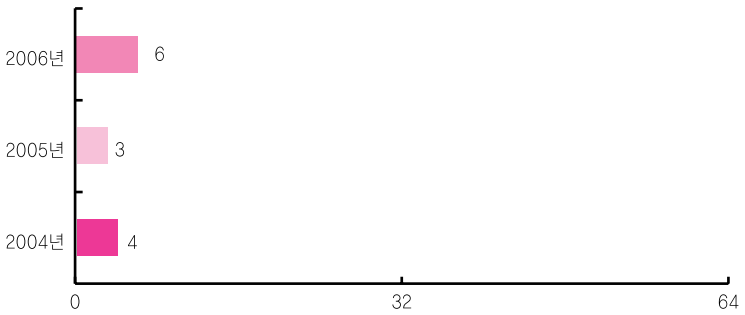
[표 4-13] 개인 후원자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개인 후원자	재정	(2명 응답) 5,500,000원	(2) 6,000,000원	(2) 11,000,000원
	현물	-	(1) 전시공간, 엽서	(2) 도록제작, 현수막
	공간/기간	(1) 99.1㎡/ 2주	(6) 133.8㎡/ 1.5주	(4) 314.0㎡/ 2.7주
	기타	-	(1) 기획 회의	(1) 기획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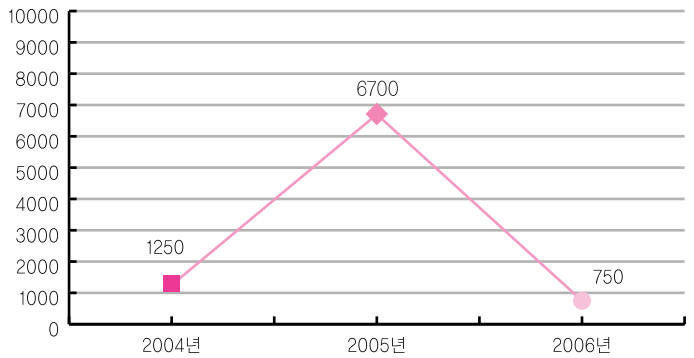
⑤ 문화재단

문화재단으로부터의 지난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은 비창작시각예술인은 2004년에는 4명, 2005년 3명, 2006년에는 6명으로 역시 낮은 지원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4년 1250만 원, 2005년 6700만 원, 2006년 75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0]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41]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지원받은 현물의 항목으로는 2006년 1명이 도록 제작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공간의 지원 수혜 경험은 2004년 661.1㎡/2주(1명), 2005년 99.1㎡/1주(1명), 2006년 99.1㎡/1주(1명)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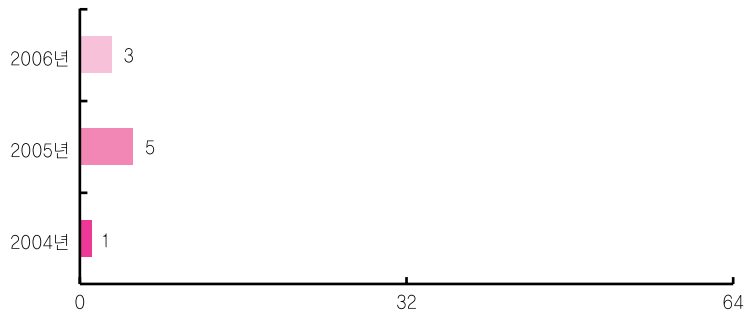
[표 4-14] 문화재단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문화재단	재정	(4명 응답) 12,500,000원	(3) 67,000,000원	(6) 7,500,000원
	현물	-	-	(1) 도록제작
	공간/기간	(1) 661.1㎡/ 2주	(1) 99.1㎡/ 1주	(1) 99.1㎡/ 1주
	기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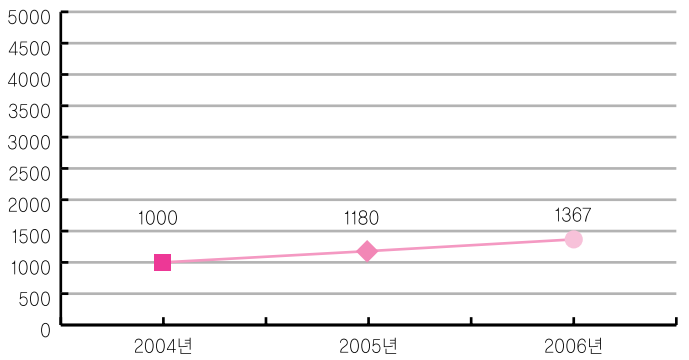
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은 2004년에는 1명, 2005년에는 5명, 2006년에는 3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원금액은 2004년 1000만 원, 2005년 1180만 원, 2006년 136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액 (단위: 만 원)



공간지원의 경우는 2006년에 165.2㎡ 공간을 4주간 지원받았다는 응답자가 1명 있었다.

[표 4-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정	(1명 응답) 10,000,000원	(5) 11,800,000원	(3) 13,670,000원
	현물	-	-	-
	공간/기간	-	-	(1) 165.2㎡/ 4주
	기타	-	-	-

⑦ 복권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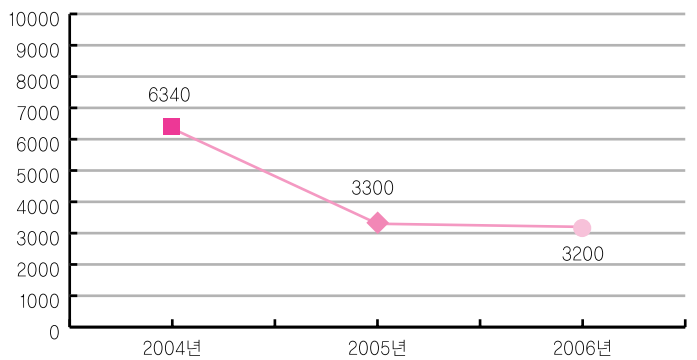
지난 3년간 복권기금 수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4년에는 1명, 2005년에는 2명, 2006년에는 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4년 6340만 원 2005년 3300만 원, 2006년 3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지원 외에 현물, 공간 지원에 대해서는 수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4] 복권기금의 연도별 비창작시각예술인 지원 현황 (단위: 명)



[그림 4-45] 복권기금의 연도별 비창작시각예술인 지원액 (단위: 만 원)



[표 4-16] 복권기금의 비창작시각예술인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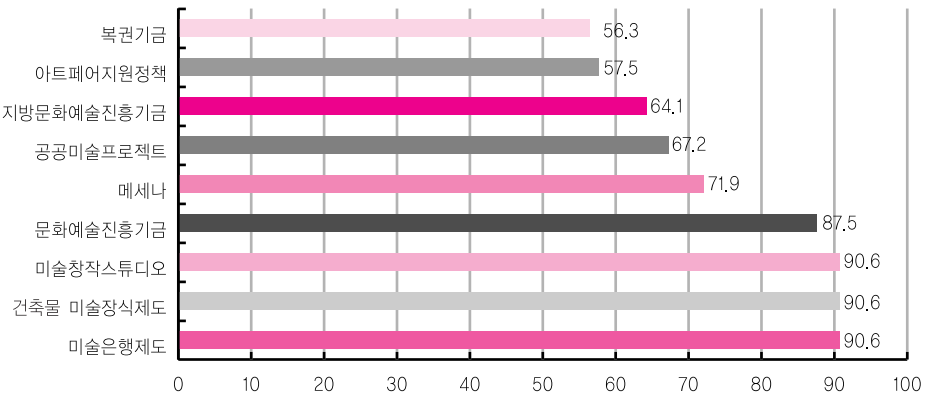
지원주체	지원내용	2004	2005	2006
복권기금	재정	(1명 응답) 63,400,000원	(2) 33,000,000원	(1) 32,000,000원
	현물	-	-	-
	공간/기간	-	-	-
	기타	-	-	-

3)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전체 64명 중 '미술은행제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87.5%), 메세나(71.9%), 공공미술프로젝트(67.2%) 순으로 전체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큐레이터가 미술평론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복수응답 (단위: %)



[표 4-1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지도-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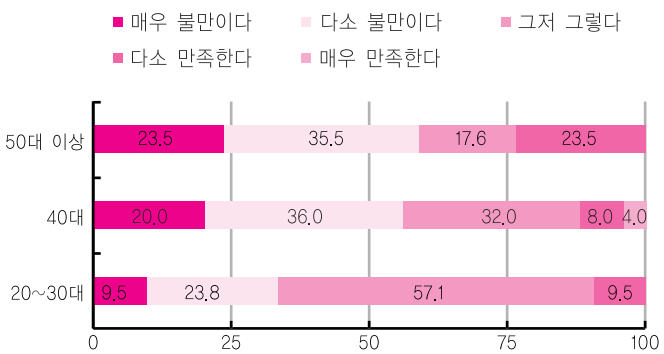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미술은행 제도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미술창작 스튜디오	문화 예술진흥 기금	메세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방문화 예술진흥 기금	아트페어 지원정책
전체 (64)		90.6	90.6	90.6	87.5	71.9	67.2	64.1	57.8
성별	남성 (42)	88.1	92.9	88.1	85.7	71.4	66.7	73.8	61.9
	여성 (22)	95.9	86.4	95.5	90.9	72.7	68.2	45.5	50.0
장르별	큐레이터 (32)	96.9	93.8	93.8	84.4	78.1	56.3	65.6	59.4
	미술사가 (5)	80.0	100.0	60.0	80.0	80.0	100.0	60.0	40.0
	미술평론가 (26)	84.6	84.6	92.3	92.3	61.5	73.1	65.4	57.7
	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별	20-30대 (21)	95.2	76.2	90.5	85.7	76.2	66.7	61.9	57.1
	40대 (26)	92.3	100.0	92.3	92.3	73.1	76.9	65.4	57.7
	50대 이상 (17)	82.4	94.1	88.2	82.4	64.7	52.9	64.7	58.8

4)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앞서 살펴본 예술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만족 한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한 반면 '불만이다'는 응답이 49.2%, '그저 그렇다'가 36.5%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은 2.4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큐레이터는 2.6점, 미술사는 2점, 미술평론가는 2.4점으로 나타나 큐레이터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그림 4-4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 (단위: %)



한편 활동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2.5점, 10~19년 2.6점, 20~29년 1.8점 30년 이상이 3점으로 나타나 활동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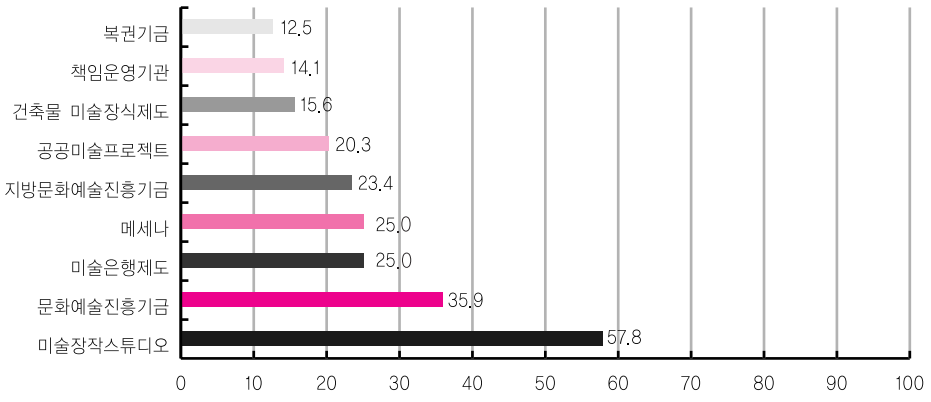
[표 4-1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응답자)		매우 불만	다소 불만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전체 (63)		17.5	31.7	36.5	12.7	1.6
성별	남성 (41)	19.5	34.1	29.3	14.6	2.4
	여성 (22)	13.6	27.3	50.0	9.1	–
장르별	큐레이터 (32)	9.4	28.1	53.1	9.4	–
	미술사가 (5)	40.0	20.0	40.0	–	–
	미술평론가 (25)	24.0	40.0	12.0	20.0	4.0
	무응답 (1)	–	–	100.0	–	–
연령별	20-30대 (21)	9.5	23.8	57.1	9.5	–
	40대 (25)	20.0	36.0	32.0	8.0	4.0
	50대 이상 (17)	23.5	35.3	17.6	23.5	–
학력별	대졸 (1)	100.0	–	–	–	–
	대학원 이상 (62)	16.1	32.3	37.1	12.9	1.6

② 현 정책 중 만족스러운 정책

위에서 살펴본 예술정책의 개별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미술창작스튜디오 57.8%, 한국문화예

[그림 4-4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꼽은 만족스러운 정책-복수응답 (단위: %)



술진흥기금 35.9%로 비교적 타 정책에 비해 수치가 높았던 반면, 조세지원제도 9.4%, 문화중심도시 10.9%, 아트페어 지원정책 10.9%, 복권기금 12.5% 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큐레이터가 꼽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미술창작스튜디오였고, 미술사가의 경우는 미술창작스튜디오, 메세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미술평론가도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꼽고 있다.

5)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만족도

①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개선점

지원정책의 실행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관해 질문했다.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70.3%)', '특정단체나 방향으로의 지원 편중(67.2%)'과 '선정자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사(45.3%)'를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표 4-1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꼽은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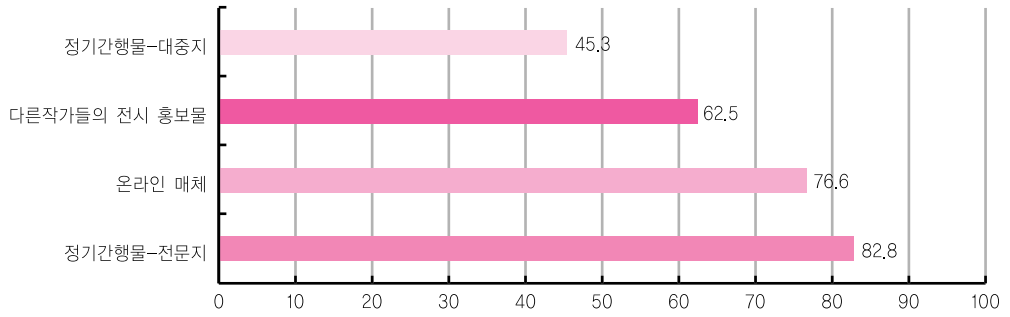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지원정책의 일관성	편중지원 금지	지원금의 철저한 검증과 감사 필요	시각예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주최/대상자의 교류와 공감	지원금 항목에 대한 융통성 필요
전체 (64)		70.3	67.2	45.3	43.8	39.1	37.5
성별	남성 (42)	76.2	64.3	42.9	31.0	35.7	35.7
	여성 (22)	59.1	72.2	50.0	68.2	45.5	40.9
장르별	큐레이터 (32)	68.8	62.5	40.6	46.9	46.9	34.4
	미술사가 (5)	60.0	40.0	60.0	60.0	40.0	100.0
	미술평론가 (26)	73.1	76.9	46.2	34.6	30.8	30.8
	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	-
연령별	20-30대 (21)	71.4	61.9	42.9	47.6	33.3	38.1
	40대 (26)	73.1	65.4	46.2	53.8	50.0	57.7
	50대 이상 (17)	64.7	76.5	47.1	23.5	29.4	5.9

5. 정보 활용도

1)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경로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시각예술관련 정보입수는 정기간행물-전문지를 통한다는 응답이 82.8%, 온라인 매체 76.6%, 다른 작가들의 전시 홍보물 62.5%, 정기간행물-대중지 45.3%로 나타났다.

[그림 4-4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취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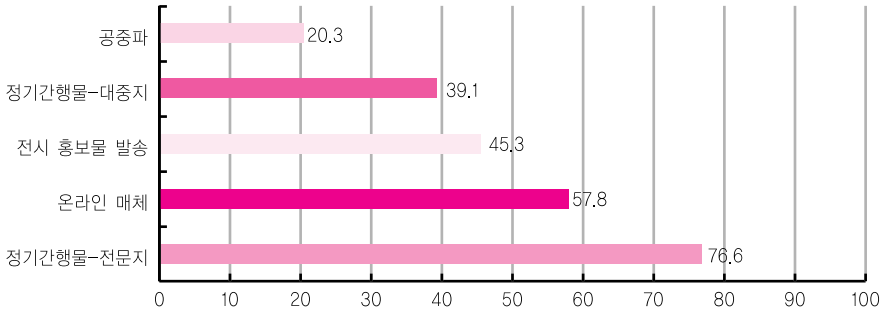
[표 4-2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시각예술 관련 정보 취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정기간행물 (전문지)	온라인 매체	전시홍보물	정기간행물 (대중지)	공중파
전체 (64)		82.8	76.6	62.5	45.3	20.3
성별	남성 (42)	85.7	71.4	61.9	50.0	26.2
	여성 (22)	77.3	86.4	63.6	36.4	9.1
장르별	큐레이터 (32)	87.5	90.6	78.1	53.1	21.9
	미술사가 (5)	60.0	40.0	80.0	40.0	20.0
	미술평론가 (26)	80.8	69.2	42.3	38.5	19.2
	무응답 (1)	100.0	-	-	-	-
연령별	20-30대 (21)	85.7	95.2	71.4	47.6	9.5
	40대 (26)	84.6	73.1	69.2	38.5	26.9
	50대 이상 (17)	76.5	58.8	41.2	52.9	23.5

2) 기획 및 비평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

비창작시각예술인의 기획활동 홍보 및 비평수록 시 선호하는 매체로는 76.6%가 정기간행물-전문지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5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5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발표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복수응답 (단위: %)



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율이 전시 홍보물 발송이었고, 정기간행물-전문지, 그 다음이 온라인 매체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는데 기획 및 비평 홍보 시에는 두 번째로 선호하는 매체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위에서 보여지듯이 시각예술관련 정보 입수 또한 정기간행물-전문지 뒤를 따르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젝트 및 전시가 소개되는 매체

[표 4-2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발표 홍보 시 선호하는 매체-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정기간행물 (전문지)	온라인 매체	전시홍보물	정기간행물 (대중지)	공중파
전체 (64)		76.6	57.8	45.3	39.1	20.3
성별	남성 (42)	76.2	54.8	42.9	40.5	23.8
	여성 (22)	77.3	63.6	50.0	36.4	13.6
장르별	큐레이터 (32)	78.1	59.4	56.3	43.8	25.0
	미술사가 (5)	60.0	40.0	60.0	20.0	-
	미술평론가 (26)	80.8	61.5	30.8	34.6	19.2
	무응답 (1)	-	-	-	-	100.0
연령별	20-30대 (21)	76.2	61.9	57.1	42.9	19.0
	40대 (26)	80.8	53.8	46.2	26.9	11.5
	50대 이상 (17)	70.6	58.8	29.4	52.9	35.3

는 정기간행물-전문지와 대중지였지만 비창작예술인의 정보입수 경로이자 선호하는 매체는 정기간행물-전문지와 더불어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것으로 타나났다. 온라인 매체의 신속성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획 및 비평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온라인 매체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온라인 매체 활용율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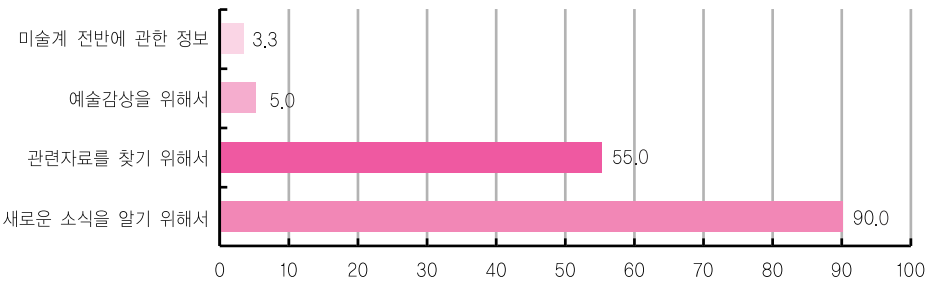
① 주당 접속시간

시각예술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창작시각예술인은 응답자 64명중 93.8%로 나타났고, 이들의 주당 평균 접속시간은 6.1시간으로 창작시각예술인 3.5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표 4-2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접속 경험

구분 (응답자)		있음 (%)	평균 접속 시간
전체 (64)		93.8	6.1
성별	남성 (42)	90.5	5.8
	여성 (22)	100.0	6.6
장르별	큐레이터 (32)	96.5	5.3
	미술사가 (5)	80.0	5.2
	미술평론가 (26)	92.3	7.4
	무응답 (1)	100.0	2.0
연령별	20-30대 (21)	100.0	6.1
	40대 (26)	92.3	6.0
	50대 이상 (17)	88.2	6.3

[그림 4-5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사이트 접속 이유-복수응답 (단위: %)



② 접속 이유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로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90.0%로 가장 많았고,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55.0%), 예술 감상을 위해서(5.0%) 순의 응답을 보였다. 창작 시각예술인의 경우에도 정보취득의 목적이 8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온라인 사이트의 활용도가 대부분 시각예술관련 정보취득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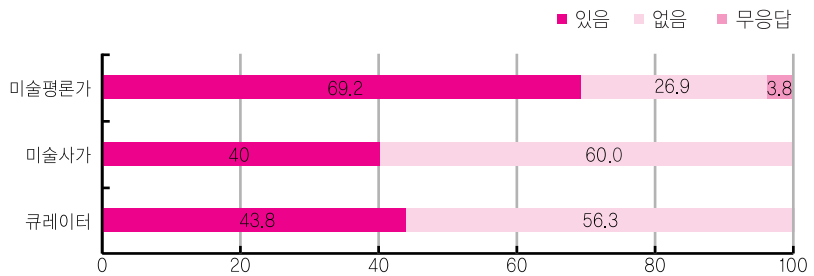
[표 4-2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미술계 전반에 관한 정보
전체 (60)		90.0	55.0	5.0	3.3
장르별	큐레이터 (31)	93.5	54.8	9.7	-
	미술사가 (4)	75.0	75.0	-	25.0
	미술평론가 (24)	91.7	50.0	-	4.2
	무응답 (1)	-	100.0	-	-
연령별	20-30대 (21)	90.5	47.6	9.5	-
	40대 (24)	83.3	66.7	-	8.3
	50대 이상 (15)	100.0	46.7	6.7	-

③ 기획 및 비평 발표 여부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획 및 비평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53.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큐레이터의 43.8%, 미술평론가의 6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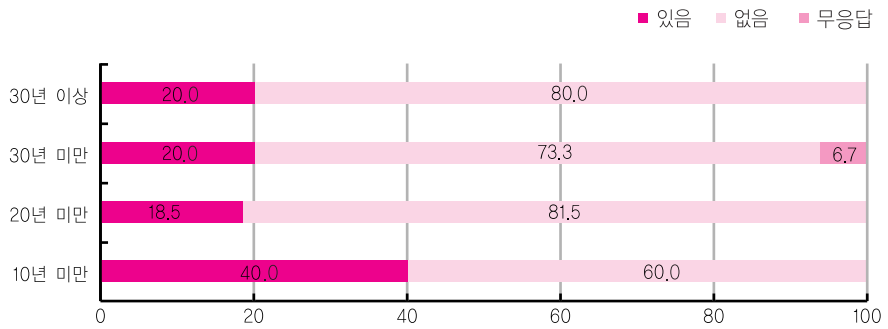
[그림 4-5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획 및 비평 발표 여부 (단위: %)



④ 개인 사이트 보유율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기획 및 비평을 소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64명 응답자 중 25.0%인 16명이 개인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동기간 10년 미만의 기획 및 비평가 15명 중 40.0%가 보유하고 있었고, 20년 미만 27명 중 18.5%, 30년 미만 15명 중 20%가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 사이트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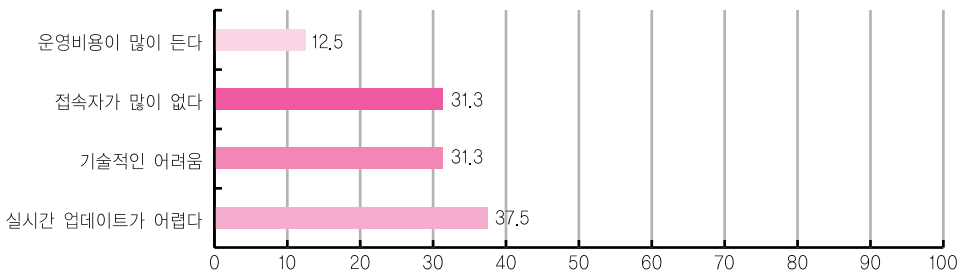
[그림 4-5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에 따른 개인 사이트 보유율 (단위: %)



⑤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

개인 홈페이지 보유자 16명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장애요소에 관해 질문했다.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다 37.5%,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31.3%, 접속자가 많지 않다 31.3% 등의 의견이 있었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가 12.5%로 나타났다. 개인 사이트 운영은 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그림 4-5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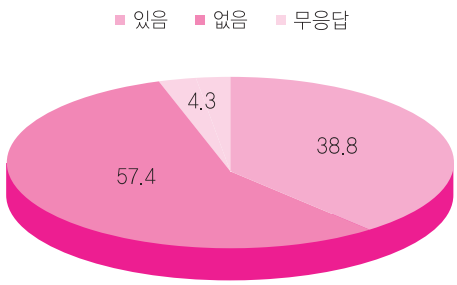
[표 4-2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사이트 운영 시 장애요소-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실시간 업데이트의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	접속자가 많지 않다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전체 (16)		37.5	31.3	31.3	12.5
장르별	큐레이터 (8)	50.0	25.0	25.0	-
	미술사가 (2)	50.0	50.0	50.0	50.0
	미술평론가 (6)	16.7	33.3	33.3	16.7
연령별	20-30대 (7)	42.9	14.3	14.3	-
	40대 (5)	20.0	40.0	60.0	40.0
	50대 이상 (4)	50.0	50.0	25.0	-

⑥ 사이트제작 의사 여부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47명을 대상으로 사비를 들여 사이트 제작 및 운영의사에 대해 질문했는데 38.3%가 제작 의사가 있었고, 57.4%는 제작의사가 없었다. 시각예술정보의 취득을 위해 온라인매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그들의 기획 및 비평 활동을 위한 개인 사이트의 활용율과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개인 사이트 운영 의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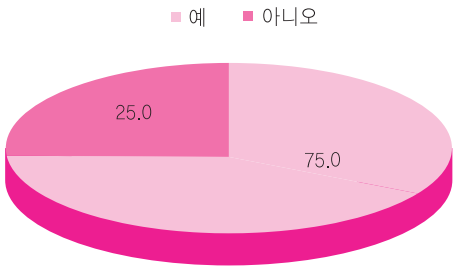


4) 인쇄 매체

① 정기구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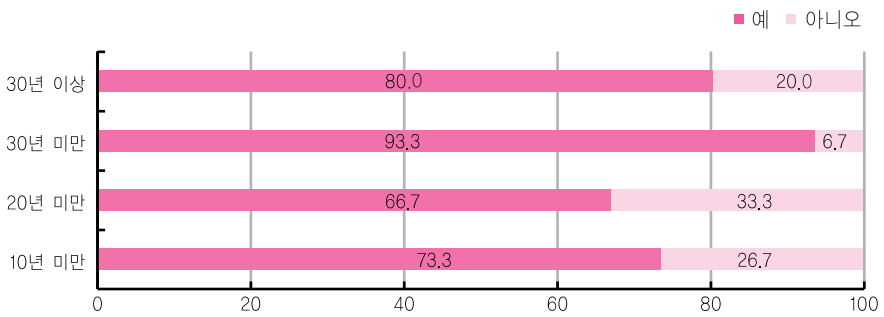
온라인 매체와 더불어 인쇄 매체의 활용율을 알아보았다. 시각예술관련 인쇄 매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64명 중 75.0%가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6]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쇄 매체 정기구독 여부 (단위: %)



활동기간 10년 미만의 응답자 15명 중 73.3%, 20년 미만의 응답자 27명 중 66.7%, 30년 미만의 응답자 15명 중 93.3%, 30년 이상의 응답자 5명 중 80.0%가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기간 20~29년 사이의 구독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7]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활동기간별 인쇄 매체 정기구독 여부 (단위: %)



② 연평균 구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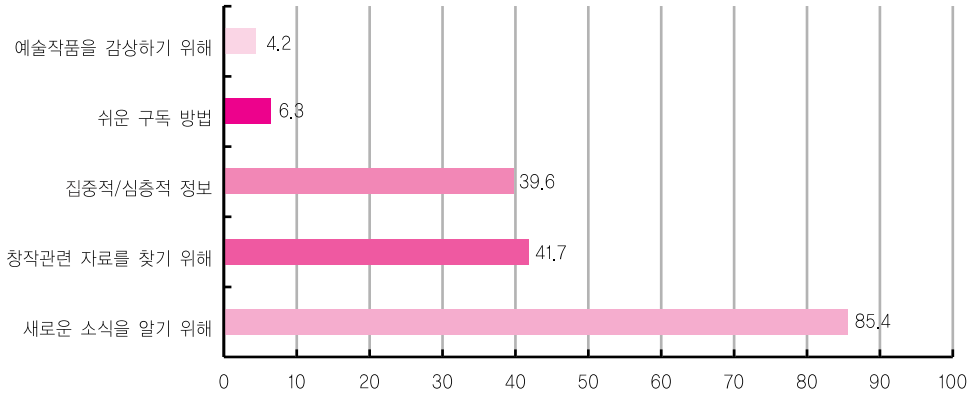
이들의 인쇄 매체 연간 구독료는 평균 240,200원으로 나타났다. 큐레이터의 구독료가 319,500으로 가장 높았고, 활동기간 20~29년 사이의 구독료가 283,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정기구독의 이유

인쇄 매체 정기구독의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가 85.4%, 창

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41.7%, 타 매체에 비해 집중적/심층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서 39.6%의 순으로 나타나 시각예술관련 정보취득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8]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인쇄 매체 정기구독 이유-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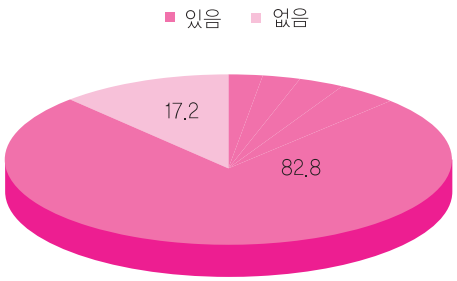
6. 사회적 위치

1) 직업실태

①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의 유무

비창작시각예술인의 직업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 표본 중 82.8%가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71.4%, 40대가 88.5%, 50대 이상이 8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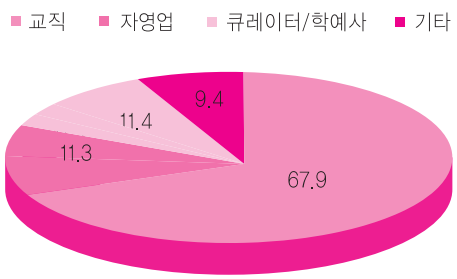
[그림 4-59]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 유무 (단위: %)



② 직업의 종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53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직(교수, 강사, 교사, 학원 강사)에 종사한다는 답변이 67.9%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60]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 종류 (단위: %)



③ 소속된 기관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8.1%는 독립기획/비평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9%는 학교, 18.8%는 미술관, 9.4%는 갤러리, 6.3%는 대안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서 나타난 것처럼 교직에 종사하는 기획 및 비평가가 67.9%인 것에 반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21.9%인 약 14명으로 나타나 정규직이 아닌 강사,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비창작시각예술인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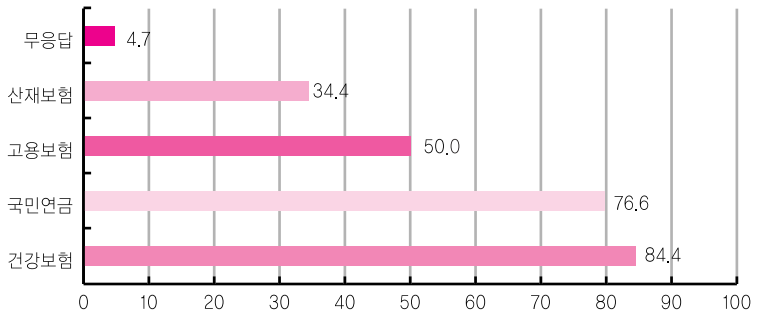
큐레이터의 34.4%는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고, 28.1%는 독립기획/비평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평론가의 38.5%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34.6%는 독립기획/비평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복지 실태

① 4대 보험 가입률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복지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해 본 결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84.4%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 76.6%, 고용보험 50.0%, 산재보험 34.4%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응답도 4.7%로 조사되었다.

[그림 4-61]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큐레이터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93.8%, 국민연금은 87.5%, 고용보험은 65.6%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술평론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69.2%, 국민연금 61.5%, 고용보험 34.6%의 가

입률을 보였다. 큐레이터의 4대보험 가입율이 미술평론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술평론가의 독립적인 기획 및 비평활동이 낮은 보험 가입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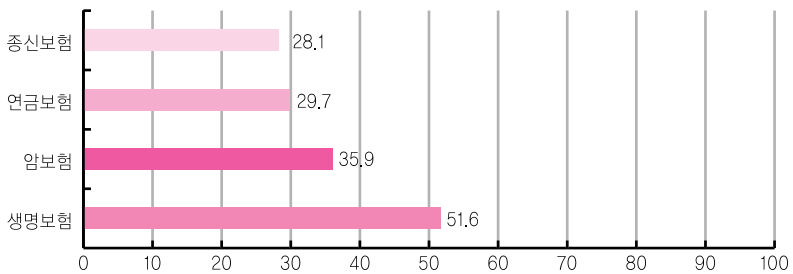
[표 4-25]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음
전체 (64)		84.4	76.6	50.0	34.4	4.7
장르별	큐레이터 (32)	93.8	87.5	65.6	56.3	-
	미술사 (5)	100.0	100.0	40.0	20.0	-
	미술평론가 (26)	69.2	61.5	34.6	11.5	11.5
	무응답 (1)	100.0	-	-	-	-
연령별	20-30대 (21)	85.7	81.0	71.4	57.1	4.8
	40대 (26)	88.5	73.1	46.2	30.8	7.7
	50대 이상 (17)	76.5	76.5	29.4	11.8	-
소득별	저 (12)	83.3	83.3	33.3	25.0	8.3
	중 (26)	88.5	73.1	42.3	30.8	3.8
	고 (11)	90.9	72.7	63.6	36.4	-
	무응답 (15)	73.3	80.0	66.7	46.7	6.7

② 기타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외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질문했고, 생명보험 가입률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암보험 35.9%, 연금보험 29.7%, 종신보험 28.1%로 나타났다.

[그림 4-6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기타 사회보험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큐레이터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62.5%, 암보험 43.8%, 연금보험 31.3% 등으로 조사되었고, 미술평론가의 경우는 생명보험 38.5%, 암보험 23.1%, 연금보험 26.9%로 조사되어 비교적 큐레이터의 보험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의 경우 미술평론가가 큐레이터보다 높은 수입을 보이고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소속된 기관, 4대 보험 가입율 등으로 보아 큐레이터가 미술평론가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5

제5장 시각예술인 실태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시각예술인 실태분석 및 시사점

국내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 발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 정책 수립 및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연극,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문화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어 각 예술 장르가 갖는 속성 및 창작여건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각예술의 경우는 200명 내외(『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6 기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표본으로는 통계를 추출하고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신뢰도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순수 시각예술인들 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창작여건 및 생활환경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이러한 기초 조사 및 연구가 시각예술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 및 관련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환경 제고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제5장의 1절에서는 제4장에서 설문 조사되었던 개별 항목들을 바탕으로 작가들의 1.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분석, 2. 학력 수준에 대한 분석, 3. 작품 판매 및 경로에 대한 분석, 4.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생계 및 작품 제작 환경, 그리고 정부의 예술정책 및 복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통해 그 불만족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 방안 및 대책 그리고 제언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각예술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은 물론 향후 시각예술정책을 재수립하는데 주요한 골격이 될 것이다.

제1절 시각예술인 실태분석

설문 조사된 실태를 기준으로 하면 2006년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순수 시각예술인의 표본은 (1)서울을 거주지와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46.9세의 남성 미술가이며, (2)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고, 연평균 21.2점의 작품으로 1.2회의 개인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월평균 129만 원이며, (3)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으로 교직에 종사하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드러났다.

표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으로는 우선 아직도 대다수의 시각예술가들은 중앙(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지역 분포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이유로는 발표 공간의 편중이나 시장성 그리고 관심의 주목도가 지방에 비해 서울이 월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산업 및 문화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연스럽게 제반 문화기반시설,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가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지역별 활동 안배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환경조성이 고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사대상 가운데 거의 60.0%에 달하는 작가들이 석 · 박사 학위를 소유한 고학력자들이며, 대학 졸업자의 첫 작품발표 연령이 평균 32.5세인 것으로 나타나, 타 분야나 장르에 비해 데뷔나 활동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창작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작가들이 학업, 창작, 생계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이는 다수의 시각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초예술가들에 대한 총체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소득 수준 또한 조사대상의 58.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이 가운데에서 무려 30.4%는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추상적으로 대다수의 작가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결국 조사된 대다수 작가들 가운데 67.1%는 이러한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국내에서 순수 시각예술

가들 가운데 순수하게 작품 판매 등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가는 불과 30% 내외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미술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작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얼핏 표본에 대한 주요 항목만 살펴봐도 국내의 시각예술가들의 창작여건이나 환경은 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국내의 시각예술가들의 환경은 그만큼 그들이 창의적인 작품 제작에 몰두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기초학문의 부실이 응용학문이나 과학의 부실에 그대로 연계되고 가속화 되듯이 기초시각예술이 부실해 짐으로써 전체 시각문화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그 연장 산업들의 기초 컨텐츠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자세하게 시각예술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들을 분석해 보자.

[표 5-1] 직업별 근로자와 시각예술인의 응답자 특성 비교[14]

구 분	월평균 소득	평균 연령	성비	근속 년수
관리직	412 만 원	48.3 세	남성 94.0 %	9.9 년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	206 만 원	35.8 세	남성 56.9 %	6.1 년
건설 관련직	176 만 원	44.8 세	남성 95.8 %	9.6 년
금융,보험 관련직	253 만 원	39.6 세	남성 48.0 %	6.6 년
시각예술인	129 만 원	46.9 세	남성 66.1 %	19.9 년

1.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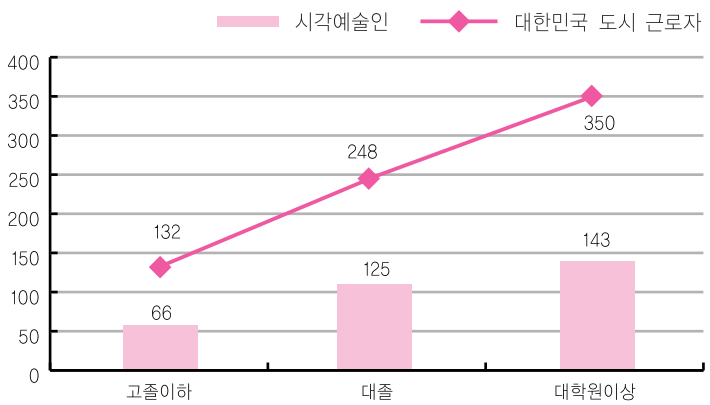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각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작가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고 느꼈었고, 이에 대한 자구책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그 근거를 제시할 만한 기초 조사가 미비했고, 실제 수혜자들이 될 작가들조차도 자신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해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예술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작가에 대한 소득 편차가 너무 커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한 모호한 상황이다.

14)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2006 직업지도 Job Map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 참조

이미 서두에서 밝힌바 있지만 본 실태조사 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감지했던 시각예술가들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시각예술가들의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의 데이터가 밝혀짐으로써 동시대에 그들의 자본적 지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러한 수준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작가들의 주 소득원이 되어야 하는 작품 판매 등 순수 예술활동에 대한 평균 수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8.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이 2006년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도시 근로자 1인의 소득액인 166.6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며, 특히 이 가운데에서 무려 30.4%는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가히 이러한 작가들을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15] 에 의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5-1] 대한민국 근로자와 시각예술인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 원)



이러한 생활고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전체 작가의 67.1%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자영업, 일반사무직, 계약직 학원 및 학교 교·강사 등의 각종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작가가 생계을 위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국내 미술계의

15)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이다. 현행 직업분류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7일 제 5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0-2호),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표 5-2] 학력별 직업별 월평균 임금 비교[16]

직업 대분류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석사이상
관리직	237.4	318.1	350.9	444.6	511.5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전체	184.1	188.4	170.4	248.3	325.7
금융, 보험 관련직	128.9	215.3	212.1	307.3	412.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33.6	127.7	139.9	214.2	295.7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	258.2	247.5	280.2	423.2
보건, 의료 관련직	80.1	119.2	156.7	280.1	464.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3.4	107.8	121.3	145.2	161.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87.0	179.9	159.0	227.6	272.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2.9	174.9	186.0	220.3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0	162.9	179.8	242.1	319.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71.3	113.4	155.5	157.6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22.7	152.5	145.1	203.5	243.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02.1	126.9	146.9	176.6	–
건설 관련직	121.5	167.1	201.0	274.5	317.9
기계 관련직	141.4	197.7	207.7	260.2	338.0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143.7	200.7	204.9	258.5	354.7
화학 관련직	125.7	191.0	246.7	246.1	317.6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02.2	135.7	146.0	174.7	–
전기, 전자 관련직	114.4	162.6	196.7	273.7	337.2
정보통신 관련직	–	208.0	196.6	270.5	333.6
식품가공 관련직	105.0	152.5	185.1	199.8	258.5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80.6	139.2	179.4	219.9	326.9
농림어업 관련직	69.8	127.4	152.5	17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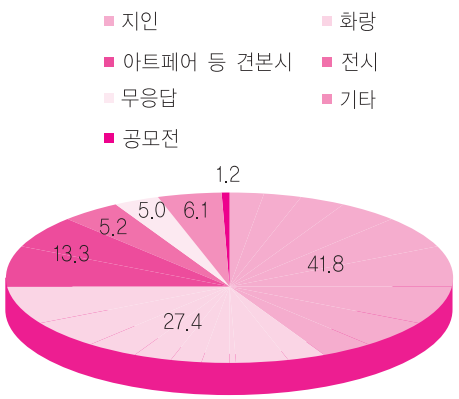
작가들은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위한 시간 및 비용부족으로 인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함은 전체 시각문화의 토대가 되는 기초 시각예술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16)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 Job Map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 2006

2. 작품 판매 및 경로에 대한 분석

작가들의 예술적 생산물인 작품의 판매 경로를 분석해 보았다. 응답한 참여한 국내 작가들의 작품 판매에 대한 주요 경로는 화랑, 아트페어, 공모전,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중 특이한 사항은 각종 판매 경로 중 여전히 국내 작가의 41.8%는 작가 주변의 친인척 및 지인 혹은 그 소개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작가들이 1차적인 작품 제작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홍보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생산자와 매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국내 미술계는 작품의 객관적 시장성 혹은 그 질적 우수성에 따른 유통 경로를 갖고 있기 보다는 지인이나 친척 그 소개에 의한 개인적 네트워크에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품을 중개하고 작가를 시장에 진입시켜야 할 화랑을 통한 작품 판매는 27.4%로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5-2] 작품판매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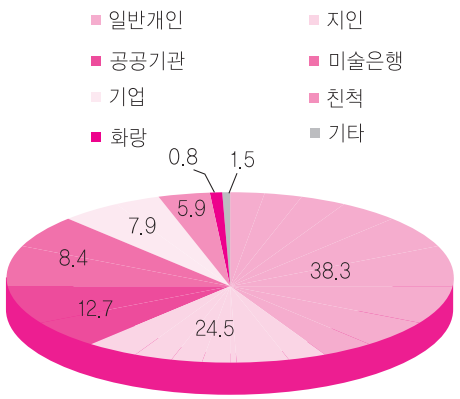
최근 급격한 미술시장 팽창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술 경매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의 1% 내외로 실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경매가 작품 판매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작가는 소수의 블루칩 작가들이거나 유명 작고 작가들 혹은 이미 상업성이나 시장성에서 그 가능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작가들의 작품 위주여서 실제의 대다수 작가들에게 경매를 통한 작품 판매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통 경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매나 아트펀드 등 일반 자본이 미술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삼은만큼 앞으로 수익률 창출이라는 목표에 의해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국가적인 시각문화 예술정책이 시장의 일방적 요구나 방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계획과 이러한 투기성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제도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바로 지금 필요한 시기이다.

판매 경로와 아울러 작품을 판매한 대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는데, 조사결과 화랑 및 미술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보다는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전체의 38.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른 컬렉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인 24.5%, 공공기관 12.7%, 미술은행 8.4%, 기업 7.9%, 화랑 및 미술관 0.8%, 기타 1.5%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각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공익적인 문화예술의 한 장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의한 시각적 장식물'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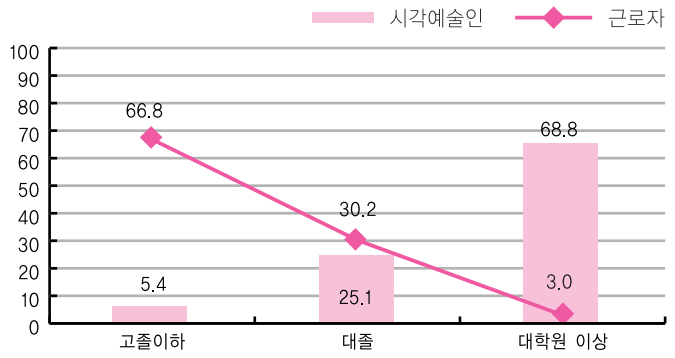
[그림 5-3] 작품판매 대상 (단위: %)



3. 학력 수준에 대한 분석

이렇게 열악한 국내 시각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수입 구조와는 달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학력 수준은 매우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중 석 ·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작가들이 무려 57.8%나 됐는데, 여기에 예비 석사생들인 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들 10.9%, 대졸 25.1%를 합한다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 93.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시각예술인 대비 근로자 학력수준 비교 (단위: %)



국내 미술계의 이러한 고학력 현상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진로를 결정하여 창작이나 생업 현장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창작과 학위과정, 그리고 생업을 위한 기타 수익활동 병행하면서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러한 고학력은 보다 안정적이며, 창작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직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력으로서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균적 고학력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가계의 수입구조 속에서 학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아울러 신진 및 잠재적 예비 작가들에게 제도권 진입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예비 작가들이 진로를 수정, 이탈함으로서 물적 · 시간적 손실, 그리고 제도권 진입의 높은 장벽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 교육이 작가를 양성하고 이를 사회에 진출시켜 국민들의 문화향수 및 욕구에 대한 1차적인 생산자이며 종사자인 시각예술인들에게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보다는 일종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활동을 유예시키는 온상으로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의 산업화 및 자본화와 맞물려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예술 관련학과의 학위 남발과 또한 학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맞물려 예술종사들의 고학력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다.

4. 지역별 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

시각예술인의 활동 여건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각예술인의 59.4%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 질문의 응답률에서 서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은 전제하고라도 활동 실태, 작품 판매율, 지원 수혜 비율 등 주요 항목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작품 발표 수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60점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반면 강원도는 21.71점으로 매우 낮은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재정형편이었지만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주목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시각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장애요인은 지방 작가로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재정, 공간, 현물 등 각 항목에서 중앙정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서울 집중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메세나, 개인 후원자, 문화재단 등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의 5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고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원혜택이 낮은 지역의 시각예술인들이라고 지원정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는 62.5%, 강원도는 57.1%의 응답자가 직접 지원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지원정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낮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의 많은 시각예술인들이 지원정책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과 소외감은 짐작되는 대목이다.

본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시각예술분야 시설 실태 조사』의 결과에서 보면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시설 227개 중 서울은 126개로 55.5%의 비율을 보이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 4개 처로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원도에는 미술관, 문예회관은 있었지만 조사 요건을 갖춘 화랑은 한 개 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별 시각예술분야 시설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시각예술인들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든다. 우수한 작품들을 일반인들과 함께 향유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시각예술인들을 타 지방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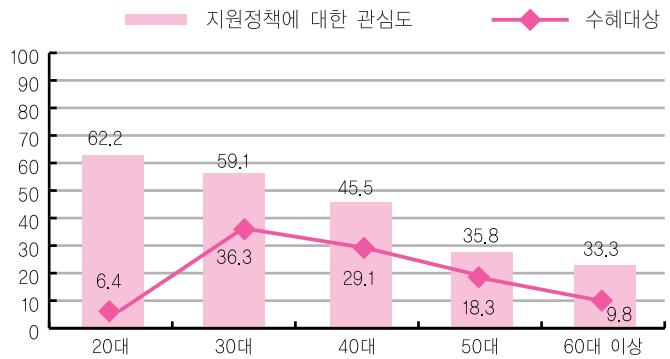
5. 시각예술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정부 및 각종 광역,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의 작가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지원여부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각예술 관련 각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떤 형태로 지원 받았으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

그리고 불만사항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시각예술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1)미술은행 제도, 2)건축물 미술장식제도, 3)미술창작스튜디오, 4)문화예술진흥기금, 5)복권기금, 6)메세나, 7)아트페어 지원정책, 8)전문 예술 법인 단체 지원 및 육성, 9)공공미술프로젝트, 10)조세지원제도, 11)책임운영기관, 12)문화중심도시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을 소개하고 이 정책 가운데서 지원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3.5%만이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나 지자체 등 각종 공익적 문화재단 및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조성,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지원정책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실상은 극소수의 작가들만이 수혜의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정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5] 연령별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대비 수혜율 (단위: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일간지, 월간지, 지원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러한 지원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20대가 62.2%, 30대가 59.1%, 40대가 45.5%, 50대가 35.8%로 활동기간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수혜대상도 20대의 신진작가들을 제외하면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지원, 도록제작지원, 작품발표 공간지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인지도가 7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62.9%)', '미술은행제도(54.6%)', '미술창작스튜디오(52.0%)' 순이었다.

제2절 시각예술 지원에 관한 제언

국가의 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은 예술이 사회적 (준)공공재원의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17] 그리고 문화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강자인 소수에게만 편중되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확대시키고 그 기회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의 예술지원에 대한 당위가 마련됐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문화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유관산업의 시장 확대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그 영역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예술이 갖고 있는 창조적 능력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예술 장르 가운데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예술의 경우는 현대 시각 문화의 가장 기초적인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문화가 사회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과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공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삶을 풍요롭게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의 예술지원에 대한 당위와 맞물려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수혜를 받는 측과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에 대한 당위 및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사이에는 늘 그 간극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고 그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예술 지원의 관건이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문화관광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 재원 분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민간 주도의 지원, 다양한 재원 확보 등 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큰 골격을 이미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의 방향 또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시각예술 지원 정책은 문화관광부가 『창의한국』, 『새 예술정책』, 『문화강국(C-KOREA)』 등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중장기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1)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관 문화 조성, 2)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시각예술의 공공적 활용 강화, 4) 응용미술을 통한 생활환경의 질(質) 제고, 5) 미술 수요 창출 및 유통구조 개선, 6) 한국미술의 비평 · 학술 활동 강화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과 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가속화 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술제도 보완 및 지원

17) 전병태,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프로그램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시장의 체질 개선 및 투명성과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미술 영역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18]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지원 목표를 분석해 보면 현 정부의 시각예술의 정책 기조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문화향유 확대, 기초 예술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작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은 대표적인 지원책들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았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현재 국내에서 예술에 대한 진흥기금의 가장 큰 창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이고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다. 현재 전체 기금은 약 4,746억 원[19] 규모이고 이중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은 약 1,036억 원이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51억 원 규모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이러한 지원 근거는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17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매년 9~10월 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이 가운데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 학술, 세미나, 보존, 발굴 등을 지원한다. 전체분야 가운데 시각예술 분야의 정기 공모 사업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축약할 수 있다.

1.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 발표 활동과 독창적인 기획행사 및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각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
2. 젊은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발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자료의 기록과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연구와 비평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사업
4.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등을 위한 전시, 공연 교류, 세미나

18) 문화관광부, 『새 예술정책』, 「시각예술」, 2004
19) 문화관광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2006

개최 등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해외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
6. 현대 시각 예술 작가에게 1년간 독일 베를린 Kunstlerhaus Bethanien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베나티엔 스튜디오 파견 지원 사업**
7. 세계 주요 문화예술 비정부기구에 가입되고 있는 국내 예술 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
8. 국내 지역별 주요 문화기반시설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창작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고 세계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해외 작가 참여 기회 제공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9. 다양한 민족문화 교류 활동과 재외동포 대상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 교류기반 구축 지원 사업**

정기공모를 통한 지원은 위에서 열거한 크게 9개의 지원 사업을 골격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 구축,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20]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2007년도 지원 예정) 시각예술 분야의 정기공모에서는 평면, 입체, 매체, 공예 · 디자인 · 건축, 학술 · 평론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의하여 51억 7천5백만 원을 지원 확정했으며, 이 액수는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서 지원 결정된 총 1,237개 사업 163억 6120만 원[21] 의 31.6%에 해당된다.

비록 한정된 지원 예산 규모로 인해 접수된 전체 5,302건 1,130억 6,436만 원 중 약 14.5%의 163억여 원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그 지원 규모로 본다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을 대변하는 기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그나마 이 기금을 통해서나마 우리나라 기초예술이 연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만큼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작가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지원정책에 문예진흥기금이 70.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작가들의 인지도가

20) 문화관광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2006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대상 내역」, 2007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책적 수혜에 있어서도 여타의 정책들에 비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처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작가들의 호감이 높은 이유는 우선 기금의 투명도나 안정성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체계적이고 정확하다는 점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이 갖고 있는 연륜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현재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올 해 운용 계획 중인 기금의 총액은 4,746억 5천 3백 만 원이다. 이 액수는 지난해 5,198억 4천 8백 만 원에 비해 451억 9천 5백 만 원이 감액된 액수이다. 2007년 문화관광부 재정이 2조 2,968억 원으로 2006년도 2조 2,089억 원 대비 879억 원(4.0%) 증액 편성 되었고, 문화관광부가 운용하는 문화예술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9,432억 원으로 2006년 9,145억 원 대비 287억 원(3.1%) 증액 편성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문예진흥기금의 축소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문화재정이 증액되더라도 기초예술에 대한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57개 가운데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금을 정비해 현재의 57개에서 3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22]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이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심포지엄이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이하 기초예술연대)' 주최로 열린바 있다. 그 심포지엄은 정부가 최근 기초예술 진흥기금을 삭감하고 기금을 민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강화 촉구가 주목적이었는데, 기초예술연대 공동위원장인 방현석(소설가) 씨는 "한국에서 문화재정의 비율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른 분야에 밀려왔다"며 "최근 문화예술 관련 국가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23] 한 바 있다.

기초예술 지원에 대한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저하와 문예진흥기금의 축소 혹은 민간 전환 등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각예술 분야의 기본적인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시장 논리나 혹은 대중적, 상업적 성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초예술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의 기초 컨텐츠 생산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위상정립과 증액이 중요한 대목이다.

22) 조성곤, 한겨레신문,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추진」, 2004. 8. 31
23) 이준삼, 연합뉴스, 「문화예술지원 강화 촉구 심포지엄」, 2007. 2. 20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작가들 가운데 국내 주요 미술정책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예상외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62.9%를 차지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정책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에 대한 작가들의 이러한 관심과 주목은 아무래도 현재 미술시장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서 파생되는 작품 판로의 규모가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 폐단 속에서도 작가들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 간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예상하고 있는 국내 미술경매 시장의 전체 규모와 거의 맞먹는 정도이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념 및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 제도는 1930년대 서구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 법(Percent for Art)'에서 유래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시행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출발하다가 1995년 의무조항으로 변경되면서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는,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표 5-3]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2004.12.31 기준)[24]

(단위: 백만 원,)

구분	건축물 연면적(m^3)					계	
	1-2만	2-3만	3-4만	4-5만	5만이상	수량(점)	가액
'96~'99년	282	246	210	105	687	1,530	57,091
2000년	43	75	78	72	351	619	33,204
2001년	112	85	151	63	358	769	55,380
2002년	205	128	117	58	239	747	51,562
2003년	205	196	82	77	425	985	71,225
2004년	202	152	129	69	407	959	69,959
계	1,049	882	767	444	2,467	5,609	338,421

24) 문화관광부, 『새 예술정책』, 『시각예술』, 2004

고 어느 정도 도시문화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나 건축주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미술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미술계의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행상의 비리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미술장식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술계 인사가 참여한 관련 TF(Task Force)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새 예술정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청회,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관련단체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축물 장식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미술창작활동 진흥과 도시 문화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장식개념에 갇혀 있는 '미술장식' 을 '공공미술' 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의 관리면에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을 통하여, 변화된 문화 환경에 조응하며 투명한 운영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발의된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안은 2005년 10월 25일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미술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본 제도의 본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 으로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나 크게 4단계(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를 거쳐 발전해 왔다.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이 그 용어에서부터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 개념에 제한됨으로써 공공미술(Public Art)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나타난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어 미술의 다양한 기능이 협소한 개념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보다 진전된 개념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표 5-4]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25]

구 분	특 징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년) – 순수미술 위주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ic Places)	–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 활성화 –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7년)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 도시계획의 중요 요소로 공공미술 활용 – 기금제(pooling system)가 도입됨 –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꾸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 확장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민간 건축주의 미술장식 개념 이해 부족 및 문화적 참여 동기 미흡으로 제도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도시 경관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 만한 건축주의 문화적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비양심적 미술인, 심의 과정에서의 담합 등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작품 설치가 관행화되어 문패조각식 미술장식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예술성이 낮은 미술품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사회 일반의 공공성 보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주의 입장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의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가 선정 및 작품 설치 과정이 건축주에게 일임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미흡하며, 작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미 작가 및 작품 제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시정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동떨어진 작품 설치가 관행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심의제도를 두어 수준 높은 예술작품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후 심의의 한계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미술시장의 구조상 객관적인 가격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미술품 가격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97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후 심의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72.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25)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개선 방향으로 우선 건축물 미술장식을 공공미술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가 부족한 민간 건축주에게 법적 의무를 쉽게 이행하면서도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 등 공공기관의 기여가 제고되어야 하며,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감리 및 체계적인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함은 물론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화로 전국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한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미술은행제도

매년 많은 신진 작가들이 미술시장으로 유입되고는 있는 것이 국내 미술계의 현실이지만, 일부 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 판매와 유통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도 창작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술문화 낙후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수집 예산이 18억 원(2000년)~53억 원(2004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26],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이미 시장성이 검증되거나 유명세를 확보한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며 보존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 신진작가의 작품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침체된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에 미술은행 설립/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3월 본격적인 활동을 도입 시행하였다. '미술은행'은 정부가 미술품 구입에 앞장서 정부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로서 예술은행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미술사적 가치 및 대중성 등의 면에서 다양한 소장품을 확보하고 작가의 문화진흥정책 및 미술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 및 환경개선 등의 작품

26)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수집 예산 : 18억 원(2000년) – 53억 원(2004년)

[표 5-5] 해외 미술은행 운영 현황

국가	제도	운영현황	
프랑스	Fnac	소속기관	문화부 산하의 조영예술위원회
		취지 및 개요	활발한 작품활동과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현대예술가의 작품구입(외국작가의 작품도 포함) 프랑스 미술, 문화 홍보
		구입	연 2회 정기구입(공모제, 추천제)과 수시구입 회화 · 조각 · 설치 · 사진 · 비디오 등의 현대미술 · 디자인
		활용	프랑스 내 · 외의 국공공기관 작품 대여 국제전시회 출품
영국	British Council Collection	소속기관	영국문화원
		취지 및 개요	작품구입으로 인한 미술지원 정책 영국미술 증진을 위한 해외 소개 – 1934 설립
		구입	영국의 신진작가를 비롯한 영국 대표적인 미술가의 작품구입
		활용	영국 내 · 외의 정부 및 공공건물 대여 국제순회전시 프로그램
	GAC	소속기관	문화매체 체육부
		취지 및 개요	영국미술문화증진
		구입	영국태생 및 거주 등 영국과 관계있는 작가의 작품구입
		활용	여국 내 · 외의 정부 및 공공건물 대여 프로젝트 프로그램(건물전체에 작품 기획설치)
	NTE&ACC	소속기관	영국예술진흥원
		취지 및 개요	영국의 세계적인 근 · 현대 미술 작품 소장(ACC) 국민의 미술 · 문화향수 증진(NTE)
		구입	신진과 중진 작가의 작품을 고루 구입 근 · 현대미술작품 대략 7,400점 소장
		활용	5년마다 'British Art Show' 개최 영국 내 미술관, 도서관, 학교 등 100여곳 순회전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여 및 전시회
캐나다	Canada Council Art Bank	소속기관	캐나다 예술진흥원
		취지 및 개요	개나다 현대 미술가들의 창작지원 국민의 미술 · 문화향수증진/건전한 미술시장형성 도모
		구입	대여가 가능한 작품을 구입하고 이를 대여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신진작가의 작품 구입
		활용	정부 및 민간 건물에 작품 대여
호주	Artbank	소속기관	DCITA
		취지 및 개요	호주의 신진 미술가 및 공예인 지원 국민의 미술 · 문화 향수 증진
		구입	젊고 유망한 신진작가와 저명한 중진작가의 작품 구입
		활용	국 · 공공기관 및 민간 건물 작품 대여

대여와 국민의 문화향수권 향상을 위한 기획전시 등의 작품대여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미 프랑스의 프낙(Fnac: Fonds national d' art contemporain)을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영컬렉션(British Council Collection), 독일의 국제교류처(IFA: 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 호주, 캐나다의 공영미술은행(CCAB: Canada Council Art Bank) 등 해외 선진국에서의 시행은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실태조사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 1,325명의 절반이 넘는 54.6%가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고, 24.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인 대상 정책 중 문화예술진흥기금(28.4%), 미술창작스튜디오(2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이다. 작품 선정이나 가격에 대한 다소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미술은행이 작품대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새로운 문화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 문턱에 한계가 있는 신진작가들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많은 시각예술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술인으로 작품구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왔고,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기획전 또는 그룹전 10회 이상의 경력이 있는 미술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구입하되,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진작가의 창작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27] 그러나 미술은행에서 규정하는 신진작가의 개념은 그 사업에 부합하도록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인식되는 공모전이나 대안공간에서 적용하는 개념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유는 안정적인 작품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절차와 대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가지원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군다나 1회성 지원과 달리 한번 구입한 작품은 국가소장으로서 지속적인 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작가의 검증과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미술은행 설립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2007년 올해의 예산규모는 22억 원으로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순수공예, 순수사진, 뉴미디어 및 설치 등 9개 장르로 범위를 정하였다. 다만 설치미술 및 미디어아트 등의 경우에는 미술은행의 운영 추이를 보아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새롭게 결정하여 시행한다. 선택과 집중, 추천제, 공모제, 그리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27) 2005 미술은행백서 : 2005년도 미술은행 운영 규정, 제 11조(작품 구입원칙)

위한 현장구입제를 병행하여 350~400여 점의 작품을 구입할 것이며, 작품 구입 시 추천제(선택과 집중 포함) 45%, 공모제 40%, 현장구입제 15%로 집행할 예정이다.

미술은행이 설립된 첫 해인 2005년의 운영예산은 총 23억 원을 확보하여 473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구입비율은 추천제 57.4%, 공모제 24.8%, 현장구입제 17.3%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운영예산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85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2005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총 2억 원(8%)증액되었지만, 소장품 구입은 88점(18%)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전체적 평균작품가액의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2억 원으로 2006년 예산 25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했다. 이 액수는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최고가 작품 한 점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 국가의 미술시장을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표 5-6] 연도별 미술은행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	절감액	집행액	운영비
2005	2,500,000	200,000	2,164,640	135,330
2006	2,700,000	270,000	2,200,000	230,000
2007	2,200,000	–	–	–

[표 5-7] 연도별 작품구입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05년	16	148	186	123	473
2006년	19	120	129	117	385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신진작가의 작품구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진작가라는 의미규정과 국가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이라는 보편성에 대한 눈높이 구입을 감안하지 않고 미술은행을 실시해서는 그 목적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작품이 국민의 문화 향수를 신장시킬 수 있는지, 그 대중성과 창작성의 분할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수위원들에 의한 학맥 위주 추천 혹은 지역의 작가들만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띤 추천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서 전국의 추천작가 인원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분포가 70%에 달하여 선정이 지나치게 수도권이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작품가격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제도는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초기에 균형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대상 작가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미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신축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술은행의 기본방향은 제도적인 틀을 잡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부에서 사업 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 미술은행을 설립하면서 2006년까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한국미술진흥재단(가칭)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권과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4월 현재 운영기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차원의 장기계획 아래 마련된 미술시장 살리기의 구체적 방안인 미술은행 제도는 그 운영상의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미술발전에 효율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문화관광부 외에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출신이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역량 있는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도립 옥과미술관에 보관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미술은행 도입계획을 2005년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미술은행 정책은 각 자치단체에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4. 미술창작스튜디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한다” 라고 미국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시각예술인들이 일정 기간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작품공간과 일정기간 보관해 둘 수 있는 공간, 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품 창작의 특성상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크기의 작업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므로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작스튜디오는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시각예술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외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창

[표 5-8] 국내 주요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28]

구분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	고양 미술창작 스튜디오	경안 창작스튜디오	쌈지 아트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위치	서울	경기	경기	서울	서울	서울
설립연도	2002	2003	2000	1998	2002	2006
조성/운영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 (사)현대미술관회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현대미술관회	대유문화재단 / 영은미술관	(주)쌈지	하나은행 / (주)가나아트	서울시립미술관
시설 (개)	스튜디오(14) 전시실(1) 옥외작업장(1) 기타 편의시설	스튜디오(23) 전시장(1) 옥외작업장(1) 기타 편의시설	스튜디오(12) 판화공방 도예공방 숙소	스튜디오 전시실	스튜디오	스튜디오(17) 전시실 편의시설
입주조건 / 사용료	월 5만 원	창작활동비용만 본인 부담	본인 부담 작품기증	작품기증	작품기증	–
입주작가 특징	30-50대 국내 미술가	30-50대 국내 미술가	30-60대 국내외미술가 / 비디오 · 설치작가 위주	20-30대 국내외미술가 / 비디오 · 설치작가 위주	30-40대 국내 미술가	만 40세 이하의 국내외 거주작가
인원	18명 내외	23명 내외	9-10명 내외	8-9명 내외	8명	17명
입주기간	1년	장기입주 1년 단기입주 3-4개월	1-2년	1년	1년	1년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전시회 워크숍 지역연계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전시회 워크숍 지역연계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스튜디오, 해외전, 전시회, 아트북, 아트광고 프로그램	기업연계 오픈스튜디오, 문화체험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대형작업실

작스튜디오 등이 설립되어 왔는데,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부터는 민간기업과 미술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동 ·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의 경안창작스튜디오, (주)레더데코 쌈지에서 운영하는 쌈지스튜디오, 서울시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의 창작스튜디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미술창작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방의 폐교를 임차 · 개조하여 '미술 창작실'이란 이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1998년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28) 오성희, 『아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2002, 항목에 고양미술스튜디오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추가하였다.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1998년 1개, 1999년 7개, 2000년 5개, 2001년 6개, 2002년 3개, 2003년 4개, 2004년 4개를 조성해 모두 30개의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지원했다. 2002년에는 젊고 유망한 미술작가들에게 창작실과 전시실을 제공하여 미술창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가 건립되어 6월 14명이 첫 입주를 시작했으며, 이어서 2003년 11월에는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가 건립되어 거주 작가 이외의 외부작가들에게도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하고 전시장 활용 시 보도자료 작성과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5-9] 전국 국 · 공 ·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2006년 기준)[29]

비 고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 립	2	1	–	–	–	–	–	–	1	–	–	–	–	1	–	–	–
공 립	29	1	–	1	–	2	–	–	2	4	3	1	3	1	6	5	–
사 립	23	2	–	1	–	–	–	–	13	1	1	–	1	2	–	3	–
합 계	54	4	–	2	–	2	–	–	16	5	4	1	4	4	6	8	–

[표5-8]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경기 지역이 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창작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넓고 저렴한 스튜디오 운영이 가능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의 역할과 더불어 숙식, 거주 기능을 확보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화센터, 국제문화교류의 현장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작업실과 오픈스튜디오 정도로만 개방했던 창작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이 함께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1971년 설립된 미국의 P.S.1의 경우에는 폐교된 공립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29)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 1차 『새도 둥지에서 알을 품는다!』 (예술가 창작환경조성) 자료집.

[표 5-10] 해외 주요 아트스튜디오 현황[30]

구분	T.A.V	OMI	P.S.1	M.F	A.S.S	반 비르덴테
국가	대만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설립연도	1999	1991	1971	1977	1990	1870
조성/운영	타이페이시	OMI 예술재단	비영리 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재원조달	지방정부	기업, 재단, 개인기부자	뉴욕시 문화국, NEA, 민간재단, 기업, 회원비 등	시 지원	주 정부	문화부
시설	스튜디오 (작업 · 생활), 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암실	스튜디오, 촬영실, 판화실, 숙소	스튜디오, 갤러리, 자료실, 대강당	스튜디오 (작업 · 전시), 숙소	스튜디오, 도서관	스튜디오
입주조건	Open Studio전, 입주희망국가의 작가와의 상호교환	Open Studio전, 작품기증	Open Studio전, 교육프로그램진행	·	·	작업실개방, Open Studio전,
입주작가특징	10여 개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30여 개국의 시각미술가	16개국의 시각미술가	설치미술가	모든 예술분야	27~28세의 전문예술가
인원	10여 명	30여 명	28명	·	·	60명
입주기간	8-12주	3주	1년	작품완성일까지	6-12개월	3개월-2년
프로그램	I.A.R.P	I.A.R.P	I.A.R.P 교육프로그램	I.A.R.P	I.A.R.P	I.A.R.P
특징	전문행정요원 상주 / 정책차원의 예술관계 네트워크 형성	매년 7월 프로젝트 형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전문조직구성	설치작품 영구소장	강력한 디렉터 제도	전문조직구성 (디렉터, 코디네이터, 어드바이저, 이론가 등)

· T.A.V : Taipei Artist Village
· M.F : Mattress Factory
· A.S.S : Akademie Schloss Solitude
· I.A.R.P :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Program

곳이다. P.S.1은 예술에 의해 지역을 자원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미술작가들에게는 이상적인 전시회장 및 미술관으로 재탄생했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실시, 젊은 작가들의 데뷔전 개최, 홍보책자 및 연구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창작스튜디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30) 오성희, 『아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2002

국내에서도 사립창작스튜디오의 경우 국립에 비해 지역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는 2000년에 폐교한 창문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예술창작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험공방, 지역주민문화센터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전시실, 스튜디오, 숙소, 조각공원, 체험교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프로그램을 보면 가족단위 시각예술체험프로그램, 문화농촌체험 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허수아비축제, 깃발축제 등으로 체험위주의 쉽고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흡수하고 있다.

국립 창동 · 고양창작스튜디오도 '새 예술정책' 에 발표에 의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스튜디오로 전환되어 국내 예술인 뿐 아니라 외국예술인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 시설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2005년에는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 '을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유망 작가 5명을 초청해 지원했다.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에서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미술창작스튜디오 협력망 구축사업' 을 시행해 단순히 작업실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곳이 아닌 지역연계프로그램, 학술행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 및 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공립 및 사립 프로그램 간 작가교류
- 프로그램 간 특화 및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보수집 및 교류 프로그램 창구역할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작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실시
- 공동홍보
- 인적자원네트워크
- 학예사 및 실무자 네트워크

2002년 설립된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건립예산이 30억 원(부지매입비 23억 원 포함), 2004년 설립된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는 32억 원(부지매입비 10억 원 포함)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시설로는 스튜디오 외에 전시실, 사무실, 옥외 작업장, 식당, 샤워장,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 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어 입주작가들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 운영사업비 전액인 10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반면 지역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경비 등을 입주작가들이 부담하는 경우, 또 입주작가들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광주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양산동스튜디오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의 유상임대 방식으로 월 24,000원 임대료를 입주 작가가 지불하며,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입주 작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창작 시각예술인들의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지도는 52.0%로 조사되었다. 장르별로 보면 판화가 76.9%, 영상설치가 8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활동기간 10년 미만의 시각예술인이 69.1%, 30세 미만의 인지도가 7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신진 작가, 영상설치 분야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들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28.2%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젊은 작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창작시각예술인의 경우는 90.6%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5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수용인원이 각 기관별로 1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창작스튜디오의 공간을 지원받는 시각예술인은 전체 시각예술인 중 매우 적은 비율이다. 이 때문에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 본 조사에서도 전시 공간 이외에 창작공간을 지원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예술인은 각 연도별, 운영주체별 5명 이하로 나타났다.

창작스튜디오를 활용한 문화예술 거점 정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형성되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사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메이저 상업갤러리까지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로 수혜를 받는 작가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체류 방식이다 보니 현재의 운영 프로

그램으로는 그 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조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고 인지도는 높지만 직접 수혜를 받은 작가는 소수라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국공립, 사립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 출신 혹은 입주 작가들 위주로 미술계나 시장에서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인데, 자칫 이러한 현상은 기초 시각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의 창작스튜디오라기 보다는 작가의 지명도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로 왜곡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이를 견제할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작업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가들에게 기본적인 공간 제공은 물론, 작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슬럼화된 유휴공간들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그 지역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선례와 효과로 인해 우리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그 실정에 맞게 채택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다. 이제는 단순하게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뛰어 넘어 궁극적으로 그 공간이 그 지역과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공중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게 될 이러한 창작스튜디오들은 그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 복잡다단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창작스튜디오 정책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예산과 지원 하에서의 운영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고 소비하는 작가들이 그 운영의 주체로 부각되고 그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6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으며, 이미 그들의 예측은 어느 정도 현실에서 그 실체가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이러한 움직임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는 점이다. 국가간 임금과 기술 격차가 사라질 지구적 정보화의 세기에서 국가간 · 민족간 차별화된 문화야말로 한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원천이 된다.

둘째, 문화는 20세기 과학 기술 문명사회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의 결과로 이룩된 20세기의 물질적 풍요는 지구 환경 파괴, 도시 생활 악화, 도덕성 타락, 청소년 문제, 인간성 상실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인류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물량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 21세기 탈이념 시대에서는 문화가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국제 사회에 밝힐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가 되는 점이다. 문화는 국민과 국민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넷째, 문화는 정보화 사회에서 풍요로운 인간 공동체를 성립하는 기반이 된다. 인간의 공통적

인 정신 활동의 소산물인 문화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개체화된 개인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인류 공동체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경제의 문화화'와 '문화의 경제화'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문화 수준의 정도가 경제 발전(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 그 저변의 창의적 능력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그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 자체가 상품화(경제재화)되는 현상이 우리의 주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전자 음악과 레이저 광선에 의한 빛의 예술과 같은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발하며, 컴팩트디스크와 하이비전 그리고 위성 중계 등은 예술의 전달 수단을 현저히 고도화시키고 있다.

둘째는 소득 수준 향상이다. 인간 욕구는 소득 증대에 따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愛)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지(知)의 욕구, 미적(美的) 욕구로 발전한다. 이것이 문화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자유 시간의 증대이다. 이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증대시킨다.

이처럼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 역시 문화 예산을 정부 예산의 1%(2007년 기준 0.96%)대로 증가시켜 문화를 진흥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화 진흥책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화 기능주의이다. 이는 문화의 경제화 또는 상품화 현상을 너무 강조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대표적 잘못으로 편의주의적인 문화 행정을 들 수 있다. 진정한 문화의 경제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상품화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경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배경,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의식이나 제도 등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문화 속성주의 유혹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문화가 중요하니까, 문화 발전을 하루빨리 이루려는 데서 오는 잘못이다. 이는 앞서의 문화 기능주의와 결합하여 문화 관련 투자가 낭비적 요소를 지니게 할 수 있다. 무언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와 효과를 볼 수 없겠느냐에 마음을 쓰다보면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부문에 또는 이벤트성 사업에 문화 투자의 명목으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화는 근본적으로 정신적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

資本, SOC-social overhead capital)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와 사회 구성원의 창조적 능력은 시장 경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자연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문화정책의 한 축으로 예술을 어떻게 문화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공공 산업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도의 개념적 사유(思惟)의 산물인 예술이 바로 창조적 인간으로 진입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초예술은 산업화 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원천 역할을 해주고 있어 그 가치가 새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예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2004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6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를 조직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각 단체의 정체성과 정책적 이합집산에 따라 그 의미는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인 활동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예술은 통상적으로 그동안 순수예술이라고 명명했던 문화적 인프라를 지칭한다. 즉, 당대 문화의 그 문화에 대한 산업의 가장 기반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 안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명활동인 예술이 위축되면 문화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 자원도 고갈됩니다. 예술의 성장 없이는 인문학의 발전도,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식정보산업은 물론 일반 제품업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31]는 '기초예술 살리기 범문화 예술인 연대'의 출범 선언문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초예술 안에 우리의 시각을 통해 향유하거나 소비되는 예술을 통칭해서 시각예술이라고 한다. 기존의 미술이라고 명명했던 범주들에서 확장된 시각예술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고 그 매체에 맞는 형태의 표현방식들이 생겨남에 따라 기존의 미술 개념 보다는 영역이나 범위가 확장되어 시각예술이라는 명칭으로 진화한 것이다. 기존의 미술이 시각예술이라는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된

31)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 『기초예술백서』,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 출범 선언문」, 2004

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잠깐이라도 살펴본다면, 급변하는 사회적 관습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제 시각문화 자체가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정적 범주의 단일 범주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다변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각예술은 위에 논의됐던 광의적 개념의 시각예술 보다는 기존의 순수예술 가운데 시각적 예술품을 제시하고 있는 장르들을 통칭하는 편이 맞을 것이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초예술의 기반 위에 있는 '순수시각예술' 이라고 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문화 산업의 가치사슬 가장 심층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예술에 대한 현실은 어떠한가? 그 중에서도 시각예술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가? 과연 현재의 사회문화적 기반 속에서 시각예술의 위치는 무엇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 국가는 이러한 기초시각예술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가 이 장에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민주적인 예술적 향유와 관점들을 투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시각예술분야 국내 지원정책의 실태

현재 국내에서 시각예술 분야에 관련된 지원정책의 주체는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째가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가의 지원, 둘째 지방 자치 단체를 주축으로 한 공립의 지원, 셋째가 기업이나 민간 혹은 그에 준하는 재단이 주축이 되고 있는 민간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세 집단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시각예술분야의 지원정책은 약 13가지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순수하게 시각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지만, 그 정책적 사안에 따라 유사 장르의 지원정책과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들도 있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예술 방식이 단일 장르를 고수하기 보다는 여타의 장르들과 네트워크 또는 협업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정확하게 시각 예술만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13개의 지원정책은 다소 지원의 편차가 있더라도 시각예술 장르를 위한 지원 사항이 일부분이라도 있는 경우는 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지원정책들은 1. 문화예술진흥기금, 2.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3. 미술은행 제도, 4.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5. 미술창작스튜디오, 6. 복권기금, 7. 메세나,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11. 조세지원제도, 12. 책임운영기관, 13. 문화중심도시 등으로, 이 정책들은 각 정책의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좁게는 작가 개개인의 전시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적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범위가 무척 넓은 지원정책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지원에 대한 다소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에 지원 정책과 반영되는 예산 또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각예술 지원 정책을 항목별로 개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 · 관리 · 운용하는 기금이다. 문예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18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나 활동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가한 모금과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익,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사업 수입, 국고와 방송발전기금 등 공공부문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모금 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2004년도부터는 통합복권인 로또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여러 지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기금은 약 4,746억여 원 규모이고 이중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은 약 1,036억여 원이며, 이중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51억 원 규모이다. 올해(2007년도 지원 예정) 시각예술 분야의 정기공모에서는 평면, 입체, 매체, 공예 · 디자인 · 건축, 학술 · 평론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의하여 51억 7천5백만 원을 지원 확정했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국제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 및 복지를 위한 사업,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 이며, 주요 사업은 매년 9~10월 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이 가운데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 학술, 세미나, 보존, 발굴 등을 지원한다. 정기공모를 통한 지원은 에서 열거한 크게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 구축,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전통적으로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문예 지원모델을 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국립예술진흥원이 총 기금의 40% 이상을 각주의 예술진흥기구에 정액 교부금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점차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이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점, 또한 문화행정기구의 구조혁신과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업 도입에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의 분권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극히 일부분의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문화예술인 및 단

체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해왔으며 대부분 지방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으나,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도 2003년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지방문화예술재단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방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에 입각한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3. 미술은행제도

미술은행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일반에 대여하는 제도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미술품을 구입한 후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신진미술가들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며, 국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합적인 목표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향후엔 한국미술진흥재단(가칭)이 운영을 전담할 예정이다. 미술은행이 설립된 첫 해인 2005년 운영예산으로 25억 원에서 절감액 2억 원을 제외한 23억 원을 확보하여 총 473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운영예산 27억 원에서 절감액 10%를 제한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385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미술은행 설립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2007년 올해의 예산규모는 22억 원으로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순수공예, 순수사진, 뉴미디어 및 설치 등 9개 장르로 범위를 정하였다. 선택과 집중, 추천제, 공모제, 그리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구입제를 병행하여 350~400여점의 작품을 구입할 것이며, 작품 구입 시 추천제(선택과 집중 포함) 45%, 공모제 40%, 현장 구입제 15%로 집행할 예정이다.

4.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 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10,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본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으로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나 크게 4단계(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

술)를 거쳐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시행 초기에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으나,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로 인한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환경관 조성,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5. 미술창작스튜디오

미술창작 스튜디오란 일반적으로 미술가의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창작 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창작스튜디오 등이 설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1998년부터 지역작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로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문화센터로서, 국제문화교류시설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술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54개의 창작스튜디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이러한 미술창작 스튜디오는 개인보다는 공동작업실 개념이 도입되면서 작가들의 상호의견 교환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창동 · 고양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사립미술관인 영은미술관의 경안창작스튜디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레더데코 쌈지의 쌈지스튜디오, 갤러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나아트의 가나아뜰리에 등이 있다.

6. 복권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4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체 재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하여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수권을 확대시키는 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1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또는 문화사각지대에서 문화예술이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문화소외지역 전국 순회사업지원,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 사업,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의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 확산에 선봉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 · 시상' 과 전통예술의 대중화 · 세계화 사업, 이달의 우수 문학도서 보급,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 · 지원 등에도 복권기금이 투입 된다.

7. 메세나

예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19세기 이래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메세나(Mecenat)' 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메세나 운동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를 뜻하는 말로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로 문예보호운동에 헌신한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다. 기업들이 문화 · 예술계를 후원해 '삶의 질' 을 한층 높이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하반기부터 문화관광부, 경제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과 예술단체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을 통해 1년 이상 단위로 결연을 맺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교류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파트너십은 기업에게는 창조적인 문화를 심게 되며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최근 기업메세나는 정부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세나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추구하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보면 브랜드의 인지도 강화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같은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8. 아트페어 지원정책

아트페어란 일반적으로 몇 개 이상의 화랑이 한 장소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미술시장을 뜻한다. 1960년대 중반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창설하였다. 개최의 세부 목적은 1. 미술 애호가들에게 뛰어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컬렉션의 폭을 넓혀 주며, 2. 화랑에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3. 작가들에게는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4. 한국미술 시장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발견해 미술의 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전시는 미술품 판매부스 전시 외에 특별전, 심포지엄,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문 컬렉터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의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유럽지역 화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어 해외 유력미술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국고 1억 원

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1억 원씩 증가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3억 원의 지원을 받아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7년 올해로 6회째를 맞은 KIAF는 참가화랑 수가 지난해 150개에서 208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외국 화랑이 92개에 달했으며, 총 거래금액은 175억 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2000년 1월 문예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 육성」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기부금에 대한 공개 모집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기부자는 기부금품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해 법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법인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를 정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 전액이 손금 산입된다(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모두에 해당). 둘째, 기부자가 당해 법인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는 먼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분의 5,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금 인정(민법상 법인에만 해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술단체는 국공립단체이거나 임의단체 형태를 갖고 있었다. 국공립단체는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나 관료주의적 행정체제로 인해 실험성 · 창조성에 제약을 받는 형태이고, 개인에 의한 임의 단체 형태는 조직 구성이 비합리적이고 재정적 관리가 투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그 기본 조건상 활발한 경영이나 창조적 실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 법안을 계기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경영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다소간 가능해 졌다.

10. 공공미술프로젝트

'Public Art' 즉 '공공미술'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을 말한다. 미술과 공공적인 가치와의 만남이다. 아트디렉터와 화상 · 큐레이터 · 평론가 · 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이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유치, 미술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예술정책적인 자원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새 예술정책'의 '도시 문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공미술제도 시안을 크게 미술장식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공공미술은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하는 데 반해,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한다.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 · 벽화 · 스트리트퍼니처 · 포장작업 ·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근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 조형물의 형태를 뒤집어놓거나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공공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외국의 공공미술 역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아직 '건축 속의 미술' 단계인 장식개념이나 야외조각 개념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공공장소 속의 미술'로, 더 나아가 '도시계획 속의 미술'로의 진화를 통해 공공미술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11. 조세지원제도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나 예술창작품(藝術創作品) 세부적으로 미술(조각 포함),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는 1990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미술계 반발로 수차례 유예되었고, 2003년에 재경부는 양도세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2000만 원 이상 미술품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1~3% 세금을 내거나 각종 공제와 필요경비를 적용한 후 9~36%의 당시 소득세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안 중 납세자가 택일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법적 근거마저 사라진 상태이다. 미술품이 부동산처럼 등록돼 관리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과세 근거자료를 만들기 어렵고 따라서 억지로 양도세를 물릴 경우 세금도 세금이지만 실명거래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공개적인 거래를 기피, 세수증대 효과는 없이 시장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미술문화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 미술시장을 감안하더라도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가 정착되면 양도세부과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2. 책임운영기관

2006년 1월부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기관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운영성과를 기관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형태로 책임과 예산의 자율성을 미술관에 부여해서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 위주로 미술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람객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블록버스터형의 전시를 유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람객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형식 실험이 강한 작업들이 전시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전시내용의 질적인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관 본연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심화된 학예연구활동과 이에 따른 아카이브의 구축, 그리고 미술작품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존 등의 미술관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 문화중심도시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2002년 노무현 현 대통령이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선거공약으로 주창한 후,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그 배경으로 향후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가 주도하는 최대규모의 중장기 문화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목적은 1.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2. 정부의 문화정책 = '창의한국' 실현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통한 국가 수준의 문화발전전략을 추친하는데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 도시문화 거점 조성과 도시네트워크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문화적 · 창의적 미래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양성기관 설립, 미래형 교육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컬쳐콘텐츠 사업, 음악콘텐츠 사업, 아시아문화콘텐츠 사업,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도시 구축,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수

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제도의 근거나 그 개념, 운용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약 13가지 내외로 정리할 수 있는 국내의 시각예술 주요 정책들은 그 지원금의 성격이나 주체에 따라 해당 작가가 직접 수혜가 가능한 직접지원과 단체나 행사에 연관된 일부로서 수혜를 받는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지원내역도 대부분 현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 지원프로그램처럼 그 지원의 특성상 공간을 지원하거나 작가 작품에 필요한 재료의 현물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내역도 다양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사회 공익 재단과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된 지원도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단들의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2절 해외 시각예술분야 지원정책의 실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술분야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고 주요 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담당하는 중앙형의 지원체제와, 연방정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독일, 캐나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방자치적인 지원체계로 크게 구분된다. 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역할 분담적 지원체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체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중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의 모델을 오랫동안 시행해 오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별로 점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로의 문화예술정책의 위양이나 분권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의 문화행정체계 구조적 모형이 정부부처 모형과 예술위원회 모형간의 절충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부처 모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문화정책의 결정과 지원배정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 분야와 접촉할 수 있고, 다양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예술위원회 모형의 부분적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각 국의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문화예술 지원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객관적인 비교 연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국의 고유한 공공지원제도의 틀에서 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초점을 두어 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방향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현재 해외에서 국가 간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각예술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재정 지원

미국의 경우 국가는 단지 문화예술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국한한다는 방침 아래 독립 위원회형 모형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예술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민간 지원이 공공지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연방기관인 NEA(The National Council on the Arts)가 1965년 만들어진 이래, 공공기금은 미국의 예술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해마다 6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 기금이 NEA와 같

은 기관의 영향을 받아 집행된다. 전 미국의 수준에서 보면 모든 예술단체 수입의 약 5%만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에 비해 개인, 재단, 기업이 예술/문화에 대한 후원금은 2000년 약 115억 달러에 달했다. 비영리 예술 단체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규모로 보자면 약 45%의 수입이 민간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의 예술/문화에 대한 지원은 1997년 약 11억 6천만 달러였다. 이 중 65%를 중소기업에서 담당했다.

미국을 제외한 예술위원회의 모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술지원에 있어서 정치적 측면이 강화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여건에 보다 부응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 모형에 정부부처 모형의 중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은 ACE(Art Council England)가 총괄하며 ACE의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은 연간 5,483,000파운드(2002년도 기준) 규모로 전체 예술분야 지원예산 131,427,000파운드 중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장르구분이 해체되고 새로운 미디어나 타 영역과의 협력지원 프로그램 속에 많은 예산이 별도 배정되어 있어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대략 10%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ACE는 확대되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 외에도 국립복권 기금을 활용하며, 문화예술과 연관된 분야나 부처의 예산을 활용한다던지, 민간차원의 다양한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예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기금의 지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일 것이다. 특히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양한 펀딩소스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이 외에도 넘쳐나는 미술 관련 제도나 지원 정책 자료들을 제공하며, 갤러리 운영법, 전시기획에 대한 가이드, 미술관과 화랑에 관한 각종 정보, 대안공간의 성공적 사례에 관한 컨퍼런스, 심지어 작가로서 온전히 살아남는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 북 등을 제작하여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영국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및 미국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작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작가들의 사회적 환경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 문화예술활동과 그 소산에 대한 세제 연구, 법적 제도적 대안들을 끊임없이 연구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지원제도는 현장의 요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기금을 분배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지원을 통해 자국의 예술활동을 강화시키며, 작가가 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는 적극성과 세심함을 가진다. 국가는 자국의 시각예술에 경쟁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정신적 소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함은 물론, 이 소산들이 일반 국민들과 효율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건강함을 재생산 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통해 민간이나 기업, 또는 개별 지원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특히 민간 펀딩바디의 활동들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간의 펀딩바디는 특별한 영역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작가에게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 아트엔젤(Art Angel)과 같은 기관이 있다. 아트엔젤은 비제도적 공간에서의 전시만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교회나 리노베이션을 위해 비어있는 공간, 또는 공원이나 운하 등 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시나 프로세스 아트, 퍼포먼스 등 매우 실험적인 성향의 현장작업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민간재단의 확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재단의 예술참여를 활대하며 국고로 지원되는 지원기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for Singapore)는 예술프로젝트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직업 예술가와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지원금은 한 회계연도에 5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예술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매체나 환경을 활용한 예술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지는 여건 하에서 지원프로그램 역시 예술계의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지원 형태의 개발이 이를 대변한다. 특히 멀티미디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업이나 제도적 전시공간이 아닌 환경에서의 전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타 장르와 혼합되거나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전시형태들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대상이 된다.

2. 신진 예술인 지원

현재 국내에서는 젊은 시각예술인의 창작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을 통해 〈신진예술가지원〉 데뷔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연령제한 없이 작가의 첫 개인전을 지원하거나 창작활동 경력 10년 미만인 작가의 개인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각 국에서도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창작, 연구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신진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The prince's Trust'와 공동으로 이스트 잉글랜드의 젊고 창조적인 작가들에게 실무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Art Connec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90여개 이상의 사업을 위한 마케팅, 세미나, 워크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가 1946년 창설되어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음악, 영화, 미디어 등의 새로운 예술실험을 수용하고 있다. 전시장, 상영관, 바와 카페, 디지털 스튜디오, 서점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젊은 예술가들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정오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신진 시각예술인의 초기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 1976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첫 전시회 개최 지원제도와 함께 개인 혹은 단체 예술인들의 첫 번째 전시회의 카탈로그 출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화랑이 절반씩 분담하는 형식으로 예술가와 화랑과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인과 외국인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전시 카탈로그를 출판하지 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매년 12개 정도의 전시회가 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예술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가와 청중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진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창작 및 예술 활동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으로 호주예술지원회의 여러 분과가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멜버른의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은 26세 미만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작품의 개발 혹은 발표를 돕는다. 신청자는 수혜연도 이전까지 대학교육을 마쳤다는 것과 수련 기록을 증명해야 하며, 공인된 교육과정의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작품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의 상한액은 5,000달러이다.

일본의 신진 예술가 해외연수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미디어예술, 매니지먼트 분야

의 신진예술가 등을 해외에 파견하고 그 전문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개월, 1년, 2년, 3년 기간 파견 연수로 연수 후 공연 등 연수 성과를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예술인턴제도는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일본 내의 전문 연수시설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기간은 10개월이고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예술가 초빙연수는 일본에서의 연수를 희망하는 해외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초빙, 일본의 예술가와 교류기회를 제공(3개월~1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예술인 복지정책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을 몇몇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유네스코 권고안 이전에 이미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과 프랑스이다. 물론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세제도를 택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예술인, 자유기고가 및 언론인 중 예술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사람들이 예술인 사회보장법의 수혜대상이 된다. 이들은 예술임인을 예술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받은 후에 가입된다. 철저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가나 취미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직업을 막 시작한 예술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7,560마르크(2000년 기준) 이상의 연간 수입이 있어야만 한다. 사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기여 없이는 혜택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은 젊은 예술인들을 위하여 5년간의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별도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도 산업 혹은 직업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만을 위한 보험이 다른 사회보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독일과 유사하게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창작환경의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구분한다.

창작환경 개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업은 창작 아뜰리에 제공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파리의 구시가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예술가들이 도시재개발사업 및 지구개선사업에 의하여 주거지 및 아뜰리에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리시와 문화부가 매칭 펀드를 통해 파리근교 신도시 영

구임대 아파트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수혜자는 문화부의 예술창작담당부서와 파리, 그리고 예술가조합에서 선출된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면 프랑스 거주의 경우 프랑스인과 외국인이 차별 없이 지원되지만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프랑스의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는 2002년 창설되어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미디어, 패션 등 새로운 예술실험을 수용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며 소장품을 수집하지 않고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전시장, 상영관, 바와 카페, 창작스튜디오, 문화상품점 등을 가진 복합 시설이다. 파리의 구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예술가들이 도시 재개발 사업 및 지구개선사업에 의하여 주거지 및 아틀리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파리시와 문화부가 매칭 펀드를 통하여 파리근교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를 가능토록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술가를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는 화가, 조각가, 판화가로 하여금 의료보험, 출산보험, 및 사망보험을 일반직장인의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적용받도록 하였다. 대상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예술가에 한하며 보장제도 가입과 동시에 해당 예술가는 수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스위스의 경우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법 자체가 스위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보험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체계가 마련되어있으며 예술인들도 이러한 보험체계 안에서 적용받고 있다. 다만 세법의 몇몇 조항에 있어 예술인들을 우대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프리랜서처럼 제도화되기 어려운 조건의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임시직으로 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인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에 가입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4. 창작 공간 지원

해외의 미술 창작스튜디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설립과 운영주체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민간 또는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술창작스튜디오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미국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의 개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유럽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미술학교, 대안 공간과도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학생과 지역 작가들이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만남으로써 더욱 역동적인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큐레이터, 비평가 초청 워크숍도 이러한 환경에 기여하며,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예술, 문학, 영화 등 타 장르와의 교류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독일의 DAAD 베를린 예술 프로그램, 베타니엔, 스웨덴의 IASPIS, 니스의 빌라 아르송 등과 같이 전략적으로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지역 현대미술의 현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체류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정부나 공공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조건과 취지 그리고 실행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지원은 비영리 예술단체가 예술적 기술과 단원의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화된 혹은 발전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해외 레지던스의 공통점은 해당 작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두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체류 작가들의 작품 제작과 전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미술계와 지역 작가의 연계 프로그램을 두고 있어 지역 창작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작가들이 이러한 해외 유명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되었을 경우 이들에게 체류비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국내 정부기관이나 민간 재단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P.S.1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외에 해외 레지던스 참여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지원을 좀 더 확대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P.S.1과 같이 다른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들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야 할 시기다.

5. 아트뱅크

미술사적 가치 및 대중성 등의 면에서 다양한 소장품을 확보하고 작가의 문화진흥정책 및 미술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프랑스의 프낙(Fnac : Fonds national d' art contemporain)을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의 아트뱅크(Art Bank) 등 이미 해외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미술은행제도인 프낙(Fnac)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활발한 작품 활동과 높은 작품성을 지닌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매 년 2회(공모 · 추천 각 1회)의 정기적 작품심사 외에도 심사위원회가 수시로 구성돼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별 심사위원 12~13명으로 이루어지며 철저한 조사와 사전통제에 의해 위촉 · 구성된다. 작품 구입 예산은 5~6년 주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산 전액은 문화부 산하 국립 조형예술센터에서 지급된다. 2004년에는 600~800점의 작품을 구입했으며, 320만 유로(약 47억)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현재까지 약 7만 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영국은 소장품 구입 기관은 매우 다양화되어 있으며, 미술은행과 구입 작품 전시는 영국문화원의 영국문화원컬렉션과 정부 미술품 소장기구, 헤이워드 갤러리 등이 담당한다. 그 중 1934년 설립된 영국문화원 컬렉션(GAC : Government Art Collection)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며 20~21세기 예술 전 분야 · 전 매체에 걸쳐 다양한 수집활동을 벌인다. 구입 작품은 전문 자문위원에 의해 선정되면 주로 전시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이들의 전시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망한 작가의 작품 흐름을 반영한 해외 미술관 · 갤러리의 전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에 소장된 작품은 20세기 영국 주요 미술작품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정부 미술품 소장기구는 영국문화매체체육부 내 설치된 기구로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일을 담당한다. 소장품은 주로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영국과 관련 있는 작가 · 를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의 역사화 문화, 특성이 반영된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영국과 해외 주요 정부건물에 설치되며 건물 전체에 작품을 기획해 설치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미술은행제도인 아트뱅크의 경우 대여를 주목적으로 해서 컬렉션의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컬렉션 된 작품의 소장 가치가 높을 경우 미술관에 기증하게 된다.

제3절 지원의 보완 및 방법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혹은 트랜드는 창의성이다. 개인은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조차도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효율적인 생산만을 강조했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 지식을 집약하고 정보화 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 국가 정책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 보고도 이런 사회적 관심의 한 반영이며 그러한 요구에 대한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시각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형태가 어떤 큰 틀과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예술창작 지원은 예술이 시장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다는 유럽식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어디까지나 사적(私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접지원을 펼치고 있는 미국식이 혼용된 형태이다. 유럽식 예술 지원의 핵심은 예술을 공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예술가의 창의성을 사회적 원동력으로 환원하는 공익적 개념 아래에서 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다. 예술가들이 창작 의욕을 잃지 않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모토로 새로운 창작품에 대한 발표 기회의 제공, 서적 출간 지원, 작품 구매,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예술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국가에 의존적인 예술가들을 양산함으로써 혁신과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여론 속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기업이 문화 예술 단체에 기부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비영리 문화 예술 단체의 수입과 재산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것 등이 있다.

유럽식과 미국식을 절충한 우리의 예술 지원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늘 지원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수혜를 받는 예술가들에게 낮은 경제적 지원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인 예술가들의 수요에 비해 마련되거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 지원금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가들은 실물 경기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체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과 경제 구조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술 지원 정책은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기관과 기금

국내 시각예술 지원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을 꼽는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국내 시각예술 지원 정책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우리의 문화예술 진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문화예술지원 기관이나 기금의 성격을 뛰어 넘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성격이나 방향이 곧 국내 시각예술 지원의 정체성이며, 이 기관의 기금 조성 및 사용 여부, 방식, 관리방식 등은 계속 생겨나고 조성되게 될 문화예술 기관과 기금의 모델이기도 하다. 넓게는 한 나라의 문화예술, 좁게는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각예술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외적 요소를 든다면, 지원을 위한 기금과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관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각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문제와 그 대안,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국내 시각예술 지원의 대표적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충당하는 주요 재원은 복권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문화예술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복권기금이다. 2004년부터 통합복권인 로또 복권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조성하여 여러 지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시각예술 지원 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복권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금이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복권의 판매 수익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수익 가운데는 문화 ·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같은 사회 전반의 공익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자칫 시각예술 지원이 공익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된다면 복권기금의 수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각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초시각예술이 준사회간접자본이며,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각예술이 보다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고, 작가들의 창의성이 문화산업 시대에, 지식 정보화 시대에 기초 컨텐츠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문화 예술과의 협

력 프로그램이나 예술에 대한 기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기관이 그 문턱을 낮추고 열린 자세로 포옹해야 하며, 아울러 현대 시각예술이 타 장르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맺고 진행되거나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에 대해 유관부처와의 협의체나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공간과 레지던시 혹은 창작스튜디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각예술 지원 정책 중에서 작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이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장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고민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좀더 광의적으로 해석한 의미에서 예술가를 초청해 창작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공간을 지원해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작가들의 요구에 부응한 현상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작업장 및 직접 제작 지원에 대한 정책이 눈에 띠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각예술 지원 정책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국내에 약 50여 개의 이러한 창작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지방자치제가 운영하는 공립, 개인 미술관이나 후원자, 그리고 갤러리들이 운영하는 사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창작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창작 공간이 단순하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종의 작가 공동체 성격을 갖는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의 작업장에서부터 각종 부대 기반시설이 동시에 갖춰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창작공간들이 유휴공간을 작가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창작 공간의 지역적 특수성 혹은 집단적 특수성을 잘살려 그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사회참여에 대한 하나의 역할과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작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이를 운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부 매뉴얼을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4절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의 예술지원 정책 가운데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정책과 이 정책의 수혜자, 혹은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로서의 작가들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실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 수혜 받는 측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으며,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는 측은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그러한 간극을 좁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한다.

우선 시각예술인들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각예술인들의 실태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6,000여 명의 표본 중 응답이 충실한 1,300여 명의 응답으로 작성된, 시각예술분야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실태 조사이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들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시각예술분야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작가들의 작업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틀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겠다.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사진 분야 또한 넓은 의미의 시각예술로서 수용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실정상 추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각예술 지원 정책의 문제는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이 수혜대상자들로부터 듣는 가장 큰 불만이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시각예술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야 하다 보니 이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한정적인 재원 속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국내의 시각예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수립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주기적인 피드백이 동반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실행으로 정책적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현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예술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시각예술인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와 아울러 현재 정부가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더 많은 시각예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작가들이 정책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만족을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각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원정책 연구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홍보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각예술인들에게 다가고 이들 시각예술인들을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책 기획전문가와 정책 홍보 전문가가 정부조직 내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평소 정부와 시각예술인 간의 좀 더 밀착된 소통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술가의 복지는 일차적으로 문화예술 정책 부서의 일일 수 있지만 이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예술인들을 둘러싼 좀 더 확대된 환경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시각예술인의 지원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혹은 그 밖의 유관부서와 제휴하여 정책을 펼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유관부서들이 연합하여 좀 더 확대된 국가적 차원에서 합동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만하다.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을 사유케 한다는 점이며, 인간을 둘러싼 모든 억압에 맞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과 사유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 제시한다. 즉, 문화 · 사회 · 정치 · 경제적으로 예술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그런데 그 예술의 가장 토대가 되는 대표적인 장르 가운데 하나인 시각예술의 경우 그동안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왔던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기획자들과 국민들에게 시각예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각예술 지원의 출발이지 않을까? 라는 자문을 해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종회, 『문화예술 사회학』, 2005, 서울 : 그린
존 A. 워커 · 사라 채플린, 『비주얼 컬처』, 2004, 서울 : 루비박스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2005, 서울 : 후마니타스
아서 C. 단토 외 지음, 『예술과 미학』, 2007, 서울 : 종문화사
이광미 편저, 『시각예술의 이해』, 1996, 서울 : 지구문화사
신방흔, 『시각예술과 언어철학』, 2001, 서울 : 생각의 나무
김상숙, 『시각예술 문화읽기』, 2001, 서울 : 도서출판 재원
김상숙, 『시각예술문화 콘텐츠』, 2005,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명계, 『문화예술경영』, 2006, 서울 : 도서출판 띠앗
보니타 M. 콜브『새로운 문화소비자를 위한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2004, 서울 : 김영사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2006, 서울 : 문화관광부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2006, 서울 : 학고재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2001, 중앙대학교 출판부
Canada Council for the Arts,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Ontario Arts Council,『A Statistical Profile of Artists in Canada』, 2004,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보고서, 연구자료

문화관광부, 『2004 문화산업백서』, 2004
_____,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 · 분석』, 2005
_____, 『창의한국』, 2004
_____,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2007
지립형미술관네트워크, 『국내 사립미술관 홍보실태조사 및 성공적인 홍보방안』, 20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2003
_____,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_____,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2006
_____,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2006

_____,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6
_____,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2004
_____, 『예술시장 조사설계 연구』, 2005
_____,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 2000
_____, 『2004 문화예술통계』, 2005
_____,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 1-3차』, 2006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0
_____,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_____,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6
_____, 『2005 문화정책백서』, 2006
_____,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문화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위원회 위원 합동 워크숍 자료집』, 2005
_____, 『2005년 미술은행 대여작품 목록집』, 2005. 8
_____, 『2005년 미술은행 대여작품 목록집』, 2005. 12
_____, 『2005 미술은행백서』, 2006
_____, 『2006년도 미술은행 위원회 의원 합동 워크숍 자료』, 2006
_____, 『2006년 미술은행 대여작품 목록집』, 2006. 9
_____, 『2006년 미술은행 대여작품 목록집』, 2006.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_____,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_____,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2001
_____, 『영국의 문화정책』, 1999
_____,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1998
_____, 『외국의 문화행정 업무 영역과 행정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1997
_____, 『일본의 문화정책, 1999년 문화청 정책』, 1999
_____,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동향』, 1998
_____,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문화관광부문 연구』, 1999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백서』, 2006.8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2005

한국고용정보원, 『2003년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3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 『기초예술백서』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 출범 선언문, 200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1980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 인력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00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예술, 예술가, 예술가 정책-구본주 사건을 중심으로』, 2005
행정자치부, 『2002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보고서』, 2003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미래의 직업세계』, 2005
영국예술진흥원, 『문화체육부-10대 목표』, 2000
The Art Council of England, Stephen Burroughs, 『From learning to earning』, 2002

석사학위 논문

오성희, 『아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2002
권이선, 『기업메세나 활동으로서의 미술관 후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4
최관호, 『한국미술창작 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2007
서지형, 『한국 미술시장 지원제도 연구:문화관광부의 국제아트페어 참여화랑 직접 지원 사례』, 국민대학교, 2007
정선희, 『광주(光州)지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7
황우자,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6

정기간행물 기사

김경욱, 「서울문화재단의 지원방향과 시각예술지원」, 미술세계, 2005.9
「시각예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_참여정부의 '새 예술 정책' 시안에 대한 미술전문가 19인의 발언」, 아트인컬쳐, 2004.3
김이천, 「기업의 미술지원 현황과 문제」, 가나아트, 1994.11
김찬동, 「미술은행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미술평단, 2005.5
「일반인은 미술품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미술품 가격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 아트프라이스, 2003.11

「작가들은 미술품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미술품 가격에 대한 작가들의 인지도 조사」, 아트프라이스, 2003.12
「문예진흥기금의 미술부문 운용현황」, 아트프라이스, 2005.3
허권, 「시각예술의 진흥과 기업의 후원_세계의 문화」, 문화예술, 1990.3
김찬동,「영국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시대에 앞서는 비전 제시, 부메랑 효과를 얻다-문화예술현장」, 문화예술, 2003.7
김찬동,「영국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정책-도전적인 정책 실천, 살아 숨쉬는 문화로 재생산-문화예술현장」, 문화예술, 2003.4
양현미,「시각예술 진흥을 위한 12가지 추천과제-집중기획/새 예술정책」, 문화예술, 2004.2
변길현,「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2005.4
조주현,「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현황과 실태/창동,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2005.4
김갑수,「새 예술정책과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문화예술 2005.4
박찬,「총론/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기업과 예술의 상생 프로젝트, 메세나 활동」, 문화예술, 2006.1
김찬동,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제도(上)_문화는 미래를 여는 창조적 산업이다」, 아트인컬쳐, 2003.4
김찬동,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제도(下)_시각예술, 새 시대의 비전을 찾는다」, 아트인컬쳐, 2003.5

신문기사

조성곤, 한겨레신문,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추진」, 2004. 8. 31
이준삼, 연합뉴스, 「문화예술지원 강화 촉구 심포지엄」, 2007. 2. 20
김태훈/김수혜/김성현/박돈규, 조선일보, 「기초예술 강국이 21세기 강국이다」, 2007. 3. 6

웹사이트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http://std.kedi.re.kr), 교육통계연보, 2006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직업지도 Job Map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 2006
노동부 (http://www.molab.go.kr), 매월노동통계보고서, 2005
영국 문화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v.uk), Art Policy, 2005
국제문화정책 연계 (http://www.incp-ripc.org)
보건복지부 (http://www.ble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이미지 출처

김최은영, 『잉여의 시간』, 더갤러리, 2007

부록 1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주관] 김달진미술연구소
[조사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안녕하십니까?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예술현장의 실상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성껏 응해주신 내용은 시각예술인의 대표성을 띠게 되어 복지 및 예술정책에 대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내용은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본 조사의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2월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12월 1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본 설문에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한수진(dongeuri@korea.com), 한진희(jjinee80@hanmail.net)
주 소 : (110-040)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B1 | 전화 : 02-730-6214~5, 팩스 : 02-730-9217

연 락 처		이 메 일	
연 령	만 _____ 세	성 별	□ 남성 □ 여성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장 르	한국화 ___ 서양화 ___ 조각 ___ 공예 ___ 서예 ___ 판화 ___ 영상설치 ___		
작성일자	_____ 월 _____ 일	설문코드	

■ 먼저 선생님의 창작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님은 활동분야에서의 첫 작품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____ 1) 공모전 출품 ____ 2) 개인전 발표 ____ 3) 단체전 출품 ____ 4) 온라인 전시
_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2) ○○님이 첫 개인전을 하실 때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 1) 500만원 미만 ____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____ 3)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____ 4)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____ 5) 2,000만원 이상

문3) ○○님이 일반인에 대해 첫 작품 발표를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_____ 세)

문4) ○○님의 첫 작품 발표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_ 1) 재정형편 ____ 2) 공간확보 ____ 3) 주목도 ____ 4) 외부 지원의 어려움
_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지난 3년간 (2004. 1. 1~2006. 현재)에는 얼마나 발표하셨습니까?

발표 종류	발표 여부	발표 총수
1) 발표작품	____ 1) 있음 ____ 2) 없음	점
2) 개인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3) 단체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4) 해외 개인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5) 해외 단체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문6) 지난 3년간(2004.1.1~2006.현재) 발표한 전시나 작품 중 리뷰나 비평으로 평가받았던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 미술단신은 제외 합니다.)

종류	비평 발표 여부	비평 발표 총수
전시/작품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문6-1) 위에서 언급한 리뷰나 평은 주로 어떤 매체에 실렸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6-2) ○○님은 리뷰나 평은 **주로** 어떤 매체에 실리길 원하십니까?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7) ○○님께서는 시각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몇 군데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정관 및 회칙이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___ 1) 있다, (_____)개 단체 ___ 2) 없다

문7-1) [참여하고 계시다면] 단체를 통한 활동이 창작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동일 장르 안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___ 2) 타 장르와의 네트워크 형성
___ 3) 창작 발표의 매개체
___ 4)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도움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7-2) [참여하고 계시다면] 연간 단체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약 (_____) 만원

■ 시각예술인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님께서는 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시각예술인 및 시각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관련 정보에 대하여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찾아본다.
___ 2)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___ 3)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___ 4)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9) ○○님께서는 최근 3년간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다음 표에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적어주십시오.)

◆ **지원주체** (★ 2번과 5번을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2) **광역/기초자치단체** : 경기/ 강원 / 제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위원회, 서울 / 중구 / 인천 / 부천 / 고양 / 성남문화재단 등.

5) **문화재단** : 삼성 / 송은 / 파라다이스 / 한솔문화재단, 포스코청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 **재정** : 현금을 지원해 정산하는 방식.

◆ **현물** : 작품의 재료, 도록제작 등을 제공.

◆ **공간** : 전시공간,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 (창작공간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속함)

예) 국립(중앙정부) : 창동/고양 국립미술스튜디오

예) 공립(지방자치단체) : 난지 / 진안 / 평창 무이(강원) / 팔각정(광주) / 양산동(광주) 등.

예) 사립(기업) : 경안 / 금호 / 쌈지 / 가나 등. | 예) 사립(개인) : 하제마을 / 문화예술촌 쟁이골 등.

	지원주체	재정 (금액)	현물	공간 (크기/기간)	
2004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2005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등 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2006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등 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10) ○○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미술은행 제도
___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___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___ 4) 문화예술진흥기금
___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___ 6) 복권기금
___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___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___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___ 11) 조세지원제도
___ 12) 책임운영기관
___ 13) 문화중심도시
___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1) ○○님께서는 위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 1) 매우 만족한다 ___ 2) 다소 만족한다 ___ 3) 그저 그렇다
___ 4) 다소 불만이다 ___ 5) 매우 불만이다

문11-1) 만족스러운 정책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미술은행 제도
___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___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___ 4) 문화예술진흥기금

___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___ 6) 복권기금
___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___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___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___ 11) 조세지원제도
___ 12) 책임운영기관
___ 13) 문화중심도시
___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2) 각 기관의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지원 금액이 적다.
___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일회성 지원이 많다)
___ 3)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다.
___ 4) 지원 신청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___ 5)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___ 6) 신청서 등의 작성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다.
___ 7) 지원금 항목에 대한 제약이 많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___ 8) 선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
___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2-1) 각 기관이 지원정책을 실행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
___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지원단체나 작가가 모두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___ 3) 지원이 특정 단체나 방향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___ 4) 지원 신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___ 5) 지원 신청 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___ 6) 신청서 및 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지원의 주최와 지원대상자간의 심도있는 교류와 공감이 필요하다.
___ 7) 지원금 항목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___ 8) 선정자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___ 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각예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___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선생님의 예술정보의 활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다른 작가들의 전시 홍보물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___ 1) 있다, (주간 평균 _____ 시간) ___ 2) 접속하지 않는다

문14-1) [접속하고 있다면] 시각예술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 ___ 2) 창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___ 3)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___ 4) 관련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5) ○○님께서는 자신의 예술작품의 발표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전시 홍보물 발송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6) ○○님께서는 자신의 예술작품을 인터넷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7) ○○님께서는 자신의 예술창작작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7-1)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홈페이지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___ 2)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다
___ 3)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___ 4) 접속자가 많지 않다
___ 5) 작품 등을 원하는대로 보여주기가 어렵다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7-2)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비를 들여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8)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8-1) [인쇄매체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연간 구독료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약 (_____)만원

문18-2) [인쇄매체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 ___ 2) 창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___ 3)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___ 4)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서

___ 5) 타 매체에 비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서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마지막으로 조사관리와 통계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19) ○○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 1) 무학 ___ 2) 초등학교 졸 ___ 3) 중졸 ___ 4) 고졸

___ 5) 대재,대졸 ___ 6) 대학원 재학, 수료 ___ 7) 석사,박사

문20) ○○님께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와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기관의 종류	국내 교육	해외 교육
___ 1) 없다	년	년
___ 2) 평생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	년	년
___ 3) 사설교육기관	년	년
___ 4) 개인사사	년	년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년	년

문21) ○○님댁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___ 1) 1세대 가정(부부만 있는 경우)
___ 2) 2세대 가정(부모와 미혼 자녀 가정)
___ 3) 3세대 가정(할아버지/부모/미혼 자녀 가정)
___ 4) 독신가정(미혼의 독신 가정 혹은 형제 등과 가구 구성)
___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2) ○○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 1) 기혼 ___ 2) 미혼

문23) 자녀는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23-1)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_____ 명)

문24) ○○님이 주로 창작의 발표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 1) 서울 ___ 2) 부산 ___ 3) 인천 ___ 4) 대전 ___ 5) 대구 ___ 6) 광주
___ 7) 울산 ___ 8) 강원 ___ 9) 경기 ___ 10) 충청 ___ 11) 전라 ___ 12) 경상
___ 13) 제주 ___ 14) 해외 ___ (_____) 15) 기타 (_____)

문25) ○○님께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약 (_____ 년 _____ 개월)

문26) ○○님은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26-1)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입니까?

___ 1) 교직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등) ___ 2) 언론
___ 3) 자영업 ___ 4) 일반 사무직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 4문항은 ○○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27) ○○님의 월평균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_____)

문28) ○○님의 월평균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 (_____)

문29) ○○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지출) (_____)

문30) ○○님은 순수시각예술가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보기

1) 없음	2) 1만원 ~ 100만원 미만	3) 100만원~200만원 미만	4) 200만원~300만원 미만
5) 300만원~400만원 미만	6) 400만원~500만원 미만	7) 500만원~600만원 미만	8) 600만원~700만원 미만
9) 700만원~800만원 미만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16) 3,000만원 이상

문31) ○○님께서는 최근 3년간 작품을 판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문31-1) [판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판매대상은 누구였습니까?
___ 1) 미술은행 ___ 2) 기업 ___ 3) 공공기관 ___ 4) 일반 개인
___ 5) 지인 ___ 6) 친척 ___ 7) 기타 (_____)

문31-2) 판매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 1) 화랑 ___ 2) 경매사 ___ 3) 아트페어 등 견본시
___ 4) 지인 ___ 5) 기타 (_____)

문31-3) 판매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___ 1) 작품크기
___ 2) 작품 완성에 걸린 시간
___ 3) 작품에 사용한 재료
___ 4) 작가 인지도
___ 5) 다른 작가들과의 가격 비교
___ 6) 작품활동기간
___ 7) 수상경력
___ 8) 기타

문31-4) 판매가격에 만족하십니까?

___ 1) 매우 만족한다 ___ 2) 다소 만족한다 ___ 3) 그저 그렇다
___ 4) 다소 불만이다 ___ 5) 매우 불만이다

문32) ○○님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___ 1) 건강보험 ___ 2) 국민연금 ___ 3) 고용보험 ___ 4) 산재보험

문33) ○○님은 4대보험 외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___ 1) 생명보험 ___ 2) 암보험 ___ 3) 종신보험 ___ 4) 퇴직보험
___ 5) 연금보험 ___ 6) 실버보험 ___ 7) 변액보험 ___ 8) 기타 (_____)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시각예술인 실태조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주관] 김달진미술연구소
[조사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창작)

안녕하십니까?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예술현장의 실상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성껏 응해주신 내용은 시각예술인의 대표성을 띠게 되어 복지 및 예술정책에 대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내용은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본 조사의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2월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12월 1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본 설문에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한수진(dongeuri@korea.com), 한진희(jjinee80@hanmail.net)
주 소 : (110-040)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B1 | 전화 : 02-730-6214~5, 팩스 : 02-730-9217

연 락 처		이 메 일	
연 령	만 _____ 세	성 별	□ 남성 □ 여성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장 르	큐레이터 _____ 미술사 _____ 미술평론가 _____		
작성일자	_____ 월 _____ 일	설문코드	

■ 먼저 선생님의 기획 및 비평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님께서는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___ 1) 미술관 ___ 2) 갤러리 ___ 3) 대안공간 ___ 4) 문화예술회관 ___ 5) 학교
___ 6) 독립 기획? 비평 ___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2) ○○님은 인턴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2-1) 인턴십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___ 1) 국공립전시장(국립미술관 등) ___ 2) 사립전시장 (사립미술관, 화랑 등)
___ 3) 기업전시장 ___ 4) 기타 (구체적으로)
___ 5) 해외 (구체적으로 _____)

문3) ○○님이 일반인에 대해 첫 기획 및 비평 발표를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_____ 세)

문3-1) ○○님은 첫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___ 1) 신춘문예, 평론 공모 등에 당선으로 등단
___ 2) 저서/역서 출간
___ 3) 기획활동
___ 4) 전시서문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4) ○○님께서 현재까지 기획한 프로젝트(전시)는 몇 건정도 되십니까?
___ 1) 1~5건 ___ 2) 6~10건 ___ 3) 11~15건 ___ 4) 16~20건 ___ 5) 20건 이상

문4-1) ○○님께서 지난 3년간(2004.1.1~2006.현재) 기획한 프로젝트 및 전시는 몇 건 정도 되십니까? 또 언론매체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년도	기획 여부	기획 횟수	언론매체 소개
2004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건
2005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건
2006년	____ 1) 있음 ____ 2) 없음	회	건

문4-2) ○○님이 기획한 프로젝트 및 전시는 주로 어디에 실립니까?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지난 3년간 (2004. 1. 1~2006.현재)에는 얼마나 발표하셨습니까?

발표 종류	발표 여부	발표 총수
1) 전시평 (전시서문포함)	____ 1) 있음 ____ 2) 없음	약 편
2) 논문/저서/역저	____ 1) 있음 ____ 2) 없음	약 편

문5-1) ○○님의 비평은 주로 어디에 실립니까?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6) ○○님이 첫 전시기획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기획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의 선택
___ 2) 전시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___ 3)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___ 4) 기획자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 될 것인가의 고민
___ 5) 작가 섭외의 어려움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6-1) ○○님이 첫 **비평발표**를 하실 때 가장 큰 장애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자유롭게 전시비평을 수록할 매체의 부족
___ 2) 원고 작성 시간의 부족
___ 3) 참고 자료의 부족, 체계적인 연구보조기관(예술자료관, 미술자료실 등)의 부족
___ 4) 비평에 대한 피드백 부족
___ 5) 비평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고료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7) ○○님께서는 기획 및 비평활동과 관련하여 몇 군데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정관 및 회칙이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___ 1) 있다, (_____)개 단체 ___ 2) 없다

문7-1) [참여하고 계시다면]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어서
___ 2)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이어서
___ 3) 기획 및 비평 발표의 기회 확보를 위해
___ 4) 경력 관리를 위해서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7-2)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단체활동이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 2)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___ 3) 활동하기에 만족스러운 단체가 없어서
___ 4)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시각예술인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님께서는 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시각예술인 및 시각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관련 정보에 대하여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직접 일간지/월간지/인터넷 등을 찾아본다.
___ 2)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___ 3)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___ 4)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9) ○○님께서는 최근 3년간 기획 및 비평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다음 표에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적어주십시오.)

◆ **지원주체** (★ 2번과 5번을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2) **광역/기초자치단체** : 경기/ 강원 / 제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위원회, 서울 / 중구 / 인천 / 부천 / 고양 / 성남문화재단 등.

5) **문화재단** : 삼성 / 송은 / 파라다이스 / 한솔문화재단, 포스코청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 **재정** : 현금을 지원해 정산하는 방식.

◆ **현물** : 작품의 재료, 도록제작 등을 제공.

◆ **공간** : 전시공간,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 (창작공간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속함)

예) 국립(중앙정부) : 창동/고양 국립미술스튜디오

예) 공립(지방자치단체) : 난지 / 진안 / 평창 무이(강원) / 팔각정(광주) / 양산동(광주) 등.

예) 사립(기업) : 경안 / 금호 / 쌈지 / 가나 등. | 예) 사립(개인) : 하제마을 / 문화예술촌 쟁이골 등.

	지원주체	재정 (금액)	현물	공간 (크기/기간)	
2004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2005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등 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2006년	1) 중앙정부	만원		____ 평, ____ 주	
	2) 광역/기초 자치단체	만원		____ 평, ____ 주	
	3) 기업 (메세나)	만원		____ 평, ____ 주	
	4) 개인후원자 (기부금)	만원		____ 평, ____ 주	
	5) 문화재단 등 재단	만원		____ 평, ____ 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원		____ 평, ____ 주	
	7) 복권기금	만원		____ 평, ____ 주	
	8) 기타				

■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10) ○○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미술은행 제도
___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___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___ 4) 문화예술진흥기금
___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___ 6) 복권기금
___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___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___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___ 11) 조세지원제도
___ 12) 책임운영기관
___ 13) 문화중심도시
___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1) ○○님께서는 위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 1) 매우 만족한다 ___ 2) 다소 만족한다 ___ 3) 그저 그렇다
___ 4) 다소 불만이다 ___ 5) 매우 불만이다

문11-1) 만족스러운 정책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미술은행 제도
___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___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___ 4) 문화예술진흥기금

___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___ 6) 복권기금
___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___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___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___ 11) 조세지원제도
___ 12) 책임운영기관
___ 13) 문화중심도시
___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2) 각 기관의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지원 금액이 적다.
___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일회성 지원이 많다)
___ 3)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다.
___ 4) 지원 신청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___ 5)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___ 6) 신청서 등의 작성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다.
___ 7) 지원금 항목에 대한 제약이 많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___ 8) 선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
___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2-1) 각 기관이 지원정책을 실행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
___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지원단체나 작가가 모두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___ 3) 지원이 특정 단체나 방향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___ 4) 지원 신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___ 5) 지원 신청 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___ 6) 신청서 및 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지원의 주최와 지원대상자간의 심도있는 교류와 공감이 필요하다.
___ 7) 지원금 항목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___ 8) 선정자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___ 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각예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___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선생님의 예술정보의 활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작가 및 기관들의 전시 홍보물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___ 1) 있다, (주간 평균 _____ 시간) ___ 2) 접속하지 않는다

문14-1) [접속하고 있다면] 시각예술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 ___ 2) 창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___ 3)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___ 4) 관련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5) ○○님께서는 자신의 기획 및 비평 발표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정기간행물 (대중지–일간지, 여성월간지 등)
___ 2) 정기간행물 (전문지–월간미술, 월간사진 등 각 분야의 잡지 및 학회지 등)
___ 3) 온라인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방송 등 온라인 매체 (※ 예를 들어 미술과 담론 등)
___ 4) TV 방송, 라디오 등 (공중파)
___ 5) 전시 홍보물 발송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6) ○○님께서는 자신의 기획 및 비평을 인터넷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7) ○○님께서는 자신의 기획 및 비평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7–1)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홈페이지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___ 2)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다
___ 3)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___ 4) 접속자가 많지 않다
___ 5) 작품 등을 원하는대로 보여주기가 어렵다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7–2)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비를 들여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8) ○○님께서는 시각예술관련 인쇄매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18-1) [인쇄매체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연간 구독료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약 (_____)만원

문18-2) [인쇄매체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 1)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 ___ 2) 창작(연구)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___ 3)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서 ___ 4)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서
___ 5) 타 매체에 비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서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마지막으로 조사관리와 통계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19) ○○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 1) 무학 ___ 2) 초등학교 졸 ___ 3) 중졸 ___ 4) 고졸
___ 5) 대재,대졸 ___ 6) 대학원 재학, 수료 ___ 7) 석사,박사

문20) ○○님댁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___ 1) 1세대 가정(부부만 있는 경우)
___ 2) 2세대 가정(부모와 미혼 자녀 가정)
___ 3) 3세대 가정(할아버지/부모/미혼 자녀 가정)
___ 4) 독신가정(미혼의 독신 가정 혹은 형제 등과 가구 구성)
___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 ○○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 1) 기혼 ___ 2) 미혼

문22) 자녀는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22-1)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23) ○○님이 주로 기획 및 비평의 발표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 1) 서울 ___ 2) 부산 ___ 3) 인천 ___ 4) 대전 ___ 5) 대구 ___ 6) 광주
___ 7) 울산 ___ 8) 강원 ___ 9) 경기 ___ 10) 충청 ___ 11) 전라 ___ 12) 경상
___ 13) 제주 ___ 14) 해외 ___ (_____) 15) 기타 (_____)

문24) ○○님께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약 (_____ 년 _____ 개월)

문25) ○○님은 기획 및 비평 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문25-1)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입니까?

___ 1) 교직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등) ___ 2) 언론
___ 3) 자영업 ___ 4) 일반 사무직 ___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 4문항은 ○○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26) ○○님의 월평균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_____)

문27) ○○님의 월평균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 (_____)

문28) ○○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지출) (_____)

문29) ○○님은 순수시각예술가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보기

1) 없음	2) 1만원 ~ 100만원 미만	3) 100만원~200만원 미만	4) 200만원~300만원 미만
5) 300만원~400만원 미만	6) 400만원~500만원 미만	7) 500만원~600만원 미만	8) 600만원~700만원 미만
9) 700만원~800만원 미만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16) 3,000만원 이상

문30) ○○님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___ 1) 건강보험 ___ 2) 국민연금 ___ 3) 고용보험 ___ 4) 산재보험

문31) ○○님은 4대보험 외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___ 1) 생명보험 ___ 2) 암보험 ___ 3) 종신보험 ___ 4) 퇴직보험
___ 5) 연금보험 ___ 6) 실버보험 ___ 7) 변액보험 ___ 8) 기타 (_____)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시각예술인 실태조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부록 2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	66.1	100.0			59.9	64.8	74.7	65.2	77.8	66.7	66.7	100.0	64.7	45.1	58.6	75.3	79.9	81.3	41.7	22.2	55.2	70.3	72.5	77.2	42.3	53.0	66.2	77.0	80.0
여	32.9		100.0		39.5	34.4	25.3	34.8	20.0	28.2	33.3		17.6	53.9	41.1	24.1	17.7	17.6	41.7	75.6	44.8	29.3	26.5	21.2	42.3	45.7	33.1	22.0	20.0
무응답	1.0			100.0	.6	.8			2.2	5.1			17.6	1.0	.2	.5	2.4	1.1	16.7	2.2		.5	1.0	1.6	15.4	1.3	.7	1.0	
【장르별】																													
한국화	25.1	22.7	30.0	15.4	100.0									25.5	23.1	22.0	33.0	28.6	16.7	26.7	24.4	20.3	29.4	30.7	19.2	24.5	25.0	23.3	40.0
서양화	39.2	38.5	41.1	30.8		100.0								38.7	39.7	37.5	37.8	49.5	33.3	40.0	35.4	41.2	37.1	44.4	38.5	42.9	36.6	39.0	40.0
조각	13.1	14.8	10.1				100.0							10.8	16.1	13.6	9.1	12.1	8.3	8.9	14.6	15.5	11.2	9.5	11.5	14.0	11.4	15.0	20.0
공예	6.9	6.8	7.3					100.0						9.3	6.1	7.6	6.7	3.3	8.3	8.9	8.8	7.4	5.8	4.2	7.7	5.4	7.2	8.5	
서예	6.8	8.0	4.1	15.4					100.0					1.5	5.4	9.4	10.0	4.4	25.0	2.2	3.9	6.3	10.9	7.4	3.8	4.7	9.2	6.3	
판화	2.9	3.0	2.5	15.4						100.0				3.4	2.3	4.2	2.4	1.1		2.2	2.3	3.2	4.2	2.1		2.6	3.5	3.3	
영상설치	4.1	4.1	4.1								100.0			8.3	5.6	3.4				8.9	8.8	4.3	1.0		3.8	3.9	5.9	3.0	
해당없음	.5	.8										100.0			.5	.8	.5	1.1			.6	.5	.3	1.1		.5		1.0	
무응답	1.3	1.3	.7	23.1									100.0	2.5	1.2	1.3	.5		8.3	2.2	1.3	1.4	.3	.5	15.4	1.6	1.1	.8	
【활동 기간】																													
10년미만	15.4	10.5	25.2	15.4	15.7	15.2	12.6	20.7	3.3	17.9	31.5		29.4	100.0						86.7	40.3	5.4	2.9	3.2	7.7	27.1	15.6	6.5	
20년미만	32.3	28.7	40.4	7.7	29.8	32.7	39.7	28.3	25.6	25.6	44.4	28.6	29.4		100.0					4.4	55.8	43.0	13.7	6.3	30.8	35.7	39.0	24.0	20.0
30년미만	28.8	32.8	21.1	15.4	25.3	27.5	29.9	31.5	40.0	41.0	24.1	42.9	29.4			100.0				2.2	2.9	46.6	42.8	13.2	19.2	20.7	27.6	37.0	20.0
40년미만	15.8	19.1	8.5	38.5	20.8	15.2	10.9	15.2	23.3	12.8		14.3	5.9				100.0					4.7	38.0	33.3	23.1	12.4	10.7	22.5	20.0
40년이상	6.9	8.4	3.7	7.7	7.8	8.7	6.3	3.3	4.4	2.6		14.3						100.0				.2	1.9	42.3	15.4	3.6	6.1	9.3	40.0
무응답	.9	.6	1.1	15.4	.6	.8	.6	1.1	3.3				5.9						100.0	6.7	1.0		.6	1.6	3.8	.5	.9	.8	
【나이】																													
30미만	3.4	1.1	7.8	7.7	3.6	3.5	2.3	4.3	1.1	2.6	7.4		5.9	19.1	.5	.3			25.0	100.0						7.8	3.1	.3	
40미만	23.2	19.4	31.7		22.6	21.0	25.9	29.3	13.3	17.9	50.0	28.6	23.5	60.8	40.2	2.4			25.0		100.0					33.6	29.8	8.3	20.0
50미만	33.5	35.6	29.8	15.4	27.1	35.2	39.7	35.9	31.1	35.9	35.2	28.6	35.3	11.8	44.6	54.3	10.0	1.1				100.0				28.2	36.8	34.5	20.0
60미만	23.6	25.9	19.0	23.1	27.7	22.3	20.1	19.6	37.8	33.3	5.6	14.3	5.9	4.4	10.0	35.2	56.9	6.6	16.7				100.0			20.4	16.7	34.8	20.0
60이상	14.3	16.7	9.2	23.1	17.5	16.2	10.3	8.7	15.6	10.3		28.6	5.9	2.9	2.8	6.6	30.1	87.9	25.0					100.0		8.8	11.0	20.5	40.0
무응답	2.0	1.3	2.5	30.8	1.5	1.9	1.7	2.2	1.1		1.9		23.5	1.0	1.9	1.3	2.9	4.4	8.3						100.0	1.3	2.6	1.8	
【월소득】																													
저	29.2	23.4	40.6	38.5	28.6	31.9	31.0	22.8	20.0	25.6	27.8	28.6	35.3	51.5	32.2	21.0	23.0	15.4	16.7	66.7	42.2	24.5	25.2	18.0	19.2	100.0			
중	34.4	34.5	34.6	23.1	34.3	32.1	29.9	35.9	46.7	41.0	50.0		29.4	34.8	41.6	33.1	23.4	30.8	33.3	31.1	44.2	37.8	24.3	26.5	46.2		100.0		
고	30.2	35.2	20.2	30.8	28.0	30.0	34.5	37.0	27.8	33.3	22.2	57.1	17.6	12.7	22.4	38.8	43.1	40.7	25.0	2.2	10.7	31.1	44.4	43.4	26.9			100.0	
기타	.4	.5	.2		.6	.4	.6								.2	.3	.5	2.2			.3	.2	.3	1.1					100.0
무응답	5.8	6.5	4.4	7.7	8.4	5.6	4.0	4.3	5.6			14.3	17.6	1.0	3.5	6.8	10.0	11.0	25.0		2.6	6.3	5.8	11.1	7.7				
【학력】																													
고졸이하	5.4	6.2	3.7	7.7	6.9	3.7	1.7	5.4	21.1		1.9	14.3		1.0	4.2	7.6	9.1	3.3			.6	5.2	9.9	7.9		6.2	6.4	1.8	
대졸	25.1	25.2	24.8	23.1	18.7	34.4	12.1	23.9	36.7	7.7	13.0	14.3	23.5	25.5	23.1	23.9	27.3	30.8	41.7	31.1	16.2	23.9	27.8	32.8	50.0	28.4	24.3	19.3	60.0
대학원이상	68.8	67.7	71.1	61.5	73.2	61.7	85.6	70.7	38.9	92.3	85.2	71.4	64.7	73.0	72.2	68.5	61.2	65.9	33.3	68.9	83.1	70.0	60.7	58.7	46.2	64.9	68.6	78.8	40.0
무응답	.8	.9	.5	7.7	1.2	.2	.6		3.3				11.8	.5	.5		2.4		25.0			.9	1.6	.5	3.8	.5	.7	.3	

(continued)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지역】																													
서울	59.4	55.5	68.3	23.1	65.7	55.8	67.8	45.7	44.4	74.4	74.1	28.6	47.1	66.2	54.7	56.2	62.7	74.7	41.7	75.6	61.4	50.5	64.5	66.7	46.2	62.0	56.8	61.3	40.0
부산	4.4	4.3	4.4	7.7	3.3	6.0	1.7	9.8		7.7	1.9			1.5	4.0	5.2	7.7	2.2			3.2	4.7	5.4	4.8	3.8	2.1	4.2	5.8	20.0
인천	1.7	2.1	1.1		.9	2.1	1.7	2.2	4.4					1.5	1.6	2.1	1.4	2.2			.6	2.5	1.9	2.1		2.3	1.3	1.3	20.0
대전	2.2	2.9	.9		.9	2.3	2.9	3.3	4.4		3.7			1.5	1.9	3.7	1.4	1.1		4.4	1.9	2.9	2.2	.5		2.8	1.5	2.5	
대구	6.4	7.4	4.6		6.6	6.0	5.7	8.7	12.2	2.6	3.7			4.9	7.9	6.8	6.2	1.1	8.3	4.4	7.5	7.9	4.5	4.2	11.5	3.4	8.8	6.3	
광주	2.8	3.2	2.1		2.4	3.1	4.0	3.3	1.1				11.8	2.5	3.0	2.6	2.9	2.2	8.3	4.4	2.6	3.6	1.3	3.7		3.9	3.5	.8	
울산	1.2	1.1	1.1	7.7	.6	1.7	1.1		2.2				5.9		1.6	1.8	1.0				.3	2.5	1.3			.3	1.1	1.8	20.0
강원	.5	.8			.3	.4	.6	2.2	1.1					.5	.9	.3	.5				.6	.9		.5		.5	.7	.5	
경기	4.8	4.8	5.0		3.6	6.0	5.2	3.3	5.6	2.6	3.7	14.3		4.9	4.9	5.2	4.8	3.3		2.2	3.6	7.2	3.8	3.7	3.8	7.2	3.9	4.3	
충청	1.5	1.6	1.1	7.7	.9	1.9	.6	5.4			1.9			1.5	.9	1.6	2.4	2.2			1.6	1.6	1.6	1.6		.8	1.5	2.5	
전라	8.3	9.2	6.0	23.1	9.3	7.3	4.0	9.8	12.2	7.7	3.7	57.1	29.4	7.8	11.0	7.9	5.7	5.5		4.4	9.7	8.3	8.0	5.8	19.2	8.5	8.6	7.3	
경상	4.0	3.9	3.7	23.1	3.0	5.0	1.7	4.3	10.0	2.6				4.9	4.7	3.9	2.9	2.2		2.2	3.2	5.0	3.5	3.7	7.7	3.4	5.9	3.3	
제주	.6	.9			.6	1.2								1.0	.5	.5		2.2			.6	.5	.3	1.1	3.8	.3	1.3	.3	
해외	1.5	1.8	.9		.9	1.0	2.9	2.2		2.6	7.4			1.5	1.9	2.1	.5				2.3	1.8	1.3	.5		2.3	.7	1.8	
무응답	.6	.5	.7	7.7	.9	.4			2.2				5.9		.5			1.1	41.7	2.2	.6	.2	.3	1.1	3.8	.3	.2	.8	

(continued)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	74.0	76.1	66.6	65.1	72.7	61.8	65.5	78.3	86.2	76.5	75.7	62.5	100.0	65.6	70.0	73.6	64.2	100.0	80.0	50.0
여	24.7	22.5	32.5	34.0	18.2	37.9	32.8	21.7	13.8	23.5	24.3	31.3		34.4	25.0	23.6	30.2		20.0	37.5
무응답	1.3	1.4	.9	.9	9.1	.4	1.7					6.3			5.0	2.7	5.7			12.5
【장르별】																				
한국화	36.4	32.4	18.7	26.7	36.4	27.7	19.0	13.0	10.3	25.9	21.6	12.5	14.3	18.8	15.0	28.2	18.9	25.0	15.0	37.5
서양화	37.7	26.8	53.9	35.2	9.1	36.8	53.4	47.8	41.4	36.5	43.2	56.3	28.6	48.4	50.0	34.5	49.1	75.0	25.0	25.0
조각	9.1	4.2	6.3	16.4	9.1	15.0	5.2	13.0	17.2	11.8	18.9	12.5	14.3	14.1	5.0	6.4	5.7		25.0	
공예	5.2	7.0	6.6	7.1		5.3	15.5	8.7	10.3	9.4	8.1		28.6	4.7	25.0	8.2	7.5		10.0	
서예	6.5	26.8	9.9	3.8	27.3	5.1		17.4	13.8	12.9	2.7	12.5	14.3	7.8		10.0	17.0			25.0
판화			.9	4.0		3.7	5.2			1.2				1.6		2.7	1.9		5.0	
영상설치		1.4	2.1	5.0		5.1	1.7		6.9	2.4				3.1	5.0	1.8			20.0	
해당없음	1.3	1.4	.3	.5		.3								1.6		3.6				
무응답	3.9		1.2	1.2	18.2	1.0					5.4	6.3				4.5				12.5
【활동 기간】																				
10년미만	2.6	2.8	15.7	16.4	9.1	17.2	5.2	13.0	10.3	11.8	13.5		14.3	15.6	15.0	14.5	18.9	25.0	15.0	
20년미만	19.5	25.4	29.8	33.9	18.2	29.7	29.3	30.4	27.6	40.0	35.1	43.8	57.1	32.8	20.0	42.7	37.7	25.0	40.0	25.0
30년미만	33.8	40.8	27.4	28.6		27.2	34.5	34.8	48.3	30.6	27.0	43.8	14.3	31.3	30.0	27.3	28.3	25.0	40.0	
40년미만	27.3	26.8	17.2	14.1	45.5	16.6	27.6	13.0	10.3	15.3	16.2	12.5	14.3	15.6	25.0	10.9	11.3		5.0	
40년이상	13.0	4.2	8.4	6.6		8.6	3.4	8.7	3.4	1.2	5.4			4.7	10.0	4.5	3.8	25.0		12.5
무응답	3.9		1.5	.4	27.3	.6				1.2	2.7									62.5
【나이】																				
30미만			4.2	3.4		4.3			6.9	2.4	5.4			1.6		1.8	1.9			12.5
40미만	10.4	2.8	15.1	28.1		24.0	17.2	8.7	20.7	27.1	21.6	6.3	28.6	17.2	25.0	27.3	18.9	25.0	35.0	25.0
50미만	36.4	32.4	31.9	34.1	36.4	28.5	36.2	47.8	44.8	41.2	43.2	68.8	57.1	50.0	35.0	33.6	41.5	25.0	40.0	12.5
60미만	23.4	43.7	26.2	20.9	45.5	25.7	29.3	26.1	24.1	16.5	10.8	25.0		18.8	25.0	22.7	20.8	12.5	20.0	12.5
60이상	27.3	21.1	18.7	12.2	9.1	16.0	15.5	17.4	3.4	9.4	18.9		14.3	10.9	15.0	10.0	13.2	25.0	5.0	25.0
무응답	2.6		3.9	1.3	9.1	1.5	1.7			3.5				1.6		4.5	3.8	12.5		12.5
【월소득】																				
저		33.8	33.1	27.6	18.2	30.5	13.8	39.1	37.9	15.3	40.5	6.3	28.6	43.8	15.0	30.0	24.5	12.5	45.0	12.5
중		40.8	33.4	34.4	27.3	32.9	32.8	26.1	24.1	47.1	43.2	31.3	42.9	28.1	35.0	35.5	50.9	75.0	15.0	12.5
고		9.9	23.2	34.6	9.1	31.1	39.7	21.7	34.5	29.4	8.1	43.8	28.6	26.6	50.0	26.4	24.5	12.5	35.0	37.5
기타			.9	.2		.3	1.7	4.3				6.3								
무응답	100.0	15.5	9.3	3.3	45.5	5.2	12.1	8.7	3.4	8.2	8.1	12.5		1.6		8.2			5.0	37.5
【학력】																				
고졸이하	14.3	100.0				4.1	6.9	8.7		3.5	8.1		14.3	9.4	15.0	10.0	7.5		10.0	
대졸	40.3		100.0			19.8	46.6	47.8	10.3	25.9	29.7	37.5	42.9	23.4	30.0	35.5	43.4	50.0	20.0	25.0
대학원이상	39.0			100.0		75.6	46.6	43.5	89.7	70.6	59.5	62.5	42.9	65.6	55.0	52.7	49.1	50.0	70.0	37.5
무응답	6.5				100.0	.5					2.7			1.6		1.8				37.5

(continued)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지역】																				
서울	53.2	45.1	47.0	65.3	36.4	100.0														
부산	9.1	5.6	8.1	3.0			100.0													
인천	2.6	2.8	3.3	1.1				100.0												
대전	1.3		.9	2.9					100.0											
대구	9.1	4.2	6.6	6.6						100.0										
광주	3.9	4.2	3.3	2.4	9.1						100.0									
울산	2.6		1.8	1.1								100.0								
강원		1.4	.9	.3									100.0							
경기	1.3	8.5	4.5	4.6	9.1									100.0						
충청		4.2	1.8	1.2											100.0					
전라	11.7	15.5	11.7	6.4	18.2											100.0				
경상		5.6	6.9	2.9													100.0			
제주			1.2	.4														100.0		
해외	1.3	2.8	1.2	1.5															100.0	
무응답	3.9		.6	.3	27.3															100.0

문1. 00님은 활동분야에서의 첫 작품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3) 단체전 출품	37.5	35.8	41.3	23.1	37.3	38.5	43.7	23.9	25.6	33.3	55.6	57.1	29.4	44.1	45.3	37.8	24.9	16.5	16.7	46.7	46.8	40.5	33.5	22.2	19.2	40.3	36.4	38.0	
1) 공모전 출품	37.1	39.4	32.3	38.5	42.5	31.0	32.2	47.8	63.3	43.6	13.0	28.6	35.3	27.0	31.5	38.6	49.3	48.4	58.3	22.2	30.2	35.8	42.5	45.0	42.3	31.0	38.6	39.8	40.0
2) 개인전 발표	18.6	18.6	18.8	7.7	15.7	22.1	17.8	20.7	5.6	15.4	24.1	14.3	23.5	20.1	18.7	18.1	14.8	26.4	8.3	22.2	18.2	18.9	16.3	22.2	11.5	21.7	18.9	14.8	20.0
4) 온라인 전시	5.4	5.3	5.0	23.1	3.6	6.9	4.6	4.3	3.3	7.7	7.4		5.9	6.4	3.5	4.5	9.1	7.7		2.2	3.6	4.3	6.4	7.9	19.2	4.7	4.6	6.8	40.0
996) 무응답	.3		.7	7.7		.6							5.9		.2		.5		16.7	2.2	.3			.5	3.8	.3	.4		
기타	1.1	.9	1.9		.9	.9	1.7	3.3	2.2					2.4	.8	1.0	1.4	1.1		4.5	.9	.5	1.3	2.2	4.0	2.0	1.1	.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1. 00님은 활동분야에서의 첫 작품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3) 단체전 출품	29.9	29.6	39.5	37.5	27.3	35.6	32.8	52.2	48.3	35.3	35.1	37.5	57.1	51.6	45.0	36.4	39.6	50.0	55.0	12.5
1) 공모전 출품	44.2	50.7	33.4	37.1	54.5	37.9	36.2	30.4	34.5	40.0	35.1	18.8	42.9	34.4	40.0	39.1	34.0	25.0	25.0	50.0
2) 개인전 발표	20.8	11.3	18.7	19.3		20.5	22.4	8.7	10.3	18.8	21.6	6.3		12.5	15.0	19.1	11.3	12.5	15.0	
4) 온라인 전시	3.9	4.2	6.6	4.9	9.1	4.6	6.9	8.7	6.9	5.9	2.7	37.5				4.5	15.1	12.5		12.5
996) 무응답	1.3		.3	.2	9.1	.1										.9				25.0
기타		4.2	1.5	1.0		1.3	1.7				5.5			1.5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 00님이 첫 개인전을 하실 때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500만원 미만	37.9	37.0	39.9	30.8	36.4	42.1	35.1	33.7	15.6	64.1	44.4	42.9	23.5	45.6	34.6	34.9	38.3	47.3	41.7	46.7	41.9	35.1	33.2	42.3	46.2	42.6	34.4	37.8	40.0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2.3	32.9	31.2	30.8	37.7	35.4	26.4	30.4	15.6	23.1	31.5	42.9	11.8	29.4	36.7	35.7	24.4	25.3	8.3	26.7	36.0	36.0	29.7	23.3	30.8	29.7	35.7	31.5	20.0
3)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2.9	12.7	13.1	23.1	11.4	11.3	17.8	15.2	16.7	7.7	14.8		17.6	8.8	14.0	12.9	17.7	6.6	8.3	6.7	8.8	14.4	17.3	11.1	7.7	12.4	13.4	12.3	
4)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3	5.5	1.8	7.7	3.3	2.1	10.3	4.3	7.8	5.1	5.6		5.9	3.4	3.3	4.7	7.7	2.2		2.2	2.3	4.3	5.4	6.3	3.8	3.4	3.1	7.0	
5) 2,000만원 이상	2.7	3.3	1.6		1.5	.8	7.5	4.3	10.0			14.3		1.0	1.2	2.9	4.3	9.9			1.0	2.3	4.2	5.3		2.8	2.0	3.3	
6) 개인전 경험 없음	1.1	1.0	1.4		.9	1.3	.6	1.1	1.1		3.7			2.9	1.2	.8			8.3	8.9	2.3	.5	.6			2.1	.9	.5	
996) 무응답	8.8	7.6	11.0	7.7	8.7	6.9	2.3	10.9	33.3				41.2	8.8	9.1	8.1	7.7	8.8	33.3	8.9	7.8	7.4	9.6	11.6	11.5	7.0	10.5	7.8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 00님이 첫 개인전을 하실 때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500만원 미만	35.1	33.8	36.4	38.5	54.5	38.1	44.8	43.5	55.2	36.5	43.2	25.0	42.9	32.8	20.0	35.5	26.4	25.0	55.0	62.5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9.9	22.5	29.5	34.2	18.2	31.0	39.7	34.8	27.6	42.4	18.9	50.0	28.6	35.9	40.0	31.8	28.3	75.0	20.0	12.5
3)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6.9	22.5	10.5	13.2		15.0	10.3	8.7	3.4	8.2	13.5	6.3		15.6	15.0	10.9	9.4		5.0	
4)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6	1.4	5.1	4.2	9.1	4.7	1.7	4.3		3.5	2.7	6.3		7.8		1.8	5.7		15.0	
5) 2,000만원 이상	3.9	2.8	3.3	2.5		3.3		4.3		2.4	2.7			1.6		2.7	3.8			
6) 개인전 경험 없음	1.3		2.1	.9		.9	1.7			1.2	5.4			3.1		1.8				
996) 무응답	10.4	16.9	13.0	6.5	18.2	7.0	1.7	4.3	13.8	5.9	13.5	12.5	28.6	3.1	25.0	15.5	26.4		5.0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3. 00님이 일반인에 대해 첫 작품 발표를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08	(870)	(425)	(13)	(330)	(512)	(174)	(90)	(86)	(39)	(53)	(7)	(17)	(201)	(423)	(376)	(208)	(91)	(9)	(44)	(304)	(437)	(310)	(188)	(25)	(384)	(451)	(395)	(5)
20 미만.....	2.7	2.9	2.0	8.0	3.0	3.1	1.0	1.0	5.0	3.0		14.0			1.9	3.0	3.0	11.0		5.0	2.0	2.0	3.0	5.0	4.0	2.0	2.7	4.0	
20-24.....	17.0	14.1	23.1	8.0	17.9	17.0	17.8	12.2	12.8	30.8	18.9		6.0	22.4	12.3	18.1	14.9	27.5	11.0	45.5	21.7	15.1	12.3	14.9	16.0	18.2	17.1	15.4	
25-29.....	30.9	31.3	30.4	23.1	27.3	27.5	39.4	34.4	20.9	43.6	62.3		29.0	43.3	34.3	26.9	22.1	23.1	44.4	47.7	47.4	29.3	23.5	16.5	28.0	33.3	31.3	29.9	40.0
30-34.....	20.6	22.9	15.8	23.1	19.7	20.9	22.4	27.8	14.0	12.8	17.0	42.9	23.5	21.4	23.4	20.7	15.4	17.6	11.0		24.3	24.3	19.4	12.2	24.0	23.7	22.0	17.0	20.0
35-39.....	13.5	13.4	13.4	15.4	15.5	14.5	10.9	11.1	17.4	7.7		14.0	17.6	6.0	14.2	16.2	16.3	7.7	22.2		4.6	18.8	16.5	14.4	8.0	9.9	13.5	16.5	20.0
40-44.....	8.4	8.5	8.2	7.7	8.2	9.4	5.2	11.1	14.0	2.6		14.0	11.8	3.0	7.8	8.8	15.4	6.6				7.6	14.5	14.4	20.0	7.0	7.8	8.9	20.0
45-49.....	3.8	3.2	4.9	7.7	5.2	4.3	1.0	1.1	7.0			14.3	5.9	3.5	3.5	3.5	8.2					2.7	8.7	5.9		2.9	3.3	4.6	
50-54.....	1.1	1.4	.5	8.0	1.5	1.4	1.0		1.2		1.9			.5	.7	.8	2.4	3.3					1.6	5.3		.8	.9	1.8	
55-59.....	.9	.8	1.2		.9	1.2	1.0		2.0					.5	.9	1.3		1.0					1.0	4.8		1.3	1.0	.8	
60 이상.....	1.1	1.5			.9	1.0		1.1	5.8						1.0	1.1	1.4	2.0	11.1	2.0				6.9		.8	.7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세)].....	30.98	31.18	30.51	32.46	31.28	31.22	29.78	30.74	34.23	26.87	27.09	34.14	35.29	28.99	31.21	31.15	32.98	28.87	32.67	25.14	27.32	30.67	32.95	35.85	30.16	30.46	30.55	31.57	32.60
MEDIAN.....	29.00	30.00	28.00	30.00	30.00	30.00	28.00	30.00	33.00	26.00	27.00	34.00	32.00	28.00	30.00	30.00	32.00	27.00	28.00	24.50	27.00	30.00	32.00	35.00	30.00	29.00	29.00	30.00	31.00

문3. 00님이 일반인에 대해 첫 작품 발표를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3)	(68)	(327)	(903)	(10)	(783)	(58)	(22)	(29)	(85)	(36)	(15)	(7)	(64)	(20)	(104)	(52)	(8)	(20)	(5)
20 미만.....	1.0	1.5	2.4	2.8		2.7	2.0		3.0		3.0		14.0	2.0	5.0	5.0	6.0			
20-24.....	19.2	5.8	18.3	17.4	10.0	17.6	22.4		17.0	9.4	16.7	26.7	28.6	15.6	25.0	13.5	26.9		10.0	20.0
25-29.....	20.5	17.6	22.1	34.8	40.0	35.5	22.4	22.7	34.5	27.1	19.4	33.3	28.6	32.8	20.0	15.4	11.5	75.0	35.0	20.0
30-34.....	15.1	11.7	18.6	22.2		20.7	13.8	31.8	27.6	24.7	25.0	13.3		14.1	30.0	21.2	15.4	13.0	30.0	
35-39.....	15.1	17.7	13.9	12.9	20.0	11.5	13.8	18.2	10.0	22.4	25.0	7.0	14.0	18.8	5.0	15.4	13.5		15.0	40.0
40-44.....	16.4	20.5	13.3	5.7	10.0	6.6	10.3	13.6	3.4	10.6		13.3	14.3	9.4	5.0	20.2	9.6	12.5	5.0	20.0
45-49.....	8.2	10.3	6.1	2.2	20.0	2.8	8.6	9.1	3.0	3.5	5.6	6.7		3.1		4.8	11.5		5.0	
50-54.....	1.4	1.5	1.5	.9		1.0		4.5			2.8			1.6	5.0	1.9	2.0			
55-59.....		5.9	1.5	.3		.9	5.0				2.8			3.0		1.0				
60 이상.....	2.7	5.5	1.8	.4		.6	2.0			2.4					5.0	1.9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세)].....	33.05	38.46	32.50	29.84	33.00	30.15	32.95	34.73	29.07	32.98	32.08	29.87	26.71	31.73	30.55	33.24	32.35	29.50	31.20	31.80
MEDIAN.....	32.00	39.00	31.00	29.00	31.50	28.00	30.50	33.50	28.00	31.00	32.50	29.00	25.00	29.50	29.50	32.00	30.00	28.50	30.00	35.00

문4. 00님의 첫 작품 발표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재정형편	67.5	71.2	59.9	69.2	72.0	66.3	71.3	59.8	64.4	61.5	70.4	57.1	41.2	61.8	69.6	68.8	68.4	64.8	50.0	68.9	66.9	71.6	65.8	64.0	46.2	70.5	72.4	60.5	20.0
3) 주목도	29.2	26.1	35.8	15.4	29.2	31.3	25.3	29.3	24.4	35.9	27.8	28.6	17.6	41.7	31.3	28.1	21.5	14.3	25.0	42.2	40.9	27.5	23.6	20.6	26.9	34.4	27.0	28.8	
4) 외부 지원의 어려움	29.1	26.4	34.4	30.8	29.2	28.3	25.9	33.7	21.1	35.9	46.3	14.3	35.3	36.8	30.8	25.7	27.3	23.1	16.7	48.9	34.1	27.0	28.4	22.2	26.9	32.3	28.5	28.0	
2) 공간확보	21.7	21.8	21.1	30.8	21.7	21.0	28.7	15.2	12.2	20.5	33.3		29.4	26.5	19.9	18.9	21.5	30.8	25.0	24.4	23.7	17.8	22.7	24.9	23.1	24.3	21.1	20.8	20.0
996) 무응답	3.8	2.6	6.0	7.7	3.0	4.2	.6	5.4	11.1				11.8	3.9	2.6	3.1	4.8	6.6	25.0	4.4	1.9	3.8	3.2	7.4	3.8	1.8	3.7	4.0	40.0
기타	6.6	4.9	6.0	15.4	5.4	6.4	6.5	4.4	8.8	2.6	1.9			4.5	4.3	6.6	6.9	9.9	8.3		5.0	3.5	5.9	10.8	7.6	6.1	4.9	7.0	20.0

문4. 00님의 첫 작품 발표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재정형편	62.3	63.4	66.3	68.4	54.5	67.7	60.3	69.6	69.0	70.6	81.1	43.8	42.9	70.3	80.0	65.5	69.8	75.0	60.0	25.0
3) 주목도	20.8	21.1	27.7	30.6	9.1	30.4	27.6	39.1	31.0	31.8	21.6	25.0	42.9	32.8	15.0	22.7	26.4	62.5	20.0	
4) 외부 지원의 어려움	23.4	22.5	25.9	30.4	54.5	29.2	34.5	34.8	27.6	25.9	24.3	37.5	28.6	39.1	35.0	24.5	18.9	37.5	35.0	12.5
2) 공간확보	16.9	18.3	19.9	22.4	36.4	25.3	19.0	26.1	6.9	8.2	18.9	18.8	28.6	21.9	25.0	11.8	22.6	25.0	15.0	12.5
996) 무응답	10.4	7.0	5.1	3.0	9.1	2.5	3.4		3.4	4.7	5.4	25.0	14.3	3.1		7.3	3.8			50.0
기타	6.5	2.8	6.6	5.4		6.4	3.4	4.3	10.2	4.8	2.7			3.2	5.0	2.7	3.8		5.0	

문10. 00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4) 문화예술진흥기금	70.5	71.3	69.3	53.8	69.3	69.4	71.8	69.6	73.3	76.9	79.6	85.7	52.9	71.1	65.7	74.5	71.3	74.7	58.3	71.1	70.8	71.2	70.6	69.3	61.5	70.0	71.9	70.8	80.0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62.9	67.5	53.4	69.2	59.0	64.0	87.4	53.3	40.0	76.9	53.7	28.6	35.3	51.5	58.2	68.5	71.8	70.3	33.3	40.0	55.5	66.0	67.4	66.7	53.8	60.7	59.2	70.5	40.0
1) 미술은행 제도	54.6	57.9	48.6	30.8	60.8	56.2	60.3	29.3	28.9	76.9	51.9	71.4	47.1	54.4	54.4	55.4	54.1	57.1	25.0	55.6	54.2	57.0	54.6	50.8	42.3	56.6	55.0	53.5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52.0	50.7	55.3	30.8	50.0	55.4	60.9	27.2	15.6	76.9	88.9	42.9	52.9	69.1	57.5	49.1	38.8	33.0	33.3	77.8	68.8	52.3	44.4	31.7	42.3	57.9	53.5	49.3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51.3	55.7	42.4	53.8	49.4	52.5	48.9	43.5	61.1	59.0	55.6	57.1	35.3	47.5	51.6	55.6	52.2	41.8	25.0	28.9	51.9	57.7	49.8	43.4	50.0	50.4	52.0	52.5	40.0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31.5	26.9	40.6	30.8	32.2	33.8	30.5	29.3	18.9	38.5	31.5		29.4	40.7	31.3	30.4	25.8	29.7	25.0	46.7	34.7	32.2	27.8	27.0	30.8	34.1	30.0	32.5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30.9	29.0	34.6	30.8	22.0	34.4	37.9	25.0	5.6	46.2	66.7		52.9	41.7	34.3	32.0	17.7	16.5	25.0	42.2	40.6	35.1	23.0	15.3	30.8	34.9	31.4	28.8	20.0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24.2	23.9	25.2	15.4	23.5	26.3	21.8	20.7	17.8	25.6	33.3		29.4	25.5	21.5	28.3	22.5	23.1	8.3	24.4	24.7	25.9	25.2	21.2		27.1	23.2	23.5	
13) 문화중심도시	14.9	14.6	14.9	30.8	12.7	14.6	10.9	17.4	12.2	15.4	33.3	28.6	41.2	20.6	17.3	14.4	7.7	9.9	8.3	26.7	19.2	14.9	11.8	10.1	15.4	16.3	16.0	12.8	
6) 복권기금	14.7	18.4	7.8		13.0	14.8	14.4	13.0	12.2	23.1	27.8	14.3	11.8	14.2	15.2	15.2	15.8	11.0		2.2	17.5	16.0	15.3	10.1	7.7	16.8	13.6	14.0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14.5	15.6	12.4	7.7	12.3	17.1	10.3	19.6	10.0	20.5	11.1	28.6	5.9	15.7	12.6	15.5	16.3	13.2	8.3	8.9	16.2	14.6	14.4	12.2	19.2	12.7	14.9	16.0	
11) 조세지원제도	3.9	4.7	2.5		3.6	3.7	4.0	4.3	4.4	10.3	3.7			2.5	2.8	5.5	4.8	2.2	16.7		2.6	4.3	5.8	3.7		3.1	2.9	5.3	
12) 책임운영기관	3.6	4.1	2.8		3.0	3.7	2.9	4.3	2.2	10.3	7.4			2.9	3.7	5.2	2.4	1.1		2.2	2.9	4.3	4.5	2.6		2.1	3.5	5.3	
996) 무응답	3.4	3.7	2.5	15.4	3.9	2.7	.6	6.5	8.9				17.6	1.0	2.8	4.2	3.8	3.3	33.3		1.9	2.7	3.8	6.9	7.7	2.3	3.3	3.0	20.0
기타	3.2	3.2	2.2	7.7	4.8	3.5	1.7	1.1	1.1					1.0	2.2	2.2	6.8	5.5			1.6	1.7	3.9	6.3	7.6	3.7	1.9	3.6	

문10. 00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4) 문화예술진흥기금	62.3	74.6	65.1	72.7	27.3	72.7	55.2	52.2	72.4	67.1	78.4	81.3	57.1	60.9	95.0	66.4	71.7	87.5	75.0	37.5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57.1	62.0	54.8	66.5	9.1	66.2	63.8	52.2	62.1	60.0	43.2	56.3	42.9	68.8	70.0	50.9	60.4	62.5	65.0	25.0
1) 미술은행 제도	50.6	39.4	43.4	60.2	27.3	61.1	24.1	56.5	44.8	43.5	43.2	12.5	14.3	59.4	60.0	54.5	34.0	75.0	50.0	25.0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31.2	35.2	37.3	59.1	18.2	60.0	24.1	21.7	24.1	37.6	64.9	18.8	14.3	48.4	50.0	48.2	28.3	50.0	80.0	25.0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46.8	56.3	53.6	50.6	9.1	46.5	53.4	65.2	58.6	52.9	45.9	68.8	85.7	67.2	70.0	55.5	67.9	87.5	50.0	12.5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23.4	21.1	26.5	34.1	27.3	34.1	32.8	26.1	34.5	38.8	18.9		28.6	26.6	20.0	26.4	18.9	25.0	30.0	50.0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19.5	18.3	23.5	34.7	18.2	31.5	24.1	26.1	24.1	24.7	51.4	18.8	28.6	37.5	25.0	34.5	18.9	37.5	45.0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20.8	21.1	19.9	26.3		27.7	15.5	17.4	17.2	22.4	16.2	25.0		26.6	25.0	18.2	13.2	25.0	25.0	
13) 문화중심도시	13.0	12.7	14.5	15.0	27.3	11.3	8.6	8.7	13.8	12.9	43.2	18.8	28.6	10.9	10.0	39.1	13.2	25.0	20.0	
6) 복권기금	15.6	14.1	11.4	16.1		12.8	6.9	8.7	13.8	9.4	27.0	18.8	28.6	21.9	40.0	20.0	11.3	25.0	45.0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14.3	21.1	12.7	14.8		13.2	19.0	21.7	6.9	16.5	10.8		42.9	20.3	15.0	16.4	15.1	37.5	20.0	
11) 조세지원제도	7.8	2.8	3.3	4.3		3.8	5.2	4.3	3.4	8.2	2.7			1.6		4.5			10.0	12.5
12) 책임운영기관	3.9	4.2	2.7	4.0		3.4	6.9	8.7		2.4	5.4	6.3		3.1	5.0	3.6	1.9		10.0	
996) 무응답	10.4	8.5	5.7	1.6	45.5	1.9	8.6	8.7		2.4	8.1	6.3		1.6	5.0	6.4	7.5			50.0
기타	3.9	2.8	4.5	2.2	9.1	2.7	3.4	3.4	3.6					9.4		1.8			5.0	

문11-1. 만족스러운 정책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4) 문화예술진흥기금	28.4	29.6	26.6	7.7	27.7	28.8	27.0	27.2	32.2	25.6	33.3	28.6	17.6	30.9	27.3	27.3	29.7	29.7	25.0	24.4	32.8	25.7	29.7	26.5	26.9	26.1	28.7	29.5	40.0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28.2	26.6	31.9	15.4	29.8	29.0	31.0	19.6	7.8	33.3	48.1	14.3	29.4	40.7	28.7	27.3	20.6	20.9	16.7	46.7	37.7	29.3	20.1	19.6	26.9	33.3	26.5	27.3	
1) 미술은행 제도	24.7	25.5	23.2	23.1	29.5	26.2	22.4	9.8	20.0	28.2	16.7	42.9	23.5	17.2	26.6	25.2	27.3	24.2	25.0	26.7	21.8	23.6	26.8	27.5	26.9	26.1	23.9	25.0	20.0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20.7	21.9	18.1	23.1	18.7	21.2	20.7	15.2	32.2	20.5	16.7	14.3	29.4	15.7	23.1	22.3	20.6	15.4	8.3	4.4	21.4	21.6	22.0	19.6	15.4	19.9	22.6	19.5	20.0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19.2	20.2	17.0	30.8	15.4	19.6	34.5	14.1	16.7	20.5	3.7	28.6	11.8	16.7	16.8	20.5	22.5	25.3	8.3	13.3	13.0	20.7	20.8	25.9	11.5	16.5	19.7	22.8	20.0
996) 무응답	18.8	20.1	16.1	23.1	20.5	17.1	10.9	33.7	27.8	10.3	5.6	42.9	41.2	7.8	17.1	20.7	25.4	25.3	41.7	4.4	10.4	19.4	23.6	24.3	34.6	14.0	17.8	21.0	20.0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12.8	10.8	16.7	15.4	13.6	15.0	10.3	7.6	8.9	17.9	11.1		5.9	10.8	11.9	12.3	17.2	14.3	8.3	8.9	10.7	12.8	13.1	16.9	11.5	12.7	12.9	12.3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12.4	11.0	15.4	7.7	13.9	14.4	6.3	16.3	7.8	10.3	9.3		5.9	10.3	14.7	10.8	12.9	11.0	16.7	17.8	14.0	12.2	10.9	11.1	15.4	12.1	12.9	11.5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12.2	11.3	13.5	23.1	7.2	14.6	14.4	6.5	5.6	15.4	24.1		35.3	15.7	11.7	12.9	10.5	8.8		17.8	14.0	11.7	8.6	13.2	23.1	12.7	11.4	13.0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9.1	9.4	8.7	7.7	8.7	9.4	5.2	7.6	17.8	15.4	7.4	14.3		7.4	8.9	8.9	12.4	8.8		2.2	8.8	8.6	9.6	11.6	11.5	8.3	6.6	12.3	20.0
13) 문화중심도시	8.8	8.3	9.4	15.4	8.7	7.7	4.0	14.1	13.3	10.3	16.7	14.3	5.9	8.8	9.6	7.3	9.6	9.9		6.7	10.4	7.2	8.6	10.1	11.5	7.5	10.1	8.5	20.0
98) 없음	7.1	7.8	5.7	7.7	6.9	8.1	8.6	5.4	3.3	5.1	7.4			6.4	7.2	7.3	6.7	8.8		6.7	7.8	7.7	5.8	6.9	7.7	8.8	7.7	5.8	20.0
6) 복권기금	6.0	6.8	4.6		6.6	6.9	4.0	5.4	2.2	7.7	9.3			3.9	4.9	6.3	10.0	6.6		2.2	5.2	5.4	7.0	7.4	11.5	5.2	6.1	7.0	
11) 조세지원제도	5.1	5.0	5.0	7.7	5.7	6.2	2.9	1.1	3.3	7.7	7.4			2.0	3.7	6.0	8.1	6.6	8.3	2.2	2.9	4.7	7.0	7.4		4.7	4.4	6.0	
12) 책임운영기관	2.6	2.9	2.1		3.0	2.7	1.7		3.3	2.6	5.6			1.0	2.3	2.6	3.8	4.4			1.9	2.0	3.2	4.8		1.3	3.9	2.8	
기타	2.9	2.5	1.9	7.7	2.4	3.9	1.2	1.1	2.2					2.0	1.5	1.4	4.4	5.5	16.6		1.9	1.9	2.8	4.6		4.0	1.2	2.3	20.0

문11-1. 만족스러운 정책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4) 문화예술진흥기금	31.2	35.2	27.4	28.3	18.2	29.7	20.7	17.4	17.2	28.2	24.3	25.0		21.9	35.0	28.2	30.2	62.5	40.0	37.5
3) 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 2, 공립 29, 민간 23).....	19.5	25.4	18.7	32.1	18.2	33.5	8.6	13.0	6.9	20.0	35.1	6.3	14.3	23.4	30.0	30.0	11.3	12.5	30.0	12.5
1) 미술은행 제도	20.8	26.8	19.9	26.5	9.1	28.7	17.2	13.0	17.2	18.8	18.9	6.3		25.0	15.0	22.7	11.3	37.5	20.0	25.0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19.5	32.4	24.4	18.6	9.1	17.3	13.8	34.8	6.9	24.7	24.3	18.8	28.6	37.5	35.0	30.9	28.3	37.5	5.0	12.5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11.7	28.2	17.8	19.2	9.1	20.8	13.8	4.3	24.1	16.5	18.9	6.3	14.3	17.2	35.0	13.6	26.4	12.5	15.0	12.5
996) 무응답	37.7	23.9	24.1	15.8	72.7	16.8	27.6	34.8	17.2	18.8	29.7	43.8	28.6	7.8	15.0	24.5	22.6	12.5		50.0
7)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16.9	14.1	12.7	12.7	18.2	14.7	6.9	4.3		10.6	10.8	18.8	14.3	15.6	20.0	8.2	13.2	12.5	5.0	
8) 아트페어 지원 정책 (KIAF 등).....	15.6	15.5	13.9	11.6	9.1	12.8	13.8	8.7	13.8	17.6	8.1			7.8	10.0	13.6	9.4		10.0	25.0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10.4	11.3	13.9	11.6	9.1	11.2	13.8	13.0	3.4	12.9	16.2	6.3		17.2	35.0	17.3	3.8	25.0	5.0	12.5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	11.7	19.7	8.7	8.6		8.4	10.3	4.3	3.4	11.8			14.3	15.6	20.0	11.8	15.1	12.5		
13) 문화중심도시	7.8	14.1	8.1	8.7		8.0	6.9	13.0	3.4	5.9	5.4	6.3	14.3	7.8	20.0	18.2	11.3		5.0	
98) 없음	1.3		6.6	7.9		6.9	12.1	4.3	17.2	8.2	5.4	6.3		10.9	5.0	3.6	7.5		5.0	
6) 복권기금	5.2	5.6	5.1	6.5		5.8		4.3	10.3	2.4	13.5			12.5	20.0	5.5	5.7	12.5		12.5
11) 조세지원제도	6.5	12.7	4.8	4.6		5.6	8.6	4.3		2.4	2.7			4.7	5.0	2.7	5.7	12.5	10.0	12.5
12) 책임운영기관		4.2	1.8	2.7		2.5		8.7		2.4	5.4			3.1	5.0	1.8	3.8		5.0	
기타	5.2	4.2	2.4	2.3		2.1		4.3	3.4	3.6				4.8		3.6	1.9		5.0	

문12. 각 기관의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3)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다	58.4	59.2	57.1	46.2	56.0	61.7	66.7	51.1	50.0	48.7	61.1	28.6	29.4	58.3	57.9	60.4	56.0	62.6	25.0	46.7	58.8	58.6	59.1	59.8	53.8	61.0	57.9	58.3	40.0
8) 지원금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음 .	51.5	48.4	57.8	46.2	51.8	53.3	54.0	46.7	37.8	66.7	55.6	14.3	29.4	54.4	54.7	49.1	46.9	52.7	33.3	53.3	54.9	51.6	48.6	51.3	42.3	56.3	49.8	51.0	80.0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50.0	52.1	45.9	46.2	47.9	51.7	56.9	52.2	34.4	41.0	42.6	100.0	58.8	50.5	50.0	52.2	45.5	53.8	16.7	51.1	55.8	47.5	46.6	49.7	61.5	45.5	50.9	54.8	20.0
4) 지원 신청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46.9	44.7	51.1	46.2	53.6	46.7	44.8	50.0	35.6	30.8	44.4	28.6	35.3	44.1	47.9	44.6	50.7	51.6	25.0	48.9	47.1	41.9	52.4	48.7	46.2	47.5	48.2	45.8	20.0
1) 지원 금액이 적다	41.7	46.9	31.2	38.5	38.6	43.5	40.8	40.2	44.4	53.8	35.2	42.9	41.2	41.7	36.2	46.2	42.6	50.5	8.3	46.7	39.6	39.6	44.1	43.4	50.0	38.8	44.5	41.3	
6) 신청서 등의 작성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다	32.2	31.8	33.3	23.1	30.4	32.3	29.3	44.6	25.6	41.0	38.9		35.3	25.5	33.6	32.8	35.9	31.9	16.7	26.7	32.1	32.2	33.5	32.8	23.1	34.6	31.6	30.8	20.0
5) 기간 내에 사업을 계획/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30.9	33.2	27.1		31.6	32.9	27.6	32.6	20.0	30.8	38.9		23.5	27.9	26.4	32.0	39.7	35.2	16.7	24.4	29.2	32.4	28.8	36.0	23.1	30.5	32.9	29.8	
7) 지원금에 대한 제약이 많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 ..	24.6	25.5	23.4	7.7	22.6	26.9	19.0	31.5	18.9	28.2	31.5	14.3	17.6	26.5	23.8	24.9	25.4	23.1	8.3	15.6	25.6	27.0	24.0	20.1	26.9	27.4	25.2	22.8	20.0
996) 무응답	2.7	2.6	2.5	15.4	3.0	1.9	1.1	4.3	7.8	2.6			11.8	1.5	2.1	2.1	3.8	2.2	50.0	4.4	1.3	2.0	2.6	5.8	7.7	2.6	2.6	1.8	
기타	6.4	5.4	5.2	7.7	5.7	6.6	3.6	4.4	4.4	7.8	9.5			5.5	3.4	5.5	9.4	8.8	8.3	4.3	4.6	4.9	6.3	5.7	11.4	7.2	3.9	6.2	

문12. 각 기관의 지원정책 실행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3)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다	50.6	50.7	57.8	59.3	54.5	59.8	53.4	47.8	62.1	49.4	83.8	37.5	57.1	64.1	45.0	60.9	50.9	62.5	50.0	12.5
8) 지원금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음 .	37.7	36.6	48.8	53.7	45.5	55.5	51.7	47.8	41.4	45.9	48.6	43.8	28.6	57.8	35.0	41.8	37.7	50.0	50.0	25.0
2)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44.2	50.7	47.3	51.0	36.4	51.2	50.0	34.8	27.6	43.5	54.1	31.3	71.4	50.0	60.0	53.6	49.1	75.0	55.0	12.5
4) 지원 신청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42.9	45.1	49.7	46.0	45.5	49.4	48.3	30.4	31.0	54.1	48.6	50.0	42.9	35.9	60.0	42.7	34.0	37.5	45.0	12.5
1) 지원 금액이 적다	44.2	57.7	39.8	41.2	36.4	39.8	39.7	34.8	44.8	41.2	56.8	37.5	71.4	37.5	45.0	46.4	52.8	37.5	50.0	37.5
6) 신청서 등의 작성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다	32.5	29.6	31.3	32.6	45.5	35.2	31.0	47.8	17.2	25.9	27.0	31.3	14.3	29.7	20.0	27.3	28.3		40.0	25.0
5) 기간 내에 사업을 계획/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28.6	33.8	27.7	31.8	27.3	32.7	27.6	34.8	20.7	22.4	37.8	25.0	14.3	29.7	35.0	27.3	24.5	37.5	50.0	25.0
7) 지원금에 대한 제약이 많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 ..	16.9	28.2	21.4	25.6	18.2	23.3	22.4	30.4	27.6	21.2	40.5	31.3	42.9	18.8	50.0	20.9	34.0	37.5	35.0	12.5
996) 무응답	9.1	4.2	4.2	1.6	36.4	2.4	1.7	4.3		2.4	2.7	12.5		1.6	5.0	3.6				50.0
기타	9.1	5.6	5.7	5.3	9.1	5.7	5.1		10.2	4.8	2.7			4.8	10.0	6.3		25.0	10.0	

문19. 00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무학	.2	.2					.6				1.9				.2	.3					.3	.2				.3	.2		
2) 초등학교 졸	.4	.6			.6	.4	.6									.5	1.4					.2	1.3		1.3			
3) 중졸	.2	.2	.2					1.1	2.2						.5		.5						.3	1.1		.3	.4		
4) 고졸	4.6	5.1	3.4	7.7	6.3	3.3	.6	4.3	18.9			14.3		1.0	3.5	6.8	7.2	3.3			.3	4.7	8.3	6.9		4.4	5.7	1.8	
5) 대재,대졸	25.1	25.2	24.8	23.1	18.7	34.4	12.1	23.9	36.7	7.7	13.0	14.3	23.5	25.5	23.1	23.9	27.3	30.8	41.7	31.1	16.2	23.9	27.8	32.8	50.0	28.4	24.3	19.3	60.0
6) 대학원 재학, 수료	10.9	10.4	11.7	23.1	15.1	11.7	8.0	5.4	6.7	7.7	5.6	14.3	11.8	22.5	8.2	6.3	12.4	13.2	16.7	37.8	14.0	5.9	8.6	15.9	7.7	14.0	11.2	7.8	20.0
7) 석사,박사	57.8	57.3	59.4	38.5	58.1	50.0	77.6	65.2	32.2	84.6	79.6	57.1	52.9	50.5	64.0	62.2	48.8	52.7	16.7	31.1	69.2	64.2	52.1	42.9	38.5	50.9	57.5	71.0	20.0
996) 무응답	.8	.9	.5	7.7	1.2	.2	.6		3.3				11.8	.5	.5		2.4		25.0			.9	1.6	.5	3.8	.5	.7	.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19. 00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무학		2.8				.1								1.6						
2) 초등학교 졸		7.0				.4								1.6					5.0	
3) 중졸		4.2				.1										1.8				
4) 고졸	14.3	85.9				3.4	6.9	8.7		3.5	8.1		14.3	6.3	15.0	8.2	7.5		5.0	
5) 대재,대졸	40.3		100.0			19.8	46.6	47.8	10.3	25.9	29.7	37.5	42.9	23.4	30.0	35.5	43.4	50.0	20.0	25.0
6) 대학원 재학, 수료	10.4			15.9		12.3	1.7	8.7	10.3	9.4	18.9	12.5		6.3	10.0	11.8	7.5	12.5	5.0	
7) 석사,박사	28.6			84.1		63.3	44.8	34.8	79.3	61.2	40.5	50.0	42.9	59.4	45.0	40.9	41.5	37.5	65.0	37.5
996) 무응답	6.5				100.0	.5					2.7			1.6		1.8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6. 00님은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예	67.1	67.1	67.4	53.8	67.2	67.9	58.6	77.2	67.8	71.8	68.5	57.1	58.8	61.3	69.4	70.6	65.1	60.4	58.3	42.2	69.2	72.7	68.1	54.0	73.1	43.9	73.5	88.5	20.0
2) 아니오	32.5	32.4	32.3	38.5	31.9	32.1	41.4	21.7	31.1	28.2	31.5	42.9	35.3	38.7	30.6	29.4	34.4	38.5	8.3	55.6	30.8	27.3	31.3	45.0	23.1	55.8	26.5	11.3	80.0
996) 무응답	.5	.5	.2	7.7	.9			1.1	1.1				5.9				.5	1.1	33.3	2.2			.6	1.1	3.8	.3		.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6. 00님은 창작활동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예	37.7	45.1	57.8	72.6	36.4	64.8	70.7	69.6	79.3	78.8	54.1	81.3	85.7	65.6	85.0	70.9	71.7	62.5	45.0	50.0
2) 아니오	57.1	53.5	42.2	27.2	36.4	35.1	29.3	30.4	20.7	21.2	43.2	18.8	14.3	34.4	15.0	28.2	28.3	37.5	55.0	12.5
996) 무응답	5.2	1.4		.2	27.3	.1					2.7					.9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6-1.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입니까?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889)	(588)	(294)	(7)	(223)	(353)	(102)	(71)	(61)	(28)	(37)	(4)	(10)	(125)	(297)	(269)	(136)	(55)	(7)	(19)	(213)	(323)	(213)	(102)	(19)	(170)	(335)	(354)	(1)
1) 교직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등).....	78.9	77.6	81.3	85.7	83.9	77.3	83.3	78.9	60.7	89.3	78.4	75.0	60.0	78.4	75.4	81.8	80.9	81.8	57.1	52.6	82.2	80.5	78.9	70.6	84.2	68.2	77.0	86.2	100.0
3) 자영업	8.0	9.2	5.8		6.3	8.8	7.8	8.5	11.5	3.6	5.4	25.0	10.0	7.2	9.8	6.7	8.8	3.6	14.3	15.8	4.7	9.3	6.6	12.7	5.3	8.2	8.7	6.5	
4) 일반 사무직	1.3	1.5	.7	14.3	.9	1.1	1.0	1.4	6.6					.8	2.0	1.5	.7			5.3	.9	1.9	1.4			.6	1.8	1.4	
2) 언론	1.0	1.2	.7		.9	1.1			1.6		5.4				1.7	.7	.7	1.8			1.4	.9	.9	1.0		1.2	1.5	.6	
996) 무응답	.8	.9	.7		.9	.6		1.4	3.3					.8	.7	.4	1.5		14.3		.9	.6	1.4			1.8	1.2		
기타	10.0	9.6	10.8		7.1	11.1	7.9	9.8	16.3	7.1	10.8		30.0	12.8	10.7	8.9	7.4	12.8	14.3	26.3	9.9	6.8	10.6	15.7	10.5	20.0	9.8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6-1.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입니까?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29)	(32)	(192)	(661)	(4)	(510)	(41)	(16)	(23)	(67)	(20)	(13)	(6)	(42)	(17)	(78)	(38)	(5)	(9)	(4)
1) 교직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등).....	72.4	15.6	62.5	86.5	100.0	83.5	82.9	68.8	73.9	89.6	75.0	84.6	66.7	83.3	70.6	52.6	60.5	60.0	55.6	100.0
3) 자영업	17.2	43.8	14.6	4.4		5.9	9.8	12.5	8.7	4.5	15.0	15.4	16.7	7.1	17.6	16.7	5.3	20.0	22.2	
4) 일반 사무직		12.5	1.0	.9		.4	2.4	6.3					16.7			3.8	10.5			
2) 언론		3.1	2.1	.6		1.2										3.8				
996) 무응답			3.1	.2		.6					5.0					2.6	2.6			
기타	10.4	25.0	16.7	7.4		8.4	4.9	12.4	17.4	5.9	5.0			9.6	11.8	20.5	21.1	20.0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27. 00님의 월평균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없음	30.4	26.9	37.6	23.1	33.4	31.2	25.9	28.3	26.7	33.3	27.8	42.9	23.5	42.2	32.2	22.3	28.2	33.0	41.7	40.0	36.4	25.7	27.2	34.4	34.6	35.1	30.7	30.5	
2) 1만원 ~ 100만원 미만	27.6	25.5	32.1	23.1	28.3	27.9	27.0	32.6	24.4	25.6	25.9	28.6	11.8	31.4	30.4	28.3	20.6	20.9	16.7	42.2	32.1	29.3	21.7	24.9	11.5	48.1	24.1	15.3	20.0
3) 100만원~200만원 미만	14.7	16.2	11.9	7.7	13.9	13.3	15.5	14.1	18.9	23.1	22.2		11.8	13.2	13.6	13.6	21.5	14.3		11.1	14.0	14.4	17.9	12.7	11.5	8.5	20.6	12.5	
4) 200만원~300만원 미만	8.5	9.8	6.0	7.7	7.8	8.7	8.6	12.0	6.7	7.7	9.3	14.3	5.9	7.4	8.2	9.7	8.6	8.8		2.2	7.5	9.9	10.2	5.8	7.7	3.1	12.5	8.5	
5) 300만원~400만원 미만	3.6	5.1	.7		3.0	3.1	6.3	3.3	4.4	2.6	5.6			1.0	4.2	3.4	6.2	2.2			2.6	3.6	6.4	1.6	3.8	.8	1.5	9.0	
6) 400만원~500만원 미만	2.0	2.6	.9		1.2	1.5	3.4		5.6	2.6	5.6				1.4	5.0	1.0					4.7	1.6	.5		.8	1.1	4.0	
7) 500만원~600만원 미만	1.7	2.4	.2		.9	2.5	1.1	1.1	2.2	2.6					1.2	2.6	2.4	2.2			.6	1.8	1.9	3.2		.5	.4	4.0	
8) 600만원~700만원 미만	.5	.8				.4	1.7	1.1	1.1						.7	.5	1.0					.9	.6	.5		.5		1.3	
9) 700만원~800만원 미만	.2	.2	.2			.4		1.1							.2	.5					.3	.2	.3			.3		.3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2	.3				.4		1.1								.8						.2	.6			.3		.5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2	.3					.6		1.1				5.9			.8						.7				.3		.5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5	.6	.2		.6		2.3								.7	.5		1.1			.3	.7	.3	.5			.4	.5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3	.5				.6	.6								.5	.5						.5	.3		3.8		.4	.5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2	.2				.4								.5		.3					.3	.2				.3			
16) 3,000만원 이상	.4	.6			.3	.4	.6				1.9				.5	.5		1.1				.9		.5				1.0	20.0
95) 불규칙	.6	.3	1.1		.9	.6		1.1					5.9	.5	.2	.8	1.0	1.1			.6	.2	1.0	1.1				.8	60.0
98) 없음	.5	.2	.7	7.7	.3	.8			1.1						.5	.3	1.0	1.1			.3		.6	1.6			.9	.3	
99) 모름	.2	.3					.6			2.6			5.9		.2	.5					.3	.2	.3				.2	.5	
996) 무응답	7.6	7.0	8.3	30.8	9.3	8.1	5.7	4.3	7.8		1.9	14.3	29.4	3.9	5.4	8.9	8.6	14.3	41.7	4.4	4.5	5.9	8.9	12.7	26.9	1.6	7.0	1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129.1	158.9	69.3	68.7	96.4	132.5	186.7	116.6	143.9	103.9	118.2	58.3	190.0	74.1	120.6	180.5	122.4	122.6	14.2	45.3	60.6	162.8	144.4	100.0	194.7	72.8	113.7	183.5	50.0

(continued)

문27. 00님의 월평균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없음	6.5	32.4	31.3	30.2	9.1	28.8	39.7	26.1	27.6	28.2	18.9		28.6	31.3	30.0	45.5	41.5	25.0	20.0	25.0
2) 1만원 ~ 100만원 미만	10.4	29.6	24.1	28.8	27.3	27.1	20.7	43.5	44.8	21.2	43.2	25.0	42.9	32.8	10.0	23.6	28.3	50.0	45.0	
3) 100만원~200만원 미만	23.4	15.5	15.4	14.3	27.3	16.8	3.4	8.7	17.2	24.7	13.5	25.0		18.8	10.0	6.4	3.8	12.5		
4) 200만원~300만원 미만	13.0	4.2	9.6	8.5	9.1	10.0	6.9	8.7		7.1	8.1	6.3	28.6	6.3	10.0	3.6	9.4	12.5		
5) 300만원~400만원 미만	2.6	4.2	3.9	3.5		4.4	5.2			3.5					5.0	3.6			10.0	
6) 400만원~500만원 미만	3.9	1.4	1.2	2.4		2.5	1.7			2.4		6.3		3.1		.9				
7) 500만원~600만원 미만	2.6	1.4	1.2	1.9		1.8	1.7		3.4							1.8			10.0	25.0
8) 600만원~700만원 미만			.3	.7		.8								1.6						
9) 700만원~800만원 미만	1.3		.3	.2		.3	1.7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3	.2		.1						6.3			5.0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3		.3													5.0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2.6	1.4	.3	.4		.5				1.2									5.0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3	.3		.3		8.7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1.3			.2		.3														
16) 3,000만원 이상			.3	.4		.1						6.3		1.6		.9			5.0	
95) 불규칙	2.6		1.5	.3		.6	3.4								5.0					
98) 없음	1.3	1.4	1.5			.3	3.4				2.7						1.9			
99) 모름				.3		.3										.9				
996) 무응답	28.6	8.5	8.4	7.0	27.3	4.8	12.1	4.3	6.9	11.8	13.5	25.0		4.7	25.0	12.7	15.1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302.8	113.2	117.9	134.5	106.2	142.0	100.0	263.6	72.2	123.3	74.1	222.7	92.8	90.0	157.1	67.0	52.2	75.0	276.3	275.0

문28. 00님의 월평균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없음	9.3	7.1	13.8	7.7	10.2	10.2	7.5	6.5	11.1	7.7	1.9	14.3	11.8	12.3	9.8	7.6	9.6	5.5	16.7	24.4	9.4	8.3	9.9	7.9		31.8			
2) 1만원 ~ 100만원 미만	19.9	16.3	26.8	30.8	18.4	21.7	23.6	16.3	8.9	17.9	25.9	14.3	23.5	39.2	22.4	13.4	13.4	9.9		42.2	32.8	16.2	15.3	10.1	19.2	68.2			
3)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	18.7	22.7	15.4	22.0	17.9	19.5	14.1	26.7	17.9	31.5		23.5	21.1	24.8	18.6	12.0	17.6	33.3	28.9	26.6	21.6	13.1	14.8	19.2		58.1		
4) 200만원~300만원 미만	14.4	15.8	11.9	7.7	12.3	14.2	10.3	21.7	20.0	23.1	18.5		5.9	13.7	16.8	14.4	11.5	13.2		2.2	17.5	16.2	11.2	11.6	26.9		41.9		
5) 300만원~400만원 미만	12.3	13.7	9.6	7.7	12.0	13.8	11.5	10.9	12.2	7.7	11.1	14.3		8.3	12.1	13.1	15.3	12.1	8.3	2.2	7.1	15.1	12.5	15.9	15.4			40.8	
6) 400만원~500만원 미만	6.3	8.0	3.0		5.4	5.6	7.5	13.0	3.3	7.7	5.6		11.8	2.5	3.3	11.0	8.1	5.5			1.0	7.0	12.1	5.8				20.8	
7) 500만원~600만원 미만	6.0	6.6	5.0		6.6	4.6	6.3	10.9	5.6	10.3	3.7	28.6		1.0	3.5	7.3	12.0	9.9	8.3		1.3	5.0	11.2	9.5	3.8			20.0	
8) 600만원~700만원 미만	1.6	2.1	.5	7.7	.9	1.5	4.0	1.1	1.1	2.6					.7	2.6	1.4	4.4	8.3		.3	1.6	2.2	3.2				5.3	
9) 700만원~800만원 미만	.8	.9	.5	7.7		1.3	1.1	1.1		2.6					.5	1.0	1.9	1.1					1.6	2.6	3.8			2.8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5	.7		7.7	.9	.4			1.1			14.3			.2	.5	1.4	1.1				.2	1.0	1.6				1.8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3	.3	.2		.3	.4				2.6				.5		.5	.5						1.0	.5				1.0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7	.8	.5			.6	1.7		2.2				5.9		.5	.5	1.0	3.3			.6	.5	.6	1.6				2.3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	.1				.2										.3							.3					.3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2	.1	.2		.3	.2									.2	.3					.3	.2						.5	
16) 3,000만원 이상	1.4	1.8	.7		1.5	1.3	2.3		2.2		1.9			.5	1.4	1.6	1.4	3.3				1.6	1.9	2.6	3.8			4.8	
91) 연금	.1	.1				.2												1.1						.5					20.0
95) 불규칙	.2	.2	.2		.6	.2									.2		.5	1.1			.3		.3	.5					60.0
98) 없음	.1	.1					.6									.3						.2							20.0
996) 무응답	5.8	6.5	4.4	7.7	8.4	5.6	4.0	4.3	5.6			14.3	17.6	1.0	3.5	6.8	10.0	11.0	25.0		2.6	6.3	5.8	11.1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235.5	262.8	181.2	279.1	222.7	231.0	249.0	267.0	246.3	271.7	194.3	391.6	228.5	137.8	198.2	282.6	297.2	326.9	238.8	77.7	158.8	234.4	296.0	316.1	236.9	34.1	191.8	492.2	

(continued)

문28. 00님의 월평균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수입)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없음		16.9	11.7	7.8	9.1	9.9	6.9	4.3	17.2	2.4	13.5	6.3	14.3	12.5		8.2	11.3		10.0	12.5
2) 1만원 ~ 100만원 미만		16.9	21.4	19.8	9.1	20.6	6.9	34.8	20.7	12.9	27.0		14.3	31.3	15.0	21.8	13.2	12.5	35.0	
3) 100만원~200만원 미만		23.9	18.7	20.2	18.2	20.5	20.7	8.7	13.8	25.9	18.9	6.3	14.3	15.6	20.0	19.1	32.1		10.0	12.5
4) 200만원~300만원 미만		16.9	14.8	14.2	9.1	12.5	12.1	17.4	10.3	21.2	24.3	25.0	28.6	12.5	15.0	16.4	18.9	75.0	5.0	
5) 300만원~400만원 미만		5.6	13.3	12.6		11.9	22.4	13.0	6.9	11.8	2.7	37.5	14.3	9.4	20.0	13.6	11.3		5.0	12.5
6) 400만원~500만원 미만		1.4	3.3	7.8		6.9	5.2	8.7	10.3	4.7	2.7			10.9	15.0	2.7	3.8	12.5		
7) 500만원~600만원 미만		1.4	3.6	7.2	9.1	6.4	8.6		13.8	7.1	2.7				5.0	6.4	5.7		10.0	12.5
8) 600만원~700만원 미만			.6	2.1		2.2				2.4				3.1						
9) 700만원~800만원 미만			.3	1.1		.6								3.1	10.0	.9				12.5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8		.5				1.2						.9	1.9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3	.3		.4													5.0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9	.7		.5	1.7			2.4		6.3							5.0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		.1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2		.3														
16) 3,000만원 이상		1.4	.9	1.6		1.4	1.7		3.4				14.3			1.8	1.9		10.0	
91) 연금				.1				4.3												
95) 불규칙			.6	.1		.3	1.7													
98) 없음			.3									6.3								
996) 무응답	100.0	15.5	9.3	3.3	45.5	5.2	12.1	8.7	3.4	8.2	8.1	12.5		1.6		8.2			5.0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144.9	199.3	254.3	191.6	237.0	278.5	182.5	218.5	276.9	151.4	346.1	175.0	199.2	315.0	211.1	209.6	250.0	267.6	360.0

문29. 00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지출)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325	(876)	(436)	(13)	(332)	(520)	(174)	(92)	(90)	(39)	(54)	(7)	(17)	(204)	(428)	(381)	(209)	(91)	(12)	(45)	(308)	(444)	(313)	(189)	(26)	(387)	(456)	(400)	(5)
1) 없음	1.3	1.5	.7	7.7	.9	1.2	1.7	2.2	3.3						1.6	.8	1.9	3.3			1.0	.9	1.6	2.6		3.4	.7	.3	
2) 1만원 ~ 100만원 미만	20.5	16.9	27.8	23.1	25.3	21.2	15.5	19.6	13.3	15.4	16.7		35.3	41.7	22.0	14.7	13.4	8.8	8.3	62.2	30.5	17.6	12.5	13.8	26.9	47.5	14.3	2.3	
3) 100만원~200만원 미만	26.2	25.1	28.2	30.8	24.7	27.1	25.9	23.9	27.8	20.5	35.2	14.3	23.5	34.3	30.8	22.3	19.6	16.5	33.3	31.1	39.9	24.3	17.9	21.7	19.2	26.1	41.9	10.5	20.0
4) 200만원~300만원 미만	19.2	20.1	17.7	15.4	16.6	19.0	16.1	23.9	22.2	33.3	24.1	42.9	11.8	15.7	20.3	19.9	17.7	25.3		4.4	16.9	23.9	17.9	19.0	11.5	13.2	28.9	15.8	
5) 300만원~400만원 미만	15.5	16.6	13.8		15.4	15.6	14.4	19.6	18.9	10.3	11.1	14.3	11.8	4.4	14.0	19.2	21.1	17.6	25.0	2.2	7.1	18.2	19.2	20.1	11.5	6.2	8.3	34.3	20.0
6) 400만원~500만원 미만	5.1	6.3	2.8		4.2	4.0	8.6	4.3	5.6	10.3	7.4			2.0	3.3	6.8	8.6	5.5			1.9	4.5	7.7	7.9	7.7	1.6	2.4	11.8	
7) 500만원~600만원 미만	4.6	4.8	4.1	7.7	4.5	5.2	5.2	3.3	1.1	2.6	5.6	14.3	5.9		3.5	5.8	8.1	7.7			.3	3.8	9.9	4.8	11.5	1.0	1.5	12.3	
8) 600만원~700만원 미만	1.5	1.9	.5	7.7	.9	1.7	2.9	1.1		2.6		14.3		1.0	.7	1.8	2.4	2.2	8.3			1.1	3.5	2.1		.3	.2	4.3	
9) 700만원~800만원 미만	.5	.8			.3	.4	1.1			2.6			5.9			.5	1.4	2.2				.5	.6	1.6		.3		1.5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5	.6	.5		.3	.6	.6	1.1	1.1							1.0	1.0	1.1				.2	1.6	.5			.2	1.3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2	.1	.2		.3		.6									.5						.5						.5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5	.6	.2		.3	.4	1.7									.8	.5	2.2				.5	.3	1.6				1.3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2	.2					1.1								.5							.5						.3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	.1			.3										.2							.2						.3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2	.3			.6		.6								.2	.3		1.1				.5		.5				.5	20.0
16) 3,000만원 이상	.5	.7	.2		.3	.2	1.7		2.2						.5	.8	.5	1.1				.5	1.0	.5	3.8			1.8	
95) 불규칙	.2	.1	.2		.6										.2		.5				.3		.3						40.0
99) 모름	.2	.1	.2			.2				2.6						.3	.5					.2	.3					.3	
996) 무응답	3.2	3.2	3.0	7.7	4.5	3.3	2.3	1.1	4.4				5.9	1.0	2.1	4.5	2.9	5.5	25.0		1.9	2.3	5.8	3.2	7.7	.5	1.5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245.6	267.5	202.9	204.1	242.5	232.4	311.9	230.2	225.6	260.5	224.0	350.0	212.5	143.5	221.7	282.6	290.5	341.1	261.1	96.6	156.4	265.7	301.2	294.7	236.9	134.5	197.1	403.1	1,083.3

(continued)

문29. 00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비예술활동을 포함한 지출)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77)	(71)	(332)	(911)	(11)	(787)	(58)	(23)	(29)	(85)	(37)	(16)	(7)	(64)	(20)	(110)	(53)	(8)	(20)	(8)
1) 없음		2.8	1.8	1.0		.8	5.2		3.4	1.2		12.5		1.6	5.0	.9	1.9			
2) 1만원 ~ 100만원 미만	18.2	32.4	23.5	18.7	9.1	19.8	24.1	43.5	20.7	14.1	35.1	18.8	14.3	25.0	10.0	24.5	9.4	12.5	25.0	12.5
3) 100만원~200만원 미만	15.6	28.2	25.9	26.0	36.4	25.0	17.2	17.4	27.6	36.5	24.3	25.0	14.3	25.0	35.0	29.1	32.1	37.5	30.0	25.0
4) 200만원~300만원 미만	11.7	15.5	18.4	20.0	9.1	17.4	19.0	21.7	13.8	24.7	24.3		57.1	26.6	15.0	20.9	34.0	12.5	5.0	12.5
5) 300만원~400만원 미만	6.5	14.1	16.0	15.6		17.5	19.0	8.7	17.2	9.4	8.1	25.0		12.5	30.0	10.9	7.5	25.0	5.0	12.5
6) 400만원~500만원 미만	3.9	1.4	4.5	5.5	9.1	5.8		4.3	3.4	8.2	2.7			1.6		3.6	7.5	12.5	5.0	
7) 500만원~600만원 미만	1.3		3.0	5.6		6.0	1.7		3.4	1.2		6.3		3.1		3.6	3.8		10.0	
8) 600만원~700만원 미만	1.3		.3	2.1		1.9	3.4			1.2						.9			5.0	
9) 700만원~800만원 미만				.8		.8								1.6						
10) 800만원~900만원 미만	1.3		.9	.4		.5	1.7								5.0				5.0	
11) 900만원~1,000만원 미만 ..				.2		.1													5.0	
12)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3			.7		.8														
1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3		.3	.1		.1													5.0	
14)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		.1														
15) 2,500만원~3,000만원 미만			.3	.2		.1						6.3					1.9			
16) 3,000만원 이상		1.4	.6	.4		.5			3.4				14.3			.9				
95) 불규칙			.3	.1		.1	1.7													
99) 모름	1.3		.3	.1		.1	1.7													
996) 무응답	36.4	4.2	3.9	2.4	36.4	2.4	5.2	4.3	6.9	3.5	5.4	6.3		3.1		4.5	1.9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단위(만원)]	268.7	161.9	223.9	260.1	192.8	261.5	216.9	159.0	201.9	215.2	164.2	363.3	200.0	202.4	242.5	199.5	275.9	237.5	375.0	190.0

문31-1. [작품을 판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판매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078	(730)	(338)	(10)	(264)	(444)	(144)	(77)	(64)	(35)	(33)	(5)	(12)	(150)	(333)	(322)	(191)	(78)	(4)	(31)	(224)	(376)	(273)	(154)	(20)	(294)	(365)	(349)	(5)
4) 일반 개인	63.1	63.0	63.9	40.0	60.2	68.0	53.5	71.4	48.4	77.1	51.5	60.0	75.0	66.0	67.6	61.5	58.6	55.1	75.0	71.0	68.3	62.5	65.2	50.6	70.0	61.6	63.3	65.0	40.0
5) 지인	40.4	38.5	44.7	30.0	41.7	43.7	25.0	40.3	54.7	48.6	30.3	40.0		36.7	38.1	48.8	37.7	30.8		35.5	33.0	46.0	42.9	36.4	20.0	40.8	41.9	39.3	20.0
3) 공공기관	20.9	23.0	16.3	20.0	24.2	16.9	29.9	10.4	12.5	34.3	39.4	20.0	8.3	12.0	18.9	22.0	25.7	30.8		9.7	14.3	20.5	25.3	26.6	15.0	17.7	17.8	27.2	
1) 미술은행	13.9	15.8	10.1	10.0	17.4	9.7	15.3	7.8	12.5	37.1	24.2	40.0	16.7	10.7	15.3	14.9	14.7	9.0		6.5	16.5	12.8	17.6	8.4	10.0	14.3	14.8	13.2	
2) 기업	13.0	14.1	10.9		10.2	13.1	24.3	5.2		17.1	24.2		16.7	12.7	11.1	15.8	12.6	11.5		19.4	12.1	13.6	13.6	11.0	10.0	14.3	9.3	15.8	40.0
6) 친척	9.7	8.4	12.4	20.0	14.0	9.2	2.8	15.6	6.3	11.4	6.1		8.3	11.3	10.8	7.5	11.0	9.0		22.6	9.4	9.3	8.8	10.4	10.0	10.5	9.9	8.9	40.0
996) 무응답	3.2	3.3	2.4	20.0	3.0	4.1	1.4	2.6	4.7				8.3	5.3	1.5	2.2	4.2	6.4	25.0	3.2	3.6	1.1	4.4	4.5	10.0	1.7	2.7	4.3	
기타	3.9	3.0	4.8		4.0	3.5	4.9	3.9		5.8	3.0	20.0		4.1	4.8	2.1	4.6	2.6		9.6	4.2	2.8	2.6	6.0		4.0	3.6	3.3	

문31-1. [작품을 판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판매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65)	(51)	(268)	(752)	(7)	(670)	(47)	(18)	(19)	(73)	(28)	(14)	(4)	(42)	(15)	(83)	(37)	(8)	(18)	(2)
4) 일반 개인	60.0	49.0	63.8	63.6	85.7	64.5	66.0	55.6	52.6	78.1	57.1	64.3	50.0	42.9	53.3	51.8	64.9	62.5	77.8	50.0
5) 지인	36.9	43.1	45.1	38.2	71.4	40.6	40.4	44.4	36.8	42.5	28.6	35.7	50.0	54.8	46.7	38.6	35.1	25.0	33.3	
3) 공공기관	20.0	13.7	14.6	23.4	42.9	24.2	17.0	22.2	5.3	8.2	14.3			23.8	13.3	16.9	16.2	37.5	22.2	50.0
1) 미술은행	12.3	11.8	6.3	16.8	14.3	18.2	6.4	5.6	10.5	2.7	10.7			14.3		6.0	2.7	12.5	16.7	50.0
2) 기업	10.8	7.8	9.7	14.5	14.3	16.1	6.4	5.6	10.5	5.5	14.3	21.4	25.0	11.9	6.7	2.4	2.7		22.2	50.0
6) 친척	7.7	9.8	7.5	10.5	14.3	10.3	17.0	16.7	10.5	8.2	3.6			7.1	6.7	4.8	13.5		11.1	50.0
996) 무응답	6.2	3.9	3.7	2.9		2.7	4.3	5.6	10.5		7.1			2.4	6.7	3.6	8.1		5.6	
기타	6.0	2.0	2.0	3.5		4.7	2.1	5.6								1.2				

문31-2. 작품 판매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078	(730)	(338)	(10)	(264)	(444)	(144)	(77)	(64)	(35)	(33)	(5)	(12)	(150)	(333)	(322)	(191)	(78)	(4)	(31)	(224)	(376)	(273)	(154)	(20)	(294)	(365)	(349)	(5)
4) 지인	54.2	55.6	50.9	60.0	58.0	55.4	45.8	53.2	65.6	51.4	30.3	60.0	41.7	46.0	52.9	58.4	56.0	52.6	75.0	51.6	46.0	57.7	57.1	53.2	50.0	53.7	55.3	53.9	40.0
1) 화랑	35.6	35.5	35.8	40.0	26.9	43.0	40.3	35.1	4.7	51.4	42.4		16.7	34.7	40.5	36.6	29.8	26.9	25.0	48.4	34.4	38.3	35.5	29.2	30.0	31.6	35.9	40.7	20.0
3) 아트페어 등 견본시	17.3	14.2	24.0	20.0	18.6	18.9	12.5	20.8	9.4	28.6	9.1		8.3	17.3	18.6	19.3	14.1	11.5	25.0	22.6	17.0	20.5	15.4	13.0	15.0	17.3	16.7	18.3	
996) 무응답	6.5	7.1	5.0	10.0	6.8	5.6	6.3	5.2	14.1	2.9			33.3	5.3	6.0	5.3	8.4	11.5		3.2	3.6	4.0	9.9	10.4	15.0	4.1	5.5	9.2	20.0
11) 개인전	3.7	3.3	4.7		4.9	3.4	.7	3.9	7.8	2.9	6.1			5.3	4.5	2.8	3.7	1.3		9.7	5.4	4.0	2.9	1.3		4.8	4.1	2.6	20.0
17) 전시회	3.2	3.0	3.8		3.4	2.5	4.2	1.3	4.7	2.9	6.1		16.7	3.3	2.1	3.4	4.2	5.1		3.2	3.6	1.9	3.7	4.5	10.0	3.1	3.3	2.3	
12) 공모전	1.6	1.5	1.5	10.0	1.9	.7	4.2			2.9	3.0		8.3	2.7	1.8	1.6	1.0				1.8	2.1	1.5		5.0	3.4	1.4	.6	
31) 직거래	1.3	1.2	1.5		1.5	.9	1.4	1.3		8.6				2.7	1.2	1.6	.5				3.1	1.1	1.1			1.4	1.1	1.4	
2) 경매사	1.1	1.1	1.2		1.1	1.6	.7			2.9				1.3	1.5	.6	1.0	1.3			2.2	.5	1.8			.7	1.1	1.4	
5) 기타	9.6	8.5	8.4	10.0	10.7	8.3	9.8	9.1	1.6	8.7	21.0	40.0		8.3	7.5	7.5	11.6	15.6		3.2	8.0	10.4	7.4	14.0	5.0	7.6	8.5	10.7	20.0

문31-2. 작품 판매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65)	(51)	(268)	(752)	(7)	(670)	(47)	(18)	(19)	(73)	(28)	(14)	(4)	(42)	(15)	(83)	(37)	(8)	(18)	(2)
4) 지인	52.3	52.9	59.3	52.5	42.9	52.2	46.8	61.1	52.6	57.5	57.1	50.0	50.0	69.0	40.0	60.2	67.6	50.0	44.4	100.0
1) 화랑	26.2	15.7	32.8	38.2	14.3	39.6	46.8	16.7	21.1	49.3	17.9	57.1		23.8	26.7	15.7	13.5		44.4	50.0
3) 아트페어 등 견본시	16.9	9.8	13.4	19.3	14.3	21.0	10.6	16.7	10.5	9.6	3.6			23.8	13.3	10.8	2.7		33.3	
996) 무응답	7.7	15.7	6.3	6.0		5.4	4.3	11.1	5.3		25.0	7.1		2.4	13.3	8.4	18.9	37.5	5.6	
11) 개인전	1.5	3.9	3.4	3.7	14.3	4.6	2.1	5.6	5.3	4.1							2.7	12.5	5.6	
17) 전시회	9.2	7.8	2.6	2.8	42.9	3.3	4.3	5.6	5.3	4.1						3.6	5.4		5.6	
12) 공모전			.4	2.1		1.6			5.3		3.6			2.4		3.6				
31) 직거래	1.5		.7	1.6		1.6			5.3						6.7	1.2				
2) 경매사	1.5		1.1	1.2		1.5								2.4					5.6	
5) 기타	10.6	6.0	8.7	8.6	14.3	9.0	8.4	16.8	5.3	4.2		14.2	50.0	9.6	20.1	3.6	2.7		5.6	

문31-3. 작품 판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복수응답)

	전체	성별			장르별									활동 기간						나이						월소득			
		남	여	무응답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영상설치	해당없음	무응답	10년미만	20년미만	30년미만	40년미만	40년이상	무응답	30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이상	무응답	저	중	고	기타
Base for %.....	1078	(730)	(338)	(10)	(264)	(444)	(144)	(77)	(64)	(35)	(33)	(5)	(12)	(150)	(333)	(322)	(191)	(78)	(4)	(31)	(224)	(376)	(273)	(154)	(20)	(294)	(365)	(349)	(5)
1) 작품크기	61.3	60.7	62.7	60.0	61.0	68.7	63.2	37.7	43.8	62.9	45.5	40.0	66.7	54.7	62.8	62.4	66.0	53.8	25.0	61.3	58.0	60.1	68.1	59.7	40.0	60.9	58.1	64.8	60.0
4) 작가 인지도	36.2	39.9	28.7	20.0	35.2	34.2	38.2	35.1	46.9	28.6	54.5	40.0	25.0	28.0	33.6	40.7	41.9	32.1		22.6	31.3	36.7	43.2	33.1	30.0	32.3	33.2	43.3	
2) 작품 완성에 걸린 시간 ...	30.1	29.9	31.1	10.0	20.8	27.3	52.8	41.6	17.2	37.1	33.3		41.7	42.0	35.7	27.3	20.4	17.9	25.0	48.4	37.9	34.0	23.4	16.2	35.0	33.7	31.2	28.7	
5) 다른 작가들과의 가격 비교	29.8	30.8	26.9	50.0	26.5	32.0	25.7	27.3	26.6	34.3	45.5	60.0	33.3	24.7	33.0	31.4	28.8	21.8	25.0	12.9	28.6	32.2	32.6	22.1	45.0	30.3	29.0	33.8	20.0
6) 작품활동기간	23.7	25.3	20.1	30.0	26.1	23.2	27.1	20.8	15.6	25.7	27.3		8.3	14.7	21.0	24.8	30.9	30.8	25.0	12.9	16.1	24.2	30.0	25.3	20.0	20.4	23.3	27.5	20.0
3) 작품에 사용한 재료	20.7	19.3	24.0	10.0	10.2	13.1	54.2	39.0	7.8	20.0	39.4		41.7	25.3	26.4	18.6	13.6	12.8	25.0	35.5	28.6	22.1	15.0	12.3	25.0	27.2	19.5	19.5	
7) 수상경력	12.0	14.0	7.7	10.0	14.4	11.3	6.9	9.1	25.0	8.6	6.1	40.0	8.3	6.0	10.2	11.2	18.3	17.9	25.0	3.2	10.3	10.6	13.9	14.9	20.0	7.8	14.8	12.3	
996) 무응답	4.5	4.8	4.1		3.8	3.8	4.2	6.5	10.9	5.7	3.0		8.3	4.7	3.0	4.3	5.2	9.0	25.0		4.5	3.7	5.1	6.5	5.0	2.4	5.5	3.7	40.0
기타	3.4	2.2	5.1		4.3	2.1	2.1	5.2	1.6	8.7	6.0		8.3	7.4	3.9	3.0	.5			3.2	6.8	3.4	1.6	1.2		3.6	5.3	3.0	

문31-3. 작품 판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복수응답)

	월소득	학력				지역													
	무응답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해외	무응답
Base for %.....	(65)	(51)	(268)	(752)	(7)	(670)	(47)	(18)	(19)	(73)	(28)	(14)	(4)	(42)	(15)	(83)	(37)	(8)	(18)	(2)
1) 작품크기	63.1	49.0	62.7	61.4	85.7	64.5	68.1	55.6	57.9	57.5	53.6	71.4		59.5	40.0	50.6	48.6	62.5	61.1	100.0
4) 작가 인지도	35.4	37.3	30.6	38.2	28.6	39.0	27.7	66.7	31.6	35.6	25.0	42.9		21.4	26.7	22.9	35.1	25.0	66.7	
2) 작품 완성에 걸린 시간 ...	16.9	31.4	24.3	31.8	57.1	33.3	19.1	33.3	15.8	17.8	21.4	14.3	75.0	33.3	33.3	22.9	27.0	25.0	44.4	50.0
5) 다른 작가들과의 가격 비교	10.8	23.5	27.6	31.1	14.3	33.3	17.0	11.1	36.8	21.9	21.4	50.0		35.7	46.7	20.5	16.2	37.5	16.7	50.0
6) 작품활동기간	21.5	11.8	19.8	26.1	14.3	27.5	14.9	22.2	21.1	21.9	17.9	35.7	25.0	23.8	13.3	4.8	13.5	37.5	33.3	
3) 작품에 사용한 재료	6.2	11.8	9.3	25.3	28.6	23.3	6.4	11.1	21.1	9.6	25.0	7.1		33.3	20.0	19.3	10.8	12.5	27.8	
7) 수상경력	13.8	15.7	12.3	11.7		13.0	10.6	16.7	10.5	12.3	10.7			11.9	6.7	6.0	10.8	25.0	16.7	
996) 무응답	10.8	3.9	4.9	4.5		3.6	4.3	5.6	10.5	5.5	7.1					8.4	13.5	25.0		
기타		2.0	1.9	3.7		2.8			5.3	4.1				7.2	6.7	4.8			5.6	

김달진미술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